

# 성스러운 고백자

## 세바스티안 카라간딘스키 (포민)

목차:

---

|                                    |    |
|------------------------------------|----|
| 성스러운 고백자 세바스티안 카라간딘스키 (포민).....    | 1  |
| 스키아르히만드리트 세바스티안의 생애 .....          | 6  |
| 특별 이주자들.....                       | 14 |
| 세바스티안 신부의 카라간다 NKVD 수용소 수감 .....   | 18 |
| 세바스티안 신부님의 병 .....                 | 29 |
| 신부님의 자녀들.....                      | 43 |
| 페오도시아 페도토브나 프로코펜코(슈바게르).....       | 43 |
| 니나-호흘루슈카 .....                     | 44 |
| 아나스타시아 페트로브나 파르시나 .....            | 46 |
| 이오안 티마코프 신부, 비정규 사제, 카라간다시.....    | 47 |
| 베라 아파나시예브나 트카첸코, 신부님의 시녀.....      | 49 |
| 마리아 오브라즈초바, 신부님의 시녀 .....          | 51 |
| 이즈유모바 타티아나 아르테모브나 .....            | 56 |
| 안나 바실리에브나 자이코바 .....               | 59 |
| 마리아 바실리에브나 안드리에프스카야 .....          | 60 |
| 마트로나 티호노브나 프로로바 .....              | 62 |
| 리디아 블라디미로브나 주코바 .....              | 63 |
| 사마르체프 가족.....                      | 64 |
| 바실리 이바노비치 사마르체프 .....              | 64 |
| 니나 페트로브나 사마르체바 .....               | 65 |
|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 포포바 .....              | 65 |
| 수녀 니나 (코르슈노바).....                 | 66 |
| 타이시아 그리고리예브나 포미나 .....             | 68 |
| 안토니나 이바노바.....                     | 69 |
| 파노바 발렌티나 페트로브나 .....               | 70 |
| 흐미로프 가족.....                       | 72 |
| 수도사 세바스티안(알렉산드르 알렉세예비치 흐미로프) ..... | 72 |
| 수녀 예브니키야 (알렉산드라 플로로브나 흐미로바) .....  | 73 |
| 수도사 세바스티안 (흐미로프).....              | 75 |
| 올가 세르게예브나 마르티노바 .....              | 75 |
| 마리아 페도로브나, 올가 페도로브나 오르로바.....      | 81 |
| 마리아 페도로브나 .....                    | 81 |
| 올가 페도로브나 (바츨슈카의 주치의) .....         | 82 |
| 마리아 페도로브나 .....                    | 89 |

|                                                |     |
|------------------------------------------------|-----|
| 올가 페도로브나 .....                                 | 90  |
| 라이사 이바노브나 쿠즈미체바 .....                          | 91  |
| 타티아나 블라디미로브나 토르텐스텐 .....                       | 94  |
| 프로토디아콘 바실리 데네즈킨 .....                          | 103 |
| 프로토이레르 예우스타피이 프로코프추크, 카라간다시 성모 마리아 탄생 성당 ..... | 109 |
| 엘레나 알렉산드로브나 아가포노바 .....                        | 112 |
| 알마아타 시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원로 사제 발레리 자하로프 .....        | 114 |
| 볼로콜람스크 및 유르예프스키 대주교 피티림의 회고록 중에서 .....         | 114 |
| 카라간다의 성모 마리아 탄생 성당 주임 사제 알렉산드르 키셀레프 .....      | 116 |
| 영적 자녀들이 기록한 세바스티안 장로에 대한 추억과 그의 가르침 .....      | 120 |
| 기도에 대하여 .....                                  | 120 |
| 겸손과 교만, 믿음에 대하여 .....                          | 121 |
| 질병에 대하여 .....                                  | 123 |
| 환자 돌봄과 연민에 대하여 .....                           | 125 |
| 성찬식과 금식에 대하여 .....                             | 126 |
| 축일과 성인을 공경하는 일에 대하여 .....                      | 127 |
| 성화에 관하여 .....                                  | 128 |
| 성당 내 규율에 대하여 .....                             | 129 |
| 노래에 대하여 .....                                  | 130 |
| 옷에 대하여 .....                                   | 130 |
| 고아들에 대하여 .....                                 | 130 |
| 자녀 양육에 대하여 .....                               | 130 |
| 순종에 대하여 .....                                  | 131 |
| 장례식 기도에 대하여 .....                              | 132 |
| 신부님의 고해성사에 대하여 .....                           | 133 |
| 말이 많은 것에 대하여 .....                             | 133 |
| 웃음과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                          | 133 |
| 하나님의 도움과 타락에 대하여 .....                         | 133 |
| 비난에 대하여 .....                                  | 135 |
| 절제에 대하여 .....                                  | 135 |
| 자신에 대하여 .....                                  | 136 |
| 수도 생활과 세상에 대하여 .....                           | 137 |
| 스키아르히만드리트 세바스티안의 설교 중에서 .....                  | 138 |
| 회개한 죄인에 대한 말씀 .....                            | 138 |
| 수호천사에 관하여 .....                                | 139 |
|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말씀 .....                         | 139 |
| 저녁에 경비실에서 세바스티안 신부님의 말씀 .....                  | 139 |
| 사랑의 사도 요한 신학자의 기념일 .....                       | 140 |
| 대순교의 시작 .....                                  | 140 |
| 세바스티안 대수도원의 말씀 .....                           | 140 |
| 세바스티안 대수도원장 신부의 수호성인 날 .....                   | 140 |
|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                             | 141 |

|                              |     |
|------------------------------|-----|
| 주님의 승천.....                  | 141 |
| 성 안드레아 첫 부름받은 사도의 기념일.....   | 141 |
| 수호천사에 대하여.....               | 142 |
| 일요일.....                     | 142 |
| 세례자 요한의 참수.....              | 143 |
| 시간에 관한 말씀.....               | 143 |
| 대천사 미카엘 대축일.....             | 143 |
| 주일.....                      | 144 |
| 부활절.....                     | 145 |
| 카라간다의 원로 수녀들.....            | 145 |
| 수녀 아그니아.....                 | 145 |
| 라이사 니콜라예브나 아니시모바, 첼랴빈스크..... | 147 |
| 니콜라이(카르포프) 수도원장, 슈치인스크.....  | 151 |
| 스키모나히나 아나스타시아.....           | 154 |
| 1970년. 종려주일.....             | 159 |
| 우연일까, 기적일까.....              | 159 |
| 타이시아 그리고리예브나 포미나.....        | 160 |
| 안토니나 이바노바.....               | 162 |
| 안나 세브추크.....                 | 162 |
| 마리아 페도로브나 오를로바.....          | 164 |
| 올가 세르게예브나 마르티노바.....         | 164 |
| 니나-호흐루슈카.....                | 165 |
| 수도사 세바스티안(흐미로프).....         | 165 |
| 수녀 예브니키야(흐미로바).....          | 166 |
| 마리아 니키티치나 오브라즈초바.....        | 168 |
| 리디아 블라디미로브나 주코바.....         | 168 |
| 프로토이레르 미하일 네이구姆.....         | 169 |

1997년 10월, 성인 시성 및 축성 관련 시노드 위원회의 결정과 알렉시 2세 대주교 성하의 축복에 따라, 고결한 장로이자 고백자인 카라간다의 세바스티안 성인의 지역적 시성식이 거행되었다.

1997년 10월 22일, 성 세바스티안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반년 동안 장로의 유해는 장로가 설립한 성모 마리아 탄생 성당에 안치되어 있었으며, 1998년 5월 2일 부활절 찬송가와 함께 거행된 엄숙한 성십자 행렬 중에, 성 세바스티안의 유해가 담긴 성궤가 카라간다시의 주 성당이 된 성 비베디 대성당으로 이송되었다. 이 이전식은 알마티 및 세미팔라틴 대주교 알렉시우스가 주재했으며, 교구 성직자들과 카라간다의 정교회 신자들, 그리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순례자들이 동행했다.

성 세바스티안의 유해는 중앙 부제단 오른쪽 부분에 안치되어 신도들의 참배를 받고 있다. 또한, 색채가 풍부한 금속으로 제작되고 상감 세공이 되어 있으며, 성 세르기이 라도네즈키의 유해함과 천장을 연상시키는 웅장한 유해함과 그 위의 천장은 세르기예프 포사드의 장인들이 제작했다.

2000년 8월, 기념 주교 회의에서 카라간다의 성 세바스티안은 전 교회가 공경할 수 있도록 러시아의 신순교자 및 고백자 성인의 대열에 편입되었다.

2000년 8월, 기념 주교 회의에서 성 세바스티안 카라간딘스키는 러시아의 신순교자 및 고백자들의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수도자들의 빛은 – 성 요한 사다리꾼이 말하듯 – 천사들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빛은 수도 생활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순수한 본질이자 수도 생활의 가장 훌륭한 표현은 바로 장로직이다.

예언자적 사역의 직접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장로직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수도 생활이 등장함과 동시에, 그 안에서 지도적 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로직은 내적 수련을 위한 은둔의 수련과, 영적 필요와 세속적 필요를 아우르는 온전한 세상 섬김을 하나로 결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 영적 수행의 특별한 상징은 코젤스카야 브베덴스카야 옹티나 푸스티니였다. 옹티나의 심장이자 그 생명의 맥박이 뛰던 곳, 수도원 거주자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 그 은총의 힘이 발원했던 곳은 바로 유명한 옹프틴스키 스킵트, 즉 옹프틴의 성스러운 장로들이 머무르던 곳이었다.

이 스킵트를 설립한 아이디어는 수도 생활과 장로 제도의 수호자인 필라레트 주교, 즉 훗날 키예프 대주교가 된 인물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로슬라블 숲에 거주하던 성 파이시이 벨리치코프스키의 제자이자 추종자인 수행자들을 설득하여 옹티나 푸스티냐에 스킵트를 설립하게 했다. 이렇게 하여 모이세이(푸틸로프) 신부와 그의 형제 안토니가 옹티나 푸스티냐에 도착했다. 모이세이 신부가 옹티나 스킵트를 설립한 후(1821년) 전체 수도원의 원장(1826년)이 되었을 때, 알렉산드로-스비르스키 수도원에서 신학에 정통한 기도의 사람 레오니드 신부(스키마명 레프, 1829년)가 스킵트로 부임하여 이곳에 장로 전통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추진력은, 옹티나 푸스티냐가 존속하고 번영하던 시절의 마지막까지 무려 100년 동안 후대의 장로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후대의 장로인 마카리 신부와 암브로시 신부 역시 위대한 장로들이었으며, 그의 직계 제자들이었다.

성부 문헌 번역에 교육받은 계층의 여러 인물을 참여시킨 마카리 장로 시대부터, 옹티나 푸스티니는 동시대 작가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사색하는 러시아의 엘리트들이 옹티나 푸스티니와 그 스킵트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장로들의 수많은 은총 어린 재능과,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옹티나 수행자들 간의 끊임없는 계승적 유대감이 결합되어 옹티나 푸스티냐는 전 러시아에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레프 신부가 생전 수련생 시절에 “바닥에서 바닥으로” 마카리 신부에게 전수했던 암브로시 장로 시대에, 옹티나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장로에 대한 명성은 러시아 전역에 울려 퍼졌고, 러시아 각지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그 뒤를 이은 장로들인 아나톨리(제르찰로프) 신부, 암브로시우스 장로의 제자인 요세프 신부, 바르소노피이 장로는 은총으로 깨달음을 얻어 스승들과 같은 경지에 이르렀다.

옹티나 푸스티냐에는 많은 저명한 종교인, 철학자, 작가들의 이름이 얹혀 있다. 이곳을 찾은 이들로 고골, 도스토옙스키, 블라디미르 솔로비예프, 이곳에서 비밀리에 수도 서원을 한 콘스탄틴 레온티예프, 키리에프스키 형제들이 있으며, 이들은 옹티나 수도원 벽 안에서 장로들 곁에 안장되어 있다. 죽어가는 톨스토이의 마지막 발걸음은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바로 옹티나로 향한 것이었으며, 그에게 있어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향하는 것을 의미했다. “어떤 책이나 어떤 사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반 바실리에비치 키리예프스키가 썼듯이, “너의 지도자가 되어 줄 수 있는 성스러운 정교회 장로를 찾는 것이다. 그에게는 네 모든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에 대해 그가 더나 덜 현명하게 내리는 의견이 아니라 성부들의 판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장로들인 테오도시우스 현자(†1920), 아나톨리우스 위로자(포타포프, †1922), 그리고 경이로운 넥타리우스(†1928)는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에게는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러시아 국가의 체제가 무너지고, 무신론자-신불신자들이 이끄는 정당이 나라를 장악한 시기를 맞이해야 하는 운명이 주어졌다. 주님께서는 장로 테오도시우스와 아나톨리우스가 옹티나 푸스티니가 폐쇄되기 전(1923년)에 영원한 안식에 들게 하시고, 그 성스러운 수도원 벽 안에 안장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장로 네크타리우스는 홀미시치 마을에서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유배 생활을 하고, 누구도 만나지 말라는 금지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혁명적 무신론이 한창이던 시기에 영적 지지를 구하기 위해 장로에게 몰려든 백성들의 영적 갈증을 계속해서 해소해 주었다.

점차 기력이 쇠약해지던 장로는 1928년 4월 29일, 이 슬픈 현세에서 조용히 영원한 생명으로 떠나갔으며, 코젤스크에서 60킬로미터 떨어진 홀미슈치 마을의 한적한 시골 묘지에 안장되었다. [1989년 7월 16일, 네크타리 장로의 유해가 홀미슈체 마을 묘지에서 옹티나 푸스티니의 브베덴스키 대성당으로 이장되었다.].

옹티나 푸스티나에서 열린 최근의 전야 예배 중 하나는 1924년 6월 15일, 성 티호노 칼루즈스키의 기념일에 이에로모나흐 니콘(벨야예프)에 의해 집전되었다. 바르소노피이 장로의 사랑받는 제자이자 동료였던 니콘 신부는 나이는 어렸으나, 영적 지혜 면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다른 장로들보다도 뛰어났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영적 위안과 조연을 바라는 신자들이 여전히 모여들던 그 소중한 수도원을 마지막으로 떠나야 했던 사람은 바로 그였다. 그리고 니콘 신부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의무뿐만 아니라 장로의 역할까지 떠맡게 되었다. 밤샘 기도회는 더 이상 수도원 성당에서가 아니라 병원 주방에서 거행되었다. 그 후, 닥쳐올 재앙을 기다리며, 니콘 신부에게는 코젤스크에서 그곳에 정착한 옹틴 수도회 형제들과 황폐해진 샤모르딘 수도원의 수녀들과 함께, 슬픔이 가득하고 낯설며 고된 삶이 시작되었다. 옹틴 수도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첫 번째 옹틴의 장로이자 예로스키모나흐 레프는 어느 날 “우리 스킵트가 황폐해지고, 그곳에는 고양이들만 살게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복된 임종을 맞이하기 전(†1841)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창조주이신 주님, 제가 다가올 시기에 닥칠 그 재앙과 슬픔을 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말은 장로의 시종을 들던 제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혁명 훨씬 전, 장로 바르소노피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듯 제자 니콘 신부(당시 이름은 니콜라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 풋풋한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건대, 나는 그 끔찍한 날들을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살아남을 것이다. 수도원들은 큰 박해와 탄압을 받게 될 것이며... 언젠가 옹티나에서도 힘든 시기가 올 것이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작은 성당들에 몸을 웅크리고 지내게 될 것이다... 아마도 너희는 기독교인들이 다시 박해받는 그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

다. 나는 고대의 박해와 유사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다... 고대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박해와 고통이 아마도 반복될 것이다... 여러분은 그 시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바르소노피 신부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었죠...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지!” “잔혹한 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제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감싸줄 것입니다.”

니콘 신부님의 유해는 아르한겔스크 주에 있는 먼 피네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1930년 볼셰비키에 의해 ‘자유 유배’로 추방되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1931년 6월 25일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장로들 중 한 분 [마지막 옹틴 장로들로는 또한 다음을 꼽습니다: 예로스키모나흐 마카리(이노제메체프, † 1970년 5월 4일 구력), 툴라 주 벨레프; 스키모나흐 요아사프(모이세예프, † 1975년 3월 25일 구력), 리페츠크 주 그랴지; 스키아르히만드리트 암브로시우스(이바노프, † 1978년 10월 2일 구력), 칼루가 주 발라바노바; 스키이구멘 파블(드라체프, † 1981년 3월 16일 구력), 툴라 주 체르카시 마을.], 혁명 이전 옹티나 수도원의 뿌리에서 자란 이들 중에는 스키아르히만드리트 세바스티안(포민, † 1966)이 있으며, – 장로 요시프의 제자이자, 그의 사후에는 장로 넥타리우스의 제자였다. 옹티나 푸스티니의 전통과 은총 넘치는 성부들의 정신을 깊이 체득하고, 불의 시련이라는 도가니 속에서 철처럼 단련되어, 소련 수용소에서의 추방과 투옥을 견뎌낸 그는, 그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중앙 카자흐스탄의 뜨거운 대초원 한가운데 위치한 수도, 고통 많으면서도 축복받은 카라간다에서 장로로서의 사역을 이어갔는데, 이곳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우리 세기의 신을 대적하는 비극 중 가장 비참한 사건 중 하나가 펼쳐졌던 곳이다. 순교자들의 피로 흠뻑 젖고 그들의 기도로 거룩하게 된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대초원이 마치 끝없이 펼쳐진 안티민스처럼 뻗어 있으며, 그 위로 옹틴의 장로이자 복된 기억을 간직한 스키아르히만드리트 세바스티안이 그의 강력한 날개를 펼칩니다.

## 스키아르히만드리트 세바스티안의 생애

복된 장로 스키아르히만드리트 세바스티안(스테판 바실리에비치 포민)은 1884년 10월 28일/11월 10일, 오를로프 주 코스모덤얀스케 마을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실리였고, 어머니는 마트로나였다. 그들에는 세 아들이 있었다. 장남은 1872년생인 일라리온, 둘째는 1877년생인 로만, 그리고 막내는 세레식에서 성 스테판 사바이트(성가대 규칙을 제정한 성자)를 기리기 위해 스테판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스테판 사바이트의 기념일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1888년에 부모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옹티나 푸스티니의 장로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다. 스테판은 당시 네 살이었지만, 그 방문과 은총이 넘치는 장로의 다정한 눈빛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훗날 세바스티안 신부가 될 그는 네 살 때 아버지를, 다섯 살 때 어머니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만형 일라리온이 회상했다. “나는 17살이었다. 우리 땅은 9데시아틴이었는데, 직접 손

으로 일해야 했고, 농장도 작았으니 누가 이를 운영하겠는가? 우리 형제 셋은 다투고 싸우곤 했는데, 누가 우리를 말리고 화해시켜 줄 것인가?” 가족의 유대를 다지기 위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 후 맏형 일라리온은 결혼했다.

다섯 살이었던 스테판은 중형인 로마노의 다정한 성품과 온화한 마음씨에 깊이 정이 들었다. 하지만 로마노는 수도자의 길을 택했고, 1892년에 일라리온에게 자신을 옵티나 푸스티니로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 그곳에서 그는 요한 세레자 스키프의 수련자로 받아들여졌다.

일라리온은 성격이 달랐다. 까다롭고 다정하지 않았다. 스테판은 일찍이 고아의 고통을 맛보았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세바스티안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여성 중 누군가라도 남아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든, 누이든, 이모든, 그 나이 때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말이야. 어머니가 없으니 힘들었지, 며느리가 있어도 마찬가지였어. 기억나는데, 내가 8살쯤이었을 때야. 며느리에게 우유를 달라고 했더니, 그녀가 ‘잠깐만 기다려’라고 하더군. 화가 나서 가서, 며느리가 표백해서 햇볕에 말리고 있던 대마포를 땅에 내팽개치고 흙을 뿌려버렸지. 며느리가 형에게 불평을 했어요. 형은 저를 꾸짖고 때렸죠. 때리거나 꾸짖을 사람은 있었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스테판은 공부를 잘해서 3학년 과정의 교구 학교를 졸업했다. 교구 신부는 그에게 책을 읽게 해주었다. 스테판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약해서 밭일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주로 목초지에서 목동으로 일했다. 그는 가축을 사랑했고, 가축을 다루는 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책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또래 친구들은 그가 겸손하고 온순하다는 이유로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며 “수도사”라고 놀렸다. 그보다 더 심한 일도 있었다. 그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자비롭다는 것을 알고, 어느 날 고양이를 잡아 개 떼에게 던지기 시작했고, 개들이 고양이를 찢어발길 때까지 계속했다. 세바스티안 신부는 나중에 이 일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이야기하곤 했다. 스테판에게 겨울철, 농사일이 없는 시간에 옵티나 푸스티니에 있는 둘째 형을 찾아가는 것은 기쁜 위안이 되었다. 이러한 방문은 스테판에게 큰 영적 영향을 미쳤고, 그가 자라나자 일라리온에게 옵티나 푸스티니로 보내 달라고 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형은 허락하지 않았다. “네가 무슨 수도사란 말이나? – 그가 말하곤 했다. – 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잖아. 게다가 농사일을 누가 도와주겠느냐?” 그리하여 스테판은 형을 돕기 위해 남게 되었다.

1908년, 둘째 형 로마 포민은 병으로 인해 개인 방에서 라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수도 서원을 받았고, 1908년 12월 16일 성녀 마리아 이집트녀를 기리는 수도원 성당에서 크세노폰트 원장 신부님으로부터 수도복을 입었다.

이 무렵 장남의 젊은 가정은 안정되었고, 스테판은 수도 생활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한 뒤, 옵티나 푸스티니의 스키프에 있는 라파일 신부님을 찾아갔으며, 그곳에서 1909년 1월 3일 요시프 장로님의 개인 수행자로 받아들여졌다.

장로 곁에 머물며 스테판은 그분에게서 위대한 영적 스승을 얻었다. 훗날 그는 그 시절을 자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또 다른 방지기)는 장로님을 마치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성경을 읽거나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장로 이에로스키모나흐 요세프는 위대한 장로 이에로스키모나흐 암브로시오스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그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영적 면모, 순종의 힘, 헌신,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암브로시오 신부님의 “사랑하는 자녀”였으며, 암브로시오 신부님은 위대하신 장로 레오와 마카리오의 가르침이 스며든 겸손하고 초라한 “오두막” 안에서 그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셨습니다. 이곳, 요셉 신부에게 경건의 학교가 되어 준 이 비좁은 수도실에서, 그는 실천을 통해 가장 고귀한 학문인 수도 생활을 터득했고, 나중에는 스스로 수도사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12년 동안 그는 스키토장 겸 스키토와 수도원의 장로직을 수행했으나, 1905년 병으로 인해 이 직책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미 노년의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기력이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었다. 수도 생활의 이 등불은 조용히 꺼져 가고 있었지만, 육체는 쇠약해져도 정신은 맑고 명료했다. 1905년 성스러운 시노드의 칙령에 따라 바르소노피이 이구멘이 스키타장 직책에 임명되었다.

1910년, 야스나야 폴야나에서 비밀리에 떠난 후, 레프 톨스토이가 옴티나 푸스티니에 도착했다. 스테판은 이 사건의 목격자였다.

레프 니콜라예비치는 코젤스크에서 늦은 저녁에 옴티나로 도착하여 수도원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당시 숙소를 담당하던 미하일 신부는 나중에 톨스토이가 차를 마시며 그에게 장로들에 대해 묻고, 누가 방문객을 맞이하는지, 요시프 장로가 맞이하는지 등을 물었으며, 장로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미하일 신부가 말했습니다, “두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더군요. 제가 문을 열었더니, 레프 니콜라예비치가 ‘들어와도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가 ‘어쩌면 제가 들어올 수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톨스토이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 제가 말했죠. –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이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더군요. “자, 안녕하십니까, 형제여.” 제가 대답했죠. “안녕하십니까, 각하.” 그가 말하더군요. “제가 당신을 형제라고 불렀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모든 사람은 형제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방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하인을 스키토 원장인 바르소노피 신부님께 보내, 톨스토이가 스키토로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 후의 일에 대해 세바스티안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요셉 장로님께서 병에 걸리셔서 제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르소노피 장로님께서 들어오시더니, 미하일 신부님께서 L. 톨스토이가 우리 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 달라고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누가 그 말을 했나요? 그가 말하길, ‘톨스토이 본인이 직접 말했다’고 했습니다.’ 장로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오신다면, 우리는 그를 친절과 존경,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비록 그가 파문당했더라도, 스스로 찾아온 이상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달리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후 저를 보내 울

타리 밖을 살피게 했습니다. 나는 레프 니콜라예비치를 보고 장로들에게 그가 집 근처를 오가며, 때로는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물러나기도 한다고 보고했다. 요시프 장로는 말했다. “그에게 힘든 일이겠지. 그는 우리에게 생수를 얻으러 온 것이니까. 가서, 우리에게 왔다면 그를 초대해라. 그에게 물어보거라.” 내가 갔을 때 그는 이미 없었고, 떠난 후였다. 아직 얼마 가지 않았는데, 그는 말을 타고 있어서 내가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 후 그의 여동생인 수녀 마리아가 장로들에게 보낸 소식에 따르면, 그는 샤모르딘에 있던 그녀 곁에서도 떠났다고 했다. 그 후 아스타포보 역에서 L.N.의 병세에 대한 전보가 우리에게 도착했는데, 그 전보에는 그의 이름으로 장로님께 오시어 그를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바르소노피 신부는 즉시 출발했으나, 톨스토이를 둘러싼 측근들이 그를 레프 니콜라예비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바르소노피 신부는 그의 딸 알렉산드라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그는 편지에서 “이것은 결국 아버님께서 제가 오기를 원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썼다. 그래도 들여보내 주지 않았다. 그의 아내 소피아 안드레예브나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허용받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객차를 타고 와서 역에서 그 안에서 지냈다. 바르소노피 신부는 이 모든 일을 매우 힘들게 겪었고, 자신도 거의 병든 상태로 돌아왔으며, 이를 떠올릴 때마다 늘 가슴 아파했다. 그리고는 “비록 그가 레프라 할지라도, 쇠사슬을 끊어낼 수는 없었다. 아쉽다, 정말 아쉽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 요시프도 그를 위해 가슴 아파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로지 레프 니콜라예비치 본인의 바람 하나만으로 제가 아스타포보로 갔을 뿐입니다.”라고 바르소노피 신부님은 단언했습니다.”

1911년 4월, 부활절 셋째 날, 장로 요시프에게 임종 전 병이 닥쳤다. 5월 9일, 그의 영혼은 고통 많았던 육신을 조용히 떠났고, 5월 10일 새벽 1시 30분, 스키투 종과 그 뒤를 이어 수도원 종이 세 번 울리며 장로의 별세를 알렸다. 5월 12일, 수도사들의 손에 의해 그의 시신이 담긴 관은 장로 암브로시오의 무덤 근처에 마련된 무덤에 안장되었다. 위대한 장로 곁에서 30년을 지낸 온유한 제자는 스승의 발치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었다.

장로님의 서거에 스테판의 슬픔은 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위로받지 못한 채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요세프 신부의 거처로 네크타리이 장로(아나톨리(제르찰로프) 신부와 암브로시우스 신부의 영적 아들)가 옮겨 왔다. 스테판은 그분 곁에서 거처 관리인으로 남으며 그분의 지도 아래 들어갔다. 1912년, 스테판은 리아소포르(수련사)로 서품받았다.

같은 해 4월, 음모와 중상모략으로 인해 장로 바르소노피는 오퍼티나 푸스티니에서 스타로-골루트빈 수도원의 원장직으로 전임되었다. 스키투를 떠나며, 마지막 기도식을 마친 후, 장로 바르소노피는 슬퍼하는 수도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수도원에서 선종하신 마르코 이구멘 신부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카리 신부님께서 임종하실 때, 그 뒤를 이어 암브로시우스 신부님, 일라리온 신부님, 아나톨리 신부님께서 장로님이 되실 것이며, 스키투에는 장로님의 전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장로들 중에는 레프 신부, 마카리 신부, 암브로시우스 신부, 아나톨리 신부 같은 위대한 장로들보다 영적 은사가 훨씬 더 뛰어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퍼티나에서 바르소노피 신부가 돌아온 후, 장로 형제들의 총회에서 네크타리 신부가 형제들의 영적 지도자이자 장로로 임명되었다.

네크타리우스 신부는 은둔적인 삶을 살았으며, 뒤에서 조용히 지내며 눈에 띄지 않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 약간은 미친 척하는 듯한 어조로 말하곤 했는데, 종종 통찰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장로의 동시대인들은 그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은 이야기만으로는 그의 모습을 명확히 그려낼 수 없으며, 그의 성격과 놀라운 자질—구체화된 겸손, 비범한 온유함과 소박함, 사랑, 그리고 그의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매력—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깊은 겸손함으로 인해 자신을 장로로 여기지 않았으며, 항상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이제 막 시작했고, 배우고 있으며, 모든 의미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내가 옛 장로들의 후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은총이 통째로 가득했지만, 나에게는 한 조각뿐입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제 시종 스테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저보다 더 나은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는 통찰력이 뛰어나니까요.” 네크타리우스 신부님에게는 아름다운 인간적 소박함이 있었으며, 가장 고집스럽고 분개한 영혼조차도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장로는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자녀여!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너희의 사랑은 하루살이 같은 사랑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오늘도,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리하여 장로의 지도 아래, 연약한 인간의 영혼들을 위한 조용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그의 제자이자 미래의 장로인 세바스티안 신부는 영적으로 성장해 갔으며, 자신의 영혼에 그 경이로운 스승의 사랑과 지혜, 겸손을 깊이 새겨 넣었다.

네크타리우스 장로에게는 두 명의 셀 관리인이 있었다. 선임 셀 관리인은 스테판 신부였는데, 그는 온화한 마음과 연민으로 인해 ‘여름’이라 불렸고, 후임은 피터(슈비레프) 신부였다. [사제 수련자 피터(슈비레프) 신부는 선원 출신으로, 혁명 전까지 아폰 산에 다녀왔다. 그는 넵타리이 장로의 막내 시종이었으며, 장로에게 진심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장로에게 사랑받았다. 그는 순박하고 소박한 성품이었다. 탄광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겨울”이라 불렸으며, 성격이 다소 거칠고 엄격했다. 오두막에 모인 사람들이 장로를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 낙담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네크타리우스 신부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스테판 신부를 보내곤 했다. 반면 기다리던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면, 그때는 페트르 신부가 나와 엄한 태도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달래주었다.

때로는 이런 일도 있었다(세바스티안 신부님께서 직접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보통 네크타리우스 신부님께서서는 오후 2~3시가 되어서야 거처에서 나오셨다. 사람들은 수시로 스테판 신부님을 보내어 신부님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하게 했다.

스테판 신부는 장로님의 거처로 갔고, 장로님은 곧바로 “지금 준비 중이니, 옷 입고 갈게”라고 말했지만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시자마자 모든 사람 앞에서 스테판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스테판 신부는 용서를 구하며 그분의 발 앞에 절을 올렸다.

1913년 4월 13일, 성 토요일에 성의(聖衣)를 모셔 나가는 동안, 스테판 신부님의 형제인 라파일 신부님이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별세하셨는데, 약 3주 동안 투병하셨다. 마지막 날들 동안 그는 매일 성체를 모셨고, 사망 하루 전에는 스키마 수녀 서원을 했다. 스킵트 연대기에 따르면, 라파일 신부는

수석 화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때로는 오른쪽 성가대에서 성가대장을 대신하기도 했다. 그는 침묵과 온화함으로 유명했다.

스테판 신부는 운명의 1917년에 순교자 세바스티안(12월 18/31일 기념)의 이름을 따서 망토 수계를 받았다. 혁명이 터졌다.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러시아 국가의 구조가 무너졌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피할 수 없는 변화가 다가올 것을 예감하며, 오프티나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수도원 생활을 이어갔다. 그들에게도 이미 교회와 수도원이 폐쇄되고, 그들의 재산이 몰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오프티나 수도원의 벽에도 이미 수도원을 약탈하러 오겠다는 위협이 담긴 불길하고 뻔뻔한 낙서가 등장했다. 이와 유사한 선언들은 구두로도 전해지곤 했다.

1918년 1월 10일/23일, SNK(최고소비자위원회)의 칙령에 따라 오프티나 푸스티니는 폐쇄되었으나, 수도원은 농업 협동조합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존재했다. 많은 이들, 특히 젊은 수련자들은 그들에게 엄격한 요구 사항이 부과되던 농업 협동조합에서의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수도원을 떠났다. 남아 있던 수도사들은 대부분 고령이었으며, 쫓겨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수도원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모두 두려움 속에 살았으며, 매일 매시간 추방과 체포, 투옥, 죽음을 기다렸다.

수도원 부지 내에는 “오프티나 푸스티니”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스키티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지만, 네크타리 장로는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장로들의 초가집에 남아,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지쳐가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맞이했다.

1923년, 대사순절 다섯 번째 주가 끝날 무렵 수도원에서 해산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교회 예배는 중단되었다. 수도사들은 점차 쫓겨났다. 수도원은 ‘글라브나우카’의 관할로 넘어갔다. 수도원 건물들은 아동 보호소, 박물관 사무실, 개인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수도원 숙소 대부분은 박물관을 통해 별장 소유자들에게 아파트로 임대되었다. 오프티나 수도원 수도사들의 대다수는 코젤스크와 인근 마을로 이주했다. 일부는 작은 집을 사서 여러 명이 함께 살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이미 폐쇄된 샤모르딘 수도원과 다른 여성 수도원의 수녀들이 합류했는데, 이들은 이전에 오프티나의 장로들에게 영적 지도를 받던 이들이었다. 지붕도, 먹을 빵 한 조각도 없이, 미래에 대한 전망조차 없는 수도자들에게 유일한 위안은 기도뿐이었다. 스키티에서는 세바스티안 신부의 지시에 따라 장로들의 거처가 내부와 외부 모두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1923년, 수도원이 폐쇄되기 두 달 전, 세바스티안 신부는 성직자 집사 서품을 받았다.

1923년 3월, 장로 네크타리우스가 체포되어 주(州) 밖으로 추방되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체포 당시 당국이 신부님께 방문객 접견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을 때, 모든 오프티나의 장로들이 그분 앞에 나타나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면, 당신의 영적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다.

처음에 장로는 플로히노 마을(코젤스크에서 45베르스타 떨어진 곳)에서 지냈고, 그 후 브란스크 주 홀미시치 마을(코젤스크에서 50베르스타 떨어진 곳)로 옮겨 갔다. 장로가 체포된 후, 세바스티안 신부는 오프티나 수도회 형제들과 함께 코젤스크에서 살며 유배된 장로를 자주 찾아갔다. 1927년, 칼루가 시의 주교에 의해 세바스티안 신부는 수도사 서품을 받았다. 1928년 4월 29일, 네크타리 장로가 선종

했다. 그는 키예프에서 온 자신의 영적 아들인 아드리아노 리마렌코 신부(후에 로클랜드 대주교 안드레이, † 1978)가 두른 에피트라킬리아 아래에서 자신의 거룩한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다. 세바스티안 신부는 장례식에서, 그리고 그 후 장로님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슬퍼했다. 장로님이 돌아가신 후 본당 사목으로 떠나라는 축복을 이행하며, 세바스티안 신부는 먼저 코젤스크로, 그다음 칼루가로 떠났고, 이후 코즐로프 시 일린스카야 교회 원장인 블라디미르 안드레예비치 네차예프 [현재 생존해 계신 볼로콜람스크 및 유르예프스키 대주교 피티림(네차예프) 신부.]의 초청을 받아 코즐로프로 왔으며, 탐보프 및 코즐로프 주교 바시아안(핫니츠키)으로부터 일린스카야 교회로의 부임 지명을 받았다. 그곳에서 그는 1928년부터 1933년까지 체포될 때까지 사목 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코즐로프에서 갱신파와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을 벌였다.

세바스티안 신부는 흠어져 살던 옙티나 푸스티니의 수도자들과 연락을 유지했다. 예를 들어, 1929년에는 킬-오르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임종을 앞둔 이에로디아콘 키릴(즐렌코, † 1932년 7월 19일 구력)에게 성사를 집전해 주었는데, 그는 한때 장로 바르소노피의 서기였던 인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토이레르 블라디미르 네차예프가 체포되자, 세바스티안 신부는 그의 가족인 올가 수녀와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본당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기도하는 분위기로 보아, 신부님이 익숙해졌던 옙틴 스키타의 경건한 예배와는 눈에 띄게 달랐다. 때로는 어떤 축일에도 신부님이 교회에서 기분이 상한 채 돌아오곤 했다. 신부님은 기도에 집중되지 않은 악보에 따른 찬송을 좋아하지 않았고, 성가대가 스키타에서 부르던 방식대로 노래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성가대 지휘자는 더 크고 경쾌한 노래를 좋아했고, 발을 구르며 리듬을 맞추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신부님은 예배 전에 지휘자가 무엇을 어떻게 부를지에 대한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셨다. 신부님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싶어질 정도로 노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성가대장은 “그분은 제단이고, 저는 성가대입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신부님께서서는 그런 자유분방함을 용납하지 않으셨고, 결국 신부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수도원식 방식으로 노래하게 되었다.

큰 명절이 되면 남성 성가대원들이 술값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바스티안 신부는 결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설령 허락하더라도 “카고르” 한 잔뿐이었고, 그것도 물에 타서 주었다. 점심으로는 배불리 먹여 주고, 그들에게 셔츠를 하나씩 사 주며, 무엇이든 위로해 주었지만, 보드카만은 절대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기피” 때문에 신부님은 평생 남성들로부터 곤란을 겪어야 했다.

코즐로프에는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찾아 영적 자매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샤모르딘 수도원의 수녀 아그리피나가 도착했는데, 신부님은 그녀를 성가대원으로 지정했고, 그다음에는 같은 수도원의 수녀 페브로니아가 왔는데, 신부님은 그녀를 가사 담당자로 지정했다. 어느 날, 집안일을 마치고 그녀는 집 마당으로 나가 휴식을 취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신부님은 다른 신부님들과 다를 바 없고, 일도 집에서 하던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갑자기 신부님이 집에서 나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너는 왜 나에게 왔니? 나는 다른 신부님들과 다를 바 없는데.” 그녀는 신부님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심을 깨닫고, 신부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결코 다른 신부님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페브로니아 수녀는 신

부님과 영원히 함께했으며, 신부님이 카를라그에 수감되어 있던 시절에도 곁을 지켰고, 카라간다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신부님과 함께 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인 가문 출신의 두 소녀가 신부님께 찾아왔다. 그중 한 명인 수녀 바르바라는 열두 살 때 부모님에 의해 샤모르디노로 보내졌다. 그들은 신발과 우아한 드레스, 머리 스카프를 두른 도시식 차림으로 신부님께 찾아왔다. 신부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페브로니아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이 소녀들에게 ‘페제우쉬나’ 부츠와 재킷, 스카프를 가져다 주세요.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가라.” 그들은 말 한 마디 없이 순종하고, 가져온 옷을 입고 교회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하고 어린 소녀들을 뵈히 쳐다보지 못하도록 문턱 바로 안쪽 난로 옆에 서 있었다. 이렇게 신부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다.

수녀 바르바라는 알토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뛰어난 기억력을 지녔다. 그녀는 또한 규칙 담당자이기도 했다. 게다가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켜 주었기 때문에 ‘화해의 여인’이라 불리기도 했다. 신부님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르바라가 수도사였다면, 위계 수도사가 되었을 것이다.”

이 무렵 코즐로베에는 황폐해진 수도원에서 온 다른 수도사들과 수녀들, 그리고 예전에 오펜나 푸스티니를 찾던 평신도들도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창조적인 힘으로 구원을 진심으로 찾는 이들의 마음은 세바스티안 신부님께 이끌렸다. 이는 지역 당국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다.

1933년 2월 25일, 세바스티안 신부는 바르바라, 아그리피나, 페브로니아 수녀들과 함께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탐보프 OGPU로 이송되었다. 심문 과정에서 수사관은 세바스티안 신부가 영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의 접촉 내역과 소련 당국에 대한 그의 태도를 캐물었다. 이에 신부님은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소련 당국의 모든 조치를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며, 이 권력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저는 이러한 견해를 제 측근들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된 다른 시민들에게도 밝혔습니다. 동시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사랑 속에서 살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와 수도원을 폐쇄한 소련 당국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교 신앙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탐보프 주 연방보안국(UFSB), 사건 번호 R-12791, 제1권].

GPU는 외부인으로부터의 물품 전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 몸으로 남아 있던 신부님의 영적 자녀들은 전보를 보내 탐보프로 신부님의 먼 친척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그녀를 교도소까지 배웅했고, 그녀는 물품을 전달하며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수녀들은 점심시간, 수감자들이 감옥에서 나와 마당을 지나 식당으로 이동할 때, 문 앞에 서서 틈새로 들여다보았다. 신부님은 문 앞을 지나가며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셨다.

1933년 6월 2일, OGPU 특별처벌부(ИЧО) 3인 위원회는 비사법적 사건 심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형법 제58-10조 제2항에 따라 기소된 스테판 바실리에비치 포미나를 1933년 2월 25일부터 7년간 교정노동수용소에 수감한다.”

신부님께서는 머리를 짧게 깎이고 수염도 모두 밀렸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대문을 지나갈 때, 슬픔에 잠겨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탐보프 FZITK 산하 의료위원회는 왼쪽 팔꿈치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신부님은 어린 시절 왼쪽 팔을 다친 적이 있었다)을 근거로, 그가 중노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위원회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세바스티안 신부는 탐보프 주로 보내져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영적 자녀들은 벌목 장소를 알아내고, 먼 거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능한 한 그에게 위문품을 가져다주며,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위로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일요일이면 수감자들은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코즐로프에 있는 집까지는 세바스티안 신부님께 먼 거리였지만, 숲 이쪽 마을에도 영적 자녀들이 있어 토요일 저녁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기도하며 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 일요일은 기도와 대화로 보내졌는데, 신부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치 부활절 같구나! 마치 낙원에 머무는 것 같구나!”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숲으로 나가 일해야 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지나갔다. 1년 후, 세바스티안 신부는 카라간다 수용소의 돌린카 마을로 이송되어 1934년 5월 26일에 그곳에 도착했다.

### 역사적 참고

카라간다의 기원을 조사해 보면, 이 도시의 역사는 다른 아닌 카를라그의 역사와 1930년대 특별 이주 농민들의 역사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930년대 초반까지 카라간다는 도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현재 ‘구시가지’[현대 카라간다의 구역 중 하나]가 있는 곳, 작은 언덕 위에, 차르 통치 시절 영국인들이 지은 붉은 벽돌로 된 별채가 보르도색 양철 지붕 아래 서 있었을 뿐이다. 바로 그들(즉 영국인들)이 훗날 ‘코스텐코’ 제1탄광이 될 자리에 첫 시추공을 뚫고 첫 석탄을 채굴했으며, 이 석탄은 낙타를 이용해 운반되었다. 또한 이 초원 지대에는 세기 초에 생겨난 몇 개의 이주자 마을이 있었는데, 바로 스타라야 티호노브카, 볼샤야 미하일롭카, 두보브카, 페도로브카, 드레세노브카 등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러시아 정착민들이 살았고 일부 마을에는 정교회 성당이 세워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1930년, 즉 “대전환”의 해 이전까지의 모든 상황이었다. 그해 러시아 전역에서 전면적인 집단화, 즉 농민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시작되었다.

### 특별 이주자들

단기간에 국가의 기반을 다지려는 야심을 품은 신생 국가의 첫 5개년 계획에는 중앙 카자흐스탄의 미개척지 개척과 카라간다 석탄 분지 개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1931년 초 안드레이 안드레예비치 안드레예프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 위원회는 OGPU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중앙 카자흐스탄으로 5만 2천 가구의 농민 가족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해 약 50만 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1931년 2월~3월, 농민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중앙 카자흐스탄의 무더운 대초원으로 이송되었다. 처음에는 아크몰린스크에서 미래의 카라간다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과 장남들이 아크몰린스크로 보내졌으며, 이들은 이 철도를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기간 내에 완공했다. 4개월 만에, 즉 1931년 5월이 되자 철도는 이미 완공되었다. 그 후 도로 건설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카라간다 주와 오사카로프스키 구역으로 이송되기 시작했다. OGPU의 엄중한 경비 하에 농민 가족들로 꽉 찬 열차들이 카라간다 방향으로 출발했

다. 그들은 아스트라한 주에서 시작해 추바시야와 모르도비아에 이르기까지 볼가 강 유역 전역, 펜자, 탐보프, 쿠르스크, 보로네즈, 오를로프 주, 하르키우 주, 오렌부르크 주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덩고 건조한 대초원을 가로질러, 완전히 밀폐된 소형 화물차에 실려 갔는데, 차 한 칸 전체에 화장실 통이 단 하나뿐이었다. 그 화물차에는 임산부, 수유 중인 어머니, 아이들, 노인들이 타고 있었다. 이미 화물차 안에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고, 시신들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목적지까지 실려 갔다. 그리고 새로 도착한 사람들 중에서 카라간다-발하쉬 도로 건설을 위해 가장 건장한 청년들과 소녀들이 다시 선발되었다. 건설 노동자 한 명당 일일 할당량(겨울철에도)은 흙 8톤이었다. 도구는 손수레, 쇠지레, 곡괭이, 삽뿐이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식량이 삭감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쓰러져 죽어갔다. 무덤을 파주지 않고, 그대로 철도 독 위에 눕혀 흙으로 덮어버렸다. 그래서 아크몰라에서 발하시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는 말 그대로 시체 위에 세워진 셈이다.

그리하여 1931년 여름과 초가을에 5만 2천 가구의 농민 가족이 훗날 카라간다와 그 주(州)가 될 지역으로 이송되어, 주거지도, 충분한 식량도, 물도 없는 채로 노천에 방치되어 운명에 맡겨졌다. 사람들은 급하게 파낸 구덩이에 정착했는데, 이 구덩이는 스스로 파서 닦은 형식으로 덮어, 뜨거운 햇볕과 목마르게 하는 대초원의 바람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1931년 그 유례없이 무더웠던 여름,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거의 모두 이질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10세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흙으로 지은 막사 건설에 동원되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막사를 완공하지 못했고, 11월, 이미 눈이 내리고 혹한이 몰아치던 때에 지어지지 않은 채 단열도 난방도 되지 않은, 때로는 지붕조차 없는 막사로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50제곱미터 규모의 막사에 100명 이상이 들어살았다. 그리고 1931~1932년 겨울, 대규모 사망 사태가 일어났다. 사람들을 앓아간 주된 원인은 추위, 굶주림, 유행성 발진티푸스, 괴혈병이었다. 그 결과, 격리촌에서는 전체 농민 수의 절반 이상이 사망했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코멘다투라 산하에 장례반이 있었을 뿐인데, 이들은 시신들을 수레에 실어 마을 외곽에 파놓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1932년 늦가을, 거의 모두가 얼어 죽은 오사카로프스키 구역에 사망한 특별 이주자들을 대신해 보충 인원—탄압을 받은 쿠반 출신 주민들을 실은 몇 대의 열차—이 도착했다. 그리고 1933년, 거의 전국에 기근이 닥쳤을 때, 특별 이주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망의 물결이 몰아쳤다.

이 끔찍한 시절, 카라간다 주 전역에는 정교회 성당이 단 한 곳도 없었다. 특별 이주자들은 비밀리에 땅굴 속에서 모여 기도를 드렸다. 바로 이들이 훗날 카라간다 교회의 첫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1942년부터 광산과 새로 형성된 마을에 정교회 성당과 기도실을 개설해 줄 것을 청원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첫 번째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 계획들은 이행되었다. 초기 미개간지 개척자이자 특별 이주자들은 수천 헥타르에 달하는 미개간지를 개척했으며, 1930년대 중반까지 카라간디 주와 오사카로프스키 구역에 경제적으로 견고한 25개의 콜호즈를 설립하고 카라간디 석탄 분지의 첫 번째 탄광을 개발했다.

하지만 1931~1933년 사이에 이곳에서 희생된 농민 특별 이주자들의 수를 집계해 보려고 한다면, 이곳에 온 사람 네 명 중 한 명만이 살아남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크몰라에서 발하시까지 이어

지는 외곽의 특별 정착촌에 급하게 파낸 구덩이와 철도 제방 아래에는 벌써 60여 년 동안 약 40만 명의 농민과 그들의 자녀들의 유해가 잠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스크롤라치엔”된 특별 이주자들의 이송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의 황량한 대초원을 개척하기 위해 어디서 저렴하고 소박한 노동력을 구할 것인가 하는 유사한 문제, 즉 가족의 구속에서 자유롭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마련된 주거지나 병원, 학교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노동력을 –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해결되었다.

1931년 12월 19일, 중앙 카자흐스탄에 굴라그(GULAG)의 지부 중 하나인 카를라그(Karlag)를 설립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곳은 당초 “오그푸(OGPU) 카라간다 거대 국영농장”이라는 명칭을 받았으며, 그 설립 목적은 급속히 발전하는 중앙 카자흐스탄의 중공업에 필요한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초기 지침 문서 중 하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31년에 조직된 카라간딘 OGPU 거대 국영농장은 중앙 카자흐스탄의 광대한 지역을 개척한다는 명예롭고 중대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개척은 1931년 말, 소련 전역에서 사리-아르키의 고대 초원으로 범죄자들과 함께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들이 수송되어 오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2,567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수송대는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천막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수감자 수는 해마다 늘어났고, 이에 따라 거대한 국영 농장도 성장하고 발전했다. 그 영향력은 알타이에서 베트팍-달리까지, ‘카자흐스탄의 스위스’에서 자일리 알라-타우에 이르기까지 뻗어 나갔다. 카를라그의 영토는 프랑스의 영토와 맞먹는 규모였다. 카를라그의 수도는 돌린카 마을(카라간다에서 33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고, 수감자들이 머무르던 관문은 카라바스 역이었으며, 중앙 카자흐스탄의 끝없이 펼쳐진 대초원 전체가 수 천 수만 명의 수감자들을 위한 공동묘지가 되었다.

카를라그는 실질적인 권력, 무기,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우편과 전신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이곳은 돌린카에서 반경 2~400킬로미터 내에 위치한 26개의 지부(“지점”)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지부는 단일한 경제 계획에 연계되어 있었으며, 이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곳의 수요는 특별했다. 돌린카 주변을 촘촘히 둘러싸듯이, 수용소 체제의 모든 기술적 조건을 갖춘 수용소 구역들도 생겨났다. 가시철사로 된 차양이 달린 울타리, 감시탑, 경작 및 해초 작업이 이루어지는 통제 구역, 경비견이 배치된 원형 초소 등이 그것이었다. 돌린카 중심부에는 제3부(나중에 제1부로 개칭됨)가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감옥 속의 감옥’으로, 수감자들에게 형기를 추가하고 고문을 가하며 총살을 집행하던 곳이었다.

카를라그에서는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3인으로 구성된 카라간다 주 법원 출장 재판부가 활동했다. 판결은 현장에서 집행되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은 다른 수감자들이 미리 파 놓은 구덩이가 장자리에 무릎을 꿇게 한 뒤, 뒤통수를 향해 총을 쏘았다. 총살당한 자들은 “사망”이라는 표기를 붙여 명부에 등재되었고, 개인 기록은 파기되었다.

카를라그의 경제는 번창했다. 카를라그는 값싼 노동력뿐만 아니라 탄탄한 지적 중심지이기도 했다. 그곳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군 지휘관, 문화인, 정치인, 성직자, 수도자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가시철조망 너머의 대초원 수용소들에는 모든 분야의 고도로 숙련된 농업 전문가, 축산 기

술자, 의료 종사자, 경제학자들이 대거 집중되어 있었다. 카를라그 수감자들의 생활 조건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1941년 2월 5일자 굴라그 감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수감자들은 표준 막사에 수용되어 있다. 막사의 벽은 흙벽돌로 되어 있으며, 내부 시설은 2층 침대이다. 바닥은 흙바닥이고, 겨울용 창문 틀이 없다. 진흙과 습기가 가득하며, 막사의 난로는 매일 가열되지 않는다. 남성 막사의 기온은 +4°, 여성 막사는 +16°이다. 많은 수감자들이 침구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목욕탕, 세탁소, 화장실은 연료 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큰 차질이 있다. 대규모 이가 창궐 현상과, 갈아입거나 세탁되지 않은 속옷의 부족이 확인되었다. 겨울용 의복을 지급받은 수감자는 50% 미만이다. 대다수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며, 발에는 여름 신발을 신고 있다. 막사에서나 작업 현장 모두에서 끓인 물이 없다. 작업 현장에는 생수조차 없다. 수감자들은 물 대신 눈을 먹고 있다. 식사와 질은 칼로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신발이나 옷이 없어 작업장에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작업장에 나가지 않은 수감자들은 작업 거부자로 분류되어, 작업 거부자에게 지급되는 식량을 받는다. 심지어 그들은 SHIZO(징계 격리실)로 보내지기도 한다.”

카를라그에서는 탈출 시도가 빈번히 발생했다. 그 모든 시도는 “제거”로 끝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련 내무부(MVD) 산하 카라간디 국영농장(시대가 변함에 따라 명칭도 바뀌었다)과 그 산하 농업 실험소의 명성은 전국에 울려 퍼졌다. 이곳에서는 양배추, 오이, 토마토가 기록적인 수확량을 올렸다. 육종가들은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들은 새로운 품종의 겨울작물, 봄작물, 사료작물을 개발했다. 제58조에 따라 25년형을 선고받은 농학자 미트로시나는 ‘에피쿠르’라는 감자 품종을 개발하여 헥타르당 60톤을 수확했다. 또한 가축 사육 사업도 조직되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소련 박람회에서는 ‘모로슈카’라는 별명을 가진, 연간 1만 2천 리터의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가 전시되었다. 한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카를라그의 여러 분소에서 페트로파블롭스키 육가공 공장까지 거대한 양 떼가 스스로 행진하듯 이동했다. 카를라그에는 설탕 공장과 유리 제조 공장이 있었고, 피마를 가공하고 가죽을 처리했다. 전쟁 당시 RMZ 제3 작업장에서는 M-82 지뢰를 생산했다. 곳곳에서 수감자들이 일했다. 카를라그는 군대에 식량을 공급하고, 국가에 곡물, 육류, 무기, 의류를 제공했다. 하지만 수감자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물컹한 죽과 ‘아뉴티나 글라즈키’라고 불리는 보리를 먹었다. 매일 돌린카에서 판사들이 와서 누군가 당근이나 비트 한 개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수감자들을 재판했다.

그리고 카를라그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존재 기간(1931년부터 1956년까지) 동안 카를라그는 약 백만 명을 수용했다. 그러나 카를라그의 기록 보관소는 오늘날까지도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희생자의 대략적인 수조차 파악할 수 없다.].

“결국,” 실험 농장의 한 과학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내무부 국영 농장의 모든 경제 활동은 극도로 건조한 대초원과 반사막 지대의 토지를 성공적으로 개간한 거대한 생산적 실험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랬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수감자들이 자신의 피와 땀을 흘리며 직접 설계하고 건설한 것이었다.

## 세바스티안 신부의 카라간다 NKVD 수용소 수감

그리하여 1934년 5월, 중앙 카자흐스탄의 뜨거운 대초원에 위치한 카르라그(Карлаг)의 한 분소로 옅티나 푸스티니(Оптиная Пустынь)의 수도사 세바스티안 신부가 수송대를 타고 이송되었다.

수용소 생활에 대해 신부님은 그곳에서 구타와 고문을 당했으며, 단 한 가지만 요구받았다고 회상했다. 바로 “하느님을 배반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범죄수감자들이 있는 막사로 보내졌다. “거기서,” 그들이 말했다, “너를 금방 재교육시켜 줄 거야.” 노쇠하고 연약한 신부에게 범죄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이 약했던 신부님은 빵 자르는 일을 맡게 되었고, 그 후 수용소 구역 내 창고 경비원으로 배치되었다. 야간 당직 중 신부님은 결코 잠을 자지 않았고, 기도의 수고를 이어갔다. 그래서 점검하러 온 간부들은 항상 그가 깨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신부님은 가끔 수용 구역에 영화 필름이 반입되면 모든 수감자들을 클럽으로 몰아넣곤 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영화관에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하셨습니다. “다들 가는데, 저는 짝꿍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너는 나를 대신해 영화관에 가고, 나는 너를 대신해 당직을 서겠다.’” 만약 가야만 할 때는 바툼슈카가 클럽에 일찍 도착해 어딘가 한적한 구석이나 벤치 밑에 누워 있었다. 잠을 자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수감 생활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바툼슈카는 호송에서 풀려나 돌린카 근처에 있는 수용소 제3구역의 감방에서 지냈다. 그는 황소를 타고 중앙 산업 채소밭(ЦПО, Центральные) 주민들을 위해 물을 나르곤 했다. 가끔은 겨울에 물을 가져와 소에게 다가가 얼어붙은 손을 소 몸에 비비며 녹이기도 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장갑을 가져다 선물해 주곤 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그는 다시 장갑 없이 찾아오곤 했다(누군가에게 선물했거나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또다시 소 몸에 손을 비비며 녹였다. 그가 입은 옷은 낡고 너덜너덜했다. 밤에 신부님이 추위를 타면, 가축의 구유에 들어가 동물들의 온기로 몸을 녹이곤 했다. 츠포 주민들은 그에게 파이, 돼지기름 같은 식료품을 주었다. 그는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고, 돼지기름은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가져다주었다. “수감 생활을 했지만,” 신부님은 회상했다. “금식 규정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고기 조각이 들어간 묽은 죽 같은 것을 주면, 저는 그것을 먹지 않고 빵 한 조각을 더 받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바툼슈카와 함께 체포된 자매 바르바라와 페브로니아에게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 자매 아그리피나는 극동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1년 만에 석방되었다. 그녀는 바툼슈카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편지로 전했고, 그는 그녀가 즉시 카라간다로 오도록 축복해 주었다. 1936년에 그녀는 카라간다에 도착해 신부님과 면회를 가졌고, 신부님은 그녀에게 카를라그에 더 가까운 볼샤야 미하일롭카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사서 거기서 살며, 매주 일요일에는 “아무 차나” 타고 신부님을 찾아오라고 제안했다. 2년 후, 페브로니아와 바르바라 자매가 카라간다로 왔다. 그리고 니즈니야 거리에 작은 집을 샀는데, 천장이 처진 낡은 창고 같은 집이었다. 그곳에 그들은 방 두 개와 부엌, 현관을 마련했다. 우물이 있는 텃밭도 있었다. 아그리피나와 바르바라 수녀는 노비 고로드의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고, 페브로니아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콜호즈에서 일했다. 키라, 마르파, 마리아 등 다른 수녀들도 카라간다로 왔다. 그들은 티호노브카에 정착했다. 수녀들은 신자들과 친분을 쌓고 서서히 모여 함께 기

도하기 시작했다. 돌린카에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자들은 그분을 돕기 시작했다. 일요일이면 수녀들은 병동에 계신 신부님을 찾아갔다. 식료품과 깨끗한 속옷 외에도 성체와 포루치, 에피트라킬을 가져다주었다. 모두 함께 작은 숲으로 나가면, 신부님께서 직접 성체를 영하시고 수녀들의 고해성사를 들은 뒤 성체를 주셨습니다. 수감자들과 수용소 관리자들은 신부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의 마음속에 있던 사랑과 믿음이 악의와 적대감을 이겨냈습니다. 신부님은 수용소에 있는 많은 이들을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끌었는데,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석방되었을 때, 수용소에는 영적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형기를 마친 후 미하일롭카에 있는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미하일롭카에 교회가 문을 열자, 돌린스키 중앙정치교도소 지부 주민들이 그곳을 찾아가 단정한 노신부님 안에서 예전에 물운반을 맡았던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감 기간이 끝나가던 무렵, 신부님은 1939년 4월 29일, 주님의 승천 축일 전날 수용소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자신의 수녀들이 있는 아주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의 바닥은 노란 점토로 칠해져 있었고, 부엌의 칸막이 뒤 큰 상자 위에는 신부님의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살았다. 폐사 수녀, 바랴 수녀, 그루샤 수녀, 그리고 나중에 수감 생활에서 풀려나 그들에게 합류한 예카테리나 수녀, 그리고 신부님.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기도 시간을 마친 뒤, 수녀들은 일하러 나갔고 신부님은 집에 남았다. 신부님은 물을 길어 오고, 점심을 짓고, 신발을 수선하고 닦았다. 수녀들은 이 때문에 당황했지만, 티호노브카에 살던 원로 수녀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니, 그러니 입을 다물어라.” 전례는 비밀리에 거행되었고, 신부님은 매일 하루 분량의 예배 순서를 다 읽으셨다.

전쟁 전, 그는 탐보프 주를 다녀왔다. 수년 동안 수용소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려 온 신부님의 영적 자녀들은 그가 러시아에 남아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기를 원했던 신부님은 수호틴카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다시 카라간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신의 섭리에 의해 그에게 정해진 몫이었습니다.

그 시절 카라간다의 주민들은 “영구”라는 표시와 함께 석탄 광산에 배정된 바로 그 특별 이주자들과, “카라간다로의 영구 유배”라는 증명서를 받고 석방된 전 카를라그 수감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시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 유배자들은 어두운 창고, 땅굴집, 작은 헛간에서 살았으며, 10일마다 코멘다투라에 출두해야 했다.

카라간다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도시였으며, 특히 전쟁 중과 전후 시기에는 빵 사정이 매우 열악했다. 신부님은 직접 가게에 가서 배급 카드로 빵을 받아 오셨다. 신부님은 평범한 노인이신 것처럼 매우 소박한 회색 정장을 입고 계셨다. 그리고는 걸어가서 줄을 서셨다. 차례가 다가오면 누군가 그를 밀쳐내곤 했고, 신부님은 다시 줄 끝으로 가곤 했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눈치채고, 신부님의 악의 없는 온화한 성품을 보고는 줄을 서지 않아도 신부님을 먼저 통과시켜 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에 신부님과 수녀님들은 서쪽 거리에 좀 더 큰 집을 구입했다. 신부님은 집 안을 돌아다니며 주인처럼 모든 것을 꼼꼼히 살피고, 무엇을 어떻게 개조해야 하는지 말씀하셨다. “아니, 신부님,

그럴 필요 없잖아요,” 수녀님들이 반박했다.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영원히 살 건 아니잖아요! 전쟁이 끝나면, 우리 함께 조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요, 자매들아,” 신부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살 거예요. 이곳의 삶은 완전히 다르고, 사람들도 달라요. 이곳 사람들은 정이 깊고, 의식이 있으며,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예요.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우리는 여기서 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더 큰 보탬이 될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제2의 고향이고, 벌써 10년이나 지내서 익숙해졌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카라간다에 영원히, 죽을 때까지 머물렀다. 그리고 미하일롭스키 묘지에 모두 신부님 곁에 나란히 묻혔다. 수녀들 중 세 명—아그리피나, 바르바라, 예카테리나—는 비록 신부님보다 훨씬 어렸지만, 신부님께서 직접 장례를 치러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니즈니야 거리에 있는 작은 집을 갱단이 습격한 후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만큼 겁에 질렸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페브로니아 수녀는 그날 밤 집에 없었기 때문에 세 수녀보다 더 오래 살았다. 바츨슈카는 불행을 예감하고 수녀들이 멜콤비나트 지역으로 이사할 것을 강력히 권유했다. 하지만 그곳은 B. 미하일롭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수녀들은 어떤 이유로도 성당에서 멀리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 결국 스승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대가로 고통을 겪은 끝에 심근경색으로 차례차례 세상을 떠났다. 습격 사건 직후 신부님은 교회 근처에 수녀들을 위한 집을 마련해 주셨지만, 세 수녀의 기력은 이미 쇠약해진 뒤였다. 수녀 시절의 이름은 알렉산드라, 베라, 엘레나였다. 페브로니아 수녀는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 테클라라는 이름으로 수녀 서원을 했다. 1976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인 1944년, 서쪽 거리에 있는 새 집에는 작은 가정 성당이 마련되었고,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그곳에서 비밀리에 성찬식을 집전하셨습니다. 신부님의 집에는 언제나 청결함과 고요함, 그리고 비범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방들에는 많은 성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앞에서는 램프의 불빛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미하일롭카 주민들은 바츨슈카에 대해 알게 되자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 시작했다. 예배를 집전할 허가는 없었지만, 바츨슈카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찾아갔다. 카라간다 사람들은 신실하여 그를 밀고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미하일롭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은 바츨슈카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기도의 힘을 믿게 되었다. 사방에서 카라간다로 장로의 영적 자녀들—영적 지도를 구하는 수도자와 평신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러시아 유럽 지역, 우크라이나, 시베리아, 북쪽과 중앙아시아의 외진 변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는 모두를 사랑으로 맞이하고 새로운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당시 카라간다의 작은 집들은 저렴하게 팔리고 있었다. 이 집들은 특별 이주자들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새 집을 짓고 흙벽돌로 지은 허름한 오두막을 팔곤 했다. 신부님은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집을 살 돈을 주거나, 돈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보태주곤 했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그에게 돌려졌고, 그는 그 돈을 다른 이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곤 했다.

카라간다 주변에는 새로운 탄광과 광산이 문을 열었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곧 미하일롭카에는 ‘신부님의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났지만, 신부님은 언제나 밝고 사랑이 넘치며,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수녀 마리아와 마르파와 함께 티호노브카 너머에 있는 공동 묘지로 갔을 때, 묘지 한가운데에는 공

동 무덤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은 특별 이주자 고인 200명이 매일 묻히고, 장례 식도 없이 그냥 매몰되고 있었다. 무덤 흙더미도, 십자가도 없이 – 장로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밤낮으로, 이 순교자들의 공동 묘지 위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바스티안 신부는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이였습니다.

카라간다는 성장하고 건설되면서, 구획으로 나뉜 초원과 광산, 30년대의 특별 이주자 정착촌, 전쟁 기간 동안 불가 강 유역에서 카라간다로 추방된 독일인들의 마을을 흡수해 나갔다. 가장 먼저 코파이-고로드가 건설되었고, 그다음 1호 및 2호 광산 마을이 들어섰으며, 이후 대형 탄광 근처에 구시가지가 조성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지역 산업 중심지답게 대대적으로 고층 건물로 이루어진 신시가지 건설이 시작되었다. 미하일롭카는 신시가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다. 카라간다에는 2번 광산에 단 한 곳의 교회만 있었다.

1946년 11월, 장로의 축복을 받아 볼쇼이 미하일롭카의 정교회 신자들은 해당 지역 당국에 종교 공동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자, 신자들은 알마아타에 있는 카자흐스탄 종교 담당 전권대표에게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1947년 11월, 카라간다 주 집행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지시가 내려졌다. “세바스티안 포민 신부가 무단으로 개관한 성당에서 예배를 집전하는 것을 금지하라.” 1947년과 1948년에도 알마아타로 재차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신자들은 청원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알마아타 교구 관리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대조국전쟁 당시 전사한 군인들의 부모들은 카라간다 주 군사위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유일한 위안은 전쟁에서 전사한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편지에 적혀 있듯이, “이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카자흐 SSR 소련각료회의 산하 종교사무위원회, 전권대표와의 서신 교환, D. 1, l. 12; D. 4, l. 45.].

볼셰미하일롭스키 교구에는 노비 고로드 외에도 멜콤비나트, 페도로프스키 광구, 미하일롭스카야 철도역, 사라니, 두보브카, 10개의 벽돌 공장, 노보스트로이카 지역, 카라간다의 5개 석탄 채굴장, 여러 광산 및 기타 (총 20개 지점). 그런데 신부는 한 명뿐이었고, 수녀들만이 그를 도왔다.

신자들은 기로프스키 기도소가 2번 광산에 이미 존재하는 기도소의 지부라도 되는 자격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1951년에 한동안 예배가 거행되던 미하일롭스키 기도실이 최종적으로 폐쇄되었다. 그리고 1953년이 되어서야 볼셰미하일롭스키 기도실에서 세례, 장례, 결혼, 고해성사 등 교회 성사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공식 허가를 얻어냈다. 이제 신부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더 많아졌지만, 신부님께서는 신자들의 개인 주택에서만 비밀리에 성찬식을 집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친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뒤, 작고 마른 체구에 긴 검은 코트와 검은 스쿠페를 쓴 신부님은 새벽 3시에 가볍고 빠른 걸음으로 어두운 카라간다 거리를 걸어, 미리 약속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교회 신자들이 한두 명씩 모여 있었습니다. 큰 명절에는 밤 1시부터 밤샘 기도회를 드렸고, 짧은 휴식 후에는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은 이불로 꼭 가려져 있

었지만, 집 안은 환하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예배는 새벽이 되기 전에 끝났고, 마찬가지로 어두운 거리를 따라 한 명, 두 명씩 집으로 흩어졌다.

이 시기에 영적 삶이 뛰어난 두 수녀, 아그니아 수녀와 아나스타시아 수녀가 카라간다에 도착했는데, 세바스티안 신부는 옴티나 푸스티냐 시절부터 이 두 분과 친분이 깊었다. 아그니아 수녀는 바르소노피이 장로의 영적 딸이자 재능 있는 화가로, 어린 시절부터 즈나메노-수호틴스키 수도원에서 성화 그리기 예술을 배웠다. 그녀는 독서를 많이 했으며, 성부들의 저술에 정통했고, 내면적으로는 매우 절제되고 지적인 성품을 지녔다. 아나스타시아 수녀는 넥타리 장로의 축복을 받아 성스러운 광인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종종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곤 했는데, 그 의미는 나중에야 드러나곤 했다. 그리고 모든 이를 향한 그녀의 배려와 영혼 속 천사 같은 선함을, 때로는 이웃들에게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그들의 죄와 결점을 지적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엄격함 뒤에 감추려 애썼다. 그러나 어머니 아나스타시아를 두려워한 것은 아직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뿐이었고, 그녀를 아는 이들은 그와 같은 사랑과 큰 존경으로 보답했다. 이 두 노녀는 은총의 은사를 부여받았다. 그들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고, 많은 것을 예리하게 예언했으나, 깊은 겸손을 지니고 세바스티안 신부의 지도 아래에서 살았다.

성당 설립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다. 신부님께 충성스러운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 크리보노소프가 몇 번이고 모스크바로 다녀왔고, 마침내 1955년에 볼쇼이 미하일롭카에 종교 공동체 등록을 위한 문서를 가져왔다.

주거용 건물을 성당 건물로 개조하는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모든 것을 신부님께서 직접 지휘하셨다. 벽 사이의 칸막이를 철거하고, 지붕 위에는 옛 숲 속 수도원의 성당에 있던 것과 같은 푸른 돔형 지붕을 세웠다. 공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지방 당국 관계자들은 성당 지붕을 단 1센티미터라도 높이는 것을 단호히 금지했다. 그러자 신부님은 하룻밤 사이에 신도들이 몰래 모여 그 밤 동안 교회 바닥을 1미터 깊이로 파내리도록 축복했다. 사람들은 삼을 들었고, 하룻밤 사이에 트럭으로 50입방미터의 흙을 실어 나갔다. 이로 인해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이전보다 1미터 높아졌다. 바닥은 재빨리 널빤지로 덮었고, 아침이 되자 교회에서는 이미 기도회가 거행되고 있었다.

마당에는 “경비실”이라 이름 붙인 집을 지었고, 여기에 점차 네 개의 방을 증축했다. 식당과 부엌, 수녀들을 위한 방, 그리고 따뜻하고 밝은 현관이 딸린 넓고 밝은 방으로, 이 방은 신부님의 거처가 되었다. 또한 뜰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와 세례절 물 축복식을 거행하기 위한 야외 예배당을 마련했고, 부엌에는 특히 명절 때 많이 찾아오던 방문객들을 위한 침대를 설치했다(몇 년 후 시의회 명령에 따라 침대는 치워졌다). 미하일롭카 주민들은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던 성화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 콘 중 일부는 1928년 옛 미하일롭카 교회가 폐쇄될 때 주민들이 구해 온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때 벨로루시에서 이주해 온 볼쇼이 미하일롭카의 첫 거주자들이 아토스 산에 의뢰해 제작한,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스콜로포슬루시니차” 이콘을 신부님은 이콘스타스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아그니아 수녀는 성모상과 동일한 크기로, 복음을 들고 계신 구세주 성화를 이콘스타스를 위해 그렸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하일롭스카야 교회를 위해 그 밖에도 많은 성화를 그렸습니다. 교회 용품과 예배용 서적, 성부들의 저서들은 모스크라의 ‘ ’에서, 한때 카를라그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프로토디아콘 야코프

가 보내주었다. 그리고 1955년, 주님의 승천 대축일 날, 볼쇼이 미하일롭카에 성모 마리아 탄생 기념 교회가 봉헌되었다.

신부님들은 바티슈카가 직접 선발했다. 먼저 유심히 지켜보다가, 나중에 불러서 “당신은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지역 집행위원회에서 농업 담당 지도직을 맡고 있던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 크리보노소프의 경우도 그랬다. 그는 그 말에 겁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바티슈카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 “그래, 잘됐군. 당분간 공부 좀 하고, 그다음 알마아타로 가서 사제 서품을 받으러 가거라.”

세바스티안 장로가 알마아타 및 카자흐스탄의 니콜라이(모길레프스키)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다:

“각하, 성 니콜라이 주교님, 주교님의 축복을 간청합니다. 주교님의 수련생, 합당치 못한 세바스티안입니다. 성스러운 주교님, 가능하다면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 크리보노소프를 사제로 서품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제 건강이 쇠약해져 본당을 돌보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대한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어 고해성사를 받는 이들과 성체를 영하는 이들이 많아, 저 혼자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제가 드리는 이 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제 교구 신자들을 위해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를 사제로 서품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는 도덕적이고 절제력이 있으며, 모든 면에서 사제 직분에 합당한 분입니다.”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 크리보노소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젊은 시절 그는 샤모르딘 여자 수도원을 찾았으며, 그곳에 거주하던 복녀 펠라기아는 그에게 미래의 삶의 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는 그가 정교회를 떠나 다양한 종교적·정치적 사상에 휩쓸리다가, 생의 말년에 “디베예프의 아르히만드리트”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후 그녀의 말은 적중했다. 그는 정교회를 떠나 스타로베르파에 가담했고, 다른 종교적 사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나 카라간다에서 세바스티안 장로를 만났을 때, 장로의 영향으로 그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정교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사제 서품을 받았다. 알렉산드르 신부는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목자가 되었으며, 예수 기도를 실천하는 이가 되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복녀 펠라기아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녀가 내게 예언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단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 예언을 통해 세바스티안 장로는 카라간다에 “디베예프 수도원”, 즉 디베예프 공동체와 유사한 여성 공동체를 세웠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장로가 세상을 떠난 후 알렉산드르 신부가 원장직을 맡았다. 즉, 하느님의 눈에는 그가 “디베예프의 아르히만드리트”였으며, 이것이 바로 복녀 펠라기아가 예언했던 바였다. 알렉산드르 신부는 1971년 7월 5일 주님 품에 안겼다.

또 다른 사제인 세라핌 니콜라예비치 트루파노프는 사제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래전에 사제 서품을 받았으나, 오랫동안 경제학자로 일했다. 그는 알렉산드르 신부님처럼 독신이었다. 그 후 신부님은 알마아타로 교회 장로 파벨 알렉산드로비치 코발렌코를 보내 안수를 받게 했다. 파벨 신부는 네 번째 사제가 되었다. 독신 서약을 한 디아콘 니콜라이 사마르체프 신부 역시 신부님의 측근이었다

신부님은 1955년부터 1966년까지, 즉 서거하기 전까지 11년 동안 성당의 주임 신부로 재직했다.

1957년 12월 22일, “예기치 않은 기쁨” 성모 마리아 성화 기념일에, 페트로파블롭스크 및 쿠스타나이 대주교 요시프(체르노프)에 의해 신부님은 아르히만드리트 서품을 받았으며, “성교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에” 대한 공로로 총대주교 서한을 수여받았습니다.

1964년, 자신의 수호성인의 날을 맞아 주교 지팡이를 수여받았는데, 이는 유례가 없는 영예였다. 복된 임종을 앞두고 바티슈카는 스키마(수도사 서원)를 받았다.

바티우슈카 신부는 1909년부터 1966년까지 57년 동안, 브베덴스카야 옴티나 푸스티니의 스킵트에서 수련자로 시작해 원장직을 거쳐 아르히만드리트 서품을 받는 데 이르기까지, 정교회에 지칠 줄 모르는 수도자로서의 봉사를 수행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교회 규정을 흠잡을 데 없이 준수하셨으며, 예배 중에 누락이나 생략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예배는 그분에게 있어 내적 삶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었습니다. 바티슈카는 특히 주님의 승천 축일과 성 삼위일체 축일을,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날이자 모든 그리스도의 신비의 정점으로서 경건하게 여겼습니다. 대화에서 그분이 가장 즐겨 언급하던 인물은 요한 신학자였으며, 그분의 기념일을 특히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신도들이 이 ‘사랑의 사도’를 마땅히 공경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 오늘은 성 니콜라오의 유해 이송 기념일인데,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성 요한 신학자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의 축일이었는데, 교회는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더 높고, 누구를 더 공경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어느 축제가 더 중요합니까?” 또한 그는 주님의 선구자이자 세례자 요한을 기리는 7일간의 기념 기간과,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수호성인인 성 코스마와 다미안(7월 1/14일)의 축일을 특히 공경했습니다.

신부님은 사람들이 촛불을 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영적 자녀나 신자 중 한 명을 불러 촛불 한 묶음을 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하고 촛불을 더 자주 켜라.” 그 사람에게 무언가 위협이 닥칠 조짐이 있었거나, 신부님이 그 사람이 촛불을 드물게 켜는 것을 눈치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종종 나중에 밝혀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생활을 하는 한 영적 딸에게 신부님은 어떤 기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촛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이 촛불이 되십시오.” 마찬가지로 신부님은 성화를 공경하도록 가르치셨고, 성화에 대해 경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교회의 승리는 축일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상 파괴주의 이단을 물리치고 타도했다는 것입니다. 성상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주신 것이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성령의 은총이 축적되는 특별한 성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은총의 영광에 있어 특별한 성상들도 있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기도가 깃든 기적의 성화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마치 작은 시냇물처럼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전해 온다.” 신부님께서 누군가 성화에 입맞춤을 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사랑하는 이여, 무언가를 숙고하고 거부할 때는 네 마음과 생각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어라.”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사랑하는 이여, 우선 자네가 많은 것을 이해

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 그래서 쉽게 실수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지혜로 착각하곤 하니까.” 어느 날 대화 중에 신부님은 장로 네크타리우스가 항상 지혜와 이성, 분별력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경건함으로 이끈다. 그리고 분별력의 은사를 잃은 사람은 종종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려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얻어야 한다.”

신부님의 끊임없는 염원은 자신의 의지를 끌어냄으로써 사람들의 영혼 속에 깊은 평화를 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양떼의 삶을 수도원 생활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누군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조언을 따르지 않으면 매우 속상해하셨는데, 이는 언제나 해가 되고 종종 그 사람에게 불행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슬픔에 잠길 정도로 속상해하셨습니다. 꾸짖고, 등을 돌리며 축복도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거나, 그 사람이 회개하여 결국 그분의 조언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 매우 기뻐하시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 후 직접 무언가로 기쁨을 주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왜 울면서 빌고 있니? 이제 참아야 할 거야.” 그리고 소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니? 왜? 내가... – 말을 더듬으며 – 항상 틀리는 건 아니잖아.” 이것이 바로 그의 겸손함이 었다. 신부님은 신도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면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고해성사를 들을 때도 자주 울곤 했다. 왜였을까? 죄악에 공포를 느꼈기 때문인지, 마땅한 회개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예감했기 때문인지...

신부님의 사랑은 다정하고 배려심 깊었다. 가끔 화를 내시기도 했지만 드물었다. 그럴 때면 아주 어린아이처럼 보이셨다. “자, 내가 막대기를 들고 너를 이렇게 때려주마, 막대기로 제대로 때려주마!”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 종종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곤 했다. 물론 막대기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신부님을 실망시킨 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은 솔직한 대화 중에 무심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는지...”

신부님은 섬세한 유머 감각을 지니고 계셨으며 농담을 즐기셨지만, 항상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님의 모든 조언은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신부님의 신실한 신도들의 삶은 질서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신부님의 신도들”이라고 불렀고, 미하일롭카 주민의 절반 가량이 마치 암묵적인 수도원처럼 살아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신부님의 건강은 약했다. 특히 식도 협착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다. 모두는 식사 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신부님을 방해하거나 대화로 주의를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신부님은 즉시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구토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병은 장로가 긴 생애 동안 겪은 수많은 정신적 충격의 결과였다. 그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다. 교회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을 때, 신부님이 가장 가까운 이들과 함께 비밀리에 성찬식을 집전할 때면, 그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 신부님, 예배를 집전해 보세요! 내가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군가 와서 모두를 체포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신부님의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

다. 가끔 군복을 입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신부님은 벌써 “지금 당장 다가와 예배를 중단시키고 체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신도 중 한 명이 신부님께 “저는 저 사람을 무서워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 하지만 교회가 문을 닫을까 봐 두렵지. 바로 그게 두렵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 두려워하는 거야.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가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다.” 이것이 신부님의 말씀이었다.

신부님께서 건강하셨을 때, 매번 성찬예배 후에는 기도회를 집전하셨습니다. 성가대가 노래하고, 두 편의 아카피스트가 낭독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력이 쇠약해지시자 아카피스트는 절반만 낭독되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날 무렵 신부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입을 맞추게 하시고는 반드시 짧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항상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다. 물론, 기도회에는 온 교회가 남아 있었다.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다만 성가대석에는 열일곱 살까지의 소녀들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만이 서서 노래하고 있었다. 그리고 검사하러 온 담당관이 오면 모두 숨어버렸다. “당국이다!”라는 소리가 나자마자 모두 숨어버렸다. 담당관과 함께 여덟 명씩 찾아오곤 했다. 성당에 들어서면 성가대석에는 할머니들만 서 계셨다. 당국은 교회를 폐쇄하는 것을 늘 꿈꿔왔고, 신부님을 자주 ‘거기’로 불러냈다. 신부님이 오시면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 할아버지는 뭐야, – 그들이 말하곤 했다. – 우리가 아무 말도 못 하게? 뭐, 좀 더 늙게 놔두자. 그 할아버지의 노년이 지나가면 교회를 닫아버리자.” 그리고 지역 당국 대표들은 모든 대화를 알렉산드르 신부님과 하는 것을 선호했다. 신부님의 영적 위엄은 그들에게 분명히 느껴졌고, 마치 그들을 두렵게 하며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주 집행위원회 산하 종교 담당 위원이 신부님의 성당 이장에게, 사제들이 사란 시와 두보브카 마을로 나가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곳들은 다른 구역에 속하기 때문이었다. 교구장은 이 요구를 신부님께 전달했고, 신부님께서서는 다음 날 교구장과 함께 직접 주 집행위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신부님이 담당관과 대화를 시작하자, 그는 즉시 태도를 바꾸어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심지어 신부님께 사과까지 했다. 신부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담당관 동지, 광부들의 요청에 따라 사란, 두보브카 및 다른 마을에서 예배를 집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가끔은 병든 어머니에게 성체를 나누어 달라고 하거나, 고인을 위해 장례 미사를 집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담당관은 호의적으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신부님이 그에게 어떤 요청을 하든, 그는 거의 거절하지 않았고, 이후 촌장에게는 이 일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부님의 신자들에게 있어 가장 성대한 행사는 신부님의 수호성인의 날과 생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신부님께 다가가 축하를 드리고, 비록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예우나 특별한 관심도 좋아하지 않으셨고, 선물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모여 그를 축하하려 하면, 그는 늦은 밤이나 다음 날에야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수호성인의 날, 신부님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수도실 문을 열었는데, 아직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뜻밖에도 “누구야?! 누가 내 영혼과 방을 어지럽히도록 허락했단 말이냐?!” 신부님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란 수녀들이 방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 옆에 새 부르카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신부님의 축복 없이 그것을 놓아 둔 것이었다.

또한 신부님께서는 누군가를 지나치게 칭송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그럴 때면 즉시 그 사람의 어떤 결점을 지적하셨다. 반대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을 보시면, 바로 그 사람에게서 가장 훌륭한 자질을 찾아내셨다.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좋은 점을 찾아내셨다.

신부님은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장례 미사가 끝난 후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장례 미사를 너무 오래 집전하셨잖아요.” 신부님은 탁자 위에서 빵 한 개를 집어 들고, 그것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런 빵 하나하나마다 제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신부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절제하셨습니다. “차르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일에서 황금률을 지키되, 무엇보다도 항상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신성한 섭리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는 자연을 무척 사랑했고, 동물을 불쌍히 여겼으며, 특히 마음이 매우 온화했다. 어느 날 부엌에 살던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다섯 마리나 여섯 마리를 낳았다. 요리사가 새끼 고양이들을 물에 빠뜨려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신부님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신부님은 온몸이 떨리며, 거의 소리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감히 물에 빠뜨리지 마세요! 모두 키우겠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은 그대로 남겨졌고, 자라나자 미하일롭스키 교구 신도들이 “신부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거의 싸울 뻔할 정도로 서로 데려갔습니다.

신부님은 두보브카, 사란, 페도로브카, 토파르 같은 마을들을 자주 다녀오셨습니다. 집에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집에서 장례 미사를 집전하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이 다녀가신 곳들에는 현재 그의 기도로 인해 본당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이 복역했던 돌린카 마을에도 가보셨습니다. 그리고 돌린카에 있는, 그가 수감되었던 수용소에는 신부님이 직접 손으로 새겨 놓은 나무 십자가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이후로 나무는 자랐고, 그와 함께 십자가도 자랐다. 그곳, 돌린카에서는 거의 모든 나무 밑에 한 사람, 즉 수감자가 묻혀 있으며, 거의 모든 나무 밑에 무덤이 있다.

하지만 신부님은 특히 멜콤비나트 마을에 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미하일롭카에는 자신의 “오텐나”가 있고, 멜콤비나트에는 “스키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신부님은 고아들과 과부들을 모아, 그들에게 작은 집들을 사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멜콤비나트에 기도하러 오시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과 근심을 제쳐두고 하나둘씩 신부님이 계신 곳으로 서둘러 갔는데, 그저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부님은 모든 이를 사랑으로 맞이하시고, 각자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곳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멜콤비나트에는 바투슈카를 찾아온, 아내를 잃은 그의 형 일라리온이 막내 딸과 손녀 타이시아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이미 키가 크고 허리가 곧은 노련한 장로였다. 일요일과 명절이면 일라리온 바실리에비치는 딸과 손녀를 데리고 교회에 왔다. 신부님께 축복을 받으러 다가갈 때면, 그는 땅에 닿을 듯이 절을 하고 경건하게 신부님의 손에 입을 맞추었으며, 고해성사 때는 무릎을 꿇곤 했다.

임종 전에 그는 라소포르(수련 수도사)로 서원했고, 신부님은 친히 자신의 형인 수도사 일라리온의 장례 미사를 집전했다.

대대로 이어져 온 수도원 관습에 따라 신부님은 특히 영결 예배를 집전하는 것을 좋아하셨으며, 매일 직접 영결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여성들의 장례식을 집전하고 그들을 기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의 죄가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고인들의 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가끔은 새벽 3시나 4시에 수녀들을 깨워, 그들에게 영결 기도를 가져오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신자들은 —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 — 이런 꿈을 꾸곤 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서 있는데, 모두 금으로 되어 있고 높으며, 그중에는 온통 십자가로 뒤덮인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십자가로 온통 뒤덮인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 “이것은,” 누군가 대답하길, “스키아르히만드리트 세바스티안의 교회입니다. 그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이 교회는 온통 십자가로 둘러싸여 있어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벌써 40년째 서 있습니다.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영혼은 영원히 살아 있으며,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신이 소멸될 뿐이라는 사실이 저절로, 그리고 부인할 수 없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진리였고, 신부님도 그에 대해 소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신부님은 예지력을 지니고 계셨지만, 그 재능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신부님의 예지력은 오직 상황이 요구할 때에만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은 추모 예배를 집전하며 추모 대상자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읽으셨습니다. “요한나, 시메온, 올라, 마리아...” 읽다가 신부님은 멈추시고, 쪽지를 손에 든 채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누가 이 추모 명단을 제출했나요? 요안나, 시메온, 올라, 마리아?” “저예요, 신부님,” 한 여성이 대답했다. “시메온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오래전예요, 신부님.” “그 명단을 가져가세요. 저는 추모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사망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여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신부님, 제가 그런 일을 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망자 기도의 명단에 적으면, 그 사람이 심하게 불안해하며 자신을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무례한 미신이 있다). — “그래요, 잘됐네요. 증명서를 가져오세요.” 신부님은 이 여성을 알지 못했는데, 그녀는 외지인이었기에 그렇지 않았다면 감히 신부님을 속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사건도 있었다. 마리아 스타카노바라는 한 젊은 여성이 교회에서 성가대석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녀는 유아원에서 자란 후 아동 보호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어느 날 마리아가 신부님께 다가와, 부모님의 이름과 국적을 알지 못해 그들을 기리며 안식을 빌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네,” 신부님이 말씀하셨다. “내일 다시 오렴, 그때 이야기하자.” 다음 날 신부님은 직접 그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루샤, 네 부모님은 러시아인이고 정교도였으며, 추방당하셨다. 아버지의 이름은...” — 그리고 신부님은 아버지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다. 마리아는 무척 기뻐하며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신부님은 공개적으로 누구도 치유하지도, 훈계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겸손함과 소박함으로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누구도 치유하지 않고, 누구도 훈계하지 않으니, 병원으로 가세요.” “나는,” 그가 말하곤 했다, “물고기처럼, 목소리가 없는 존재야.”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낮추었다. 그는 비밀스러운 기도로 사람들을 도왔다.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고통을 견뎌야 하겠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 고난이 고통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십자가를 벗겨 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고통을 견뎌야 하지만, 천국에서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시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영적인 지혜와 위대한 인내심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이웃을 원망하면, 신부님께서는 “나는 여러분 모두를 참아 주는데, 여러분은 한 사람조차 참아 주지 않으려 하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신부님께서는 “나는 원장인데, 여러분 모두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라며 걱정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모든 이의 구원을 염려하셨고, 그것이 신부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분은 “더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향로를 깜빡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자, 신부님은 “내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부님은 “자, 내가 여기 눈먼 자, 절름발이, 이모네, 고모네 아이들을 다 모아놓았구나. 나 자신도 병자이면서 병자들을 모았구나.” 그와 함께 예배를 집전하던 알렉산드르 신부는 목소리가 없었고, 파벨 신부도 목소리가 아주 작았다. “자, 다 모였으니 천천히 예배를 드립시다, 이 병약한 이들과 쇠약한 이들이여!”

신부님께서는 수도원을 돌아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 신부님은 말씀하셨다, – 라브라도 있고, 포차예프도 있고, 옴티나도 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으니,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다.” 누군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 하면,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디에도 가지 마라. 어디에나 재앙이 닥칠 것이고, 어디에나 혼란이 있을 것이나, 카라간다에는 그저 살짝 스칠 뿐이다.”

## 세바스티안 신부님의 병

알렉시 1세 총대주교께서는 신부님을 뵈고 대화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피티림(네차예프) 주교에게 신부님을 적어도 비행기로라도 모셔오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이미 기력이 쇠약해져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장로님은 대답하시고 카라간다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봉사의 여정 속에서 세월이 흘렀다. 신부님의 건강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쇠약함과 호흡 곤란, 온몸의 통증, 식욕 부진이 점점 심해졌다. 탈장 부위와 흉곽 부위에 거의 끊임없이 통증이 있었다. 주치의들은 종합적인 치료를 실시했으나, 신부님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고통만 일시적으로 완화될 뿐이었다. 하지만 신부님은 매일 예배 시간에는 성당에 나가셨습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한 성찬례나 밤샘 예배를 집에서 지낸다면, 내가 무슨 성직자이겠는가?” 신부님은 매일 위령 미사를 집전하셨지만, 성찬례는 이제 명절 때만 거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바스티안 장로가 알마티 및 카자흐스탄 대주교 요셉(체르노프)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극히 존경하는 요시프 주교님. 저희 모두를 위해 주교님의 축복을 청하며, 지금까지 답장을 드리지 못한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주교님께 편지를 쓰고 축일을 축하해 드리고자 했으나, 결국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보로 축하의 말씀을 드렸으나, 답장은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병과 육체적 쇠약은 물론, 사목 활동과 가사 일, 그리고 예배 등 모든 것이 병약한 저를 지치게 합니다. 병은 밤에도 도무지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기침과 탈장이 심하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기만 할 뿐,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 성탄절이 지났는데, 벌써 그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명절은 즐겁고 무사히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직 평화와 화합 속에서 살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이 신부님을 사제로, 파벨 알렉세예비치 장로를 집사로 서품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성경 봉독과 성가 부르기에 매우 열심인데, 요즘은 그런 신실하고 열정적인 신자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일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주교님의 축복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에 관해서는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주교님 곁에서 알렉산드르 신부님과 안드레이 신부님을 맞이했던 글레보프가 계속 아파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축 허가가 옛 장소에서 나올지, 다른 장소에서 나올지, 아니면 아예 거부될지 정확한 결과를 알고 싶었습니다. 건축 자재는 조금씩 마련하고 있지만, 확정된 장소가 없어서 어디에 쌓아두고 보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요셉 주교님, 제가 직책에서 물러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교님의 축복을 청하며, 알렉산드르 신부님이나 세라핌 신부님, 혹은 니콜라이 신부님 중 한 분이 주임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머리가 약하고, 병으로 인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건축과 예배에 따르는 걱정과 수고는 제 건강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은퇴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알렉산드르 신부님을 주교님의 동의와 신자들의 동의하에 원장 신부로 임명해 주십시오. 저와 같은 보잘것없는 수련생은 물론, 알렉산드르 신부님, 세라핌 신부님, 니콜라이 신부님, 성직자 여러분, 모든 교회 관계자,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주교님께 절을 올리며, 주교님의 축복과 거룩한 기도를 간청합니다.”

성당 내에서는 그를 위한 장례 미사를 드리는 공간 뒤에 칸막이로 작은 방을 따로 마련해 두었는데, 이를 “카유티카”라고 불렀습니다. 뒷벽 쪽 커튼 뒤에는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미사 중에 통증이나 심한 쇠약으로 괴로울 때 그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의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어머니 아그니아가 쓴 글씨로 된 거대한 삼위일체 성화가 걸려 있었다. 가끔 신부님은 탄식을 내뱉고는 침대에 누우시곤 했는데, 발이 조금 더 높게 되도록 발 밑에 베개를 받쳐 주었다. 신부님은 반망토를 입고, 에피트라킬리와 팔찌를 착용하고 계셨다. 때로는 누운 채로 에크텐니를 드리기도 했다. 복음서를 읽을 때는 항상 일어나서 펠론을 걸치고, 펠론을 입은 채로 복음서를 읽으셨다.

신부님께서서는 의자에 앉아서 고해성사를 받으셨습니다. 방문객들과 대화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온 방문객들에게만은 거절하지 않으셨지만, 나중에는 그들과의 대화도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1965년 12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시작되었다. 자신의 방에서 교회로 가기 위해 마당을 지나가던 신부님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건강을 지켜보던 올가 페도로브나 오를로바와 타티아나 블라디미로브나 토르텐스텐 의사들은 “이렇게 혹한이 심한 날에는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날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966년 1월부터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만성 질환들이 악화되었다.

주치의 올가 페도로브나 오를로바는 다음과 같은 질환을 진단했다: 기관지 확장증과 미세 농양이 동반된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식도 협착, 전립선 선종 및 그로 인한 합병증: 중증 증상성 고혈압을 동반한 만성 신우신염, 빈번한 부분적 끼임 증상을 보이는 양측 서혜부 탈장. 신부님께서는 이러한 질병들을 수년 동안 견뎌오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전례를 집전하기가 어려워진 점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예배 중에 자주 기침을 하고 숨이 차곤 했습니다. 의사들은 아침 예배 전에 주사를 맞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부님은 기뻐하며 동의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록 힘들긴 했지만 성당으로 가서 예배를 집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주사를 맞은 후에도 성당까지 걸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의 고통을 지켜보던 의사들은 수련생들이 의자에 앉힌 채 신부님을 성당으로 모셔다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오랜 설득 끝에 주치의 타티아나 블라디미로브나가 환자의 불순종에 눈물을 흘리자, 신부님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울지 마세요. 안고 가도록 하세요.”

소년 부제이자 신부님의 수련생인 알렉산드르 키셀레프 [현재 프로토이레르 알렉산드르, 성모 마리아 탄생 성당 주임 신부.], 알렉세이 베레텐니코프 [고(故) 예로모나흐 게르만.], 페트르 고로슈코 [현재는 이구멘 페트르; 같은 성당에서 사목 중.], 바실리 피사레프 [고(故) 수도사 바실리.], 이들은 재빨리 알루미늄 튜브로 가벼운 의자를 만들었고, 수녀는 신부님의 입을 따뜻한 스카프로 감싸 준 뒤, 신부님을 의자에 앉혀 교회로 모셔갔다. 처음에는 매우 부끄러워했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하곤 했다. 수녀가 옷을 입혀 줄 때마다, 그는 소년들을 기다리며 말하곤 했다. “자, 준비됐어! 내 말들은 어디 있니?” 그리고 어느 날, 그를 메고 갈 때 타티아나 블라디미로브나가 곁을 따라오자, 그는 말했다. “자, 또 한 마리가 붙었네.”

신부님의 주치의들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다정한 환자인지에 놀라곤 했다. 그는 불평 한 마디 없이 처방받은 치료를 따랐지만, 미리 어떤 약을 처방받는지, 그 약의 효능은 무엇인지,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물어보곤 했다.

신부님은 의료진을 존중했고, 간호조무사부터 의사까지 모든 이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학업을 위해 축복을 받으러 찾아올 때면, 신부님은 대개 의과전문학교 진학을 축복해 주었고, 가끔은 대학 진학을, 그리고 일할 곳으로는 병원의 간호조무사 직업을 권했다. “치료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는 보수적 치료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의 축복을 받고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신부님 자신

도 훌륭한 진단가였습니다. 자신의 주치의인 올가 페도로브나를 환자를 진찰하러 보내며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올가 페도로브나, 환자를 진찰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분에게 이런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내린 진단은 확인되곤 했다.

날이 갈수록 신부님의 상태는 악화되어만 갔다. 2월에 요시프 주교님께서 카라간다에 오셨다. 신부님은 몸이 약하셨지만, 주교님과 함께 예배를 집전하셨다. 작별 인사를 하며 주교님께서 “이제 부활절이 지나면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께 상을 드리겠습니다. 포도 한 바구니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는 눈물이 흐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종종 죽음과 영원으로의 넘어감에 대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누군가 “신부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라고 묻자, 신부님께서서는 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란 말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계셨고, 계시며, 영원히 계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비록 나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반면, 설령 내 수도복 자락을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를 알고 나를 보았던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낮게 평가할 것이다.” “가까우면 미끄럽고, 멀면 깊다.”

대순교 기간이 시작되었다. 이는 장로의 생애에서 마지막 대순교 기간이었다. [세바스티안 장로의 생애 마지막 날들과 서거에 대한 기록은 장로의 주치의였던 타티아나 블라디미로브나 토르텐스텐과 올가 페도로브나 오르로바의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용서의 주일에 그는 성찬식을 집전했고, 저녁에는 용서 예식을 거행했다. 그는 정신이 맑고 얼굴에 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대사순절 첫 주간의 첫 4일 동안 교회에서는 수요일 ‘성체 예식’ 후의 수프를 제외하고는 삶은 음식을 전혀 먹지 않았다. 신부님께서서는 그날 기력이 약한 이들에게 성찬을 받도록 축복해 주셨다. 금요일까지 남은 날들에는 아무것도 삶지 않았고, 차조차 끓이지 않았습니다. 대저녁기도 후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검은 빵, 김치, 절인 오이, 생양파가 차려졌습니다.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신부님께서 따뜻하게 구운 감자와 구운 양파를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금요일 성체 성사 미사에는 많은 성체 영성체자들이 모였습니다. 미사 후에는 버섯 수프와 달콤한 죽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점심에 남은 죽, 흰 빵 부스러기, 흰 빵을 먹었습니다.

사순절 첫 주 동안 신부님께서서는 매일 미사를 집전하셨고, 직접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성 안드레이 크리토스 대성인의 대회개 캐논을 낭독하셨습니다. 일요일 ‘정통교회의 승전 기념일’에는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님께서서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고, 누구도 접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금식 제2주, 제3주가 지났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이 진행되었고, 신부님께서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것 같았다.

3월 13일, 키예프 대학교 교수의 아들인 젊은 이에로디아콘 파벨 신부가 키예프에서 신부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가족은 약 10년 전에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4주 차 내내 파벨 신부는 교회에서 성서를 낭독했는데, 매우 아름답고 표현력 있게,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이 발음하며 제단에서 보조 사제로 봉사했고, 잠이 날 때마다 신부님 곁에 머물려고 노력

했다. 신부님은 그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다. 신부님뿐만 아니라 교회에 사는 모든 이들도 파벨 신부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매우 겸손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서 높은 교양이 느껴졌다. 신부님은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3월 21일, 오사카로브카 마을에서 안드레이 신부가 도착했다. 그는 신부님께 교회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성가대를 지휘할 조력자를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신부님께서도 경험 많은 성가대원 한 명을 보내시기로 허락하셨고, 갑자기 파벨 신부에게도 그녀와 함께 오사카로브카로 가도록 허락하셨다. 파벨 신부와 신부님 사이에는 매우 감동적인 대화가 오갔다. 물론 파벨 신부는 파리에서 러시아로, 그리고 신부님을 찾아온 것이 외딴 황야에 홀로 남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스승님 곁에 머물기 위해 왔는데, 스승님께서 자신을 쫓아내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키예프 근처에 있는 제 은둔처로 돌아가겠습니다.” 스승님: “내가 너에게 은둔처를 주겠느냐! 내가 내게 왔으니 내가 너를 받아들였을 뿐이다. 네가 스스로 원해서 온 거지, 내가 부른 게 아니야. 자, 오사카로브카에 있는 은둔처나 가라!” 파벨 신부: “저를 보내 주십시오. 신부님을 완전히 떠나게 축복해 주십시오.” 신부님은 화가 나셨다: “자, 내가 키예프를 주겠다, 막대기로 때려주겠다, 막대기로 때려주고 밧줄도 가져와서 밧줄로 때려주겠다! 너 수도사냐?!” 파벨 신부는 신부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용서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오사카로브카로 가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수도 생활을 시작하며 축복해 주었던 성화를 가져왔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모두가 파벨 신부를 안타까워했고, 모두 마음이 상했다. 신부님을 원망하며 말했다. “파벨 신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예요. 성경을 얼마나 잘 읽으시고, 성가대에서도 노래를 잘 부르시잖아요. 우리에게겐 남성 목소리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제단에서도, 성물실에서도 어디서나 도와주시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시려는 겁니까? 안드레이 신부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서 뽑게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신부님께 와서 부탁할 겁니다.” 신부님은 침묵하셨다.

안드레이 신부는 서둘러 떠나려 했다. 모두가 파벨 신부를 배웅하러 나왔다. 모두가 안드레이 신부를 꾸짖었다. 파벨 신부는 멍하고 당황한 표정이었다. 신부님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전야 기도회 전, 신부님은 차를 마시며 누구와도 말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은 세바스티아의 40위 순교자 축일이었습니다. 전야 기도회 동안 신부님은 동요해 계셨고, 수녀들이 말하듯 “격앙되어” 계셨습니다. 알렉산드르 신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할지 낭독할지 물었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또한 알렉산드르 신부와 알레샤 베레텐니코프 신부는 신부님께서 성당 전체에 향을 피우러 가시는 것을 막았을 때 또다시 꾸지람을 들었다. 신부님께서도 화가 나신 목소리로 “축복해 주시오, 내가 직접 가서 향을 피우겠소.”라고 말씀하셨다. 신부님께서 직접 성당 전체를 돌며 향을 피우셨다.

3월 22일 금요일, 신부님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자신의 영적 딸 한 분의 장례 미사를 집전하셨다. 장례 미사 도중 눈물을 흘리셨다.

시베리아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데려왔다. 신부님은 미리 축성된 성찬의 전례를 집전하셨다. 그 여인은 예배 내내 때로는 고양이처럼 야옹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양처럼 메에메에 울기도 하며, 때

로는 수탉처럼 울부짖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현관으로 끌고 나갔다. 그녀는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3월 24일 일요일 저녁, 기도하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교회가 거의 텅 비었을 때, 신부님은 여전히 자신의 “작은 방”에 계셨다. 구석에는 그 여자가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녀 곁에는 동행한 여성 중 한 명이 함께 있었다. 갑자기 왕의 문이 열리고, 신부님이 완전한 예복을 차려입고, 망토를 두르고 지팡이를 든 채 강단에 올라섰다. 그 여자는 바닥에서 일어나 짓고 야옹거리며 신부님을 향해 걸어갔다. 신부님께 다다르기도 전에, 그녀는 수탉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자!” – 신부님이 큰 소리로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귀신 들린 여자는 다시 소리쳤지만, 훨씬 더 조용했다. “자!” – 신부님이 되풀이했다. 그녀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듯 아주 조용히 소리쳤다. “자!” – 신부님이 세 번째로 말했다. 그녀는 침묵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당신은 여호수아 나빈이예요.” – “나는 여호수아 나빈이 아니라 세바스티안이다.” – 신부님이 위엄 있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여기 신부님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하라.”

금요일, 신부님은 미사를 집전하지 않고 제단 안에 앉아 계셨다. 예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는 미사 동안 차분히 서 있었고, 조용히 성체를 영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시베리아로 끌려갔다.

제6주 일요일, 신부님은 미사를 집전하지 않고 제단 안의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성찬식을 마친 후 “회개의 문을 열어 주소서, 생명의 주님...”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날부터 신부님의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 31일 새벽 3시, 신부님께서는 수녀를 깨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정도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분명 영혼이 육신을 떠나려 하는 것이겠지요.” 밤새 산소 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해 드렸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차분하게 숨을 쉬기 시작하셨습니다.

라자르 토요일인 4월 2일, 신부님께서는 매우 의미 있고 지극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새벽 3시에 신부님은 수녀를 깨워 알렉산드르 신부를 불러 달라고 부탁했다. 기쁨에 빛나고 떨리는 모습으로, 신부님은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알렉산드르 신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알고 있는 것은 알렉산드르 신부님이 신부님의 고해성사를 듣고 성체를 영하게 해 주셨다는 것뿐입니다. 신부님은 성체를 영하신 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노래하기 시작하셨고, 수녀 한 명을 보내 합창단 소녀들을 깨워 불러오게 하여 부활절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소녀들이 모두 흰 머리수건을 두르고 와서 부활절 트로파르와 스티히르, 카논의 이르모스를 불렀다. 노래가 모두 끝나자 신부님은 물으셨다. “부엌에 누가 있나? 달걀을 세 가지로 삶아 달라고 전해라. 반숙, 완숙, 그리고 주머니 모양으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침에 신부님은 시녀에게 우유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셨다. “자, 이거 봐,”라고 말씀하시며, “다 크바스와 오크로슈카뿐이네. 도대체 왜 나한테 자꾸 크바스만 먹이려 하는 거야? 우유라도 좀 줘야지.” 시녀는 가게에 다녀와 우유를 가져왔다. 아무도 신부님께 반박하지 않았다. 수녀는 우유를 머그잔에 따르고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다. “신부님, 오늘은 라자레바 토요일이고, 그다음은 성토요일, 그다음에야 부활절이잖아요. 오늘이 부활절이었다면, 우리 집에 달걀 물들이기가 얼마나 많았을지,

쿠리치가 얼마나 많았을지!” 신부님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 그게 문제였구나!” 하고는 우유가 담긴 컵을 밀어냈다. “우유는 이미 다 떨어졌구나! 그럼 오크로슈카를 가져와.”

저녁이 되자 신부님은 창가 식탁에 앉아, 사람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교회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밤샘 예배를 위해 모이고 있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선조들과 조상들,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곁으로 가야 합니다.”

4월 5일 화요일, 장례 미사가 끝난 후 신부님은 알렉산드르 신부에게 말씀하셨다. “오사카로브 카로 전보를 빨리 보내서 파벨 신부님이 완전히 돌아오게 하시오.”

4월 9일. 성주간 토요일. 전례가 진행되는 동안 신부님은 자신의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전례가 끝난 후 망토와 수도복을 착용하고 신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나오셨습니다. 다가오는 축일을 맞아 모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이 땅의 삶을 떠납니다. 여러분과 이별할 제 때가 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평화롭게 살아가십시오. 평화와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 사이에 이를 간직한다면,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이 깃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밝은 새벽 예배와 부활절 축제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기쁨을 위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평화와 사랑, 진심 어린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외적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여러분의 영혼 깊이와 마음속에서 이를 수 있는 것, 즉 평화로운 고요함과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결코 누구에게도 비뚤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직하게 바라보며, 어떤 선한 대답이나 선한 행동에도 기꺼이 마음을 열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허리까지 깊이 절을 하고는 비틀거렸습니다. 조용히, 간신히 제단으로 들어가 집으로,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흠어들지 않고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4월 10일, 부활절 밤, 신부님은 교회로 모셔가 주기를 원하셨지만 일어나실 수 없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은 마음속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새벽 예배가 진행 중이었다. 타티아나 블라디미로브나 의사는 예배를 중단하고 신부님께 달려갔다. 신부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교회에서 나가셨나요?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죽은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성찬식이 시작되자, 신부님께 올라 페도로브나 의사를 불러들였다. 진통 주사를 맞은 후 그의 상태는 차분해졌고, 심지어 기쁨에 차 있었다. “저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예전에는 제가 직접 노래를 잘 불렀거든요. 부활절 주간 내내 제 방에서 ‘부활절 찬송’을 불렀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위해 노래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네요. 하지만 전 여기 있고 싶지 않고, 교회에 가고 싶어요. 망토와 수도복을 입고, 적어도 미사 시간만큼은 그렇게 앉아 있고 싶어요.” 수녀가 그에게 옷을 입혀 주자,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과 평화 속에서 살며, 결코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그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니, 무엇을 걱정하

거나, 무엇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금세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부님께 옷을 입혀 드리고, 소년들이 그를 교회로 모셔 갔습니다.

일요일 오후, 신부님은 크림색의 새 비단 수도복을 입고 자신의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방금 누워서 오퍼나에서 장로님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떠올리고 있었어요.”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시프 신부님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으셨지만, ‘작은’ 아나톨리 신부님은 단 한 순간도 아프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기적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성사는... 정말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는 그분의 영성과 위대한 겸손함으로 인해, 제 스승이신 넥타리 신부님께 가장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혁명 이후 두 분의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 오퍼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스키토장인 테오도시 신부님은 192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오퍼나에서는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0년에 내전이 끝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1922년에는 박해와 수색, 체포가 잦았습니다. 아나톨리 장로에게도 차례가 돌아왔다. 7월 28일, 그들이 찾아와 오랫동안 수색을 했다. 그러고는 “자, 짐을 챙기세요.”라고 말했다. 그는 아침까지 시간을 주어 짐을 챙길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동의했고, 시종에게 아침까지 장로를 깨워 출발 준비를 시키라고 엄하게 지시했다. 그리고는 떠났다. 장로는 기도에 잠겼다. 방 관리인은 두 시간 정도 기다렸지만, 장로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가 방으로 들어가 말했다. “신부님, 이제 짐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자 장로는 대답했다. “가라, 내 기도 방해하지 마라.” 다시 찾아와 부탁했다. “신부님, 이제 짐을 챙기셔야 합니다.” “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야? 난 그들과 함께 어디로도 가지 않을 테니, 가라.” 시종이 세 번째로 찾아왔을 때, 아나톨리 신부님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가슴에 두 손을 모은 채 –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그래서 수도원 관리인은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장로를 예복으로 입혀 탁자 위에 눕힌 뒤, 촛불을 켜고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장로님 준비되셨나요?”라고 묻자, 수도원 관리인은 “준비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라고 대답했다. 그들이 들어오자, 장로는 탁자 위에 죽은 채로 누워 있었다. 물론, 모두 매우 놀랐습니다. 아나톨리 신부는 오퍼나 묘지에서 마카리 장로 곁에 마지막으로 안장되었습니다. 무덤을 파던 중 마카리 장로의 관이 손상되었고, 썩지 않은 장로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 아그니아 수녀의 어머니께서 신부님께 부활절 달걀을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은 기쁨에 찬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그녀가 우리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녀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해왔는지.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은 그녀에게 의지하십시오.”

새벽 3시, 신부님께 인후 출혈이 시작되었다. 지혈제를 투여하자 신부님께서는 잠이 드셨다. 아침에 알마아타에 계신 요셉 주교님께 전화를 드렸다. 주교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번 주 안에는 아직 죽지 않겠지만, 죽음은 이미 문턱에 와 있다. 내가 그곳으로 날아가겠다.”

4월 12일 아침, 부활절 화요일, 신부님께서는 기분이 나아지셨고 숨도 편히 쉬고 계셨습니다. “베라,” 신부님께서 수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장화를 신겨 주세요.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도록 나가서 부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약속했단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해야 해.” – “신부님,

다리가 너무 부어 있어서 장화뿐만 아니라 슬리퍼도 신겨 드릴 수 없어요.” – “아니, 아니, 중요한 말을 해야 해. 신겨 줘!”

베라는 슬리퍼를 꺼내 양쪽을 잘라냈다. 소년들이 신부님을 교회로 모셨다. 신부님은 망토와 수도복을 입고 있었다. 제단 곁에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 차르스카야 문으로 나가 강단에 올랐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서 다시 신도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 중 누군가를 속상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모든 일에서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청하며,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여러분 사이에 평화가 깃들게 하십시오. 평화와 사랑이요. 내 말을 들어 주신다면, 내가 이토록 간청하는 대로, 여러분은 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합당치 못하고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빛나는 거처로 맞아 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겠지요. ‘주님,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의 빛나는 거처에 혼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자들이니...’... 그리고는 조용히, 간신히 들릴 정도로 “저는 그들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그렇게 말하고는 절을 하려 했으나 할 수 없어, 고개만 숙였습니다. 소년들이 그의 양팔을 받쳐 들고 제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성당 안의 모든 이들이 울고 있었다.

4월 13일 수요일, 피티림 주교의 여동생 나데즈다 블라디미로브나와 아카데미아의 아나톨리 프로스비르니크[이후 아르히만드리트 인노켄티(† 1994)]가 도착했다. 주교님은 미사 후 자신의 선실에서 나데즈다 블라디미로브나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알마아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요시프 주교님께서 중병에 걸리셨고, 체온이 40도나 되어 비행을 타고 오실 수 없다는 소식이었다.

금요일 밤, 신부님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몸에 아프지 않은 살아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 척추는 달궈진 쇠처럼 타오르고, 숨 쉴 수조차 없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괴로워 죽겠다.” 계속 몇 시인지 물으셨다.

교회에서 수녀님들이 그분께 찾아왔습니다. 페브로니아 수녀님이 들어오자, 신부님은 그녀를 길고도 떼어 놓을 수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두 번 축복해 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당신의 모든 선행과 헌신에 대해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빕니다. 모든 것을 저와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그녀가 나가자, 신부님은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몇 번이나 십자 성호를 그어 주었다.

아그니아 수녀에게서 사람들이 와서, 수녀님이 자기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저녁에 코크체타바에서 디미트리 수도원장이 도착했다. 요시프 주교님께 전화를 걸어, 디미트리 신부님이 신부님을 스키마 수도자로 서품해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다. 주교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내일 모스크바에서 피티림 주교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처리하실 것이다.”라고 대답하셨다.

신부님께서는 가능하면 수계식 때 이름을 바꾸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모두가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은 모두에게 일종의 추가적인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며, 피티림 주교님께 이 점을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스키마를 입게 해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떠나게 되어 아쉽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부님, 저희를 누구에게 맡기시는 겁니까?” 신부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하늘의 여왕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힘닿는 대로 서로 돕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말고, 특히 주일과 축일에는 꼭 참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를 지키면, 하느님의 자비와 하늘의 여왕님의 중보로 구원을 얻으실 것입니다.

늦은 밤, 타티아나 블라디미로브나 의사가 신부님께 정맥 주사를 놓아 드릴 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 나의 오랜 주치의여. 말 한 마디 내뱉기도 힘들지만,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허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입안이 바싹 마르고, 온몸이 아픕니다.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리가 더 이상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고, 온몸이 너무 나약해서 눈꺼풀조차 들기 힘들어요. 하지만 머리는 맑고 깨끗하며, 생각은 명확하고 깊고 평온하게 흐릅니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변하는 일은 전혀 없어요. 누워서 생각하죠: 그렇다면 생각은 몸에 의존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뇌도 몸의 일부구나. 내 몸에는 더 이상 생각할 힘이 남아 있지 않았다. 생각은 영혼에서 나온다. 이제야 그 사실이 분명해졌다. 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신히 여러분께 이 말을 전했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피티림 주교님께서 공항에서 도착하셨습니다. 곧바로 신부님께로 가셨는데, 신부님의 모습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병에 걸렸을 때도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나중에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은 오랫동안 단둘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 신부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는 피티림 주교를 긴급히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주교님이 오시자 신부님은 그에게 즉시 스키마 수계 의식을 시작해 달라고 부탁했다. 준비가 시작되었다. 주교님은 모두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고, 아나스타시아 수녀 한 분만이 수계 의식을 도왔다.

수계식 후 신부님은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님의 얼굴과 온전한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그토록 큰 은총으로 충만해 계셔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떨렸고, 자신의 죄악성이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위엄 있는 장로이셨으며, 이미 이 세상의 주민이 아니셨습니다.

새벽 3시, 신부님께서는 알렉산드르 신부님을 부르시어 고해성사를 듣고 성체를 영하게 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분의 생명은 간신히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분은 눈을 감은 채 누워 계셨고, 숨을 거칠게 쉬며 이불 위를 손가락으로 건반을 치듯 훑어보셨다. 눈을 뜨면, 멀리 있는 듯한 슬픈 시선

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그 후 피티림 주교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곧 타티아나 블라디미로브나 의사를 불렀다. “제 오랜 주치의님,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 “어디가 아프신가요, 신부님?” 그는 정맥 주사를 맞은 후 봉대를 감은 양손을 가리켰다. 정맥을 찾기가 이미 어려워져 약이 피부 아래로 스며들어 그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고 있었다. – “지금 신부님, 진통 주사를 놓아 드리겠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을 겁니다.”

– 그게 주된 고통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은 영혼의 고뇌입니다. 죽음이 농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게는 죄가 많고, 선행은 적습니다.

– 신부님, 신부님의 죄는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 만큼 미미한데, 선행은 바다처럼 끝이 없습니다.

– 제가 뭘 했던 말입니까? 엄격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어쨌든 어떤 것이든 기쁨과 위안으로 달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많이 감상했죠,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을요.

– 신부님, 그 아름다움,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 하느님의 은총이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공로라니, 제게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위업 따위는 없지요! 사람은 살아가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는 무엇이 남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며, 누구에게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삶의 길을 걷는가? 사랑과, 선을 위해서다. 그래서 그는 고통받아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그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위해 영생으로 나아가려 노력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죄를 지었다.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고, 잔인하게도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저는 많은 고통을 겪었고, 가볍지 않은 수도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수도자의 삶은 힘들지만, 동시에 가장 가벼운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그 불평 때문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공로가 헛되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기쁨 대신 영혼의 고뇌만 남게 됩니다.

– 신부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부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지금처럼 살아가거라. 모두 죄인이다. 다만 큰 죄만은 짓지 마라... 자, 이제 너와 이야기를 나눴구나. 오늘 나는 말하고 숨 쉬는 것이 한결 편해졌다.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월요일 저녁, 라도니차 추모 예배 때 신부님을 교회로 모시고 갔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의 ‘선실’에 누워 계셨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으셨으며, 누구도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자주 성호를 긋고, 찬송과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피티림 주교님께서 집전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억”을 부른 후, 신부님은 집으로 모셔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주교님과 대화를 나누셨고, 이어서 밤 10시에 미추린스크에서 도착한 요한 신부님과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신부님은 그를 기쁘게 맞이하며, 신부님이 자신이 살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게 오실 수 있었고, 저는 오늘 모든 고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오늘 주교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내일도 제 모든 고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라도니차까지 살 수 있게 되었네요. 주님께서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고

인들에게는 살아 있는 이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토록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저는 고인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 신부님, 제가 유언으로 남깁니다: 고인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신부님의 생애 마지막 며칠 동안, 많은 영적 자녀들이 스승님을 떠나기 싫어하며 교회 옆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4월 18일, 평소와 같은 저녁 기도(토마스 주간의 시작)가 끝난 후, 신부님께서는 부활절 시간기도를 읽어 달라고 요청하셨고, 그 후 모두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바티슈카의 거처 옆에서 밤을 지새운 이들은 그의 시녀들, 손녀 타이지아, 그리고 의사 올가 페도로브나였다. 바티슈카는 불안한 잠을 자며 뒤척였다. 새벽 4시에 그는 자신의 거처에서 종을 울렸다. 올가 페도로브나는 즉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갔다. 신부님의 표정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올가 페도로브나는 물었다. “신부님, 몸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신부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안 좋아요.”라고 말했다. 올가 페도로브나는 주사를 놓아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신부님은 “네, 제발 주사 좀 놓아 주세요.”라고 동의했다. 신부님의 머리와 손은 뜨거웠다. 그녀는 거즈를 적서 신부님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주사를 맞은 후 신부님은 진정되었고, 통증도 가라앉았다. 올가 페도로브나는 주사기를 씻기 시작했다. 갑자기 바티슈카가 심하게 기침을 터뜨리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가방에 가래를 뱉은 뒤 올가 페도로브나와 가방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가방 안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 후 두세 번 더 가래를 뱉었다. 올가 페도로브나는 침대 옆에 앉아 그의 등을 받쳐 주려 애썼다. 갑자기 또 한 번 격렬한 기침이 터져 나왔다. 신부님은 벌떡 일어나려 애쓰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고, 깊게 숨을 내쉬며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시선은 마치 누군가를 보고 놀란 듯 멀리 뚫어지게 향했다. 그것은 단 한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은 죽음처럼 창백해졌고, 그는 살짝 몸을 쪽 뻗더니 마지막 숨을 내쉬고 세상을 떠났다. 떠 있는 눈에는 의아하고 놀란 표정이 굳어 있었다. 신부님은 4월 19일 오전 4시 45분에 돌아가셨다. 화요일이었다. 라도니차 날이었다.

올가 페도로브나가 비명을 지르자, 순식간에 수녀들과 타이지아가 달려왔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소동이 시작되었다. 피티림 주교님과 그날 밤 근처에 있던 모든 이들을 불렀다. 나머지는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5시 30분에 주교님께서 장례 미사를 집전하기 시작하셨다. 신부님께서는 흰 침대보 위에 크림색의 새 비단 사제복을 입고 누워 계셨다. 똑같은 크림색 천이 신부님의 얼굴과 다리를 덮고 있었다. 두 손은 가슴 위에서 십자 모양으로 교차되어 있었다. 웬지 깊고 엄숙한 침묵이 감돌았다. 더 이상 울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슬픔은 없었고, 평온함이 영혼을 감싸고 있었다.

장례 미사가 끝난 후 모두 방을 나섰다. 예복을 입히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신부님의 몸은 꽤 따뜻했고, 얼굴은 마치 살아 계신 분처럼 평온했다. 신부님의 몸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뼈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몸을 닦아주고 스키마를 입혔다. 주교님은 그 위에 망토를 덮어 주시고, 클로부크로 얼굴을 가렸다.

방 안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신부가 복음서를 읽고 있었다. 탁자 위, 망토 아래에는 우리의 신부님이 누워 계셨는데, 그분의 사랑은 이 땅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컸다. 그분의 영적 자녀들 중 누구라도 그분께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이들 중 한

명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그분이었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며, 단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검은 천이 탁자 위에 놓인 무언가를 덮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신부님임을 알고 있다. 틀림없이 신부님이다. 그러나 이미 그분은 그분이 아니었다. 검은 신부님의 망토 아래 누워 계신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가장 깊은 심연보다도 더 깊은, 건널 수 없는 경계가 놓여 있었다.

아침에 주교님께서서는 라도니차 추모 미사를 집전하셨다. 저녁 5시에 검은 천으로 감싼 관을 가져와 바티우슈카를 그 안으로 옮겼다. 주교님께서서는 바티우슈카의 카밀라브카를 벗기시고 그의 머리에 미트라를 씌우신 뒤, “도움의 손길이자 수호자...”를 노래하며 관을 교회로 운반했다. 그 깊이가 마음을 뒤흔드는 영적 찬송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안에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슬픔과 위로가 가득 차 있었고,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으나, 이미 성스러운 신부님의 영혼은 그것을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고난,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이 가져온 십자가의 고통, 육체적 고뇌, 그리고 “영혼의 고뇌”가 끝났습니다. 그의 영혼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해 신부님께 여쭙볼 수 있었던 그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분께 찾아가 이야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바로잡혔습니다. 그분의 다정한 눈빛, 복음서를 읽을 때 문장을 길게 늘어 끝맺으시던 그 목소리—이것들 또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울고, 애타게 그리워할 수 있을까? 신부님과의 영적 유대가 끊어질 수 있을까? 이제 교제는 다른 방식으로, 즉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카자흐스탄, 시베리아, 러시아 유럽 지역의 사방에서 신부님의 성당이 주는 은총의 그늘 아래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신부님의 영적 자녀들이—모여들었다. 사제들은 밤새도록 추모 미사를 집전했고, 성가대가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려들었다. 대주교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가 도착했다. “자비로운 장로 아르히만드리트 세바스티안의 별세를 계기로 성당 신자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볼로콜람스크 주교 피티림 각하께서는 주님 품에 안기신 고인의 장례식을 집전하시도록 축복받으십니다. 알렉시 대주교.”

사흘째 되는 날, 신부님을 미하일롭스키 묘지에 안장했다. 관은 카타팔크에 실려 고속도로까지 짧은 구간만 운반되었다. 고속도로로 접어든 후, 관은 두 팔을 쭉 뻗은 채로 묘지까지 운반되었다. 관은 거대한 군중 위로 떠다니는 듯했고 사방에서 모두 볼 수 있었다. 고속도로의 모든 차량 통행이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고속도로와 보도를 따라 뿔뿔한 벽을 이루며 행진했다. 집들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집 대문 앞이나 벤치에 서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도다”를 노래하는 소녀 합창단이 관 뒤를 따라왔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도다”—수천 명에 달하는 군중 전체가 함께 노래했다. 행렬이 시멘트 공장 옆을 지날 때, 울타리 전체는 그 위에 앉아 있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고, 젖은 모르타르로 더러워진 작업복을 입은 전체 교대조가 공장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군중 속을 뚫고 관 쪽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관을 손으로 만져보려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앞서 나가 묘지에서 관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님을 위한 무덤은 묘지 가장자리에 파여 있었고, 그 뒤로는 끝없이 펼쳐진 카자흐스탄의 대초원이 있었다. 관을 무덤 옆에 놓자, 주교님께서 장례 미사를 집전하셨다. 신부님은 카밀라브카를

쓴 채 묻히기를 원하셨다. 주교님은 신부님의 머리에서 미트라를 벗기고 카밀라브카를 씌워 주셨습니다. 관을 무덤에 내려놓고, 무덤 언덕을 쌓은 뒤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자비로우신 장로님, 지칠 줄 모르는 기도자이시며, 생수의 샘이시며, 치유의 의술을 가르치신 분—성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시여.

바투슈카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시프 주교가 카라간다에 도착했다 [알마티 및 카자흐스탄 대주교 요시프(체르노프, 1893–1975)는 수용소와 유배지에서 총 20년을 보냈다. 그중 6년은 카르라그에서 보냈다.].

신부님을 위해 위령 미사를 집전하고, 묘지로 가서 위령 예배를 드렸다. 어떤 이는 꾸짖고, 어떤 이는 겸손하게 만들며, 어떤 이는 위로해 주었다. 모두에게 “포도”를 먹였는데, 어떤 이에게는 달콤한 것을, 어떤 이에게는 쓴 것을 주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 경건하신 분, 복되신 장로님은 밤마다 많이 울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무엇 때문에 울으셨을까요? 많은 이들, 심지어 지도층 인사들까지도 그분과 뜻을 같이하지 않고 그분의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겸손히 참아 내시며, 모든 이를 위해 하나님께 구원과 깨달음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의 눈물과 주님께 드린 기도로 인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카라간다에는 성령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요셉 주교님은 카라간다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주교님은 “카라간다는 꿀로 기름 부음 받은 곳”, “카라간다는 성인들의 유해 위에 세워진 곳”, “축복받은 카라간다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셰미하일롭스키 교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이곳에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 후 눈물로 키우셨습니다.” “작은 교회라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등대는 하늘까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카라간다를 방문했을 때 주교님께서서는 여러 본당을 순회하시고, 신부님의 성당에서 성찬식을 집전하셨지만, 신부님의 무덤에는 들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주교님을 공항까지 배웅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면, 비행기가 알마아타까지 날아갔으나 그곳의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알마아타에서 착륙을 허용하지 않았고, 비행기는 방향을 돌려 카라간다로 되돌아왔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비행기 안에서 농담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바스티안이지! 그분의 무덤에 들르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셨네!” 공항( )에서 주교님께서서는 택시를 타고 미하일롭카로 오셔서 장례 미사를 집전하시고, 바투슈카의 무덤에 다녀오신 뒤에야 비로소 떠나셨습니다.

주교님은 신부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부님이 성인의 반열에 오르셨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합니다.”

## 신부님의 자녀들

### 페오도시야 페도토브나 프로코펜코(슈바게르)

1931년 8월 1일, 우리는 오사카로브카의 다섯 번째 마을로 이송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은 엄마와 우리 일곱 남매였습니다. 맏형 파블릭은 열여섯 살, 저는 열두 살, 남동생 젠야, 여동생 나탄, 바라, 그다음 바냐, 그리고 막내 그리샤였습니다. 대가족이었습니다. 아빠는 먼저 데려가 버려서, 우리는 아빠가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스탈린그라드 주에 살았고, 아버지는 마을 위원회에서 일하셨습니다. 29년에 부유한 농민들을 몰수하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활동가로 등록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민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거부하며 “난 가지 않겠어, 난 그런 짓을 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는 ‘부농의 가족’으로 분류되어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소작농, 당시 말로 ‘중농’에 속하는 농민들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땅굴집이 있었고, 소 한 마리, 말 두 마리, 양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년 동안 독방에 갇혀 계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스탈린그라드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끌려갔다가, 1931년에 오사카로프카의 5번 정착촌으로 옮겨졌는데, 그곳은 평평한 대초원이었습니다. 그 정착촌에는 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방에서 말을 탄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곳에는 이심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을 길어 마셨고, 빨래도 했습니다. 잡초를 뜯어 삶아 먹기도 했죠. 대초원에는 지하실처럼 구덩이를 파고, 무언가로 덮어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첫해에는 모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5번 정착촌 전체에 우물이 하나뿐이었는데, 깊이가 25미터나 되는 그 우물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물을 길으러 줄을 썼습니다. 엄마가 작은 양동이를 주며 보내면, 아픈 아이들에게라도 물을 가져다주려고 갔죠. 화장실은 없었고, 30미터 정도 파낸 도랑이 있었는데,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대유행성 이질이었죠. 매일 저녁 마차가 지나가면, 시신들을 통나무처럼 마차에 던져 실어 구덩이로 운반해 갔습니다. 온 가족이 다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이 나고 의사는 없었으며,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나오자 물로 적셔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31일에 남동생 젠야가 죽고, 9월 11일에는 여동생 나디야가, 9월 17일 아침에는 바라는 죽었습니다. 해가 막 솟아올라 반쯤 뜬 참에, 엄마와 나는 그 구멍을 열고 누워 있었는데, 바라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온전히 뜬 순간, 가장 어린 그리샤도 세상을 떠났어요. 관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시신을 던져 넣었죠. 우리에게는, 그분 덕분에, 우리 농장에서 온 친척인 페티아 삼촌이 계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평안하시기를. 삼촌은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네 아이들을 위해 바구니를 엮어 줄게.” – 그곳에 마른 나뭇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모든 아이들을 바구니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농장 아이들에게 부탁하셨어요. “통 아래쪽을 파서 바구니를 밀어 넣을 수 있게 해 줘.” 그런데 거기 계속 더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위쪽에도 더 쌓고, 또 쌓고, 그제야 흙을 덮었죠. 5만 명 중 절반이 살아남았을까요, 아닐까요? 우리 가족 중에서는 파블릭, 나, 바냐, 그리고 엄마가 살아남았어요.

그 후 일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잔디를 파냈고, 우리 십대 아이들은 마차에 열두 명 정도가 묶여 그 잔디를 건설 현장으로 끌고 갔어요. 집을 짓고, 잔디로 벽을 쌓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첫 번째 집들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엄마가 티푸스에 걸려 두 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고, 우리는 그저 곁을 지켰어요.

겨울이 시작되면서 우리 주변에 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 눈이 내리자 아빠가 우리에게 오셨고, 가족 재결합 허가를 받아내셨다. 아빠가 일을 시작하시자 우리 생활이 조금은 수월해졌다. 아빠는 굴 안의 한 구석을 잔디로 깔고, 그 위에 구덩이를 잔디로 덮어주셨다. 아버지는 우리가 혼자서 전해 드릴 수 있었던 반모피 코트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 남매는 그 모피 코트 아래에서 온 겨울을 보냈다. 우리는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데려갈 때 입었던 그대로 데려왔기 때문이다.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몸에 기어 다니는 벼룩을 누가 얼마나 많이 잡아서 죽이는지 세곤 했다. 건조 식량을 먹었는데, 거기선 요리할 곳이 없었거든요. 렌틸콩을 가져오면, 우리는 그걸 씹어 먹었죠. 그 겨울이 가장 힘들었어요. 파블릭과 바냐는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고, 모든 아이들 중에서 저 혼자만 남았어요. 아빠와 엄마도 계셨고요. 이듬해에는 이미 집에 지어 놓았어요. 다섯 채의 아파트로 나누었고, 우리는 직접 난로를 만들기도 했죠.

우리가 겪은 일이라니, 맙소사! 카자흐스탄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를 테지만, 한번 가본 사람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무덤은 5번 마을에 있었는데, 지금은 평평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마을이 워낙 넓어서 이제 어디에 묻혔는지 상상조차 안 가요. 그곳에 구덩이가 많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 구덩이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라도 기억하나요? 제 생각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노인분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으니까요. 엄마가 살아 계셨다면, 어쩌면 기억해 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 니나-호홀루슈카

제 이름은 니나 호홀루슈카예요. 뭐, 성을 말해봤자, 제 성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수미 주 제르노보 역 출신이에요. 41년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테르노폴에 있었어요. 테르노폴에서 우리를 키예프로 대피시켰고, 키예프까지 달려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도망치세요.”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 곁에 도착했어요. 막 도착했더니 독일군이 들어왔죠. 저는 그들에게서 일했어요—장화를 닦는 일이었죠. 제 두 자매는 바로 독일로 끌려갔고, 저는 어떤 서류에 서명하라는 지시를 받고 장화를 닦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군대가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떤 영수증을 줬다고 실수로 말해버렸는데, 그게 어떤 서류였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수증을 근거로 저에게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나중에야 제가 독일 간첩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동안 키로프 주에서 벌목 노동을 했고, 그 후 카라간다로 끌려갔습니다. 카라간다 강제노동 수용소(카르라그)에서 6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냐고요? 온통 고통과 고문뿐이었습니다. 제 몸에는 세 개의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여기 번호, 여기 번호, 여기 번호—온몸이 봉인된 상태였죠. 그리고 나중에 석방되었을 때, “아크몰린스크로의 영구 유배”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카라간다에서 아크몰린스크로 이송되자마자 저는 황달에 걸렸습니

다. 회복되어 병원을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리에서 서 있는데, 수용소 복장을 한 채로 사람들이 모두 저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서 쓰라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 여인아, 왜 그렇게 울고 있니?”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요.” – “어머, 아가씨, 넌 수용소에서 온 거구나. 우리 여기 특별 이주자들인데. 우리가 널 데려가 줄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데려가 병원에서 일할 자리를 마련해주었고, 나는 그곳에서 4년 동안 일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모든 사람이 영구 유배에서 풀려났다. 나는 아크몰라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나를 경멸했다. 나는 수감자 출신이었으니까. 그런데 브란스크 주 브라소보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플로슈찬스카야 수도원의 마태 신부님이었다. 제가 그분께 찾아가 말했어요. “신부님, 저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자 마태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네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거라. 거기서 네 모든 것을 찾게 될 것이며, 뜻밖의 기쁨이 네게 주어질 것이다!” 아이고! 전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가 어딘데? 무슨 기쁨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그곳에서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었고, 눈물을 그토록 많이 흘렸으며, 그곳에서 형기를 채웠잖아요! 악타스에서! 카라바스에서! 돌린카에서 풀려나자마자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나는 아크몰라로 돌아와 계속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니콜라이 모이세예프 신부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나, 카라간다에 가보렴. 그곳에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계시거든. “너는 혼자인데, 어쩌면 그분이 너를 데려가실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그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그분께 들어갔을 때, 그분은 대가족의 가장처럼 서서 차분하게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우리 딸! 우리 딸!” 하고 소리치셨습니다. 그 후, 신부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신부님의 거처로 들어가자, 저는 신부님의 발 앞에 엎드려 부츠에 입을 맞추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님! 사랑하는 신부님! 저는 이 카라간다를, 여기 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그런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아무 죄도 없이 갇혀 있었고, 악타스와 카라바스에서 형기를 마쳤으며, 돌린카에서 석방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신부님 곁으로 왔네요!”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고 쓰라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부님 눈에도 눈물이 고이셨다. 수녀님들도 우리의 눈물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리셨다. 신부님은 나를 “고난을 견디는 이”라고 부르셨다. 나는 무고하게 갇혀 있었으니 – “온 가문의 죄를 대신해서” –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나에게 큰 성 삼위일체 성화를 주시고, 사탕을 많이 담아 주셨다: “자, 니나, 이걸 아크몰라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 줘.” 나는 그곳에서 이틀을 머물렀고, 돌아와야 했다. 사람들이 나를 배웅해 주었고, 기차에 태워 주었는데,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또 나를 찾아올 거야.” 그래서 나는 찾아가기 시작했다. 3년 정도 다녔는데, 그 후 신부님께서 제가 카라간다에 머물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략 60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자 신부님께서 저를 병원으로 일하러 보내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병원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소아과에서 일했고, 신부님의 축복 아래 불쌍한 아이들을 많이 안장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수가 나를 공격해 왔어요. 너무 속이 메스꺼워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으-으! 네가 질식해 버렸으면 좋겠어, 정말 지긋지긋해!” 정신을 차리고는 신부님께 달려가 말했어요. “신부님! 오

늘 제가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신부님께서는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네가 한 짓이겠니? “그건,”이라고 하시며, “악마야!” “너는 소아과 병동에서 나가거라. 아이들을 실어 보냈다는 이유로 원수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제1병동으로 가거라. 거기에는 우리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나는 제1병동, 보트킨 병동에서 계속 일했다.

독일군에게 독일로 끌려간 내 여동생 마리아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독일에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어요!” – “어떻게 그럴 수 있죠? 15년 동안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 “그녀는 살아 있어요. 곧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프랑스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장례 예배실에 들어갔더니, 신부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니나! 네 부모님이 빵을 전해 주셨어!” 무슨 일일까? 자리를 떠났지만, 부모님이 어떤 빵을 전해 주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우편함 속에 편지가 들어 있었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희는 신부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맛있는 케이크를 구워서 신부님을 위해 교회에서 나눠 드렸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갔습니다.

그 마태오 노인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렸었죠.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나서 세바스티안 신부님께 그분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고, 그분이 제게 했던 말도 전했어요. 그러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그곳으로 가서 그분께 프로스포라를 전해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

저는 성당에 서서 고향에 가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으러 신부님 곁으로 다가가니, 신부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디 갔었니? 고향에 다녀왔지?” 신부님께서는 제가 부모님 곁으로 다녀오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부님, 거기서 얼마나 머물면 되나요?” – “어머니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머물면 돼. 부모님께 설탕 좀 사다 드려.” 그런데 부모님께서 편지에 이렇게 쓰셨다. “설탕 좀 가져다 줘.” 신부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이다. 그리고 제가 고향에 도착해 마태오 장로님께 찾아가 프로스포라를 전해 드리고, 신부님의 사진을 보여 드렸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분은 위대한 장로님이시군요!” 하시며 그 사진을 입맞추셨습니다. – “이제 곧, 5년이나 일찍 세상을 떠나시겠군요.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플로슈안스카야 은둔원의 장로 마태는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 아크타스... 카라바스... 돌린카... 그리고 이 뜻밖의 기쁨, 바로 제가 찾은 분은 바로 신부님이셨어요!

## 아나스타시아 페트로브나 파르시나

수녀 에우프락시아는 신부님과 동갑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종종 옅티나 푸스티니의 장로님들을 찾아가곤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신부님은 젊은 수련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찾아왔을 때, 신부님이 다가와 이렇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야, 내 아이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수련생 주제에 나에게 ‘내 아이야’라고 부르다니! 내가 장로님들을 만나러 왔는데, 왜 그가 나

를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그녀가 그분을 만나러 카라간다로 왔을 때, 신부님은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신부님의 ‘내 아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우프락시아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유배지로 보내졌는데, 바로 그 지역에 이예로페이 신부님이 정착해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핵으로 중병을 앓고 있던 젊은 처녀 세라피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예로페이 신부님은 세바스티안 신부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시마를 소피아라는 이름으로 수녀 서원을 받게 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편지는 어떤 큰 축일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 축제를 미룰 수는 없으니,” – 그래서 전야 예배가 끝난 직후 그녀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모여 그녀에게 갔더니, 시마는 온 얼굴이 홍조로 물들어 있었다. 이예로페이 신부님이 수녀 서원을 집전했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 에우프락시아와 수녀 서원 때 소피아의 대모가 된 또 다른 수녀가 함께 있었다. 수녀 소피아는 대모에게 첫 번째 수도 규칙을 읽어 달라고 부탁했다. 대모는 규칙을 읽어주려 남아 있었고, 수녀 소피아는 자신의 침대 위를 이리저리 맴돌았다. 대모가 물었다. “무슨 일이니?” – “사방에서 악마들이 둘러싸고 이를 갈고 있는데, 내 영혼이 그 끔찍한 이 갈리는 소리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 “그들을 두려워하십니까?” – “아니요,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영혼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다 읽을 무렵, 이미 날이 밝아오자 젊은 수녀 소피아는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의 손에 맡겼다.

### 이오안 티마코프 신부, 비정규 사제, 카라간다시

1931년 한여름, 우리는 사마라 주에서 대초원, 훗날 노바야 티호노브카 마을이 될 곳으로 이송되었다. 나는 젊었고, 아내와 어린 아이가 함께 있었다. 우리는 깊이 1미터짜리 구덩이를 파고, 천으로 지붕을 덮은 뒤 머리맡에 짐이 든 자루를 놓았다. 우리 아기는 그 구덩이에서 한 달을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 미완공된 막사로 옮겨졌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났다. 첫 겨울에는 티푸스가 맹위를 떨쳤고, 날씨가 매우 추웠으며, 배급만으로 살아가기 힘들어 사람들이 쇠약해졌습니다. 31년과 32년에 모든 아이들과 노인들이 죽었고, 33년이 되자 젊은이들만 남았으며, 노인을 보기관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도 죽기 시작했습니다. 티호노브카에서는 하루에 200명씩 죽어 나갔다. 세 개의 작업반이 무덤을 파고 있었다(너비 2미터, 길이 5미터). 시신을 더러운 헝겊으로 감싸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겨울에는 무덤을 파는 것도 쫓지 못했습니다. 시신들을 집 한 채 크기의 더미로 쌓아두었는데, 각 더미마다 500~700명이 장작처럼 서로 겹쳐져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저는 아내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여우 털 코트를 팔아 귀리를 사서 빵아 먹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특별 이주자들과 함께 키로바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탄광에서 우리 마을까지는 8킬로미터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대초원을 가로질러 그곳까지 갔다 와야 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면 천장에서 빗물처럼 지하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광산에서 나오면 온몸이 흠뻑 젖어 있고, 갈로시안에도 물이 차 있으며, 발싸개도 젖어 있습니다. 마른 후드티만 걸치고 영하 30도의 추위 속을 마을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할 때쯤이면 옷이 몸에 얼어붙어 버리곤 했습니다. 광부들은 퇴근

길에 가다 그대로 쓰러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내내 길가에 누워 있었다. 때로는 눈보라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시체들이 이정표 대신 초원 곳곳에 널려 있곤 했다. 봄이 되면 수레에 실어 수거했다. 나 자신도 기진맥진할 지경이었다. 기력이 쇠약해져 간신히 살아서 집에 도착하곤 했다. 빈혈과 구토로 심하게 앓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을 경비대장에게 광산 근처의 땅굴집으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간신히 허락을 받아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으로 이사했을 때, 마치 천국처럼 살게 되었다. 더 이상 16킬로미터를 걸어다닐 필요가 없었다. 광산에서 나와 길을 건너면 바로 땅굴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조금이나마 기운을 차렸다.

1934년까지 우리 마을에는 신부가 없었습니다. 오직 구교파 신부 한 분, 세르기 신부님만이 아이들을 세례 주러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1934년에 카를라그에서 야코프 펜코프 신부님이 나오셨습니다. 부드-고리 마을의 원주민들 손에는 안티민스, 십자가, 사제 예복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야코프 신부님께 드렸고, 신부님은 비밀리에 여러 가정을 돌며 예배를 집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콤소몰원들에게 여러 번 연행되어 코멘다투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체포하겠다고 위협하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금지했지만, 야코프 신부님은 “저는 하느님께 서원을 드렸으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노인들에게는 “나는 신앙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37년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데려갔고, 오늘날까지도 그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38년까지 우리는 아크몰라로 가서 성체를 모시곤 했습니다. 38년에 카를라그에서 블라디미르 홀로드코프 신부님이 나오셨고, 다시 우리 15~20명 정도가 땅굴에 몰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마다 전례를 집전하고 성체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스탈린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명령을 내리자, 블라디미르 신부님은 시의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이 우리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처는 우리가 살고 일하던 키로바 광산 근처의 땅굴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창문은 천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자, 매년 500명씩 예배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땅굴을 확장하고 작은 창고들을 덧붙여 지어, 50년 대천사 미카엘 성당이 지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에 대해 43년에 처음 듣게 되어 그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신부님의 축복을 받아 멜콤비나트로 이사 가서 집을 지었고, 신부님께서 멜콤비나트에 배치해 주신 자녀를 둔 과부들이 집을 짓고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삶은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55년에는 미하일롭카에도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중, 55년 말에 쿠이비셰프에 있는 누나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냐, 놀러 와. 네가 너무 그리워.” 저는 신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고향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안 돼, 가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주 정도가 지났고, 1956년 새해 첫날, 나는 예배가 끝난 후 십자가 앞으로 다가갔는데, 신부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이반 세메노비치, 쿠이비셰프로 가고 싶다고 했지? 가거라. 다만 서둘러 준비해, 빨리!” 그날 저녁 바로 기차를 타고 떠났다. 쿠이비셰프에 도착하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조야가 서 있었다. [1956년 쿠이비셰프(현 사마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성탄절 금식 기간 중,

새해 전야에 소녀 조야는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파티에 오지 않은 약혼자 니콜라이 대신, 성 니콜라이의 성화와 춤을 추기로 결심한 것이다. 춤을 추던 중 그녀는 갑자기 돌처럼 굳어졌으나, 여전히 살아 있었다. 밤마다 조야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그렇게 돌처럼 굳은 채로 그녀는 128일을 지냈다. 부활절 전야에 그녀의 몸은 다시 살아났고, 축제의 셋째 날 조야는 죄를 속죄하는 힘든 여정을 거친 뒤 주님의 곁으로 떠났다.]

도시는 혼란에 휩싸였다. 조야의 집 앞에는 인파가 몰려들었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교회로 향했다. 십자 성호를 긋고, 회개했다. 나도 조야를 찾아갔지만, 경찰이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았다. 나는 쿠키비셰프에서 일주일을 지낸 뒤 돌아와, 카라간다 주민들에게 조야에 대한 이야기와 죄로 인해 멸망해 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전했다.

신부님의 통찰력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 여덟 살 난 딸이 결핵에 걸렸습니다. 의사들에게 데려가 보니, 그들은 “여기서는 치료할 수 없으니 보로보예의 요양소로 데려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죽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부님께 찾아가 “신부님, 요양소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딸아이가 죽을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그래... – 하시며 – 거기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장사 지내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슬퍼하며, 아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영리하고, 말 잘 듣고, 천사처럼 온순했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보로보예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아이는 확실히 낫긴 했지만, 요양소에서 돌아온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마치 낯선 사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 아이는 피오네르에 가입하고, 콤소몰에 가입하고, 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다른 딸은 자라면서 독일인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그녀에게 결혼을 청혼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신앙인이시라, 당신이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당신에게 시집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볼로랴, 그 청년의 이름이었는데, 세례를 받고 제 딸과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때 저는 신부님께 축복을 받으러 갔지만, 신부님께서 “결혼식은 집전해 드리겠지만, 그에게 세례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부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식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반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부님이 틀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볼로랴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녀는 42년에 그들의 특별 이주자 마을에 신부가 와서 볼로랴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을 세례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볼로랴를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 베라 아파나시예브나 트카첸코, 신부님의 시녀

저는 1939년에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덟 살이었고, 신부님은 막 감옥에서 풀려나신 참이었습니다. 저는 니즈냐야 거리에 사는 이모 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이모는 독실한 신자였기에, 우리는 종종 신부님과 함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신부님과 더욱 가까워졌는데, 신부님께서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

입니다. 신부님께서 “내가 고아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공감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신부님께서 “너를 내 곁으로 데려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열한 살이었죠. 신부님께서 저를 한 수녀님 댁에 머물게 하시고, 저는 신부님의 보살핌 아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신부님께서 저를 시녀로 데려가셨고, 저는 항상 신부님 곁에서 지내며 신부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니즈냐야 거리에 살 때, 우리는 모두 한 그릇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섯, 여섯 명이 식탁에 앉았고 신부님도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가끔은 정말 배가 고플 때도 있었는데, 우리 모두를 위해 그릇 하나만 놓여 있곤 했습니다. “아니, 이걸로는 배가 부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릇에 음식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도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고, 10년 동안 우리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페도로프카에 가서 기도해야 할 때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곤 했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페도로프카로 가자.” 그러면 우리 모두 일어나서 페도로프카까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깨에 책을 메고, 신부님은 작은 지팡이를 짚고, 바라 어머니, 그루샤 어머니—이분들이 신부님의 성가대였죠. 거기서 기도를 드리고, 8시 반이 되면 신부님께서 제가 일하러 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일하고 돌아오면—또 기도를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카라간다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부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셨다. 신부님은 언제나 지혜로운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신부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신부님의 영혼의 삶은 감춰져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감춰져 있었는지는 설명하기 어렵고, 오직 스스로 느껴볼 수밖에 없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부님께 모스크바 여행 이야기, 모스크바의 성당들, 그리고 제가 총대주교님께 축복을 받으러 다가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때, 신부님은 듣고 계셨지만 침묵하셨는데, 그분 안에서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변했죠. 갈색이던 눈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신부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눈을 내리깔기만 하셨습니다. 물론 신부님은 매우 지혜로우셨기에 항상 솔직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기에, 신부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가 그리 쉽지 않았어요. 가끔은, 물론 사랑으로, 제가 무슨 어리석은 짓을 할 때 이마를 톡톡 치시기도 하셨죠. 온갖 생각이 들곤 했죠. 예를 들어, “내 인생이 도대체 뭐지?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 기도하고, 저녁에 일하고 돌아오면 또 기도한다. 더는 못 하겠다! 차라리 세속에서 살면서 걱정 없이 지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죠. 그러면 신부님께서 다가오셔서 손바닥 뒷면으로 이마를 살며시 톡 치시곤 했어요.

제 걱정은 이랬습니다. 성가대석에서 제단을 바라보니, 아, 신부님께서 옷을 벗고 계시네요. 저는 서둘러 방으로 가서 신부님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이 식탁 위에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식사를 마치시면, 빨리 쉬러 가셔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리저리 찾아오는데, 신부님께서 피곤하셔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만날 수 없어요.” “신부님, 그럼 제가 그

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그냥 이렇게 말해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어떻게 말할지 방법을 찾아봐. 필요하다면 기다리게 해.” 그래서 제가 가서 “신부님께서 쉬고 계십니다.”라고 말하죠. 신부님께서 휴식을 취하시고 책 한 권을 읽고 계십니다. 또 “신부님, 여자가 왔습니다.” “기다리게 해.” 하시며 계속 책을 읽으십니다. 다시 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에-에, 그건 네가 신부님께 보내주기를 원치 않는 거잖아!” 제가 신부님께 가니, 신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기다리게 해. 아직 때가 안 됐어.” “신부님, 사람들이 제가 신부님을 만나게 안 해준다고 하네요.” 그러자 신부님이 말씀하시길: “타고 싶으면 썰매도 끌고 가야지. 나도 오펜나 푸스티니의 장로님 곁에서 살았단다.” 가끔은 제가 아예 그들을 신부님 곁에 데려가지 않기도 했는데, 신부님이 “오늘은 만날 수 없어, 몸이 너무 안 좋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사람들은 “베라는 정말 엄격해서, 때릴지도 모른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글썄요, 바로 그런 일이 있었죠. 신부님께서 저를 모스크바로 보내셨고, 그분 곁에는 어머니 율리아와 마리아 오브라즈초바[마리아 오브라즈초바 - 신부님의 두 번째 시녀.]가 남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편지를 보내며 “베라, 어서 와. 네가 없으니 힘들어.”라고 했습니다. 신부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아! 베라라면 이런 난장판을 용납하지 않았을 텐데.” 모두가 마치 아무나 드나드는 마당처럼 마음대로 드나들었죠. 신부님이 이미 병들었을 때, 슈릭과 알레샤라는 두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감당하지 못해 저를 불렀죠. “정리하러” 가야만 했죠. 아이들은 물론 좀 더 온순했지만, 저는 이미 신부님을 지키는 데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신부님께 불평을 하곤 했죠. “신부님, 베라가 왜 그렇게 화를 내시나요? 신부님께 뵈게 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자 신부님께서 “수도원에는 그런 사람도 필요해.”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날 신부님께서 피티림 주교님께 타자기 두 대를 보내 달라고 부탁하셨다. 타자기가 도착하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베라, 하나는 네게 주고, 하나는 마리아 오브라즈초바에게 줘.” 나는 생각했다. “내가 그걸 왜 필요로 하겠어? 그걸로 뭘 하라는 거지?” 하지만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 타자기는 나에게 정말 필요해졌다. 저는 타자하는 법을 배워 25년 동안 타자 및 사무 처리 강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저녁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신부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니, 너한테는 필요 없어. 넌 시편 독송자가 될 거야.” 그리고 타자기를 엘레나 아가포노바에게 주셨다 [엘레나 알렉산드로브나 아가포노바는 현재 알마티-세미팔라틴스크 교구 사무국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마리아 오브라즈초바, 신부님의 시녀

1948년, 저는 티호노브카에서 신부님을 찾아 처음 왔습니다. 그날은 주님의 성탄절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작은 주거용 건물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율타리와 가시철사로 둘러싸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저녁기도와 성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 예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인상을 주었고,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새벽 4시, 친구와 저는 니즈니야 거리에 사는 신부님 부인 댁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작은 오두막집이었는데,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즈 커튼이 걸려 있었으며, 바닥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쉬고 식사도 한 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수녀님들

이 물으셨다. “신부님을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러자 갑자기 신부님께서 거리에서 지팡이로 창문을 툭툭 두드리셨다. 나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티호노프 출신인 우리 니콜라이가 말하길: “자, 우리는 축복을 받을 테니, 너희는 처음 온 거니까 신부님 발 앞에 절을 해라.” 신부님이 들어오셔서 옷을 벗으시고, 모두에게 명절을 축하해 주셨다. 우리가 발 앞에 엎드렸더니, 신부님이: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오늘은 큰 명절이니까.” 그 후 신부님은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고, 저와 친구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무척 겁이 났는데, 신부님께서 “어디에 사니, 누구와 사니, 가족은 누구니?”라고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제가 다시 찾아오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부님과 대화를 나눈 후 두 달 동안 나는 기쁨에 겨워 정신이 없었다. 무엇이 그렇게 기뻐했을까? 이제 신부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는 두 해 동안 신부님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신부님이 말씀하셨다. “여기로 이사 와야 해. ‘엄마도 오게 해.’” 엄마가 오셨어요. 신부님이 물으셨죠. “자녀가 몇 명이나 되나요?” – “딸 넷과 아들 한 명이에요.” – “그럼, 그중 한 명을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 “데려가세요.” – “그래도 슬퍼하지 마세요. 그 아이를 보러 여기 오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신부님은 우리 세 자매를 위해 멜콤비나트에 작은 집을 사주셨습니다. 그건 50년 일이었습니다. 집을 사주시고, 열쇠를 건네주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미하일롭카에 내려가곤 했고, 신부님도 멜콤비나트에 있는 우리 집을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는데, 마치 소식이 공중을 타고 퍼진 것처럼 말이죠. 신부님께서 우리 집에서 기도회와 추도식을 집전해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멜콤비나트를 떠나실 때면, 낮이 밤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신부님, 저도 같이 갈게요!” – “아니, 난 널 데려갈 수 없어. 당연히 자리가 없잖아.” 하지만 위로 삼아 사진 한 장이나 그림을 주곤 하셨죠. “신부님, 사인 좀 해 주세요!” “오, 이런! 다음 번에, 데려가지 않을 때.”

우리가 멜콤비나트에 정착했을 때(그건 가을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5×5 크기의 큰 방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는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세 명의 소녀가 있었는데, 신부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할 아저씨를 보내주셨어요. 그분도 우리만큼이나 운이 없는 분이셨죠. 그리고 목재도 가져다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이미 성탄절이 되었을 때 신부님께서 그 방을 축성하시고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그 당시 신부님께서 명절이나 일요일, 토요일에 몰래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스타하노프에 사는 한 처녀가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는데, 신부님은 그곳에서도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그 후 모르도바 여인의 집—창문과 문이 비뚤어진—에서 신부님은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그렇게 55년까지, 우리 공동체의 등록 서류를 받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밀 가공소는 마치 성 세라핌 디베에 보처럼 그가 직접 일구어 낸 것이었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 헛간 지붕이 뚫린 사람, 우물이 무너진 사람—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재빨리 식탁을 차렸습니다. 신부님께서 계신 곳이면 모두가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신부님께서 앉아 계시고, 슈릭이 앉아 있고, 페티아가 앉아 있는데, 보라! 온갖 사람들이—나이기도 제각각이고: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모두 다! 그것은 하나의 큰 가족이었고, 그들을 돌보는 사

랑스러운 어머니가 함께 계셨습니다.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랑스러운 어머니이셨습니다.

자,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티호노브카에서 한 여성이 신부님께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슈라가 아팠어요.” (알렉산드라 소프로노브나, 신부님의 영적 딸입니다.) “그 아이가 아파서, 심장이 안 좋아요.”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그 아이에게 가보죠.” 그런데 오늘은 눈보라가 몰아쳐 앞이 흰히 보이지 않았고, 모든 길이 눈으로 덮여 있었다. 아침이 되자 눈보라는 그쳤지만, 서리가 심했다. 그래도 우리는 떠났다. 신부님께서 저와 니콜라이를 데리고 가셨는데, 니콜라이는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었다. 가던 중 택시 기사가 2번 광산까지 데려다주고는 말했다.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길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걸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추위가 정말 끔찍하더군요! 그때 어떤 말이 작은 썰매를 끌고 지나가더군요. 신부님께 타시라고 부탁드렸고, 저희는 니콜라이와 함께 뒤쪽 썰매판에 탔습니다. 정오 무렵에야 환자에게 도착했습니다. 신부님이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남편이 신부님 발치 앞으로 쓰러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신부님! 슈라가 병원에 있어요! 구급차가 데려갔어요!” 신부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뭐,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시니.” 그러자 남편은 울면서 말했다. “슈라가 날 괴롭혔어요!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신부님을 여기로 모셨는데, 나는 집에 없을 거라고요!” 그러자 신부님이 나에게 말하십니다. “마리아, 오늘 저녁에 병원에 가서 신부님이 오지 못했다고 전해 줘. 안 그러면 그녀가 너무 걱정할 테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친어머니뿐이죠.

저녁에 병원에 가서 말했어요. “알렉산드라 소프로노브나, 신부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오실 수 없다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길이 막혀서요.” 그러자 그녀가 말하더군요.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신부님께서 오실까 봐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요.” 그녀를 돌보던 수녀님이 들어와서 말하더군요. “슈라, 신부님께서 결국 오셨어요!” 물론 그녀는 크게 슬퍼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저는 이렇게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신부님께서 결국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께서 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시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와 유리아 수녀는 바닥에 깔린 짚매트 위에서 잤고, 베라는 접이식 침대에서 잤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울 때면 신부님께서 자신의 방 문을 열고 나오셔서, 잠든 우리를 수녀복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가끔 신부님께서 나를 수녀님들이 사는 니즈니야로 보내시곤 했다. 내가 그들에게 “방이 따뜻하고 깨끗하고, 저녁 식사도 훌륭해요.”라고 말하면, 바랴 수녀님은 “도대체 왜 너를 막대기로 쫓아내도 여기 오지 않니? 차라리 돛자리 위에서 자더라도 신부님 곁에 있는 게 낫지.”라고 말씀하셨다.

신부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 날씨가 쌀쌀하면 “베라, 내 어깨에 걸칠 술을 좀 줘”라고 말씀하시곤 했지만, “왜 추운 거야?”라고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에게 엄격하셨지만, 이웃에게는 자비로우셨습니다. 어떤 일یدن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일은 결코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심지어 웃기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고 대천사 미카엘 축일이었습니다. 제가 신부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신부님, 우유 넣은 차를 드릴까요?”라고 물었더니, “아니, 우유 없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

나스타시아 어머니께 “어머니, 신부님께서 우유 없는 차를 원하신대요.”라고 말했더니, “아니야,”라고 하시며, “자, 우유 넣은 걸 가져가!” – “아니요, 어머니, 전 안 가져갈 거예요.” – “가져가, 네게 말했잖아!” 제가 가져갔습니다. 신부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유 없는 차를 달라고 했는데요.” – “신부님, 아나스타시아 어머니께서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신부님은 일어나서 우유가 든 그 찻잔을 집어 들고 부엌으로 가져가더니, 다가가서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에게 쏟아부으셨다. 수녀님이 나를 향해 말했다. “이 멍청아, 왜 우유가 든 차를 가져왔니?” “수녀님, 제가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 “으악! 베라라면 나랑 싸웠겠지만, 가져가지는 않았을 텐데, 넌 그냥 가져왔구나! 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봐!”

하지만 이 모든 건 물론 장난이었죠. 그분과 신부님 사이에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대화가 있었어요. 신부님은 가끔 “나스타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이는 ‘성스러운 미친 척’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성스러운 미친 척’을 했지만, 물론 자신이 원했던 만큼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대단한 삶을 사셨죠.

어느 날 어머니께서 병에 걸리셨는데, 마침 우리 엄마의 이름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올라디를 볶아 주셨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안티도르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절제력이 강하셨습니다. 신부님도 식사를 아주 적게 하셨습니다. 바랴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금식하지 않으면서도 금식했다.” 사람들이 ‘불에서 갓 꺼낸’ 음식을 가져오면, 신부님은 숟가락 세 번 정도만 드시고는 “가져가세요.”라고 하셨다. 또는, 예를 들어, 대사순절 첫날을 보자. 보통 첫날에는 여기 누구에게도 음식을 주지 않는다. 대사순절 찬송이 끝난 후 프로스포라 한 조각씩을 준다.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정오에 감자를 삶으라고 하셨는데, 오후 3시가 되면 감자가 이미 식어 있을 테니, 감자 반 개를 드시고는 “자, 제 동료 신부님들(동료 사제들을 가리킴)은 금식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신부님께서는 스스로를 항상 겸손하게 다스리셨습니다. “나는 병자니까,”라고 말하며, “내가 금식을 어겼구나.”

그는 유난히 자애로움이 넘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축일이 구력 8월 30일이었는데, 제가 “신부님, 집에 가서 감자를 캐러 갈게요.”라고 말했더니, “가라, 가라, 거기서 엄마가 널 기다리고 계시잖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다 마치고 5시까지 성모 마리아의 허리띠 봉안 축일 미사에 참석하러 교회에 가야 했어요. 저는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는데, 신부님께서는 쉬고 계시다가 일어나서 커튼을 살짝 걷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는데, 누군가는 감자를 캐고 있구나. 베라, 가서 마리아에게 전화해서 밤샘 예배에 오지 말라고 전해.” – “그런데 누구한테 전화하죠? 다들 밭에 있잖아요.” – “네가 가서 전화해.” 베라는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걸러 갔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 여동생이 문을 열었다. 점심시간에 집에 들른 것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가 수화기를 들자 베라가 말했다. “수녀님한테 말해, 밤기도에 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그래서 수녀는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전야 예배에는 오지 않아도 됩니다.” 뭐, 당연히 젖은 채로 지쳐서 집에 돌아와 쪽지를 읽은 나는 그저 온몸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신부님이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제 영혼을 꿰뚫어 보셨는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길: “나타샤, 오브라즈초프네 집에 가서 소를 잡으라고 전해라.” 그런데 그때가 3월이었어요. 겨울 내내 소를 먹여 키웠는데 이제 잡으라고요. 엄마가 말하길: “세상에, 참 안타깝네!” 시간이 지나자 신부님께서 다시 나타샤를 부르시며: “갓었니?”- “갓어요.”- “지금 당장 가서 소를 잡으라고 말해.” 나타샤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치시는 거예요?” 엄마가 말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잡아야 하는데, 참 안타깝네.”

시간이 또 흘러, 벌써 4월이 되었다. 신부님은 매우 엄하게, 심지어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짐승들을 괴롭힐 건가?” 나타샤가 와서 말했다. “지금 당장 도살하세요! 도살할 때까지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소를 도살했더니, 위장에 녹슨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소는 그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고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지만, 신부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멜콤비나트에서 살기 시작한 첫 해, 사순절 첫 주 어느 날 정오에 과일이 들어간 키젤을 먹었는데, 사과 심이 목에 걸려 숨을 들이쉴 수도, 내쉴 수도 없었습니다. 신부님께 찾아갔지만, 신부님은 이미 기도하러 가신 뒤였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예배가 끝났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니즈니야로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나는 먹지 못했고 침조차 삼킬 수 없었다. 신부님이 나탈리아에게 물으셨다. “뭘 드셨나요? 언제 드셨나요?” 빵 한 조각을 떼어 내게 주며 말씀하셨다. “자, 이거 먹어.” 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먹지?” 작은 조각을 하나 먹었더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좀 더 먹었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녁 기도를 마친 후, 저는 신부님 발 앞에 절을 하며 말했어요. “신부님, 주님께서 신부님을 구원하시길!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러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느 날 신부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하께서 어떻게 서명하시는지 알고 싶니?” 하시며, 아그니아 수녀님의 손글씨로 가득 적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습니다(저는 그 필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빨간 연필로 대각선으로 결의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신부님이 말씀하시며, “대각선으로 쓴 부분만 읽고, 그 외에는 읽지 마라.”라고 하셨다. 신부님은 종이를 내게 건네주고 복도로 나가셨다. 나는 호기심에 몸이 타들어 갈 지경이었다. 아그니아 수녀님이 도대체 무엇을 썼길래 성하께서 서명하셨을까?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뻔뻔한 녀석, 부끄럽지도 않니? 신부님께서 읽지 말라고 하셨잖아.”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신부님은 도무지 오시질 않으셨다. 나는 궁금해졌다. 도대체 아그니아 수녀님이 무엇을 썼을까? 다시 책상 쪽으로 다가가다가 또 “아니, 안 읽을 거야”라고 중얼거리며 물러섰다. 그렇게 호기심이 나를 괴롭힌 게 세 번이나 되었다. 그러다 신부님께서 들어오시더니 미소 지으며 “자, 어서 읽어 봐!”라고 하셨다. 거기에는 아그니아 수녀님이 자신에게 수도 서원을 베풀어 달라는 청원서가 적혀 있었다. 신부님께서 곧 그녀에게 수도복을 입혀 주셨다.

물론, 우리로서는 신부님의 서거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슬퍼했고, 모두 울었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 제 기억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교회에 들어가니, 신부님께서 제단에서 성체를 꺼내고 계셨는데, 그 제단은 왠지 우리 교회가 아닌, 좁은 제단이었습니다. 나는 문가에 서서 축복의 자세로 두 손을 모은 채 속삭이듯 불렀다. “신부님!” 신부님은 몸을 돌려 내게 다가와 축복을 내려주셨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말을 많이 하면 신부님께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고, 말을 적게 하면 핵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에서 깬습니다. 아, 기쁨에 겨워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신부님께서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다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돌아가신 지 1년 후, 성모 영보 대축일이 종려주일과 겹쳤습니다. 예배 순서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저는 시편 독송자였는데, 두 축일을 어떻게 올바르게 조화시켜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부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잘 봐, 꼼꼼히 봐. 이렇게 말할 거야: ‘이건 바이이, 저건 축일(즉, 성모 영보 대축일)이다. 스티히르는 축일 것으로, 여섯 번, 바이이는 네 번, ‘영광송’은 바이이, ‘지금도’는 축일 것이다.’ 다시 신부님께서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자, 저는 잠에서 깨어 모든 것을 기억해 내고 그대로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임종을 맞이하시기 전, 우리가 피티림 주교님을 기다리던 때가 기억납니다. 밤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작은 방의 난로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베라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침구를 갈아주고 있었으며, 올라 페도로브나는 신부님의 땅은 머리를 풀고 있었고, 저는 신부님의 귀 뒤를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무덤 같은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앉아 계시며 성스러운 구석을 바라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신부님께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모두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신부님 자신이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는 나를 모시던 시절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추억은 우리에게 평생의 위안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떠나셨습니다. 물론 미하일롭카에서도 우리 생활은 나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신부님을 기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부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니 당연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부님들 중에는, 말하자면, 신부님을 닮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즈유모바 타티아나 아르테모브나

제 부모님은 특별 이주자였는데, 31년에 볼고그라드 주에서 추방당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세 자녀가 함께였죠. 그들은 황량한 대초원, 테미르타우에서 16킬로미터 떨어진 13번 정착촌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정착촌에는 2만 5천 명이 있었고, 모두 대초원에 땅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자 나뭇가지로 헛간 같은 것을 지었고, 난방 시설이 전혀 없는 그 헛간에서 열 가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창문은 없었고, 지붕은 헛간을 간신히 덮을 정도였으며, 모두 거의 옷을 벗은 채 침상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빠가 일하고 돌아오면 엄마와 아이들 모두가 눈더미에 파묻혀 누워 있는 경우가 있었다. 아빠는 눈을 치우며 물었다. “ ” “거기 살아 있니?” – “네, 살아 있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큰형이 어딘가에서 작은 장작토막을 하나 찾아와 아버지께 드리며 말했어요. “아빠, 이 장작 좀 잘라서 우리 차나 데워 주세요.” 그때 코멘단트가 다가와 아버지의 옷깃을 잡아당기더니, 그 장작토막 하나 때문에 아버지를 3개월 동안 구금시켰습니다.

봄이 되자 13번 마을에는 사람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적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도요. 그 후 가족들은 티호노브카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는 흙과 카라간나무로 지은 5가구용 땅굴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1939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940년에 엄마는 빵을 받으러 줄을 서 있다가 짓눌려 죽었습니다. 엄마는 임신 중이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41년에 큰오빠가 전선으로 끌려가 전사했습니다. 아빠는 전쟁 중 탄광에서 하루에 두세 교대씩 일하셨는데, 그곳은 제2전선이었고 매일 탄광에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빠는 일하러 갈 때마다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자, 딸아, 돌아올지, 탄광에서 돌아오지 못할지는 신만이 아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쿨락’이라고 불렀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를 쿨락이라고 부르나요?”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우리가 러시아에 살 때 베개에 누워 잘 시간이 없어서 밭에서 주먹을 베고 잤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땅을 일구며, 그 수고로 러시아를 먹여 살렸기 때문이야.”

1955년, 내가 이미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나는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만났다. 그때 나는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갔다. 예배가 진행 중이었고,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집전하고 계셨다. 나는 조용히 서서 경청했다. 그리고 제 어린 마음속에서 일종의 재탄생이 일어났고, 이 세상 것이 아닌 기쁨과 고무된 감정에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신부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으며, 신부님은 저를 가까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신부님은 품위가 넘치시고, 비범한 자비심을 지니셨으며 매우 다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매우 소박하고 너그럽게 대하셨으며, 특히 처음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성가 합창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옅틴 성가의 선율을 무척 좋아하셔서, 때로는 직접 성가대석에 올라 노래하시기도 했습니다. 성가대는 수도원처럼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수녀님들과 젊은 여성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곳에 엄밀히 말해 수도원은 없었지만, 수도원의 정신은 깃들어 있었다. 공동체는 작았고, 수녀는 열 명에서 열두 명 정도였으나, 비밀리에 지내는 이들도 있었다. 신부님은 긴 예배를 무척 좋아하셨다. 우리 성당에서는 어떤 부분도 생략되거나 축약되지 않았다. 신부님은 이 성당에 옅티나 푸스티니의 정신을 심어주려고 애쓰셨는데, 이곳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신부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당을 세우기 위해 여기서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신부님께서 “네 엄마는 어디 있니?”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신부님, 제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전 엄마를 기억하지 못해요.”라고 대답했더니, “장례 예식은 치렀니?”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니요.”라고 하자, “그럼 네 엄마를 위해 장례 예식을 치러 주마.”라고 하시며 신부님께서는 즉시 제 어머니를 위한 장례 예식을 집전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조카가 여덟 살 때,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집에서 혼날까 봐 두려워한 조카는 친구와 함께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타슈켄트 쪽으로 떠난 것이죠. 온 가족이 당연히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펄펄 흘리며 신부님께 찾아가 그분 발치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쳤어요! 조카가 실종되어 벌

써 한 달째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신부님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타뉘샤,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나 조카가 알마아타에서 체포되었다는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가서 조카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기쁨에 차서 감사의 표시로 큰 포도 한 송이와 커다란 수박을 신부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네 조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잖아. 보라, 찾았구나.” 바로 그분의 기도 덕분에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인이셨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은밀히 행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자신의 통찰력을 겸손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를 둘러싼 소녀들, 즉 그의 영적 자녀들을 바라보며,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너희를 더 잘 안다.” 그분 안에는 그토록 위대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엄청난 짐을 지고, 마음의 아픔을 안고, 그토록 많은 슬픔과 근심, 애통함을 짊어지고 고해성사를 받으러 갔다가, 고해성사를 마치고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치 날개를 달고 나온 듯 모든 것이 뒤로 남는, 바로 그런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신부님은 당신의 말씀과 손길로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거나, 영혼을 순식간에 녹여주고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신의 뜻을 거스르거나, 신부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재앙으로부터 막고자 하실 때는 엄격해지셨습니다. 물론 엄하게 꾸짖으시기도 했지만, 그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난 밤새 잠을 못 잤어. 네가 걱정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그는 모든 일을 매우 가슴 아파하며 받아들이셨고, 사람들의 모든 슬픔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가까이 느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고아로 자랐기에, 고아의 슬픔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남의 슬픔도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

바티슈카가 돌아가신 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데즈다였습니다. 그녀는 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티슈카의 무덤에 쓰러져 쓰라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힘닿는 대로 기도하며 그에게 도움을 청했고, 떠날 때 무덤에서 흙을 조금 가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그 흙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물을 부은 뒤,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그녀의 병이 사라졌고, 그녀는 자신의 치유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우연히 우리 성가대가 지휘자를 잃게 되어, 제가 지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합창단을 잘 이끌 수 있을지 매우 망설여졌고, 신부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신부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밤에 신부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던 곳이자 은둔처인 멜콤비나트에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흙집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신부님께서 완전한 예복을 입고, 십자가와 향로를 손에 든 채 예배를 집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합창단을 이끌기로 동의할지 말지 고민하는 마음으로 신부님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신부님께서 큰 십자가로 저에게 축복의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신부님의 손에 입을 맞췄고, 그 순간 잠에서 깨어 제 손바닥에 느껴지는 신부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락했고, 합창단을 지휘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도 지휘하고 있습니다.

### 안나 바실리에브나 자이코바

저는 모르도비아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야코프 장로님께 찾아갔습니다. 바르카에 야코프라는 예지력이 뛰어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러 갔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거야! 길이 이렇게 좋은데! 누가 너를 맞이할까!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기둥이 있을 거야!” 그런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무슨 소리야?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기둥이 나를 맞이한다고?” 그러던 중 59년에 딸이 테미르타우로 떠나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엄마, 어서 와, 엄마, 어서 와!” 엄마는 모든 것을 팔고 이곳으로 오셨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합창단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곧바로 교회로 향했어요. 가는데 두 소년이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신부님께 물려들었는데, 신부님은 바로 저를 향해 이 성당 한가운데서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곳에 다니기 시작했고, 30년 동안 이곳을 오고 있는데 정말 큰 기쁨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살 곳이 없길래, 그때 제가—주님, 용서해 주세요—다가가서 말했어요. “신부님, 제가 결혼했어요!” 늙은 분과 결혼했는데, 살 곳이 없었어요. 신부님이 말씀하시길: “결혼했다고? 교회 결혼식을 올리지 않을 거면 가라.” 제가 집에 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갈게요.” – “어떻게 가려고?” – “교회 결혼식을 올리지 않을 거잖아?” – “올릴 거예요!” 하고 바로 여기로 와서 교회 결혼식을 올렸죠. 그 이후로 줄곧 여기저기 다니고 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도착하니, 아나스타시아 어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바로 “안나!”라고 부르시더니, “왜 대모인 아나스타시아를 위해 기도하지 않니? 그분이 너를 갓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성당으로 데려왔잖아! 그런데 넌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니!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라고 하셨어요. 저는 대모님이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은 러시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를 쳐다보며,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다렸죠. 어머니께서 프로스포라를 건네시며 “자, 할아버지와 함께 드세요!”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바로 병에 걸리셨는데, 어쩌면 임종을 예감하셨던 걸지도 몰라요. 네, 정말 경이로운 장로님들이셨죠...

바르카에 계신 야코프 장로님도 정말 경이로우셨어요! 그분은 성인이셔서, 무덤 앞에서 그분을 통해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제가 한 번 그분께 찾아갔을 때, 열여덟 살이었는데, 세상에, 온통 죄투성이였죠! 그땐 정말 몰랐으니까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제 마음대로 지냈거든요. 할머니 덕엔 성냥이 없었어요. 난 등지에서 달걀을 가져왔는데, 할머니께 여쭙보지도 않았어요. 뭐, 생각했죠—이건 죄가 아니겠지, 등지에서 가져왔을 뿐이니깐. 가게로 달려가 성냥을 사서 할머니께 가져다드렸죠. 그러고 나서 야코프 신부님 댁에 갔더니,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길: “달걀 값으로 성냥을 샀구나!” 사람의 죄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쳐다보며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분이 제 이마를 톡 치시며 “너한테 말하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에! 신부님! 죄송해요, 제가 한 짓이에요!”라고 했죠.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 체를 뚫고 보는 것처럼 흰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셨고, 모두를 사랑하셨으며, 그분께는 모든 사람이 마치 자녀처럼 소중하셨습니다. 테미르타우에서 돌아오면, 신부님은 우리가 화내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금처럼 귀한 존재인 양 대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토록 죄 많은 사람들이었죠!

네, 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었는데, 신부님께서 저기서 소리치시더군요. “그 자리에 서 있어, 들어오지 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쁜 의도를 품고 들어와 신부님 쪽으로 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신부님께서 손을 들자마자, 그 사람은 마치 땅에 박힌 듯 제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이쪽도 저쪽도 갈 수 없게 되었죠. 세바스티안 신부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아그니아 어머니에 대해서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연금을 받아야 했는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댁에 찾아가서 현관 문턱에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줄줄이 어머니께 물려들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좀 와 봐.” 제 발치에 앉히시고 축복해 주시며 “연금 받을 거야”라고 하시더니, “너 아이콘은 만들고 있니?”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아이콘을 액자에 넣고 있었죠. – “아이콘은 만들고 있니?” – “네, – 제가 말했어요, – 어머니, 만들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성화 사진도 찍었었어요(어디에도 성화 그림이 없었거든요). 제가 직접 찍기도 했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늦게 왔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그때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줬을 텐데. 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 무언가를 한다면,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었죠.

지금 테미르타우에 교회가 지어졌는데, 저는 테미르타우에 다니며 벌써 5년째 매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항상 제 마음속에 계셔서, 저희는 테미르타우에서 이곳으로 오곤 합니다. 길도 이제 편해져서 절대 늦는 일이 없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이고, 문도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도—신부님의 기도를 의지하며 이곳으로 와서 신부님의 성당을 찾아뵙습니다. 여기는 모두가족 같은 곳이에요.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곳에 오면 마음이 아파요. 온 영혼이 여기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마음이 이끌리니까요. 저기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제 마음은 여기 있거든요.

### 마리아 바실리에브나 안드리예프스카야

우리는 31년에 사라토프 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가축 수송차에 실려 오사카로브카로 끌려왔고, 마치 가축처럼 땅에 내던져졌습니다.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비가 양동이로 퍼붓듯 쏟아졌고, 우리는 빗물을 모아 마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섯 살이었고, 형은 저보다 두 살 위였으며, 세 살 난 여동생과 갓난아기 두 명까지—다섯 명의 아이와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였습니다. 사라토프 주에서는 농사를 지었고, 항상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차 편으로 우리를 오사카로브카의 황량한 대초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밤낮을 잠도 자지 못한 채, 부모님 곁 땅바닥에 앉아 부모님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카자흐인들이 마차를 타고 와서 우리를 태우고 5번 정착지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

아빠, 아빠, 우리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는 “조금만 기다려, 곧 있을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 정착촌에 도착하자 “집은 어디야? 집은 어디 있어?”라고 물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5번 정착촌’이라고 적힌 표지판 하나만 서 있었으며, 병사들이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다. 우리를 이시무 강가로 데려다주고는 다시 땅에 내팽개쳤는데, 우리 아이들은 울부짖었죠. 아버지는 가서 나무를 베어 오시고, 사각형 구덩이를 파신 뒤 천막을 작은 오두막처럼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그 땅굴집 바닥, 땅 위에서 포크로프 날까지 살았죠. 그런데 포크로프 날에 눈이 50센티미터나 내렸어요. 아침에 형이 잠에서 깨더니 말하길, “엄마, 할아버지가 얼어 죽으셨어. 나도 할아버지 때문에 추워.” 우리는 달려갔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다.

우리는 막사를 지었다. 십 대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잔디를 등에 지고 6킬로미터나 나르곤 했다. 포크로프 축제가 지난 뒤 우리를 그 막사에 정착시켰는데, 유리도 문도 없었다. 그때 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셨는데, 물통에 물을 부으면 물이 얼어붙었고, 그 얼음 조각을 유리 대신 창문에 끼워 넣곤 했다. 막사에는 한 번에 200명씩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기서는 열 명, 저기서는 다섯 명이 죽어 있었고, 우리는 시체들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 기억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모르드바족도 살았는데, 20명 가족 중 단 두 명만이 러시아로 도망쳤고, 나머지는 모두 죽었습니다. 5번 정착촌에 1만 8천 명을 데려왔는데, 봄이 되자 5천 명만 남았습니다. 우리 집은 32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 달 뒤에 아이를 낳으셨는데, 우리 여섯 남매와 눈이 먼 할머니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구걸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훔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아니야, 딸아, 남의 것은 절대 배불리 먹을 수 없어. 차라리 가서 손을 내밀어 봐.” 그래서 저는 다녔습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주기도 했지만, 누군가는 주지 않고 밀쳐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우리 집에서는 갓 태어난 남동생과 막내 여동생,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서 아동 노동단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7년에 엄마는 콜호스에 가도록 강요 받았지만, 엄마는 콜호스에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엄마에게 “네가 누구인지 알아? 넌 지주야.”라고 말했죠. 결국 엄마는 3년형을 선고받고 극동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오빠는 열네 살, 저는 열두 살, 여동생은 열 살, 막내 남동생은 여덟 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노동대에서 일하고, 구걸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려 다니기도 하고, 실을 잣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대로 챙겨서 서로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 엄마가 풀려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빠는 징집되어 전선에서 전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었고, 눈물과 빈곤, 슬픔 속에서 우리의 삶은 흘러갔습니다.

55년에 우리는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우리 온 가족이 미하일롭카로 이사하는 것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그때부터 우리는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1년 만에 신부님의 축복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 후로는 항상 신부님 곁에 머물며, 모든 필요와 슬픔을 그분께 털어놓았습니다. “괜찮아,”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한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물론 우리 같은 죄인들은 그 기도를 받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 마트로나 티호노브나 프로로바

45년에 전선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짝을 찾기 위해 젊은이들과 부지런히 어울렸습니다. 당시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환자에게 땀을 놓으러 갔다가 벽에 걸린 신부님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 주위에는 흰 머플러를 두른 수녀님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심이 깊어 끊임없이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라고 물었더니, “그건 카라간다에 사시는 세바스티안 신부님이세요.”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때 제 마음은 너무나 슬펐고, 이미 데이트를 하다 보니 가슴이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전선에서 돌아온 후 제게는 얼마나 많은 불운이 닥친 건가요! 도저히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데, 세월은 흘러가기만 하네.” “그래, 너 – 그들이 말하길 – 그분께 편지를 써 봐.” 내가 편지를 썼더니, 신부님께서 나를 카라간다로 오라고 초대하셨다. 나는 잠시 머물러 신부님께 전선에서 돌아온 후 겪은 불운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가정 생활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넌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는 다 허락하셨는데, 나만 빼고 안 허락하신 건가?” 그러자 신부님이 다시 말씀하셨어: “러시아로 돌아가서 거기서 모든 일을 정리하고 다시 여기로 오렴. 너에게는 카라간다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나는 돌아갔지만, 세상이 마치 사슬로 묶어두듯이 나를 붙잡아 두는 바람에 아주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카라간다로 나갈 수 없었다. 신부님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지만, 무려 네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곳에 갈 수 있었다.

세례를 받을 때 제 이름은 마트로나였습니다. 그런데 전선에 등록할 때 서류에는 ‘마리아’라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모두에게 ‘마리아’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전보를 보냈습니다. “마중 나와 주세요. 마리아.” 그런데 신부님께서서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트로나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으니, 가서 마중해 줘.” 그리고 신부님께서서는 저를 집으로 맞아주셨어요. 신부님께서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맞아주신 적이 없으셨는데, 사탄으로부터 저를 너무나도 소중히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카라간다에 정착할 수가 없었고, 계속 이곳을 떠나고만 싶었어요. 나는 여행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저는 떠나야 해요. 여기서 더는 살 수 없어요.” 그러자 신부님은 내 가방을 자신의 차에 싣고 다시 나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래서 다시 그분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약 1년 동안 살았는데, 신부님 곁에 있던 모든 수녀님들은 항상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었죠. 수녀님들은 침묵 속에서 살며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데 익숙해져 계셨는데, 저는 아무 말이나 마구 내뱉곤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신부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그들은 저에 대한 불만을 신부님께 털어놓곤 했는데, 신부님께서서는 그들을 달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녀님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데도 저는 여러분 모두를 참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트로나 한 명만 참아 주지 않으시네요.” 그렇게 신부님께서서는 항상 그들을 타일러 주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은 항상 저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행동이 정말로 부적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전선에 있었고,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주님께서 그녀를 지켜주셨어요. 그녀에게 트집을 잡지 마세요. 그녀는 저에게 온 것이지, 여러분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께서서는 저를 위해 작은 집을

사주셨어요. 가끔 저를 찾아오셔서 텃밭을 보시며 말씀하시곤 했죠. “우와! 마트로나의 텃밭이구나! 마음속이 어떤지, 텃밭도 그대로구나!” 그런데 제 텃밭에는 허리까지 닿을 듯한 키 큰 풀이 자라고 있었죠. 신부님께서 저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저는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는데, 사탄이 저를 너무나 심하게 유혹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척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저를 보지 않고 옆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사탄아, 네가 왜 영혼을 괴롭히는가!”

저는 간호사였는데, 신부님께 자주 땀을 놓아 드렸고, 신부님께서 “마트로나, 네가 나를 치료해 주니,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신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토록 많은 수고를 하셨고, 우리는 그분께 모두 그토록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살아온 동안 어떤 궁핍도 겪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자녀도 없이, 평생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이나 마실 것, 장작 등 그 어떤 것에도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날개 위에 저를 태우고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 리디아 블라디미로브나 주코바

31년에 우리 가족은 사마라 주에서 카라간다로 무료로 이송되었습니다. 우리 네 명의 아이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였습니다. 기차의 화물칸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크몰린스크로 데려왔고, 그곳에서 우리는 초가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은 기억나지 않고,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초가집에서 얼마나 살았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세 살배기 아기였던 여동생 나데즈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다섯 살이 다 되어 가고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제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아크몰린스크에서 우리는 콤파네이스크의 대초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살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볼샤야 미하일롭카로 이사했을 때, 웬지 모르게 그 미하일롭스카야 마을이 푸시킨의 고향 마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남아 이 유배를 견뎌냈지만, 갓난아기 나데즈다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은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수업이 끝난 뒤 집에 돌아오면 방에 물이 쏟아져 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우리 집에서 세례식이 열렸던 것임을 알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 그 사실을 숨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부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52년, 대학을 졸업한 후였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신부님의 축복을 받고 멜콤비나트로 이사하셨고, 신부님께서 그곳을 자주 방문하시며 우리 집에서 점심 기도나 저녁 기도를 집전해 주셨습니다. 멜콤비나트 전역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느 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저녁을 먹은 뒤 모두가 흩어졌는데, 신부님께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였던 마트로나는 도저히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글썄요, 그녀는 매 순간 신부님을 뵈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우리 집에 오시고, 가장 늦게 떠나시곤 했죠. 그래서 제가 이미 대야에 물을 받아 놓고, 눈빛으로 “가세요!”라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녀는 떠나지 않더군요. 저는 신

부님을 침대에 모시고, 신발을 벗겨 드린 뒤, 물을 가져다 신부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마트로나가 들여다보는 것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리디아 블라디미로브나, 됐어요. 마트로나가 다른 쪽 발도 씻게 해 주세요!”

70세 때 아버지는 집사가 되었고, 그 후 사제가 되어 신부님과 함께 미하일롭스카야 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추방시켜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추방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신부님을 뵈지 못했을 텐데!” – 그렇게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사마르체프 가족

### 바실리 이바노비치 사마르체프

우리는 오렌부르크 주에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셨습니다. 1931년에 아버지는 쿠라쿨로 지정되어 감옥에 갇히셨고, 우리 여섯 형제자매와 어머니는 31년 5월에 카라간다 근처 9번 정착촌인 드넓은 대초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큰오빠는 11살이었고, 그 뒤를 게노치카가 따랐으며, 저는 네 살, 저보다 어린 이반은 세 살, 예브게니는 두 살이었고, 막내 파블리크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우리는 코슈마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코슈마를 깔고, 상자를 부수어 지붕 대신 올려놓았다. 그것이 우리의 집이었다. 비나 눈이 올 때면 우리는 구덩이를 코슈마로 덮었다. 그렇게 여섯 명의 아이들은 마치 어미 닭 곁에 모여든 병아리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 후 흙벽돌 집을 짓기 시작했고, 모두를 몰아 흙을 반죽하게 했다. 감독관은 말을 타고 다니며 채찍으로 사람들을 흙 더미 속으로 몰아넣었다. 우리는 잔디를 베고, 온갖 풀과 관목을 베어 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막사를 지어야만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2 광산에 티호노브카 마을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빈약한 식량이 배급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개울이 하나 있었는데, 물이 말라버려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벽을 세우고, 창문과 문을 만들었으며, 막사 하나당 난로 두 개를 설치했다. 각 막사에는 20가구씩 들어 있었고, 모두 겨울 내내 침대 위에서 잠을 잤다. 한 가족이 누워 있고, 또 다른 가족, 세 번째 가족이 누워 있는 식이었는데, 침대만 촘촘히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좁은 통로만 남아 있었다.

1932년의 겨울은 매우 혹독했고, 나는 온 가족이 죽어 누워 있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 온갖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이질과 설사가 유행했는데, 치료할 약도 없고 빵도 부족해 굶주림에 시달렸죠. 오렌부르크 출신이나 시베리아 사람들은 체질이 더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탐보, 보로네즈, 펜자 같은 비옥한 땅에서 온 사람들은 체질이 약해서 가족 단위로 죽어 나갔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렀냐고요? 폭 3미터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막사에서 죽은 가족들을 끌어내어 수레에 실어 운반한 뒤, 장작처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우리도 그해 겨울 한 주 동안 파벨, 이반, 예브게니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게노치카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밥 먹으라고 부르러 갔더니 게노치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작은 관을 만들어 주었고, 갓난아기 파블리크는 천으로 감싸서 철 파이프에 넣고, 무덤을 파서 묻었습니다. 그런 일이었습니다.

2년 후 티호노브카에는 5천 명만 남았습니다. 2만 명이 그곳, 스타라야 티호노브카 근처에 묻혔다. 우리 중 살아남은 건 두 형제와 어머니뿐이었다.

33년에 우리 아버지가 오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굶주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신앙을 가진 특별 이주자들은 기도하기 위해 그룹을 지어 모였습니다. 그리고 돌린카에서 풀려난 수녀 마르파와 마리아가 티호노브카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돌린카에서 옴틴의 장로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곧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배급표로 빵을 받았습니다. 티호노브카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어서, 저는 빵을 사러 시내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도 풀려나 미하일롭카에 정착하신 후, 직접 빵을 사러 다니셨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신부님을 꼭 만나고 싶었고, 마침 신부님을 만나게 되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를 니즈니야 거리에 있는 신부님 댁으로 데려가 주셨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이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 **니나 페트로브나 사마르체바**

저는 힘든 출산을 겪은 뒤 감기에 걸려 염증이 생겼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저를 희망이 없는 환자로 판정하고, 죽을 운명이라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시면는 “자, 과일을 가져왔어, 자, 생선도 가져왔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사순절이었는데, 신부님께서 저에게 잉어를 가져오시며: “잉어를 삶아 먹어!” 그런데 저는 아무 것도 먹지 못했고, 이미 죽어가고 있었죠. 병원의 의사가 와서 말하곤 했어요. “이 사람을 왜 치료하죠? 이제 뭘 해도 소용없을 텐데.” 우리 쪽 의사들인 올가 페도로브나, 타이시아 그리고리예브나도 찾아와 하루에 두 번씩 주사를 놓아주곤 했어요. 신부님은 저를 무척 불쌍히 여기셨죠: “남자는,” 신부님이 말씀하셨죠, “더 강하지만, 여자는 무방비 상태야.” 우리 집에서는 처음에 아들들이 태어났고, 그다음에 딸들이 태어났어요. “신부님,” 우리가 말하곤 했죠, “우리 딸이 태어났어요!” “음, 딸이구나!” 신부님이 말씀하시곤 했죠, “난 딸들을 좋아해!”

신부님은 제 침대 곁에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신부님의 머리는 약간 옆으로 기울어져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매일 신부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봄이 되자 신부님의 기도로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 **발렌티나 세르게예브나 포포바**

우리는 카라간다 제과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장은 공산당 소유였고,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원이었지만, 우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일도 잘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 취재진이 모범 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촬영하려고 했지만, 공장장이 “안 돼, 저 사람들은 신앙인이야”라며 금지시켰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후 오랫동안 꾸지람을 듣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너희는 큰 손해를 봤어, 이렇게 젊은데도 신을 믿다니!” 우리는 세바스티안 신부님께 찾아가 그 일을 말씀드렸더니, 신부님께서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떤 어머니도 신부님

만큼 위로해 주지 못했을 겁니다. “괜찮아요,”라고 하시며, “조금만 참으면 돼요. 여러분은 곧 신뢰를 얻게 될 테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쇠를 맡기고 창고 관리인으로 임명할 거예요.”

물론, 직장에서는 우리를 혹사시켰고, 겨울에는 작업장에서 쫓아내어 거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석탄이 실린 화차를 하역해 트럭에 싣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다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사장님과 수석 엔지니어 이반 세메노비치와 친해졌습니다. 이반 세메노비치는 우리를 찾아와 우리가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금식과 기독교 명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여러분은 정말 잘 사시네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창고 관리인으로 임명하고 열쇠를 맡겨 주었으며, 소장은 출장 갈 때면 자신의 아파트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 수녀 니나 (코르슈노바)

우리가 거리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저는 건강을 해쳤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더 이상 일하러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년 동안 저는 병가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교회에서 일해야 해.” 그래서 저는 2급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도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팔에 커다란 혹이 생겼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슬픔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모두 신부님께 달려가곤 하죠. 그래서 저도 신부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 팔에 혹이 자라나고 자라나고 있어요.” 어머니는 “수술을 해야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제 손을 쓰다듬으시더니 “그래, 큰 혹이구나. 아니, 수술할 필요는 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혹이 사라졌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는지 조금 뒤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팔에 있던 혹이 이미 없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15~16살쯤이었을 때, 물론 신부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영화 티켓을 샀어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이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데리고 멜콤비나트로 가셨죠. 그곳에서 신부님은 어떤 분 댁에 들러 잠시 앉아 계시다가 텃밭을 거닐고, 또 다른 분 댁으로 가셨어요. “자, 우리,”라고 말씀하시며, “서두를 필요 없지.” 우리는 물론 서둘렀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죠. 우리와 함께 있던 어머니 바랴가 말하길, “이 소녀들, 도대체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시며 계속 걸어다니시며 시간을 끌었죠. 벌써 7시, 벌써 8시... 그러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 집에 가도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영화관에도 가지 못했다. 그야말로 청춘이었다.

어느 날 성탄절 전, 신부님께서 저와 여동생에게 페트르 신부님의 방을 하얗게 칠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신부님께 축복을 받으려 했으나, 수녀님이 “신부님께서 많이 아프셔서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실망하며 일을 하러 갔습니다. 모든 벽을 하얗게 칠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다시 신부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더니, 수녀님이 또다시 “신부님께서 아프셔서 뵈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늦어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신부님 창가 옆을 지나가는데, 불이 켜져 있고 커튼이 열려 있었습니다. 보니까 방 안에 신부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분 발치에는 아나톨리 프로스비르니크 신부님(그때는 아직 아카데미에서 공부 중이었

고, 성탄절 방학을 맞아 신부님을 찾아오신 상태였다)이 계셨습니다. 제가 수녀님께 말했습니다. “어머, 신부님께서 계시는데 베라 수녀님이 축복을 받도록 허락해 주지 않았네요.” 뭐, 생각했죠, 멀리서라도 축복을 받자. 그래서 우리는 창가 옆을 지나가며 제가 “신부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자매가 “창문 안을 왜 들여다보는 거야? 안 좋아, 신부님이 뭐라고 하실 거야.”라고 하더군요. “아니요,” 제가 대답했어요. “신부님은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실 거예요. 글라피라가 여기서 뛰어다니는 줄 아실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교회에 갔더니, 신부님께서 추도 미사를 집전하고 계셨고, 글라피라가 곁에 서 있었다. 내가 신부님께 축복을 청하자, 신부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더니 글라피라에게 말씀하셨다. “너, 왜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 거니?” 참으로 놀랍게도! 글라피라는 눈물을 흘리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아나스타시아 수녀님께 갔어요(우리 교구에서는 신부님께 직접 다가가기 어려울 때 아나스타시아 수녀님께 가면, 수녀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수녀님,” 제가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글라피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울고 있어요. 설명해 드릴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수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신부님은 우리 네 친자매가 카라간다에서 모두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집을 사 줄 테니, 거기서 살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자매 중 한 명인 예브게니야는 첼리노그라드 주 샬티르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나에게 편지를 보내 결혼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엔야가 결혼할 예정이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물으셨다. “그 외에 누가 더 있니?” 내가 “오빠가 있어요.”라고 하자, “어디서 일하니?” “경찰서에서요.” “음, 그 아이가 도와줄 거야.”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빠가 도대체 뭘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형이 샬티르로 가서 부모님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재가 겨우 열여덟 살인데, 결혼시키시다니! 난 허락 못 해! 내가 데려가서 교육시켜서 의사로 만들 거야!”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형은 엔야를 카라간다로 데려왔어요. 그 후 형은 당연히 무척 후회했죠. “헛되이 그녀를 여기로 데려왔어. 거기 있었으면 적어도 시집이라도 갔을 텐데, 여기서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잖아.” 그리고 여동생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신부님 곁에서 살게 되었어요.

가끔 신부님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곤 했다. “누가 신부님 머리를 땀아 드릴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어머니 바르바라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애들아! 신부님 안에는 주님의 작은 조각이 깃들여 있는데, 주님 본인은 얼마나 다정하신지!” 머리를 빗어 주면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모였다. 나에게도 지금도 신부님의 머리카락이 남아 있다.

신부님께서 이미 아주 쇠약해지셔서 사람들이 두 팔로 안고 교회로 모실 때, 시녀 베라는 아무도 신부님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부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페티아와 슈리크가 신부님을 교회에서 모시고 나가는데, 신부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자. 너를 시련의 길로 데려가 주마.”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따라갔는데, 신부님께서 “들어와, 들어와.”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들어가자 신부님께서 십자 성호를 긋고, 우리 모두도 십자 성호를 긋고, 보니 신부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탁자 쪽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오렌지와 사과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 가라!” 그런데 나는 가는 게 두려웠어요. 우리 집 베라는 정말 엄격하거든요. 다

른 문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걸쇠로 잠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현관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때 베라가 나를 덮쳐서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때리고 두들겨 패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신부님이 아프신데, 네가 여기 들어왔다고?!”라고 했죠. 그때 페티아가 나를 감싸주었고, 우리 엄마도 달려와 그녀와 다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자 아버지가 달려오시며 “이 말썽꾸러기야, 뭐 하는 거니? 신부님께서 직접 그녀에게 축복해 주셨잖아!”라고 하셨죠. 문까지 가는 동안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신부님께서서는 미소 지으며 “자, 가거라!”라고 하셨죠.

신부님께서 병들었을 때, 우리는 집에 가서 자지 않고 경비실에서 침상 위에서 잤다. 신부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곁에 없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도니차 날 오전 4시 45분, 나는 꿈속에서 이런 광경을 보았다. 신부님께서 장례식실에 서서 자신의 시녀 베라에게 양초를 건네며 말씀하셨다. “자, 모두에게 양초를 나눠 줘,” – 하고는 직접 양초에 불을 붙이시더라. 나는 잠에서 깨어 “타냐, 신부님이 돌아가셨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문이 쿵쿵 두드리며 “신부님 상태가 안 좋아!”라고 했다. “돌아가셨다”고는 하지 않고 “상태가 안 좋다”고만 했다. 우리는 방으로 달려갔는데, 신부님은 아직 옷을 벗은 채로 누워 계셨고, 에피트라킬을 걸치고 계셨습니다. 주교님께서 앞에 서 계셨고, 베라, 올라 페도로브나, 글라피라,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직접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 타이시아 그리고리에브나 포미나

일라리온 바실리에비치 포민은 제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신부님도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일라리온은 47세에 홀아비가 되셨습니다. 4살, 7살,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아이들 네 명이 남았습니다. 그의 딸 마리아, 제 대모는 당시 열아홉 살이었는데,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아이들을 모두 키우며 할아버지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신부님의 축복을 받고 1955년 8월 1일 카라간다로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멜콤비나트에 정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일라리온은 세속적인 분이셨지만 신앙심이 깊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영적인 책을 읽으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면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매우 공경하셨고, 두 분은 결코 사이가 나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할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신부님께서 장례 미사를 집전해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영적인 지혜를 지니고 계셨으며,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셨고, 항상 그들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눠주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신부님께서 매우 엄격하셨습니다. 비록 친척이었지만, 신부님 앞에서는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고, 그분 앞에서 자유분방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이 이미 기력이 쇠약해지셨을 때, 제가 거리에서 신부님을 모시고 수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도실에 들어갔을 때, 신부님이 옷을 벗으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녀가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쯤 제가 신부님을 도와드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몸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스스로 몸을 가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 저는 그 자리에 깜짝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직접 옷을 벗으시고 옷걸이에 걸어두셨습

니다. “나는 아직도,”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돕고 있다.” 그렇게 신부님께서는 저를 제 자리에 돌려놓으셨습니다.

미하일롭카에는 신부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수녀님들은 그 모든 분들을 맞이하고 모셨다. 저는 처음에는 이를 당연한 일로 여겼지만, 낯선 사람들이 때로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그들의 모든 무력함을 떠안으며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수녀님들의 환대 정신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들이었고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신부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요셉 주교님께서서는 장례식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피티림 주교님께서 오셨고, 요셉 주교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피티림 주교님은 신부님의 영적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총대주교로부터 장례식을 집전하라는 축복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피티림 주교님은 주교였고, 요셉 주교님은 대주교였습니다.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요셉 주교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바투슈카께서 돌아가신 후 우리 사이에 불화는 없었습니다. 설령 어떤 갈등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바투슈카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우리에게 호의적인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반대되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나중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 안토니나 이바노바

저는 탄광에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따라 탄광에서 모든 여성을 내보내자, 저는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신부님께서 저를 부르시길래 찾아갔습니다. “저기 보라,”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앉아 있는 여자 보지? 그 여자에게 아픈 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야. 네가 그 여자와 함께 가서 그 아이를 돌봐 줘.”

다음 날 나는 그 소년을 보러 병원으로 갔다. 그 아이는 일곱 살이 다 되어 가고 있었다. 외모도 예쁘고 예의 바른 아이였지만, 걸을 수 없었고 마비 상태였다. 나는 병원에서 그 아이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밥을 먹이고 산책도 시켜 주었다. 그러다 그 소년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퇴원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곧바로 볼로랴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부모님들께도 서서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 하지만 부모님은 받아들이지 못하셨다. 그 아이가 그들에게 유일한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어떤 일이든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불러들였고, 어떤 중국인 치료사도 데려왔는데, 그는 척추에 침을 놓거나 뜸을 탔습니다. 점쟁이들도 집으로 찾아왔지만, 소년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병에 걸리기 전까지 아버지는 심하게 술을 마셨고, 취하면 난동을 부리고 욕을 퍼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마당에서 이웃과 다투었는데, 소년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 중 한 명도끼를 집어 들어 다른 사람을 베려고 했고, 이 여섯 살 소년은 겁에 질려 2미터 높이의 울타리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게 되어, 누군가가 그를 거기서 내려주어야 했다. 그 즉시 소년은 마비되었고

, 그 후 시력을 잃었으며,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는 신부님께 찾아가 울었고, 신부님은 그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소년은 일곱 달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신부님은 자주 찾아와 그에게 성체를 주셨고, 이 소년은 마치 순교자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볼로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신부님은 아나스타시아 수녀님과 다른 수녀님들을 그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수녀님들은 소년의 시신을 씻기고 기도하며 장례 준비를 모두 마쳤다. 아나스타시아 수녀는 한참을 앓아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제니가 없네(소년의 아버지). 자, 페티야, 콜야, 빨리 헛간들을 뒤져 봐. 안 그러면 금방 관이 하나 더 생길 거야.” 그리고 가장 먼 헛간에서 제네를 발견했는데, 그는 이미 목에 올라가미를 걸고 있었다. 그렇게 아나스타시아 수녀가 그를 구해냈다. 그녀 역시 위대한 분이었고, 신부님께서 특별히 그녀를 보내신 것이었다. 그리고 소년이 장사 지내질 때까지 아나스타시아 수녀는 어디로도 떠나지 않았다.

### 파노바 발렌티나 페트로브나

우리 가족은 첼리노그라드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역 교회에서 카라간다에 어떤 비범한 신부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955년 겨울, 저는 부모님과 함께 카라간다로 가서 그 신부님을 뵙기 위해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9학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착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성체를 모신 뒤, 신부님을 뵙고 돌아왔습니다. 신부님은 정말로 남다른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분이셨지만, 제가 축복을 받으러 그분께 다가갔을 때, 경건한 떨림이 가슴을 가득 채워 심장이 멎을 듯했습니다. 나는 그 감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

1956년에 저는 학교를 졸업했고, 그림에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모스크바로 가서 스트로가노프 미술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세바스티안 신부님 댁에서 우리 친척 한 분이 오셔서 신부님께서 제가 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표를 사둔 터라, 나는 모스크바로 갔지만 입학에는 실패했다. 그 후 아버지가 나를 카라간다로 데려오셨다. 신부님께서서는 머무르라고 축복하시며 “아그니아 어머니 곁에서 살며 어머니를 도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 곁에서 4년을 지냈다. 어머니 역시 비범한 분이셨다. 우리는 그녀를 깊이 공경했고, 그녀가 하는 말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고, 우리는 모두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여유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환대심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떠나고, 또 다른 이들은 찾아오니, 다시 식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맞이하는 틈틈이 어머니께서는 성화를 그리셨습니다. 가끔 제가 “어머니, 도대체 언제 일하실 건가요? 제가 문을 닫을게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 어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 사람들이 오니,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을 맞이해야지.”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셨고, 어떤 하찮은 사람이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을 제쳐두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어머니께, 바로 어머니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함과 환대, 그리고 선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모든 사람을 오직 다정함과 사랑으로만 대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만으로는 그토록 많은 따뜻함과 친절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영적인 친절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양육자가 돌아가셨다. 이제 누구에게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겠는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저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맛있는 음식만 챙겨 주셨습니다. 일하고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물으셨죠. “배고프니?” – “아니요, 어머니, 방금 먹었잖아요.” – “아니, 배고플 거야. 내가 뭐 좀 만들어 줄게.” 그러고는 병든 몸으로 작은 탁자에 의지해 난로 쪽으로 가서서, 저를 위해 정말 맛있는 팬케이크를 구워 주셨죠.

어머니에 대해 특별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때는 매일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겉보기엔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은 매일의 위업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집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 다. 가끔 우리 동네 소년들—페티아, 알레샤—가 오면, 어머니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맞이하시니 분명 사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신부님이 아직 십 대였을 때 찾아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께서는 그에게 거의 경외심에 가까운 예의를 보이셨고, 축복을 받으러 다가가지 않은 것만 빼고요. 그분은 사제직에 대해 꿈도 꾸지 않으셨지만, 모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던 길로 흘러갔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은 좀 더 직설적이셨는데,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거침없이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마치 내면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금은 두려워했지만, 사실 그녀도 매우 상냥한 분이셨어요. 그녀는 직접 만든 크바스를 모두에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교회에 가면,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길가에서 바로 “크바스 한 잔 드릴까요?”라고 물으시곤 했어요. “네, 한 잔 주세요, 수녀님.”

우리도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을 존경했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도저히 믿기 힘든 말들을 하곤 했다. 그녀는 신부님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곳에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가 변하고 소련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모든 것이 너무나 확고했기에 나에게는 그저 공상처럼 들렸습니다. 또 신부님을 이곳에서 데려갈 때, 자신도 잊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제가 직접 들은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우리 가족에 대해 하신 예언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우리 가족이 첼리노그라드에서 카라간다로 이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친척들이 다 있고, 큰언니와 매형도 계시는데, 아빠는 절대 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라고 반박했죠. 그런데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집도 사고, 정원도 가꾸면 모든 게 다 있을 거예요.” 그건 59년의 일이었고, 60년이 되자 우리 가족은 이미 카라간다에 있었으며, 우리는 여행 가방 위에서 새해를 맞이했죠.

신부님께서서는 우리 엄마가 길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친척을 만나러 떠나실 때면,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엄마를 보내곤 했습니다. 죽음은 정말로 길에서 찾아왔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1976년, 이곳 카라간다에서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다 함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에게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매우 경건하고 자비로우셨죠. 하지만 우리 영적 스승님들은 더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단 한 마디만 하셔도, 마치 날개 달린 듯 그분 곁으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속의 사람은 영적 스승님들이 사랑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셨던 만큼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베풀 수는 없습니다.

## 흐미로프 가족

### 수도사 세바스티안(알렉산드르 알렉세예비치 흐미로프)

1931년에 우리는 쿠라클(부유 농민)으로 몰려 탐보프 주에서 카라간다로 유배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우리 세 형제,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온 11가구가 우리와 함께 한 칸의 객차에 타고 갔다. 처음에 우리를 페트로파블롭스크로 데려왔는데, 마침 성 페트로의 날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건대, 페트로파블롭스크에서 썰기풀 수프를 먹었다. 페트로파블롭스크에서 콤파네이스크까지는 2주 정도를 달려갔다.

그곳은 텅 빈 대초원, 불에 탄 대초원이었습니다. 밤에 우리를 내렸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객차에서 자던 널빤지를 꺼내 네 조각으로 잘라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카라간 나무를 베어 그 받침대를 덮으니 초가 오두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모두에게 일을 시키며 사마나를 만들게 했다. 나는 어린아이였지만 역시 일해야 했고, 사마나를 뒤집어 햇볕에 말리도록 했다. 그 후 사마나를 건설 현장으로 운반해 작은 집들을 지었다. 잔디를 잘라 그것으로도 집을 지었다. 벽을 겨우 세웠을 때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집에는 천장이 없었다. 12월에 발진티푸스가 돌기 시작했는데, 진흙투성이인 데다 식사는 형편없었기 때문이었다. 국은 맛이 없었고 빵은 400그램씩만 주었다.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그러던 중 주님의 성전 봉헌 축일에 내 두 형제가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병원에 있었는데, 스타로고로드(Stary Gorod)에 있었다. 당시 1-야 카라간다(1-я Караганда)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어머니께 연락이 오자, 어머니는 병원으로 가서 형제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글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언제 들으셨나요?” – “어제요.” – “오! – 그들이 말하길, – 찾지 마세요. 그분들은 이미 없어요. 이미 보내드렸거든요. 오늘 수레 다섯 대가 실어 가서 공동 묘지에 묻었어요. 이제 거기가 당신네 분들의 묘지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갓 돌아가신 분들이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형제 중 한 명을 알아보셨어요. 그를 데려가 썰매에 실어 콤파네이스크로 데려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묘지가 있었고, 거기서 무덤처럼 구덩이를 파서 형을 천에 싸서 묻었습니다. 그 외에는 마차로 사람들을 콤파네이스크로 실어 나르곤 했습니다. 이건 큰 비극이고, 정말 끔찍한 일이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천장이 없는 집들, 눈이 쏟아지고 있었죠. 살아 있던 사람들은 눈더미 아래서 일어나곤 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눈 아래에 누워 있었는데, 그들을 끌어내어 마차에 실었죠. 그리고 그 마차를 끌고 가는 건, 똑같이 지쳐 있는 농부들이었어요. 시체들을 수습하고 운반하도록 강제로 시켰거든요. 이런 일도 있었죠. 수레를 끌고 가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수레를 끌던 사람이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를 일으켜 세워 수레에 싣고는 다시 길을 떠나, 계속 수레를 끌었죠. 그 시절 삶은 정말 힘들었고, 그 시절 모두에게 고통이 닥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라 36년에는 이미 열여섯 살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복역 기간 같은 건 없었고, 각자 할 수 있는 대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도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제가 결혼했을 때, 아내와 어린 딸 류보브와 함께 51년에 카라간다로 직접 이주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세

바스티안 신부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과 친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은 자라났으며,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신부님을 찾아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 그분은 조언을 해 주시고 슬픔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병에 걸리셨을 때, 막내딸은 겨우 한 살이었는데, 신부님께서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울자 신부님도 저와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고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수녀 예브니키야(알렉산드라 플로로브나 흐미로바)

1964년 겨울, 저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간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던 끝에 담도 염증이 시작되었고, 담즙이 혈액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3일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수술 후에도 생존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 신부님께 찾아갔더니, 신부님께서서는 즉시 수술을 허락해 주시고 저를 위해 손수건과 머리 스카프 두 장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병이 불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여덟 명의 어린 아이들을 집에 남겨두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전, 저는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집을 떠나 동쪽으로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저는 생후 5개월 된 딸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꿈을 신부님께 말씀드리고는 “신부님, 제가 죽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왜요?”라고 물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며 슬픈 목소리로 “그건 병을 예고하는 꿈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동안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강단에 올라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다자녀 가정의 한 어머니에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고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린 뒤 제 단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알렉산드르 크리보노소프 신부님이 같은 부탁을 전하며 신자들 앞으로 나왔지만, 역시 말을 끝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후 다시 신부님께서 나오셔서 아카피스트를 곁들인 기도식을 집전하셨고, 모든 신자들(신부님께서 계신 성당은 언제나 가득 찼다)은 무릎을 꿇고 신부님과 함께 기도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제가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큰딸이 성당에 갔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모셔 왔어요.” – “자, 보세요!” 수녀님이 성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간청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노스승의 사랑과 기도는 그토록 컸습니다.

1962년 사순절 때 저는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병든 시어머니께 성체를 나누어 주시러 우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신부님께 여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복녀 크세니아의 무덤을 참배하러 가도 되는지 축복을 구했고, 신부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체하지 말고 의로운 시메온 베르호투르스키 성인의 무덤으로 가도록 축복하겠소.” 그런데 제 품에는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나 강력했던 탓인지, 그날 밤 아기가 젖을 먹으려 하지 않고 스스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서 남편과 함께 신부님께 가서 어느 날로 표를 사야 할지 여쭙보니, 신부님께서 “부활절 셋째 날, 5월 2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표를 사러 갔지만, 매표소에는 그날 표가 이미 매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부님께 돌아가 “신부님, 표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가서 표 두 장만 달라고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표소로 돌아가 표 두 장을 요청했습니다. 매표원 아줌마는 “자, 베르호투르예행 표 두 장이 반납되었네요.”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표를 건네 주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며 우리 둘의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는 길에 저는 병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시메온의 유물에 손을 얹었을 때,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우리가 베르호투르예로 떠날 때, 신부님께서 베르호투르예의 사제인 레오니드 신부님께 드릴 편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수녀 아나스타시아와 이리나와 함께 우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장로님과 수녀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저와 남편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치 하느님께서 그 내용을 가려두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그들은 러시아어로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이리나 수녀님이 “신부님, 다 적어야 하나요?”라고 묻자, 신부님은 “다, 다 적어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명확해졌습니다. 신부님께서 이리나 어머니께서 받아쓰기를 하시고, 제가 레오니드 신부님께 편지를 쓰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저는 레오니드 신부님께서 미혹의 상태에 빠져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르호투르예에 도착한 후, 우리는 그 편지를 레오니드 신부님께 전달했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께서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셨지만, 편지에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요한 주교님께서 신부님을 서품해 주셨을 때부터 신부님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그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레오니드 신부님은 편지를 읽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저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말씀해 주셨군요.”

이 레오니드 신부는 훌륭한 사제였으며,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지만 지금은 타락해 버렸고, 우리 신부님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그의 타락을 예견하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바니슈카가 돌아가신 지 17년 후인 1983년, 1962년 때와 마찬가지로 견딜 수 없는 두통이 다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바니슈카에게 “바니슈카,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고는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신부님을 보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제 머리를 손으로 어루만지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 미샤(지금은 아리스타르흐 이구멘)는 세 살 때 매우 아팠는데, 침대에 누워서 “성모님, 신부님께 오시라고 전해 주세요. 제가 너무 아파요!”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신부님은 수녀 이라이다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아픈 아이에게 들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여기 아픈 아이는 어디 있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미샤가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가 그를 축복해 주시고, 커다란 빨간 사과를 하나 주시고는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마치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신부님께서 영적 자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알렉세이가 아홉 달 되었을 때, 그는 심한 소화불량에 걸렸습니다. 약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신부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알렉세이를 병원에 입원시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 “사흘 연속으로 성체를 받게 하라.” 우리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세 번째 성체를 받았을 때, 아이는 곧바로 잠들었고, 잠에서 깨어나자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현재 알렉세이는 모스크바 주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 수도사 세바스티안 (흐미로프)

어느 날 저녁 성당에 갔는데, 예배 도중 갑자기 열기가 몰려오고 코가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부음 예식이 끝날 때까지 버티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기름 부음 예식 앞으로 다가가자, 신부님께서 제게 기름을 부으시며 마치 무심코 제 코를 스치셨는데, 정말 아팠습니다! 출구로 향하던 중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신부님께서 내 병을 미리 아시고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신부님께서 제 열여섯 살 난 큰딸 류부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젊어지시고 수염도 없어지셨으며, 마치 천사처럼 환해지셨고, 방 안까지 비범한 빛으로 환히 빛났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그 장로님이 아직 살아 계실 때 이미 그의 영적 위대함과 순수함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대부께서 트럭을 운전하시던 중, 수심이 얇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둑이 가파르는데, 트럭이 갑자기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신부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고, 곧바로 무사히 도로로 빠져나왔다. 신부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셨음에도 도움을 청하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 올가 세르게예브나 마르티노바

우리 가족은 아스트라한 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일곱 명의 자녀가 있었죠. 우리 집에는 풍차와 소 세 마리, 황소, 말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훌륭한 농장주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신앙심이 깊고 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30년에 아버지는 콜호즈에 가입하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억하기로는 세 명의 여성과 두 명의 남성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르게이 페트로비치! 당신은 부자 몰수 대상입니다!” “글쎄, 그렇다면 –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 그러시죠.” 그리고 밤새도록 재산을 목록화했는데, 형값 한 조각부터 냄비 하나까지 하나하나 모두 기록했습니다. 두 명의 형은 체포되어 우리와 따로 형기를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장애로 인해 체포 대상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집 앞으로 마차를 대고, 어머니와 아버지, 다섯 자녀,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갓난 조카 클라보치카를 마차에 태워 아스트라한 너머 대초원의 황량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외에도 그곳으로 일흔 가구가 더 끌려왔습니다. 우리는 판자로 창고를

지어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살았다. 1931년 8월 1일, 대초원에 살던 우리 모두를 화물 열차에 태워 가축처럼 실어 나르었다. 우리에게는 물도, 빵도 없었고,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이 뒤섞인 채 그 화차에 타고 있었으며, 화장실도 바로 그 안에 있었다. 화차는 마치 취한 사람처럼 좌우로 흔들렸고, 이미 이동 도중부터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다.

18일 후, 우리는 카라간다 근처, 현재 마이쿠두크 마을이 있는 지역으로 끌려가 모두 땅에 내려졌다. 우리는 지쳐서 간신히 살아 있는 상태였는데, 아기 클라보치카는 입을 벌리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마시고 싶고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다. 대초원에는 카자흐족의 유르트가 서 있었다. 아빠가 그곳으로 가서 “물 좀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장화를 내놔, 그러면 줄게”라고 그들이 말했다. 아빠는 카자흐어를 할 줄 알았다(아스트라한에 카자흐족이 살았기 때문이다). 아빠가 간곡히 부탁하자, 그들은 물 한 양동이를 주었다. 우리 가족 외에도 다른 가족들이 이 물을 달라고 했기에, 그 자리에서 각자 원하는 대로 나눠야 했다. 늦은 밤, 우리는 다시 화물차에 실려 프리샤흐틴스크로 옮겨졌다. 그곳에는 들판과 키 큰 카라간 덤불이 있었다. 감시원들을 위해 천막을 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죽을 지경이었다. 어떤 책임자가 돌아다니며 각 가족당 구역을 발걸음으로 재었다. “이쪽 4미터, 저쪽 4미터. 여러분의 주소는 재건 거리 12번지입니다. 집으로 편지를 보내셔도 됩니다.” 카라간 덤불을 베어낼 도구가 없었다. 우리는 4×4 크기의 우리 몫 구역에 들어가 작은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구덩이를 파고, 어딘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구덩이 위에 오두막처럼 세우고, 카라간나무로 덮은 뒤 바닥에 풀을 깔았더니, 그게 전부인 피난처가 되었다. 우리 아홉 명은 모두 그곳에서 서로 겹쳐 누워 있었다. 일주일 뒤 우리 클라보치카가 죽었고, 그 후 어른들도 하나둘 죽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카라간나무 뿌리로 판자를 잘라 땅굴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판자로 창문도 문도 없는 땅굴을 지었죠. 예를 들어, 네 이불은 문에, 내 이불은 창문에 덮어두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몸을 가릴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 가족은 창문과 문을 가릴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겨우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곡식 조금뿐이었죠. 그런데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흙으로 화로를 만들었어요. 아빠는 그 위에 솥을 올려놓고 풀로 무언가를 끓이곤 했죠. 우리는 화로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화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창문으로 눈이 날아들어오면 우리는 그저 앉아 있었죠.

1932년 3월 18일, 우리 아빠가 티푸스에 걸리셨다. 병원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경찰이 나가게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경찰이 나를 때리지는 않았다(그때는 모두를 때렸지만, 나만은 건드리지 않았다). 엄마가 말했다. “아빠를 병원으로 데려가라.” 나는 가서 마차를 구해 아빠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그 병원은 창문도 문도 없었고, 건물 안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얼음이 깔려 있었다. 아빠는 고열이 나셨는데, 그분을 얼음 위에 눕혔다. 아침에 내가 갔을 때, 아빠는 이미 숨을 거두신 채 얼음 위에서 굳어 계셨다.

봄이 되자 모두를 일터로 내몰기 시작했고, 흙벽돌을 만들게 했다. 아이들은 카자흐 가축들이 벽돌을 짓밟지 못하도록 지키러 보내졌다. 아이들은 비록 어리지만, 600그램의 빵을 받기 위해 나갔다. 어른들에게는 800그램이 주어졌다. 대초원을 바라보면, 묘지 쪽으로 어둠 속을 헤치며 고인들을 운반하고 있었다. 아니, 운반한다기보다 작은 널빤지를 찾아 그 위에 밧줄을 묶고, 고인을 널빤지 위

에 얹은 뒤 밧줄을 잡아당겨 땅 위를 끌고 가는 것이었다. 달리 방법이 있었겠는가? 힘이 없었으니 말이다. 이곳은 프리샤흐틴스크, 티호노브카, 콤파네이스크—그곳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길이는 20미터, 너비는 3.5미터 정도 되어 발이 발과 나란히 놓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관은 없었다. 아무 천 조각이나 수건으로 덮어두곤 했다. 줄지어 눕히고, 또 눕히고... 무덤이 가득 차면 그대로 묻어버렸다.

우리 가족 중에서는 내 여동생, 엄마, 그리고 아스트라한에서 감옥에 갇혔던 두 형제만 살아남았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만난 건 46년이였다. 그때쯤 나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46년 2월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한 할머니가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집전해 달라고 신부님을 데려왔다. 나는 그때 신부님의 성함을 묻는 것조차 꺼렸는데, 신부님께서 직접 내게 다가와 내 이름이 무엇인지 물으셨다. 그분은 저에게 금식용 만두를 구워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날은 금식일이었는데, 제사 음식으로는 모두 고기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관을 썰매에 실으니, 말이 관을 싣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까지는 거리가 멀었고, 서리가 매우 심했으며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발끝부터 머리까지 푹푹 싸매고 나갔지만, 신부님은 거의 헐벗은 채로, 초라한 사제복을 입고, 낡은 스카프로 머리를 가린 뒤 맨손으로 철제 십자가를 앞쪽에 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짹짹 갈라지는 추위 속에서 12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나는 신부님께 이름이 무엇인지 묻지 못했고, 신부님께서도 돌아가는 길에 나를 썰매에 태워 주셨습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혹한 속에서 맨손으로 철제 십자가를 어떻게 들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자 신부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요! 나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었지: 정교회 신앙을 저버리라고 강요당했을 때, 그들은 나를 사제복 한 벌만 입힌 채 밤새도록 추위 속에 세워두고 경비병을 붙였어. 경비병은 두 시간마다 교대했지만, 나는 한 자리에서 쉬지 않고 서 있었지. 그런데 성모님께서 제 위에 이런 ‘작은 천막’을 내려주셔서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아침이 되자 저를 심문실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았다면 감옥으로 가라.” 그리하여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신부님과 처음 만난 순간이었는데, 사실 만남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만남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부님께 피로지크를 대접해 드렸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수녀 예브도키아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러 갔는데,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올류슈카가 피로즈키를 굽고 있구나! 하지만 이 올류슈카의 손놀림은 아직 서툴러.” 신부님은 제게 400루블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녀님의 모든 추모식을 이 돈으로 치르거라.” 이것이 신부님과의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나 50세가 되었다. 나에게 끔찍한 두통이 시작되었고,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어느 날 밤 머리를 만지다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더니 한쪽에서 머리카락이 빠져나와 반쯤 완전히 대머리가 되어버렸다.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자라지 않았고, 의사들은 모근까지 빠져나간 상태라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지인들이 저에게 조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하일롭카에 있는

세바스티안 신부님께 가보세요. 그분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또다시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신부님께 치료를 받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권했고, 다른 이들도 “신부님께 가보라”고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마침내 마음을 다잡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성당 문을 열고 신부님(그분은 강단에 서 계셨다)을 보자마자, 나는 그분을 어렴풋이 알아 봤다. 다만 46년 당시에는 아직 머리가 약간 검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 내가 그분께 다가가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여기서 하룻밤 묵어라. 코르닐리아 수녀님 곁으로 가거라.” 누군가 저를 그분 곁으로 데려다주었고, 신부님께서 그곳으로 오셔서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에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우리가 지주 물수를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지금은 누구와 함께 사는지, 아이가 몇 명인지, 어머니가 계신지, 어머니가 신앙인이신지 등을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당신은?” – “저는 이리저리 떠돌았어요.”

“신부님,” 제가 말했습니다. “꿈에서 제가 기도 예식을 스무 번 드려야 한다는 걸 봤어요. 신부님, 제게서 돈을 받아가시고 한 번에 다 드려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신부님을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아니요,” 신부님이 대답하셨다. “우리가 너를 위해 20번의 기도식을 드려 주겠지만, 너는 20주 연속으로 일요일에 성당에 와야 해. 내가 직접 너에게 아카피스트를 읽어 줄게.” 그래서 신부님은 저를 성물실로 데려가셨고, 거기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신부님께서 매주 일요일마다 저에게 아카피스트를 읽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부님께, 성당에, 성가대에, 그리고 이곳의 관습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마음을 다잡아, 저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아이들도 자랐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고, 신부님은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상태가 호전되었고, 신부님의 기도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제 병을 계기로 우리 가족의 신앙이 되살아났고, 우리는 신부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얼마 후, 여섯 살 난 조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에서 떨어져 절뚝거리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외과 의사가 진찰한 뒤 “이 아이의 고관절이 썩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복하여 뼈를 깨끗이 긁어냈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갔더니, 갑자기 신부님께서 저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올가, 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니?” “네, 조카예요.”라고 대답하니, “그 아이를 미하일롭스카야 병원으로 옮겨라. 거기 네가 아는 외과 의사가 있잖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속을 잡고 조카를 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들이 보자마자, 아이가 간신히 살아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재빨리 다시 수술대에 올려 긴급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수술이었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오자, 나는 성당에 갔습니다. 신부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왔니? 왜 일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는 거니? 왜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지 않는 거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오는데, 넌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지 않잖아.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서 그 아이를 안고 내게 데려와.”

저는 병원으로 갔고, 그곳에는 소년과 함께 그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우리는 미샤를 데리고 번갈아 가며 안고 교회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일은 저녁 예배 직전이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와 신부님 앞으로 데려가니, 신부님께서 “미-이센카, 미-이센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눈만 깜빡일 뿐, 채찍처럼 축 늘어져 누워 있었고, 온몸이 말라비틀어지고 생기 없이 보였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해실에서 성 삼위일체 성화상 앞으로 데려가라.” 제가 데려갔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의자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쉴레카를 의자에 앉혀라!”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이의 팔다리는 채찍처럼 가늘었는데, 어떻게 일어서겠어? 이미 반쯤 죽은 상태인데! 신부님은 그때 어머니를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두 분이 양쪽에서 아이를 붙잡고 세워 주세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아이를 세웠더니, 발이 의자에 닿았고, 우리는 양쪽에서 아이를 붙잡은 채 키가 쪽 뻗도록 잡아주었다. 그러자 신부님은 수녀님들을 더 불러서 “하느님께 기도하세요!”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미샤를 붙잡고 있는 동안, 나는 지켜보았다. 아이가 점점 단단해지고, 곧게 펴지더니, 마침내 몸을 쪽 펴고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섰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주세요, 데리고 가세요. 아이는 자기 다리로 걸을 거예요.” 그러자 미샤가 자기 다리로 걸었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에게 성유를 바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아이와 함께 밤을 지내세요. 내일 우리가 그에게 성체를 주면, 아이는 절뚝거리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지 않고, 기쁨에 차 미샤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신부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밀가루 한 자루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녀는 작은 자루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우리 미샤는 자라서 아주 예쁘게 자랐지만,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어머니가 신부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들이 성찬식을 받도록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1954년 부활절에 저는 맹장염 발작을 겪었는데, 수술에 대한 축복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예배 중에 신부님께서 제가 없는 것을 보시고 한 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프로스포라를 받아가세요. 서둘러 병원으로 가세요. 수술 전에 올가를 데려오세요. 프로스포라를 먹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술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녀가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수술실로 불려가고 있었다. 나는 프로스포라를 먹고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수술은 4시간 반이나 걸렸다.

얼마 후 나는 임신했다. 의사들은 출산할 수 없으니 낙태를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신부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며 “제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너 스스로 지옥으로 뛰어들면서 나를 거기서 끌고 가려는 거냐! ‘제발’ 같은 말은 필요 없다.” 그리고 제단에서 아름다운 꽃다발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말라버린 꽃은 버리고, 살아 있는 꽃만 남겨두어 매일 꽃 한 송이씩 차에 우려 마셔라. 그래야 이번 출산이 이전보다 더 힘들지 않을 것이다.” ‘성모 영보’ 성화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잘생기고, 똑똑하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일 것이다. 그 아이를 망치지 마라. 늙었을 때 네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세라핌이라고 지어라. 아무도 성 세라핌을 찬양하지 않고, 요즘은 아무도 그런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로, 성모 영보 축일에 무사히 아들을 낳았고, 지금 그 아이는 의사입니다.

1957년에 제가 임신하게 되어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시러 갔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작은 선물을 줄게.” 그 당시 신부님께 사과를 많이 가져다드렸었거든요. 신부님께서도 오랫동안 고르시더니, 마침내 한쪽은 빨강고 다른 쪽은 초록색인 사과를 제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 혼자 먹어라, 아무에게도 주지 마라. 네게 딸이 태어나면 당분간 내게 오지 못할 거야. 출산 후 합병증이 생길 테니까.” 제게 마샤라는 딸이 태어났는데, 15년 동안은 건강했지만, 그 후 15년 동안은 병을 앓다가 3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는 반은 빨강고 반은 초록 색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배에 갔더니,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제단에서 너에게 축복을 내리면, 그때 집에 가도 된다.” 갑자기 예배 도중에 신부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말씀하시길: “자, 집에 가거라. 단,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소 한 마리 사고 싶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신부님, 벌써 하루가 다 끝났는데, 이제 소를 살 리가 없잖아요!” – “사게 될 거야! 집에 들어가자마자 ‘소를 사고 싶다’고 말만 하면 돼. 그리고 사. 거기엔 붉은 소, 얼룩소, 대머리 소가 있을 거야. 너는 빨간 소를 골라라. 그게 네 소다. 그리고 이를 뒤에는 나에게 신선한 크림을 가져다주렴.”

나는 길을 떠나며 생각했다. “도대체 무슨 비유일까?” 집에 돌아오니, 우리 집에 내 형과 형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셨다. 내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나도 소 한 마리 사고 싶어요!” 오빠가 대답하길: “뭐가 문제야? 주머니에 돈도 있고, 마당에 소도 있잖아. 가자, 내 지인들이 소 세 마리를 팔고 있어.” 도착하니 신부님이 묘사하신 대로 소 세 마리가 서 있었다. 저는 붉은 소 한 마리를 골랐고, 이를 뒤 신부님께 신선한 우유를 전해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갈 수 없어서 이웃 여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녀는 “남이 준 자선으로 신부님께 어떻게 가겠습니까?”라고 거절했지만, 결국 가져다주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가네 생크림을 내놔!”

시간이 흘러 내 아이들도 자라났다. 딸 리디아가 대학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다. 우리는 신부님 댁에 찾아가 말했다. “신부님, 리디아가 대학에 입학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러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리도치카, 어디로 가려고 하니?”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법학과예요.” – “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알마티 사과를 먹고 싶다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카라간다 감자를 먹어라, 그게 몸에 좋다. 사람들을 심판하고 싶니? 나까지 심판할 거니?” “아니, 아니야. 올해는 집에 있으면서 엄마한테 바느질을 배워라.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내년엔 의과대학에 지원해. 거기에 새로운 학부가 생길 테니, 그 학부에 들어가면 돼.” 하지만 딸은 그해에 바로 의과대학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고,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해에는 바느질을 배웠고, 다음 해에는 아무 문제 없이 합격했습니다.

그 후 사샤가 대학에 지원할 시기가 되었다. 사샤에게 물었다. “어느 대학에 갈 거니?” 그가 말했다. “리디아가 그런 축복을 받았으니, 저는 미리 정하지 않겠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또 다른 아들 아나톨리는 8학년을 마치고 기술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축복을 받으러 가기로 했다. 신부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사샤가 대학에 지원해야 합니다.” 신부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자, 사샤, 넌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니?” “신부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폴리테크닉 대학 건축학과에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엔지니어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

하시리라.”(지금 이 아들은 도시의 수석 현장 감독이다. 그의 참여로 카라간다에 성모 마리아 탄생 성당이 새로 지어지고 있다.) 그리고 톨리카에게도 물으셨다. “너는 어디로 가고 싶니?” “저는 기술학교에 갈 거예요.” “기술학교라고? 어머니께서 너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는데, 8학년만 마치고 기술학교에 가겠다고? 너에게는 축복 따위는 없다. 10학년을 마치고 나서 오거라.”

그런데 우리 아나톨리는 어떻게 했을까? “엄마,”라고 말하더니, “아버지 축복이 대체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었지. 마침 우리 친삼촌이 그 기술학교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셨거든. “가자,”라고 말하더니, “삼촌이 도와주실 거야. 그럼 내가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동의했다. “가고 싶으면 가자.” 아나톨리에게 시험지를 주자, 그는 시험을 보러 갔고 – 2점을 받았다. “엄마,” 그가 부탁했다. “삼촌한테 가서 다른 시험지를 달라고 해 줘.” 나는 갔다. “뭐, – 생각했지, – 애가 좀 놀아보게 놔두자.” 그가 다시 시험을 봤는데 – 또 2점이었다. 세 번째에는 삼촌까지 그를 위해 발품을 팔았지만, 그는 또 2점을 받았다. 그렇게, 축복도 없었고 친척들의 도움도 소용없었다. 그리고 내 아나톨리는 직업기술학교에 입학했다.

1962년에 그는 학교와 함께 5월 1일 시위에 참가해야 했다. 그런데 그해 5월 1일은 부활절 주간에 해당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시위에 나갔는데, 벌써 저녁이 되었는데도 아나톨리는 집에 없었다. “뭐, 괜찮아,”라고 생각했다. “아마 내 형네로 갔겠지.” 다음 날 아침 교회에 가는데, 신부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가세요, 집에 있어야 해요. 자, 여기 달걀이에요.”라고 하시며 깨지고 찌그러진 달걀을 건네주셨습니다.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나톨리가 왔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안 왔어.” 저녁에 다시 교회로 갔더니, 신부님이 또 내게 다가와 말하더군요. “집으로 가, 당장 집으로 가.” 그리고 또다시 찌그러지고 깨진 달걀을 건네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나스타시아도 깨진 달걀을 주시며 “어서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시며 나를 재촉하셨습니다. 나는 걸어갔다. 모퉁이를 돌아마자 딸 리디아가 달려오며 말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톨리카가 칼에 찔려서 병원에 의식 없이 누워 있어요.” 알고 보니 시위 도중 불량배들이 그의 배를 찔러놓은 것이었다. 그는 수술을 받았다. 아나톨리는 9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는데, 세바스티안 신부님과 아나스타시아 어머니께서 기도로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장로님들께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아나톨리는 병원에서 8개월 동안 누워 있다가 회복되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 마리아 페도로브나, 올가 페도로브나 오르로바

### 마리아 페도로브나

제 부모님은 신앙심이 깊은 분들이셨습니다. 1931년에 우리 가족이 쿠라쿨로 지정되었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체포되어 따로 구금되었고,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우리 네 자녀는 콤파네이스크의 황량한 언덕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는 물도 빵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땅에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표트르, 저, 올가, 알렉산드라. 우리 어머니는 임신

중이셨는데, 유산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무척 고통스러워하셨고, 우리가 파놓은 구덩이는 피로 물들었으며, 옷에 굳은 피는 씻을 곳도 없이 사방이 대초원뿐이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부탁하셨습니다. “작은 돌맹이 하나 찾아서, 그 위에 이 옷을 올려놓고, 물로 적신 다음 발로 밟아 씻어 줘.” 저는 어렸고, 빨래하는 법도 아직 몰랐습니다.

그 후 땅굴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흙을 파내고 물을 부어 발로 밟아 반죽하여 벽돌을 만들었다. 막사를 지었지만 창문도 문도 없었다. 막사 안에는 돗자리만 깔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 위에 뒹고 누워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죽은 사람들을 끌어내곤 했어요. 그곳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 울지 않았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오직 기도만 드리고 아카피스트를 읽으셨고, 우리는 엄마 곁에 앉아 있었죠. “엄마, 밥 먹자! 엄마, 밥 먹자!” – “잠깐만, 아카피스트를 다 읽을게” – “엄마!” – “자, 이제 한 페이지만 남았어,” – 엄마는 시간을 끌며, “지금 다 읽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라고 하셨다. 다 읽고 나서 빵 한 조각을 집어 그로부터 한 조각씩 잘라내셨다. 그러면 우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건 누구 거야?”라고 물었고, “이건 페테야.” “이건 누구야?” “이건 마리아야. 이건 올레야. 이건 슈레야.”라고 대답하셨죠. 우리는 부스러기 하나하나를 모았고, 엄마는 자신의 배급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만큼 항상 나눠주려고 애쓰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곳에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려 류머티즘으로 누워 있었어요. 다리는 꺾양으로 뒤뚱여 고름이 썩어가고 있었죠. 엄마는 앉아서 울고 계셨고, 파리가 구름처럼 날아다니는 가운데 엄마는 거즈로 제 다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우리 모두 자랐고, 모두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표트르는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올가와 알렉산드라는 의사가 되었으며,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남은 건 기적입니다.

### **올가 페도로브나 (바쉴슈카의 주치의)**

1949년, 저와 제 여동생 알렉산드라는 알마티 의과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정규 근무지로 배정받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우리는 코크체타브로 배정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오빠 페트르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빠 곁으로 이사해 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께서 전보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전보에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카라간다 로만 배치를 받도록 하라고 하셨고, 그 이유는 편지로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는 신자 분의 조언에 따라 미하일롭스카야 교회의 세바스티안 신부님께 가서 떠나는 것에 대한 축복을 받으러 갔다고 쓰셨습니다. 신부님은 아빠에게 우리 이사의 목적에 대해 자세히 묻고, 주의 깊게 경청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페도르 이바노비치, 저는 당신의 이사를 축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딸은 딸대로입니다. 오늘은 아들이 그곳에 살고 있지만, 내일은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빠는 가족과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코크체타브를 떠났습니다.) “딸들은 카라간다로만 취업지를 정하게 하십시오.” 아버지는 신부님께 이미 모든 것을 팔아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신부님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페도르 이바노비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카라간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미하일롭스카야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신부님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밝은 예복을 입고 햇살에 비친 신부님은 마치 그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했습니다. 축복을 받은 후,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립 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카라간다에 정착한 후, 나는 퇴근 후 저녁마다 미하일롭스카야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미사를 집전하셨다. 저는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시는 모습과 성가대의 노래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신부님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미사에 대한 신부님의 경건하고 경외심 넘치며 감동적인 태도, 그리고 모든 면에서 신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시던 그분의 큰 인내심에 항상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부님은 매우 겸손하고 온유하며 자비로우셨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뵈고 나면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신부님이 매우 지치고 병약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배 중에 신부님은 자주 기침을 하셨고, 호흡이 곤란해 보였습니다.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여쭙보고, 의사로서 도움을 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를 꾸준히 돌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영적 삶이나 영성 지도자,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의 영적 통찰력을 처음으로 목격했을 때, 나는 그것을 내 생각과 신부님의 생각이 우연히 일치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저녁 기도 시간에 나는 서서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 참 좋구나! 집에 가고 싶지 않네. 여기 교회에 사는 안피사 이바노브나 댁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가 끝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신부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셨다. “올가 페도로브나, 여기 남아서 안피사 이바노브나 댁에서 하룻밤 묵으세요.” 나는 기뻐하며 외쳤다. “신부님! 저도 방금 그걸 꿈꾸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우리 생각이 이렇게 일치하다니요?”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방으로 가셨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님은 내가 고해성사를 보고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아침에 교회에 갔더니 고해성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속상해하며, 곧 출근해야 하니 고해성사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고해실 문이 열리며 문턱에 신부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신부님은 제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죠, 올가 페도로브나, 고해하러.” 어떻게 고해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저는 몰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고, 온갖 잡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올가 페도로브나, 제 머릿속에도 온갖 잡생각이 있군요.” 그리고 신부님은 나를 사로잡고 특히 나를 불안하게 만들던 내 모든 생각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하셨다. 내가 말했다. “신부님, 저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죄인가요?” 신부님은 대답하셨다. “네, 죄이니 피하고 마음에서 떨쳐내야 합니다.”

또 다른 날, 제가 교회에 서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한 부사제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올가 페도로브나, 신부님께서 부르십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가 싶어서—종종 그랬던 것처럼—서둘러 장례 예배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성화 앞의 작은 의

자에 앉아 무릎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고 계셨다.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나는 간신히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니, 신부님의 무릎 위에는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포도주를 뿌린 축복받은 빵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그런 빵은 내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아, 이거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신부님들은 포도주를 뿌린 빵을 직접 드시는데, 우리에게는 평범한 빵만 주시네!” 이 생각이 번개처럼 순식간에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신부님께서 내 쪽으로 몸을 돌리시더니,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을 제쳐 내시고 말씀하셨다. “올가 페도로브나, 축복받은 빵을 받아 드세요,” – 하며 와인용 빵 한 조각을 내게 건네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그 후로 누구에게도 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모든 생각이 그분 앞에 드러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는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

신부님의 거룩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다른 사례들도 못지않게 놀랍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축일이었습니다. 예배는 매우 엄숙하게 진행되었고, 신부님은 기쁘고 활기차며 평온해 보였습니다. 성가대는 유난히 잘 불렀습니다. 성체 영성체 후 찬송을 부를 때, “빛이시며 빛이시여,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노래하는 부분에서 단어 조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빛이 빛으로부터, 빛을 주시는 분”인지, 아니면 “빛과 빛, 빛을 주시는 분”인지가 맞는지 몰랐습니다. 이 점이 마음에 걸려 정확히 알고 싶었지만, 물어볼 적절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축일 직후 어느 날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신부님은 예배를 집전하지 않고, 자신의 방에서 예배를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신부님 곁으로 가서 축복을 청했습니다. 제가 신부님께 두 손을 내밀자, 신부님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바닥을 얹고 미소를 지으셨지만, 축복은 내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가 페도로브나, ‘빛과 빛, 빛을 주시는 분!’” 저는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신부님은 다시 미소를 지으시며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신부님의 통찰력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32살 때 저는 여성 특유의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제가 암에 걸린 줄 알고 무척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병 때문에 성찬을 받을 수 없고, 성화에 입을 맞출 수 없으며, 병자 성유식을 받을 수 없고, 프로스포라와 축복받은 빵을 먹을 수 없으며, 촛불을 올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저는 유난히 슬픔에 잠겨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오랫동안 성물을 만질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비극입니다!”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장례 예배실에서 부집사가 나와 재빨리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올가 페도로브나, 신부님께서 부르십니다.” 저는 제 병은 잊은 채 신부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가 싶어 서둘러 신부님께 달려갔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신부님께서 의자에 앉아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가 페도로브나,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도 가끔 그런 일이 생기곤 하죠. 성화에 입맞춤해서는 안 되고, 프로스포라를 먹거나 성수를 마시는 것도 안 되지만, 축복받은 빵은 드셔도 됩니다. 양초를 바치는 것은 괜찮지만, 성화 앞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시며, 축복받은 빵의 절반을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용기를 얻고 기쁨에 차며, 회복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정말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셨을 때, 신부님께서 어머니께 성체를 모시러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오신 날 중 하나, 우리가 성체를 모신 후 십자가 앞으로 다가갔을 때, 신부님께서 제 여동생 예카테리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카텐카, 결혼하지 마라.” – “왜요?” – 여동생이 물었습니다. “카텐카야, 결혼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아주 쓰라리게 울게 될 테니까.” 신부님은 신랑 후보를 본 적도 없었고, 예카테리나가 자신의 결혼 계획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시며 신부님은 저에게 그들이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카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혼식 직후 신부님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

나는 신부님이 성명일에 특별한 관심을 받거나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신부님께 예복용 천 조각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 얘기를 꺼내기도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교회에 들렀다. 신부님의 거처 옆을 지나가다 창문을 들여다보니, 신부님께서 창가에 서서 손가락으로 저를 부르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거처로 들어가자 신부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올가 페도로브나, 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들어오세요. “저한테는 대략 이런 소재로 된 예복이 정말 필요해요.”라고 하시며 푸르스름한 흰색의 소매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소매는 있는데 예복은 없어요. 이런 예복은 성모 마리아 축일과 주님의 축일에 유용할 텐데요.” 저는 신부님께서 드디어 제 오랫동안 품어왔던 은밀한 소망에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신부님, 그렇다면 이런 원단을 사도록 축복해 주세요.”

수년 동안 신부님 곁에 있으면서, 우리는 신부님의 노년의 축복이 지닌 힘을 여러 번 실감했습니다. 신부님의 축복의 힘을 입증하는 예로 다음과 같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 가축 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소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토요일, 아버지는 교회로 가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아버지는 신부님께 다가가, 더 이상 소를 키울 수 없게 되었으며 내일 일요일에 소를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페도르 이바노비치, 축복합니다. 내일 전례에 오시고, ‘주님의 기도’가 끝난 뒤에 소를 팔러 가십시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늦을 텐데, 멀리 옛 도시까지 가야 하니 시장에는 이미 아무도 없을 텐데요.” 신부님은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페도르 이바노비치,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테니 팔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다. 아버지는 미하일롭스카야 교회에서 노비 고로드의 마구간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 소를 데리고 나서야 비로소 10킬로미터나 떨어진 스타리 고로드의 장터로 향했다. 아버지는 소를 수레에 묶은 채 수레를 몰고 가셨다. 가는 길에 이미 시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아버지를 비웃으며 “헛수고예요, 시장에는 이미 아무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시장까지 가보기로 결심했고, 거기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기로 했다. 장터에 다다르자, 그는 사람들이 정말로 거의 없음을 보았고, 있던 사람들조차 집으로 흩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떻게, 아버지, 소를 팔러 오셨나요?” 아버지는 대답했다. “네, 팔고 싶네요.” 구매자가 자신의 가격을 제시했다. “장사할 때 걸치레는 생략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바

로 거래합시다.” 잠시 흥정을 한 끝에 가격에 합의했고, 그렇게 해서 모두의 놀라움 속에 아버지는 무사히 원하는 가격에 소를 팔 수 있었다.

내 수호천사의 날에 신부님께서 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7월 중순 무렵, 저는 신부님의 거처에 들렀습니다. 그때 신부님은 시녀 마리아 오브라즈초바와 함께 작은 매트를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아, 올가 페도로브나, –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 “신부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 작은 양탄자를 살펴보고 있는데,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서 발 밑에 깔 수는 없겠네요.” – “마리아,” 신부님께서 수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올가 페도로브나님의 이름날 선물로 드리는 건 어떨까요?”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신부님, 좋아요.” – “당신, – 신부님이 말을 이어가시며, – 며칠 뒤면 이름날이죠? 이름날에 저를 초대해 주시겠어요?”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신부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만큼 그분을 두려워하기도 했기에, 신부님이 직접 오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내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연히 나는 “물론이죠, 신부님, 오세요.”라고 말했다.

이름의 날 사흘 전, 신부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아카피스트와 큰 프로스포라를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모든 선물을 받고, 게다가 신부님께서 이름의 날에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니, 나는 조금 들뜬 기분이 되었다.

사도들과 동등한 올가 성녀의 기념일이 다가왔다. 우리 집은 온통 뒤집어졌다. 모두 닦고 청소하며, 유제품과 과일을 포함한 다양한 요리를 잔뜩 준비했다. 나는 교회에서 성체를 모셨다. 성찬식이 끝난 후 모두가 축복을 받으러 다가갔다. 나도 다가갔다. 그런데 신부님은 마치 저를 보지 못하는 듯 고개를 돌리시며 다른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서서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신부님이 마치 저를 보신 듯이 “아, 유혹이군,” 하시며 “올가 페도로브나 씨이신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반쯤 돌아서서 저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평소에는 큰 십자 모양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말이죠.) 내 가슴속에서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했다. 기분이 순식간에 침울해졌고, 생일 축하 분위기는 사라져 버렸다. “신부님,” 내가 말했다. “저희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집으로 가요.” 그러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라, 준비해 뒤. 난 지금 가서 식사하고 내 방에서 쉬어야겠어.” 나는 신부님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잠에서 깨어나 교회 숙소로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마치 전기 의자에 앉은 것처럼 긴장한 채 그분을 기다렸다. 숙소에서 신부님은 누군가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더니, 페트르를 불렀다. “페트르, 차 준비해, 지금 갈 거야.” “신부님,”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그러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 참,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네. 너희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우리는 멜콤비나트에 있는 올가 스테파노브나 댁으로 갈 거야.” – “아! 신부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부님은 듣지 않는 듯했습니다. 멜콤비나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장례 미사와 기도회를 드리고, 식사도 한 뒤, 주코프 댁에도 잠시 들렀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 “페트로, 가자!” 음,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구나 싶었다. 늦긴 했지만 그래도 도착하겠지. 우리 집까지 도착해서 대문 앞에서 차를 세우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올가 페도로브나, 내려주세요.” – “신부님,” 제가 말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집에서 저를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부님은 아무 말

도 하지 않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신부님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가 페도로브나,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를 위해 말이죠.” 그렇게 신부님은 저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만남에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가 페도로브나, 제가 가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웬지... 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서둘러야 했거나... 몸이 안 좋았거나...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 “아이고,” 제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집에서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바로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미하일롭스카야 폴리클리닉에서 지역 담당 의사로 일할 때, 제 업무에는 출장 진료와 담당 구역 내 환자 방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온갖 일들을 목격하곤 했는데, 품위 있는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온갖 잡다한 일들을 다 보고 난 뒤, 저는 다음 날 성찬식을 준비할 생각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신부님의 방문이 열리며 신부님께서 나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올가 페도로브나, 고해성사 받으러 가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신부님께서 오늘 저에게 고해성사를 받도록 하신 걸까요? 나는 사제실로 들어갔고, 신부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뒤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올가 페도로브나, 당신은 담당 구역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시죠.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양한 삶의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품위 있는 것도 있고, 품위 없는 것도 있으며, 영혼에 유익한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죠. 품위 없는 것들은 마음속에 새기지 마십시오.” 아! 제 귀가 화끈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갖 광경을 다 목격했으니까요. “신부님,” 제가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신부님께서 제 고해성사를 들어주셨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신부님께서서는 더 이상 누구의 고해성사도 듣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남아 계셨습니다. 제가 잊지 않도록, 그리고 신부님께서도 내일까지 영혼에 해로운 것들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종종 저에게 돈을 주시곤 했는데, 제가 그 돈을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부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죠?”라고 묻자, 신부님께서서는 “올가 페도로브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계실 때, 환자에게 다가가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 사람이 타지에서 온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눈에 띄지 않게 베개 밑에 돈을 넣어두세요. 그리고 폴리클리닉에서 진료를 보다가 환자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처방전을 써 주고 모든 것을 설명한 뒤, 약값에 따라 신부님의 재량에 따라 처방전 안에 돈을 넣어 주면 됩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이렇게 모든 이를 돌보셨고, 저는 신부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행했습니다.

신부님의 기도로 일어난 기적적인 치유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1960년, 이제프스크에서 펠라기야 멜니크가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반년 동안 빵도, 죽도, 감자도, 그 밖의 다른 음식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직 우유와 낱달걀만으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쇠약해져 움직이는 것조차 큰 고역이었습니다. 펠라기야가 신부님의 거처로 들어가려 했을 때, 신부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신부님이 나오시더니 “이 여인을 저에게 들여보내 주시오. 그녀가 매우 아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펠라기야는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

고,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 신부님은 그녀에게 “울지 마라, 펠라기아.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며, 너는 치유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신부님은 그녀에게 갓 구운 프로스포라 한 조각, 물 한 잔, 큰 사과 하나를 건네며 “이걸 먹어라.”라고 말했다. 그녀는 벌써 반년 동안 빵을 먹지 못했고, 목이 아파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신부님은 “내가 축복하노라. 세레실로 가서 넓은 벤치에 앉아서 먹어라.” 그녀는 세레실로 가서 벤치에 앉아 신부님이 주신 음식을 쉽고 편안하게 먹었다. 그 후 그녀는 곧바로 잠들었고 하루 종일 폭 잤다. 신부님은 그녀에게 몇 번이나 다가갔지만 깨우지 말라고 했다. 펠라기아는 완전히 건강해진 상태로 잠에서 깬다. 신부님은 말씀하셨다. “네 일은 힘들지만,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프스크로 돌아온 지 반달 후, 펠라기아는 그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더 가벼운 업무로 배치되었다.

코시노바 P. I.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암 요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신부님께 찾아왔습니다. 암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그녀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수술 전에 그녀는 신부님께 축복을 구하고, 교회에 촛불을 켜고 기도회를 드리기를 위해 찾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신부님은 “서두르지 마라, 수술대 위에서 죽을 수도 있다. 아직 살아라, 너에게는 아이들이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신부님을 세 번이나 찾아갔지만,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수술을 받지 말라는 것이었다. 알로에를 사서 약을 만들어 마시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세주와 성모 마리아, 수호천사, 그리고 모든 성인을 위한 물 축복 기도회를 의뢰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추적 검사를 위해 암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종양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미하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대사순절 첫날, 미하일은 친구를 배웅하러 나갔다. 어머니는 이를 반대했고, 아들의 불순종을 보며 걱정했다.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낀 그녀는 “주님, 그를 벌해 주십시오!”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헛수고였다. 마침내 자정 무렵,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와 아들이 정강이뼈 개방성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미하일은 약 3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골절 부위가 아물지 않았다. 세 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가짜 관절이 형성되었다. 네 번째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미하일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깁스를 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1년 넘게 일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미하일에게 성찬식을 받도록 권했지만,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찾아가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들은 신부님은 아들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겨우 설득하여 그를 데려왔다. 신부님은 미하일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회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셨다. 기도회가 끝난 후 신부님은 의자에 앉아 있던 미하일에게 다가가 목발을 짚고 일어서라고 하셨다. 그의 앞뒤로 십자가를 굿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제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고는 그에게서 물러났다. 2주 후, 의사인 이웃 여성이 미샤를 병원으로 데려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진찰을 받게 했다. 추적 엑스레이 사진에는 회복의 징후가 뚜렷이 드러났는데, 골극이 형성되었고 뼈가 붙기 시작했던 것이다. 결국 수술은 필요 없게 되었다.

바로 그 여성의 손녀 타냐가 차에 치여 다리와 골반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일은 성모 마리아 승천 축일 전날 일어났다. 골절 부위가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아나스타시아의

어머니에게 전했고, 어머니는 신부님께 알렸다. 신부님은 소녀에게 프로스포라를 건네며 성체를 영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렇게 되었다. 신부님은 타냐에게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거야,”라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괜찮아. 서서히 나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마리아 페도로브나

제 남편은 무신론자이자 공산주의자였고,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살기 힘든 삶이었습니다. 술이 깨어 있을 때는 아주 상냥했지만, 취하면 신앙을 이유로 저를 괴롭히며 끔찍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성화를 향해 소리치곤 했습니다. “아-아! 이 신상들아! 이 녀석들 다 내 던져 버리겠다!” 그러면 엄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세운 게 아니니, 네가 버릴 일도 아니야.” 아버지께서 저에게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성화를 주셨는데, 저는 눈에 띄지 않도록 옷장 안의 한적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몰래 기도하곤 했죠.

어느 날 신부님께서 제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는 “아마 그와 헤어질 것 같아요.”라고 말했죠. 그런데 신부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때로는 사과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과자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집안이 썰렁하게 조용하더군요. 거실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열린 옷장 앞에 있는 성화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쯤 취한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왕이시여, 자비로우신 어머니시여...”라고 말하다가 그 다음은 기억하지 못하는지, 오직 이 말만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그가 대답하길: “내가 기도하는 게 안 보이니? 거기 성화가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잖아.” 그렇게 장로의 기도로 인해 그에게 두려움이 깃들었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을 때만 기도했고, 술이 깬 상태에서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후 그는 소란을 피우지 않게 되었고, 성화를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후 갑자기 그가 말하더군요. “마리아, 우리 결혼하자.” 저는 깜짝 놀라 믿을 수가 없어서 말했죠. “당신은 신앙 때문에 쫓겨난 사람인데.” 그러자 그가 대답하더군요. “결혼해서 더 나은 삶을 살자. 너도 드레스를 만들어 입어.”

그리고 아이들 모두를 그 생각으로 이끌었죠. 저는 신부님께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신부님께서 “그거 참 좋네요, 오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렉산드르 크리보노소프 신부님께서 우리를 결혼시켜 주셨고,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는, 일에서 저보다 먼저 돌아와 저녁으로 금식 음식을 준비해 주곤 했죠. 아이들이 아빠에게 “아빠, 왜 금식 음식을 준비해요?”라고 묻자, 그는 “당연하지, 엄마가 안 드시니까 우리도 금식해야지.”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독감에 걸리더니 “우리 집안은 다들 갑작스럽게 죽는다”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고, 폐 침윤이 암으로 진행된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수술 전 그는 두려움에 떨며 고해성사를 하고, 성유식을 받고, 성체를 모신 뒤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후 꿈에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제가 “페티야, 한 잔 마셔,”라고 말하며 보드카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잔을 받아 세면대로 가서 보드카를 붓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

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아요.” 이렇게 장로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 올가 페도로브나

신부님께서서는 항상 우리가 휴가를 이렇게 쓰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휴가의 첫 2주는 대사순절의 마지막 2주와 겹치게 하고, 휴가의 마지막 2주는 부활절 후 2주와 겹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 저는 4월 1일부터 휴가를 냈습니다. 4월 1일 자정 무렵, 교회에서 올레츠키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올가 페도로브나, 신부님께서 상태가 안 좋으세요. 페트로가 신부님을 모시러 갈 테니 준비하세요.” 저는 약을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후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부님은 생전에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고,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기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지 20일째 되는 날, 저는 모스크바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시간으로 1시 30분(우리 카라간다에서는 이미 4시 30분, 즉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시각이었습니다)에 신부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신부님은 유쾌하고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가 페도로브나, 주님께서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 하고는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뭔가 말하려 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잠에서 깬습니다. 마치 바툴슈카 신부님을 살아계신 채로 본 것처럼 마음속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1994년 1월, 나는 다시 꿈속에서 신부님을 보았다. 마치 내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많은 사람, 나 포함해서, 신부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경비실로 향했다. 거기서 저는 신부님의 시녀 베라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라, 신부님 곁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일을 처리한 뒤, 저에게도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베라는 “네, 올가 페도로브나”라고 대답하고는 신부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올가 페도로브나, 신부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신부님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님은 방 앞쪽 구석에 있는 구세주 성화상 앞에 앉아 작은 탁자에 팔을 기대고 계셨습니다. 새로 산 아름다운 사제복을 입고 계셨는데, 옷자락이 바닥까지 닿았고, 역시 새것인 것이 달린 카밀라브카를 쓰고 계셨다. 신부님께서 어딘가에서 오셨지만 옷을 갈아입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었다(평소에는 사제복과 카밀라브카를 바로 벗으셨기 때문이다). 그의 모습은 엄숙했다. 나는 신부님께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축복해 주십시오, 신부님.” 신부님께서 축복해 주시자, 나는 그분의 손에 입을 맞췄고, 그 손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느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얼굴을 파묻고 말했어요. “신부님, 사랑하는 신부님, 정말 오랫동안 뵈지 못했네요.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그러자 목이 메어 오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나는 매일 이곳에 오곤 해.”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신부님은 ‘저 세상’에 계시잖아’라고 생각하며 말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신부님, 신부님은...” 하지만 신부님께서 내 말을 끊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래, 그래. 나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가지만, 매일 찾아와.” 신부님은 이 말을 또렷하고 설득력 있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깬다.

이처럼 신부님은 저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신도들을 예리하게 지켜보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언제든지 도움과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 라이사 이바노브나 쿠즈미체바

우리 가족은 1931년에 쿠르스크 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어린 자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콤파네이스크의 황량한 대초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시야가 닿는 지평선까지 훑어보아도 덩불 하나, 나무 한 그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주자들은 초가 오두막을 지었고, 그다음에는 땅굴집을 지었습니다. 위생 상태는 끔찍했고, 옷도, 먹을 것도 없었으며, 마을 전체에 우물 하나뿐이라 통조림 캔으로 물을 퍼 올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온 가족이 죽어 나갔습니다. 제 부모님은 두 아이와 시어머니를 묻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형곶으로 감싸서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부모님만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분들이 겪으신 일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31년, 32년, 33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땅굴집 근처에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배급 카드로 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5년에 제가 태어났고, 38년에 형 니콜라이가 태어났습니다. 39년에 어머니는 세바스티안 신부님에 대해 듣게 되었고, 형을 볼샤야 미하일로프카로 데려가 신부님께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신부님도 당시에는 아직 매우 쇠약한 상태였는데, 그 무렵 돌린카에서 풀려나신 참이었습니다. 겨우 빵을 조금 먹었을 뿐인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어머니(어머니는 깊은 신앙을 가진 분이셨습니다)는 전사 통지서를 받자마자 당연히 많이 울었고, 곧바로 하나님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고기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신부님은 콤파네이스크에 있는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모든 과부와 고아들을 주위에 모으시고, 비록 자신은 매우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신부님이 오시는 날, 어머니는 저에게 지붕 위로 올라가 신부님이 기차역에서 우리 집으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분이 걸어오시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얀 수염, 하얀 머리카락, 밝은 색의 비옷, 회색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오셨죠. 바라 어머니, 그루샤 어머니도 그분과 함께 있었고, 모두 신부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달려갔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엄마에게 달려갔고, 엄마는 나를 15번 마을로 보내 신부님이 오셨다고 알리라고 하셨다. 신부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축제나 다름없었다.

우리 가족은 거의 굶주림에 시달리며 살았다. 엄마는 나와 오빠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등유 램프 불빛 아래에서 재봉틀을 돌리셨다. 신부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42년부터 신부님은 방학 때마다 나를 니즈냐 거리에 있는 신부님 댁으로 초대하기 시작하셨다. 신부님은 아마도 굶주린 아이를 먹여 살리고, 어머니께서 심어주신 신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 시절은 내 어린 시절 중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부터 다가올 만남을 기대하며 제 심장은 기쁨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방수포와 알록달록한 뜨개질 매트가 깔린 작고 깨끗한 집 문턱을 넘을 때면, 그곳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보였고, 그곳에 사

는 사람들은 육신을 입은 천사들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경외심으로 대했다. 그루샤 어머니, 바라 어머니, 페클라 어머니—길고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흰 앞치마를 두르고, 흰 머리수건을 쓴 채, 예의 바르고 친절하셨다. 항상 조용히 말씀하셨고,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 부엌에는 하얗고 완벽하게 깨끗한 이불을 덮은 신부님의 침대가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서로 바짝 붙어 놓인 침대 세 개가 더 있었는데, 그 위에서 신부님들의 아내들이 잠을 잤다. 그토록 비좁은 공간에서 살면서, 오직 불편과 번거로움만 안겨주는 낯선 아이를 손님으로 초대하려면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보아하니 신부님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초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에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떠나고, 또 다른 이들은 찾아왔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고, 목욕탕에도 데려가 주셨습니다. 종종 신부님과 함께 젤렌스트로이에도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부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 신부님은 저를 가리키며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작은 소녀인데 벌써 3학년이에요!”

어릴 적 신부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무의식중에 그분이 다른 사제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눈치챘다. 그 당시 우리 지역에는 돌린카에서 풀려난 다른 수도사들도 살고 있었다: 키파 신부님, 마카리 신부님, 파르페니 신부님, 케사리 신부님, 파르멘 신부님. 그들 모두 훌륭한 사제들이었지만, 세바스티안 신부님만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에게서 은총의 기운이 흘러나왔고,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의 외모조차도 남달랐습니다. 단정하고 영적인 얼굴, 예리한 검은 눈, 아이처럼 부드러운 머릿결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신부님은 매우 세심하고 예의 바르셨으며, 결코 누구도 모욕하거나, 상처 주거나, 말을 끊지 않으셨고, 사람의 신체적 결점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앞에서는 누구도 누군가에 대해 귀머거리, 눈먼 사람, 절름발이 등이라고 말하는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주위에는 높은 도덕성이 감도는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그 안으로 들어서면 비열한 짓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신부님께서는 특별히 편애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더욱 단결시켰다. 어디서나, 언제나, 모든 일에서 신부님은 조용하고 겸손하셨으며, 선행조차도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셨다. 가끔 축복을 받으려 그분께 다가가면, 그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네 번 접은 돈을 내 손에 슬쩍 넣어주곤 했다. 종종 그분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 후, 저녁에 침구를 정리하다 보면 이불 밑에서 돈을 발견하곤 했다. 그 돈은 바비슈카 신부님의 지시에 따라 어머니 그루샤가 그곳에 두신 것이었다. 아마도 신부님은 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거나 공개적으로 신부님께 감사하도록 강요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을 알게 된 지 23년 동안, 신부님이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내세우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자만심이나 자족심 따위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학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졸업했고, 말쑥씨도 없고 목소리도 좋지 않습니다.” 설교는 대개 책을 읽으며 하셨고, 자신의 말을 덧붙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녀들과 식탁에 앉아 가끔 무언가를 이야기하시기도 했지만, 차분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51년에 신부님은 멜콤비나트에 우리를 위해 작은 집을 사 주셨습니다. 이때쯤이면 많은 신자들이 신부님의 축복으로 이미 카라간다의 여러 지역—마이쿠두카, 티호노브카, 프리샤흐틴스크, 콤파네이스크—에서 멜콤비나트로 이사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30년대 초반에 겪은 강제 이주라는 비극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가족들, 더 정확히 말하면 가족의 잔존자들이었다. 멜콤비나트의 주민들은 고통으로 찢어진 마음과 산산조각 난 운명을 가진 사람들, 남편을 잃은 과부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었다. 각자 나름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다. 성격이 까다롭고, 변덕스럽고, 의심 많고, 공격적이며,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신부님은 고통받는 모든 영혼에게 다가가실 방법을 찾으셨다. 또한 장로를 둘러싼 사람들 중에는 박해 시절 카라간다로 추방되거나, 그 후 중앙 러시아에서 그를 찾아온 수도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카라간다 교회의 중추를 이루었다. 그들 중에는 독창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들, 높은 영적 삶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는 건고한 기독교 공동체였으며,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옹틴의 장로가 카라간다 수용소라는 거룩한 땅 위에서 조직하고 키워낸 카자흐스탄 대초원의 “스킷”이었습니다.

1954년에 내가 처음으로 성탄절 전야 예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신부님 방 앞쪽 구석에 바랴 수녀, 그루샤 수녀, 파샤 수녀, 크세니아 이바노브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검은색 축제용 드레스를 입은 그들은 아름답고 위엄 있으며 단정했고, 천사의 목소리로 조화롭고 경건하게 이렇게 노래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방인들이여, 이를 깨달아 순종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노래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는 멍해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며, 영혼은 넘쳐흐르는 기쁨과 빛으로 인해 환호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잊은 채 조용히 서서, 행복에 젖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또한 60년대 초반, 성목요일 저녁 12편의 복음서 봉독이 끝난 후, 멜코민나트 공장 직원들이 모두 촛불을 켜고 교회에서 나와 댐을 건너 걸어가던 모습도 기억난다. 밤은 고요했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걸었으며, 촛불은 고르게, 밝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감동적이고 웅장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렬의 가장 큰 위대함은 사람들의 영적 일체감에 있었습니다. 이 일체감은 크고 작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막론하고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장례식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부탁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찾아왔는데, 이것이 각자의 거룩한 의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0년에 크세니아 이바노브나 돌고바가 돌아가셨을 때, 집에서 교회까지 약 7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을 사람들이 그녀를 두 팔에 안고 노래하며 모셔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61세입니다. 신부님의 축복으로 평생 간호사로 일했고,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세바스티안 신부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그분은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제 삶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기독교적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 타티아나 블라디미로브나 토르텐스텐

저는 1952년에 수감 생활에서 풀려났습니다. 모스크바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코크체타브시를 거주지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곳은 기후가 좋고 숲도 있었지만, 저에게 친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라간다에는 반년 전,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의사 R. G. L. 씨가 정착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용소 병원에서 8년 동안 함께 일했고, 5년 동안 같은 방에서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함께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952년 8월 31일 에 그녀를 만나러 카라간다로 갔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다른 친구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연기가 자욱하고 먼지가 날리며 석탄 냄새가 진동하는 카라간다에 머물게 되었는데, 폐석산 위에는 보라색 가스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코크체타브의 소나무가 우거진 맑은 공기가 그리워지지 않았고, 오랜 시간 함께하며 검증된 충실한 친구들이 주는 우정의 온기와 정서적 친밀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으며, 마음에 쏙 드는 일도 찾게 되었다.

10월 20일경, R. G.는 말라리아로 중병에 걸렸다. 40-41°의 고열은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똑같이 심한 발작이 시작되었다. 발작을 이겨냈을 때, 갑자기 급성 정신병으로 인한 심한 망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다. 딸은 그녀를 감당할 수 없어 ‘구급차’를 불렀고, 구급차는 그날 밤 그녀를 20킬로미터 떨어진 콤파네이스크시의 정신병원으로 이송했다. 우리가 그녀의 딸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충격에 휩싸이고 짓눌린 기분이었다. 그건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습은 끔찍했다. 그녀는 마치 짐승 같았다. 우리가 가져다준 식료품을 우리 손에서 뺏어내더니, 재빨리 입에 집어넣고는 다시 뺏어갔다. 그러고는 네 발로 기어 우리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다. 간호원들이 그녀를 병실로 데려갔다.

딸은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 나는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기진맥진하고 지친 채,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집에 도착했다. 우리 집 주인아주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조언해 드릴게요. 내일 당장 미하일롭카로 가보세요. 그곳에 신부님, 수도사가 사시는데,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예요. 그분께 부탁드리면, 기도해 주시고 환자분도 도와주실 거예요. 가보세요. 망설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바로 다음 날, 나는 미하일롭카로 향했다. 그루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는데, 신부님은 집에 계시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그녀는 나를 친절하게 맞이하며 말했다. “네, 꼭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상황을 설명한 뒤 도움을 청하셔야 해요.” 그녀는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러 가신 곳의 주소를 알려주며 말했다. “그 집 앞에 벤치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집 안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면, 그것은 추모 만찬이 끝났다는 뜻이고, 신부님께서 곧바로 나오실 거예요. 신부님께서 당신과 잠시 멈춰 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부님께서 길거리에서 멈춰 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신부님 곁을 따라가며 할 말을 하세요. 신부님께서 걸어가시면서도 당신의 말을 들어주실 거예요.”

모든 일이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졌다.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곧 집 안에서 노래 소리가 들렸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작은 키에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긴 검은 코트와 검은 모자를 쓰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눈을 들지도 않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는 가볍고 서두르는 걸음으로 거리를 따라 걸어갔다. 나는 그 옆을 따라가며 우리의 곤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말없이 걸음을 늦추지 않고 걸었지만,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는 멈춰 서서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시선을 가진, 착하고도 남다른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하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정교회 신자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나는 깜짝 놀랐다. “네, - 내가 말했다. - 그녀는 루터교 신자예요. 신앙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과는 거리가 멀죠.” 신부님은 이미 예전처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계셨다. “루터교 신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신부님이 말씀하셨다. “좋아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나 사흘 뒤에 그녀를 찾아가시고,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 저는 이 집으로 가야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사흘 뒤는 일요일이었고, 우리는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콤파네이스크의 병원으로 향했다. 마당에서 간호사가 우리를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다.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환자분이 이틀 전부터 이미 ‘깨어났’어요. 이미 요양 병동으로 옮겨졌는데,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 건물로 가세요. 환자분도 여러분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바로 병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R. G.는 자신의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깔끔한 모습에 새 가운을 입고, 예전 그대로의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우리를 보고 무척 기뻐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거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고 그녀가 우리에게 물었다. 물론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 이틀 만에 이렇게나 큰 변화가 생겼으니 말이다.

다음 날 나는 일을 할 수 없었고, 환자 회진을 마친 직후 병원을 떠나 신부님께 감사를 드리러 갔다. 집에서의 신부님은 길거리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다정하고 친근하셨다. 그분 댁에서 점심을 먹게 해 주셨고,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시며 유쾌해 하셨고,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다.

그루샤 어머니께서는 제가 신부님의 야간 예배에 참석하러 올 때 묵을 수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신부님의 주치의이자 영적 딸이 되었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신부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큰 곤경이 닥쳤고,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것도 전적으로 내 잘못 때문이었다. 나는 교회에 도착했고, 신부님께서 예배를 집전하고 계셨다. 나는 오른쪽 성가대석 뒤쪽 구석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갑자기, 마치 누군가 밀친 듯 고개를 들었더니 성가대석 구석에서 계신 신부님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부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신부님은 진지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제 마음 상태를 걱정하셔서 저를 찾아오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구석에 있는 저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신부님은 자신이 예배를 집전할 때는 절대 성가대석에 나오지 않으셨다. 하지만 지금 신부님은 나를 위해 오셔서, 내 말 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시려 하셨다. 나는 신부님의 눈을 바라보며 울었지만, 더 이상 슬픔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때문이었고, 내 영혼을 신부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이토록 쉬웠기 때문이었다. 슬픔은 사라지고,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신부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성인들 가운데 안식하고 계신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생생한 행복감이었다. 신부님은 이미 떠나셔서 제단에서 찬송을 부르시고 계셨다. 신부님은 아주 짧은 순간만 이곳에 계셨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못하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티호노브카 마을에는 트리포스 신부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신부님은 자주 신부님을 찾아오셨고, 신부님의 성가대에서 노래하셨습니다. 성당이 개관된 후, 신부님은 교구장의 도움을 받아 티호노브카와 페도로프카에 기도실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곳은 신부님의 축복에 따라 트리포스 신부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 그는 그날 페도로브카로 가기 위해 신부님께 축복을 받으러 다가갔다. 신부님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며 축복하시며 말씀하셨다. “나도 오늘 너를 그곳으로 보내려고 했었다. 다만 차로는 갈 수 없으니, 젤렌트레스트를 가로질러 지름길로 걸어가거라.” 신부님은 엄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트리폰 신부는 놀랐다. 젤렌스트로이를 지나는 길이 지름길이었지만, 걸어서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연히 신부님의 축복대로 길을 나섰다. 길은 묘목장을 가로지르는 길이었다. 트리폰 신부가 그곳을 지나가는 동안 길에서 단 한 명의 사람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뻘뻘한 덩굴 뒤에서 매우 흥분한 상태의 젊고 건장한 남자가 튀어나와 그의 팔을 붙잡고 길에서 떨어진 숲속으로 끌고 갔다. 트리폰 신부는 무척 겁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그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가자, 신부님, 가자,” 남자는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오래전부터 신부님을 기다렸는데, 정말 지쳐 죽겠네.” “이제,” 트리폰 신부는 생각했다. “내 인생도 끝이구나.” 그들이 숲 깊은 곳으로 들어서자, 남자는 트리폰 신부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자, 신부님, 그 나무토막에 앉으세요. 제 말을 듣고 제 운명을 결정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사랑합니다. 아내는 젊고, 예쁘고, 똑똑하며, 집안일도 잘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정말 갖고 싶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호사에게서 지난주에 아내가 낙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4시간 당직 근무하러 나가서 집에 없었기에, 저는 밤새 혼자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뭐, 그렇게 했다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니, 아내가 나를 배신한 거겠지. 만약 내 자식이라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기로 결심한 거겠지.’ 그러니까 그동안 내내 나에게 거짓말을 해온 셈이다. 그 거짓말과,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 나는 어쨌든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잠이 들었는지 정신을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키는 작고 수염은 긴 노인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분이 내게 말하길: “너는 도대체 왜,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먼저 상의해 보아라. 길에서 처음 마주치는 나이 지긋한 남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라. 그리고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열기 속에서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눈을 뜨고 침대에 앉았더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가 당직에서 돌아오기 전에 집을 뛰쳐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도대체 길거리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사정을 헤아려 줄까?” 그래서 나는 젤렌스트로이로 가서, 나이 지긋한 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분

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단, 내 아내에 대해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진실만을 말해 줘. 네가 얼버무리면 내가 눈치챌 테니까. 생각하는 대로 말해, 안 그러면 너도 곤란해질 거야.”

“이름이 뭐냐?” 트리폰 신부가 물었다. “니콜라이입니다.”

– 나는 네 수호성인인 성 니콜라스를 위해 기도하겠네. 나는 수도사니까. 니콜라스 성인이 우리에게 진실을 밝혀 주시도록 기도하겠어. 그리고 트리폰 신부는 기도를 시작했다.

“자, 콜랴,” 기도를 마친 뒤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네 아내는 지금 스스로 후회하고 있어. 그녀는 널 사랑하고, 너에게 충실해. 지금 울면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좀 더 살고 싶었던 마음을 후회하고 있어. 그녀는 널 소중히 여기고 있어. 마음 편히 집으로 가서 아내를 용서해라. 그녀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살아가거라.” 남자는 긴장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고, 그의 얼굴은 마치 광기가 사라지듯 점점 밝아져만 갔다. “곧 너희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성 니콜라스가 내게 말해 준 것이니, 내가 제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남자는 온몸이 떨리며 울음을 터뜨리고 트리폰 신부님의 발치에 엎드려 감사를 표하며 용서를 구했다.

– 내가 아내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면, 너도 죽일 수 있었잖아! 너를 증인으로 삼을까 봐 두려웠을 거야, 나도 미쳐가고 있었으니까! – 자, 가거라, 콜야, 진정해. 평안히 가거라. 내가 너를 용서하마.” 트리폰 신부는 그 남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정신이 나간 듯 페도로프카로 향했다. “어떻게, – 생각했다, – 신부님께서 숲을 지나가라고 축복해 주셨단 말인가? 저기서 그런 위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신부님을 뵈었을 때,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자, 어떻게 됐나, 살아남았나?” – “네, 신부님, 저는 살아남았지만, 죽을 뻔도 했습니다,” – 트리폰 신부는 신부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트리폰 신부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두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악마의 유혹에서 해방시켜 줘야 했잖아요.” 그리고 신부님은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금지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한 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으면 그때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1955년, 제단 봉사자였던 수녀 마리아의 윗입술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입술은 자라나는 종양으로 인해 변형되고 파랗게 변했으며, 마리아 수녀는 외과 의사에게 데려가게 되었다. 의사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종양학과로 의뢰서를 발급했다. 수녀는 수술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 장로님을 찾아갔지만,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종양이 이미 커서 입술을 잘라내면 다른 곳에 재발할 수도 있다. 아니, 수술은 하지 마세요. 장례식실에 있는 성 삼위일체 성화에 대고 기도하세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저절로 나을 겁니다.” 한 달 후, 마리아의 어머니는 다시 교회에서 볼 수 있었는데, 여전히 활기차고 부지런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입술을 치료하셨나요?”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다. “제가 치료한 게 아니라, 신부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성 삼위일체 성화에 대고 기도했을 뿐인데, 종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느님께 영광을!”

또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시편을 읽던 수녀 파라스케바의 목 아래, 가슴 왼쪽에 파란색 반점이 생겼는데, 그 반점은 점점 커지며 붉게 변해갔습니다. 병원에서의 의사들은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것이 암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파

센카는 교회로 향했다. 교회 문 앞에서 한 신도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울지 말고 신부님께 가보라고 조언했다. 파샤는 그 말을 듣고 신부님께 갔다. 신부님을 만나고 나온 파샤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 암... – 바보. 어디도 가지 마, 저절로 나을 거야’ (신부님은 어떤 단어들을 시골 사투리로 발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 그 반점은 점점 작아지고 열어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이 수녀는 수도 서원을 하고 지금도 아주 고령의 나이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병원 보건소 중 한 곳에서 소피아 바실리에브나라는 간호사가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트러스트의 수석 회계사였다. 이 가족이 얼마나 큰 슬픔을 겪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17년 전, 그들은 12살 된 외아들을 비극적으로 잃었다. 소년은 발코니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려 했고, 무언가를 고치려다 난간 너머로 몸을 내밀었다가 5층에서 추락했습니다. 부모님은 식당 식탁에 앉아 계셨고, 소년은 발코니에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니 소년이 숨진 채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 새로운 불행이 잇달아 닥쳤다. 37년에 아버지는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소피아 바실리에브나에게는 고독과 박해, 실업, 굶주림의 세월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담담히 견뎌냈다. 이 모든 일은 오래전 일이고, 이제 그들은 큰 집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지만... 노년이 다가오자, 자녀가 없는 부부는 소년을 입양해 키우고 싶어졌다.

쿠이비셰프 시에는 7세 이하의 고아들이 모여 있는 큰 “영아원”이 있었다. 부부는 그곳으로 가서 아들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신부님의 영적 딸 중 한 명이 소피아 바실리에브나에게, 만약 이 아이가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면 먼저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찾아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쿠이비셰프행 티켓은 이미 구매된 상태였고, 출발까지 하루가 남았기에 소피아 바실리에브나는 장로의 영적 딸과 함께 그를 찾아갔다. 도착해 보니 신부님이 병에 걸려 누워 계셔서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신부님께서 거처에서 종을 울리셨다. 누가 왔는지 물으시고, 찾아온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하셨다. 그들은 들어가서 신부님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신부님께서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베개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가십시오. 아이를 데려가도 되지만, 여자아이만 가능합니다. 남자아이는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피아 바실리에브나에게 축복을 내리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 살 정도 된 여자아이를 데려가도록 축복합니다.” 장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들은 떠났다. 소피아 바실리에브나는 남편이 남자아이에 대한 꿈을 어떻게 접을지 걱정스러웠다.

며칠 후 부부는 쿠이비셰프에서 돌아와 세 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다. 아이는 친근하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가장 의지했지만, 외모는 매우 못생겼다. 얼굴의 각 부위가 따로따로 이상하다는 건 아니었고, 모든 게 정상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가 예쁘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한 부모는 그런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아이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 기쁘게 이야기했다.

그들이 ‘아기 집’ 사무실에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했을 때, 직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서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골라보세요. 곧 낮잠에서 깬 아이들을 변기에 앉힐 테니,

그 사이를 돌아다니며 골라보세요.” – “우리가 ‘변기’ 방의 한쪽 벽을 따라 걷기도 전에,” 소피아 바실리에브나가 말합니다. “방 반대편 끝에서 한 소녀가 우리에게 달려와 남편의 다리를 두 팔로 꼭 붙잡고, 얼굴을 무릎에 파묻은 채 온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가 오셨어요! “우리 아빠가 오셨어요!”’ 보육교사가 아이를 끌어당겨 품에 안으며 말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골라보세요, 잘 보세요.” “아니요,” 남편이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고를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우리를 골랐으니까요. 이 아이를 입양 수속해 주세요.” 그렇게 그들은 못생긴 소녀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녀가 스스로 그들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소녀는 명랑하게 자라나 매우 순종적이고 남을 잘 도와주는 아이가 되었다. 아버지를 무척이나 사랑했다. 아버지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달려가 아버지의 발에서 신발을 벗겨 주고 침실에서 슬리퍼를 가져다 주곤 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 그녀는 빗자루를 집어 들고 바닥을 쓸곤 했는데, 사실 아직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우리는 그녀에게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라고 소피아 바실리에브나가 말했다. “모두 스스로 생각해 내는 거예요.”

물론 부부는 아이에게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아부었고, 아이는 이전에는 이를 깨닫지 못했지만, 마치 꽃이 물을 흡수하듯 부모의 애정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4년 후, 소녀는 학교에 입학했고 매우 영리하고 성실한 아이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는 점점 단정해지고 예뻐지기 시작했으며, 예전의 투박함은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은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따님이 점점 예뻐지네요.”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아이는 원래 예뻐어요.”라고 대답했다.

바로 이것이 신부님의 축복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었다.

하지만 신부님의 조언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생과 고통, 불행을 견뎌야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축복을 청하러 오면 신부님은 단호하게 “그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제멋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해요.”라거나 “제가 그를 바로잡을게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훗날 끔찍한 고통이 따르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정생활에 건딜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신부님은 아이들 때문이라 해도 더 이상 참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그럼 그를 떠나도 되겠구나. 헤어지거라.”

카라간다에서 신부님의 목회 사역을 막 시작했을 무렵, 그분에게는 타네치카라는 영적 딸이 있었는데, 놀랍도록 영리하고 상냥한 소녀로, 세심하고 착한 마음을 지녔다. 그녀는 신부님께 매우 정이 깊었고, 신부님도 그녀를 무척 사랑하셨다. 타네치카는 알마아타 출신의 젊고 잘생긴 엔지니어와 결혼할 준비를 했다. 신부님은 축복해 주지 않으셨다. 그녀는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나중에 다시 축복을 청하기 시작했다. 그때 신부님은 엄하게 금지하셨다. 신부님은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약혼자를 떠나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나는 그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참아낼 거예요.”라고 말했다. 타네치카가 약혼자를 만나러 떠날 때, 신부님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간청했고, 기차역까지 배웅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알마아타에 잠시 다녀오기만 하고 돌아오라고 부탁했다. 신부님께서 그렇게 끈질기게 간청하신 적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었다. 타네치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매우 비참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많은 고통을 겪었고, 결핵에 걸려 2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신부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할 때 수많은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고, 알게 되었을 때는 그분의 예지력과 기도의 힘에 놀라곤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시기도 했지만, 대개는 마치 개울물이 흐르듯 조용하고 차분하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부님의 인도와 중보기도는 참으로 조용하셨습니다. 카라간다에서 세 번이나 죽음이 내 문턱까지 다가왔지만, 신부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분께 말을 걸면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와 R. G.는 사라니에서 카라간다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은 체첸족 청년이었습니다. 가는 도중 다른 버스가 우리를 추월했고, 그 운전자 역시 젊은 러시아 청년이었는데, 운전석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웃으며 체첸 청년에게 소리쳤습니다. “늙은 늙은 말처럼 기어가는군!” 체첸인 운전사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가속 페달을 밟아 그 모욕을 준 사람을 추월하려고 차를 몰아붙였다. 그런데 상대방도 가속 페달을 밟았다. 우리 차는 쏜살같이 달리며, 울퉁불퉁한 도로에서 심하게 흔들려 통로에 서 있던 사람들이 머리를 천장에 부딪힐 지경이었다. 공포와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왔다. 바로 그때 고속도로가 지그재그로 굽어지며, 수확이 끝난 밀밭을 우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우리 운전기사가 거리를 단축하려고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울퉁불퉁한 밭을 가로질러 차를 몰고 가는 것이 보였다. 버스는 울퉁불퉁한 흙길을 튕기며 좌우로 흔들리고, 바퀴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가 버스가 쓰러져 우리 뼈를 부러뜨릴 것 같았다. 아이들은 울고, 모두가 차장에게 운전기사를 막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종이처럼 창백해진 차장 자신은 소리쳤다. “도대체 누가 지금 그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가 이렇게 미친 듯이 흥분해 있는데?!” 우리가 파멸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음속으로 신부님께 간절히 외쳤다. “신부님! 세바스티안 신부님! 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창밖을 보니 첫 번째 버스가 고속도로에 멈춰 서 있고, 승객들이 모두 내려 버스 주위에 몰려들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버스의 바퀴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우리 운전사는 속도를 줄이고 고속도로로 나와, 아무 말 없이 첫 번째 버스를 지나쳤고, 운전석에서 고개조차 내밀지 않았다.

다음 날은 축일을 앞둔 전야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하일롭카에 일찍 도착해 신부님이 교회로 가실 때까지 한쪽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얼마나 큰 공포를 겪었는지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신부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어제 ‘신부님,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신 분이 당신이었나요?” – “네, 신부님, 저예요.” – “그러니까, 날 부를 때는 누가 부르는지, 무엇으로부터 구해 달라고 하는지 꼭 말해야지. 안 그러면 나도 곤란하잖아. ‘구해 주세요!’라고만 들리면,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자, 무사히 도착했니?” 나는 그저 멍해졌다. “무사히 도착했어요, 신부님.”

신부님께서서는 항상 기적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항상 그것을 보거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신부님께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묻는다면, 신부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예언자가 아니니, 그걸 알 리가 없지요.” 그게 전부인 대답이다. 때로는 눈살을 찌푸리기도 한다. 1956년에 나는 심한 심장병에 걸렸다. 집에 누워 있었지만 회복은 더디기만 했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열이 올랐다. 큰 고생을 하며 주사를 맞으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상태는 극

도로 위중했고, 체온은 40°였다. 알고 보니 저는 장티푸스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이 병을 이겨낼 희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져서 제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 제가 위급한 상황임을 직접 알아차리시고, 알렉산드르 신부님과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격리 병실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두 분이 제 곁에 계신 것을 보자, 제 의식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아무도 제 병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렉산드르 신부님께서 제 고해성사를 들어주시고 성체를 주셨습니다. 성체 성사 후, 저는 그분들과 함께 보내온 신부님의 편지를 직접 읽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지만, 제게 힘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타티아나 블라디미로브나 님! 당신의 중병은 죽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사제 S. 포민.” 성찬식 후 알렉산드르 신부님과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은 오랫동안 제 병실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기도도 드리고 복음서도 읽어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체온이 내려갔고, 다음 날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958년 9월, 사정이 그렇게 되어 제가 급히 모스크바로 휴가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기차표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역으로 가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밤새도록 그곳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2시간마다 등록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보낸 그 밤은 고통스럽고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는 2등석 객차로 가는 좋은 표를 구했다. 다음 날 나는 신부님을 찾아갔다. 신부님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표 구했나? 좋아, 좋아. 여행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회를 드리자. 표는 어느 날짜야?”

“수요일이에요, 신부님.” 신부님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셨습니다. 갑자기 신부님은 인상을 찌푸리시더니 저를 바라보며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수요일에 가기에는 아직 이르죠.” – “어떻게 이르다는 건가요, 신부님? 어떻게 이르다는 건가요? 저 휴가가 시작되는데, 제때 돌아와야 해요. 이 표를 구하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신부님은 얼굴을 완전히 찌푸리며 말했다. “그 표를 팔아야 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역으로 가서 표를 반납하세요.” – “그럴 수가 없어요, 신부님. 더 미룰 수가 없어요.”

“내가 표를 반납하라고 명령한다! 오늘 당장 표를 반납해, 들었나?” – 그리고 신부님은 화가 나서 나를 향해 발을 쿵 내디뎠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용서해 주세요, 신부님,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지금 당장 가서 반납할게요.” – “그래, 지금 당장 가서 거기서 다시 내게 돌아오렴. 아직 예배 시간이 끝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을 거야.” – 신부님은 나를 축복하며 말씀하셨다. 신부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요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티켓을 반납하고 나는 교회로 돌아왔다. 기분은 평온했고, 신부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기뻐다. 이제 신부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신부님은 유쾌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맞이하며 말씀하셨다. “반납했나요? 잘했군요. 그럼 이제 언제 떠나실 생각인가요?” – “떠나다니요? 이미 표를 반납했잖아요.” – “그럼 내일 가서 새 표를 받으세요. 지금 집으로 가는 길에 역에 들러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겠네요. 밤새 기다

릴 필요는 없으니, 집에 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오셔서 표를 받으세요.” 나는 그저 “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역으로 가면서 생각했다. “신부님은 항상 나를 그렇게 아껴 주셨는데, 왜 지금 이렇게 재촉하시는 걸까?”

역에는 이미 명단을 든 남자가 서 있었고, 등록이 막 시작되었는데 저는 일곱 번째 순서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이미 하룻밤을 고생했다고 말했더니, 그는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테니 집으로 가세요. 제가 출석 확인 때 이름을 체크해 드릴게요. 내일 아침 8시까지 오세요.”라고 말하며 내 성을 표시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해 줄을 서서 표를 받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기도회가 열렸고, 신부님께서 저에게 큰 프로스포라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며, 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우리 기차가 불가 강에 가까워져 차파예프스크 역에 멈추자, 모든 승객들이 각자의 객실에서 뛰쳐나와 복도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도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다. 승객 중 한 명이 나를 창가로 비켜주었다. 옆 선로에서 나는 서로 겹겹이 쌓여 있는 여객 객차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옆 선로까지 막고 있었다. 어떤 객차들은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수직으로 서 있었다. 모두에게 공포가 엄습했다. 승무원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는 설명했다. “우리 열차처럼 수요일에 카라간다에서 출발한 특급 열차가 사고를 당했어요. 전속력으로 화물 열차의 맨 뒤를 들이받았더니, 차들이 서로 겹쳐진 거죠. 그 현장은 정말 끔찍했어요! 쿠이비셰프에서 구급 객차를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 객차들은 당분간 치우지 못할 거예요, 처리할 일이 많거든요. 화물 열차는 차파예프스크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 경로로 보내고 있어요.”

나는 객실로 들어가 벽을 향해 선반에 누워 울음을 터뜨렸다. “신부님, 신부님! 사랑하는 신부님!”

1959년에 나는 모스크바로 영원히 떠났다. 신부님은 나를 보내 주시며 단지 “자주 오세요.”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휴가 때 신부님을 찾아갔다. 신부님은 그런 일이 드물다고 말씀하셨다. 1965년에 신부님의 건강이 상당히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는 편지를 써서 그분 곁에서 좀 더 오래 지내고 싶다고 전하며 축복을 구했습니다. 답장으로 전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1965년 가을에 직장을 그만두고 카라간다로 떠났습니다. 신부님은 처음에는 1963년 제가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신부님의 상태는 위급해 보이지 않았고, 곧 회복되실 것이며 모든 것이 예전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았고, 머지않아 다시 모든 이에게 열려 계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지 열흘째 되는 날, 나는 모스크바의 집으로 돌아갔다. 모스크바에서 카잔스키 역을 나와 콤소몰스카야 광장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어린 시절부터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멀게 느껴졌다. 어떻게 익숙해져야 할까? 마음속 깊이 간직한 미하일롭카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픔과 후회로 가슴이 조여들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다. “또 5년이나 안 왔니?” – “무슨 말씀이세요, 신부님, 5년이라니요?” 신부님께서서는 제가 모스크바로 이사한 후 매년 찾아오지 않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셨다. 그 세월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 프로토디아콘 바실리 데네즈킨

1937년에 저와 제 큰누나는 제58조에 따라 10년 노동 수용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형기를 카르라그에서 복역했습니다. 1943년 부활절, 19번 돌린스키 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저는 세바스티안 신부님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라간다에서 “주저하지 말고 드세요. 이것은 옴티나 푸스티니의 수도사 세바스티안 신부님께서 축성하신 것입니다.”라는 쪽지와 함께 프로스포라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성부활절에 프로스포라로 단식을 깨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신부님을 직접 뵙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위로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긴 기다림의 세월이 흘렀다. 1947년에 나는 수용소에서 풀려나 우스펜스키 광산으로 유배되었다. 내 여동생도 석방되었다. 우리는 여동생이 저와 함께 우스펜스키 광산으로 유배 생활을 하도록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1951년에는 고향에서 막내 여동생 올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에게는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지인들이 올가에게 카라간다에 있는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다. 그녀가 찾아가자 신부님은 그녀가 카라간다에 머물며 멜콤비나트에서 일하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때부터 여동생과의 서신을 통해 우리도 신부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신부님은 카라간다뿐만 아니라 러시아 각지에서도 잘 알려져 계셨습니다. 신부님을 찾아가 그분의 축복을 받고, 영적인 가르침과 위로를 맞본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프로토디아콘 야코프, 나와 함께 카르라그에서 형기를 마쳤던 그분이, 이후 블라디미르 교구 소속이 되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편지에 따르면, 여러분의 여동생 올가가 멜콤비나트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제가 45년과 47년에 다녔던 곳이기도 하고, 세바스티안 신부님께서도 종종 방문하시는 곳인데, 신부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저에게 그야말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께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확증해 주시며,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는 진정한 사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심과 거짓, 신성모독이 만연한 이 시대에,  
미친 세상이 피에 흠뻑 젖어 있을 때,  
그분은 다양한 민족에게 형제애를 선포하시며,  
그의 말씀은 복음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헛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며,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상한 자, 슬퍼하는 자, 병든 자에게,  
십자가의 무게 아래 힘겨워하는 모든 이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영혼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며,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며, 병든 이들을 돕기 위해 서둘러 나갑니다.  
그는 우리에게 수행자이자 예언자이며,  
이 캄캄한 밤에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분입니다.

이 편지는 내 안에 신부님을 뵙고 싶은 마음을 더욱 불태워 주었다. 그리고 53년, 성주간 때, 탄광 사고로 입은 뇌진탕 검사를 위해 직장에서 일주일간의 휴가를 받은 나는 서둘러 짐을 꾸리고 첫 기차를 타고 카라간다로 향했다. 도착해서 나는 니즈니야 거리의 59번지 집을 찾아냈다. 그날은 성목요일이었다. 신부님은 집에 계시지 않았지만, 곧 돌아오셨고, 그 뒤를 이어 세례를 받으러 온 아기가 들어왔다. 나는 교회 예식을 너무나 그리워해서, 감히 신부님께 세례식에 참석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신부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 세례식이 끝난 후 신부님은 잠시 누워 쉬셨고, 수녀님들은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셨다. 수녀님들은 나에게 디미트리 로스토프스키의 『성인전』을 건네주시며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오랜 병을 앓고 회복 중인 몸이 음식을 갈망하며 받아들이고 소화하듯이, 영적인 양식에 굶주려 있던 나도 열의를 다해 책 읽기에 몰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님께서 방에서 나오셔서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았다. 나는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 지인인 프로토디아콘에 대해 언급했고, 식탁에서 바로 그의 편지 내용을 암기해 읽어 드렸다. 신부님 부인분들은 그 시들을 매우 좋아하셨고, 그것을 베껴 쓰게 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저는 신부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신부님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그 후에도 여러 번 그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열두 복음서’ 봉독 예배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고, 우리는 서쪽 거리에 있는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 분의 수녀님이 계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중 한 분인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은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수녀님?” – “머리가 아파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난로 옆에 누워 계세요? 여기 더운데요.” 그 후 신부님께서 제단으로 들어가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허가는 없었기에, 그날은 폴리-모르도브카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성가대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고, 세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나는 성가대원들 곁에 서서 기도하며, 기쁨에 휩싸여 때때로 스스로에게 “이게 꿈은 아닐까?”라고 되물었다.

성의 장례 예배가 끝난 다음 날, 나는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받았다. 어릴 적부터 고해성사에 익숙했던 나는, 이때 신부님의 고해성사가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고해성사는 슬픔보다 더 많은 사랑을 담고 있었다. 몇 년 동안 내 영혼에 쌓여 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자, 신부님께서는 내게 에피트라킬을 덮어주시고 용서 기도를 읽어 주셨고, 눈물이 저절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마음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성 토요일 저녁, 나는 올라 자매와 함께 기도처에 갔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성별을 받기 위해 쿠리치와 부활절 빵을 가져왔다. 우리는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부님은 미하일롭카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부활절 빵을 축복하고 계셨다. 사람들이 불안해했는데, 경찰이 와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신부가 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거야?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 곧 신부님이 오셨고, 사람들에게서 경찰이 와서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신부님도 당황하시며 물으셨습니다. “글로 된 허가서는 줬나?” – “아니요.” “그럼 예배를 드릴 수 없겠군, 다들 집으로 돌아가세요. 멜콤비나트 사람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우리 니즈니야 거리로 오게 하세요. 거기서 부활절 빵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신부님께서 부활절 빵을 축복해 주셨고, 멜콤비나트 사람들은 댐을 가로질러 곧장 집으로 돌아가며 가는 내내 부활절 이르모스를 불렀습니다. 새벽 2시에 멜콤비나트에 도착한 우리는 자매와 다른 신자들과 함께 부활절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오베드니차를 읽은 뒤 금식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무리를 지어 멜콤비나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녁에는 미하일롭카로 갔는데, 그곳에서 신부님께서 자택에서 저녁 예배와 새벽 예배를 집전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신부님께서 내일 미사를 스타하노프스키 8번지에서 드릴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아침 예배는 넓은 집 안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모여 매우 비좁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모두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나는 아나스타시아 어머니를 깊이 기억하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나 기뻐하며 나에게 부활절 음식을 계속 대접해 주셨고, 내 영혼도 그녀와 함께 기쁨에 넘쳤다.

부활절 셋째 날과 넷째 날에도 예배는 같은 곳, 스타하노프스키 골목에서 진행되었다. 그런 환경에서 수년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했을까!

휴가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신부님께 축복을 받고, 여동생과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나는 무사히 우스펜스키 광산으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에게 보내주신 영적 위로, 특히 신부님과의 만남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적 양식을 맛본 사람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평온함을 느끼며, 이 귀중한 영적 진주를 계속해서 얻고자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1954년에 우리는 큰 시련을 겪어야 했다. 모스크바에서 온 신뢰받는 관리들이 광산에 도착해, 우리가 이곳에 영구 정착 서약서를 작성하고 머물게 될 것이며, 무단 이탈 시 장기간의 구금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에게 큰 타격이었다. 우리는 2~3년 후에 카라간다로 이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나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은 신부님을 찾아가 슬픔을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55년 성탄절, 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저는 3일간 카라간다로 갔습니다. 신부님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는 잠시 침묵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서서히 지나갈 것이며, 당신은 카라간다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큰 짐이 내 어깨에서 내려진 듯했다.

그해, 직장에서도 또 한 번의 휴가를 받아 나는 다시 신부님을 찾아갔다. 신부님은 내가 멜콤비나트에 있는 누나 댁에 머물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그곳에는 누나를 포함해 세 명의 젊은 여성이 더 살

고 있었다. 내 누나는 신부님을 깊이 신뢰했고, 그분께 헌신적이었다. 그녀는 바츨슈카가 멜콤비나트를 방문하신 일, 그의 영적 가르침, 그리고 바츨슈카가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적 지원에 대해 저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봄 무렵,” 그녀가 말하길, “우리 집에 감자가 다 떨어졌어요. 우리는 앉아서, 시장에 가서 감자를 조금이라도 사 와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창밖을 보니 썰매에 감자 한 자루를 싣고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었고, 뒤에서는 신부님께서 지팡이로 밀어주고 계셨어요.” 그렇게 올라와 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신부님께서 영적 자녀들의 장례 미사를 집전하실 때면, 나도 신부님께서 나를 위해 장례 미사를 집전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생겨요. 제 생각에, 신부님께서 장례 미사를 집전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사람들의 영혼은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주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올라에게 간암이 진단되었습니다. 자매는 병환 중에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거부했고,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신부님은 자주 그녀를 문병하러 오셨습니다. 올라가 세상을 떠나기 약 3주 전, 큰 언니는 꿈에서 마치 올라의 방에 있는 듯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올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신부님이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옷장을 열자, 그 안의 옷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똑같은 황금 왕관도 있었습니다. 언니는 이 꿈을 꾸고 바로 다음 날 카라간다로 가서 신부님께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신부님께서 “내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녀의 인내를 보시고 수녀복을 준비하도록 축복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에게 수녀 서원을 집전하셨습니다. 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신부님께서 그녀의 장례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그것은 1956년 4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우스펜스키 광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슬픔에 잠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언제 다시 카라간다에 올 수 있을까? 언제 성당에서 기도하며 신부님과 내 마음에 소중한 모든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달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2주 후 모스크바에서 특별 우편 소포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956년 4월 10일 소련 검찰총장의 결정에 따라 귀하의 추방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귀하는 소련 전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체국 직원이었기에 이 기쁨을 직접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쁨에도 동참해야 했다. 러시아 전역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보가 빙발쳤고, 이주를 이유로 한 퇴직 신청서가 접수되기 시작했으며, 업무 처리도 지체 없이 진행되었다. 나도 퇴직 신청서를 냈다. 우체국장은 친근하게 내 손을 잡아주며 신청서에 서명해 주었다. 카라간다로 이주하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서둘러 소박한 집을 챙겨 차에 싣고, 나는 큰 누나와 함께 멜콤비나트에 있는 올라의 아파트로 갔다. 그날은 부활절 후 일주일째 되는 수요일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올라가 세상을 떠난 지 40일째 되는 날이었다. 신부님과 멜콤비나트 직원들이 모두 그녀의 집에 모였다.

부활절 연휴가 지나고, 그 뒤를 이어 라도니차(부활절 후 7일째 되는 날)가 지났으며, 나는 일자를 정해야 했다. 신부님께서 교회에서 창고 관리인으로 일하도록 축복해 주셨다. 당시 교회 장로는 파벨 알렉산드로비치 코발렌코였는데, 그는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나를 만족스럽게 여겼다. 하지만 때로는 무지 때문에 신부님의 축복을 어리석게도 여기기도 했다. 예를 들어, 어느 가을,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인 신학자 요한 축일 무렵, 교회 관리인이 나를 두보브카 마을

로 보냈다. 그곳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신부님께서 평소 예배를 드리시던 집을 수리하고 있었다. 나는 작업 이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확인하고, 일꾼들이 몇 시까지 일해야 하냐고 묻자, 다섯 시쯤이면 일을 마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다섯 시까지 일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미하일롭카에 도착해 역시 5시에 시작된 전야 예배에 참석했을 때, 예배의 절반이 이미 지나가 버린 뒤였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특히 요한 신학자를 공경하셨기 때문에, 저를 불러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사과드렸지만, 이 일은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신도들이 휴가를 맞아 다른 지역으로 친척이나 지인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어디에도 가본 적이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다. 성부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수도원을 떠날 때의 모습 그대로는 돌아오지 못한다.’ 여행 중이나 휴가 때,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오랫동안 애써 모아온 모든 영적인 것을 흩어 버리게 된다.” 한 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전쟁이 끝난 지 몇 년 후, 친척들이 나를 불러서 함께 만나자고 했다. 저는 신부님께 축복을 받으러 갔지만, 신부님께서서는 축복해 주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소가 있잖아, 국영 농장으로 가서 겨울 동안 소 먹일 사료를 마련해 오너라.’ 제가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신부님께서 친정 방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반박하며, ‘네가 신부님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거야. 우리가 직접 가서 신부님을 설득할게’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딸이 가서 간청했죠. 어쨌든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설득에 성공해 신부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고향을 찾아가 친척들을 만났고, 그곳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나는 이미 술을 끊은 지 오래였다. 가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축들은 사료 없이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전 앓던 병이 재발했다는 것이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신부님의 말씀은 첫 마디부터 귀담아들어야 한다.

신부님은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던 중 오데사에서 핍박한 환경 속에 지내고 있는, 오펜나 푸스티냐에서 알게 된 마비된 사제가 신부님께 카라간다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제는 데려와 별도의 작은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주 성당으로 데려가 예배에 참석하게 했다. 그 사제는 눈물을 흘리며 바츨슈카에게 감사를 표했고, 2년 후 마땅한 준비를 마친 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때로는 신부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이들이 가져다주는 슬픔을 겪기도 하셨다. 예를 들어, 50년대 초반에 안토니 신부가 신부님께 찾아왔고, 신부님은 그를 받아들여 자신과 함께 예배를 집전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신부는 인상적인 외모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그는 신부님의 많은 신도들, 그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 안토니 신부는 바빅우슈카 신부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자신이 직접 그 교구를 담당하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알마아타로 가서 니콜라이 대주교를 만났다. 바빅우슈카 신부는 그와 함께 성당 관리인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인 파벨 쿠즈미치도 동행하도록 축복했다.

“우리가 니콜라이 대주교님의 접견실에 들어갔을 때,” 파벨 쿠즈미치가 나중에 회상하길, “안토니 신부님께서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나이가 많고 연약하시며, 본당에서는 그루샤 수녀님이 모든 것

을 지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좋아요,” 주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정원에서 제외시키고, 당신을 그 자리에 임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자 눈물이 쏟아졌고, 주교님 발치에 엎드려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님을 정원에서 제외시키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신부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부양하고 계시는데, 그중에는 병자나 마비 환자들도 있습니다. 돌린카에서 풀려난 파르멘 수도사도 신부님께서 부양하고 계시잖아요. 신부님의 도움 없이는 그분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주교님께 간청했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안토니 신부가 자신을 오도했다는 것을 깨닫고 의자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시더니, 제 무릎에서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여, 그렇게 울지 마시오.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그 자리에 남겨두겠소. 예전처럼 사묵하게 하겠으니, 마음을 가라앉히시오.” 그렇게 파벨 쿠즈미치는 신부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1957년에 페트로파블로프스카야와 쿠스타나이 교구가 설립되었고, 카라간다도 그 구성에 포함되었다. 이 교구의 주교좌에는 카를라그에서 석방된 요시프(체르노프) 주교가 임명되었다. 그는 우리 교회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카라간다에는 제2광산, 티호노브카, 미하일롭카에 세 개의 본당이 있었다. 우리 본당은 기도의 정신으로 주교님께 깊은 사랑을 받았고, 주교님께서서는 카라간다의 다른 성당에서 예배를 집전하신 후면 항상 신부님 댁에 머물러 가시며 종종 그분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1958년에 우리 교구장 파벨 알렉산드로비치 코발렌코가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신부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교구장 직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경제 및 건축 업무에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리 거절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직책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 분야에서 20년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아르히만드리트 성직에 서임되신 것을 깊은 겸손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미트라를 손에 들고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미트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신앙에 따른 선한 행실만이 구원해 줄 것입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실제로 복음서의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수도자로서의 평온함을 희생하셨고, 감사의 말 대신 종종 비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일부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장로로서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부님께 “보세요,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항상 여자들과 어울리시네요.”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 신부님은 결코 해명하거나 자신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자신의 거룩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그분의 목자의 마음속에는 자기 희생적인 기독교적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주님께서 그분께 맡기신 이들과, 세속의 파도에 휩쓸리는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부님은 산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특히 고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그의 서거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는 산 자들과 함께 부활절을 맞이했고, 라도니차 날에 하늘나라로 떠나 고인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그분의 아버지 같은 사랑과 기도의 힘을 직접 체험했으며, 우리에게 소중한 그분의 말씀과 행적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을 소박한 이야기로 풀어내 보았다.

## 프로토이레르 예우스타피이 프로코프추크, 카라간다시 성모 마리아 탄생 성당

장로직과 장로들에 대해서는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성직자와 수도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종종 영적인 주제에 대한 대화가 오갔고, 그중에는 장로직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대화들 속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소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내 인생에서 어떻게든 한 분의 스승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 뜻과는 달리 1945년에 나를 카라간다의 탄광에서 일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나는 길을 가며 이곳, 이 외딴 대초원에는 오직 무신론자들만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자유 고용 노동자 외에도 광산에는 많은 특별 이주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곳 대초원의 볼샤야 미하일롭카 마을에 세바스티안 신부라는 장로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분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볼샤야 미하일롭카는 키로바 광산에서 10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당시 교통수단은 마차뿐이었기 때문에, 나는 말이 없어서 어떻게든 자전거를 구해 미하일롭카로 향했다. 그곳에서 나는 니즈니야 거리를 찾아, 집 번호를 따라 신부님의 흙집을 찾아냈고, 자전거에서 내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처럼 죄 많은 자가 어떻게 장로님의 방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쪼그려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수녀님이 문을 열어 주시고, 방으로 들여보내 주시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집에 없으셨는데, 신부님이 오셨을 때 나는 축복을 받으려고 일어섰다. 하지만 신부님은 나를 지나쳐 숲통 쪽으로 가서서 십자 성호를 긋고 세 번 절하신 뒤, 내게 다가와 축복해 주셨다. 나는 신부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보라, 주님께서 나를 이 장로님께 인도하셨구나.” 그것은 1948년의 일이었다. 나는 신부님께 내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다. 한 젊은 여성을 알게 되어 그녀와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 것이다. 신부님은 내 말을 경청하신 뒤, 그녀와 함께 다시 찾아오라고 축복해 주셨다. 우리가 도착하자, 신부님께서서는 우리를 결혼시켜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으며, 그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신부님을 찾아뵙게 되었고, ‘신부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서는 대화 중에 가끔 저를 “예우스타피이 신부님!”이라고 부르시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고, ‘신부님’이란 가족의 가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라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당신을 ‘예브스타피 신부’라고 부르시니, 아마 사제가 되실 것 같네요.” 그러자 나에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실을 신부님께 말씀드렸고, 신부님께서서는 축복해 주셨으며,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떠나기로 결심할 수가 없었다.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저는 공부할 일이 없을 거라고 결심한 참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건축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제 마음속에 “신학교에 가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일을 제쳐두고 벤치에 앉아 다시 “가야 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공부하러 갈 거야.” 그게 전부였다. 신부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나는 떠나서 입학해 공부를 시작했다.

학업을 마칠 무렵, 러시아에 남아 사역하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신부님께 편지로 알렸고, 신부님께서서는 “그에게 여기로 오라고 편지를 보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라간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제 서품을 받아야 했고, 신부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을 온전히 하느님과 교회에 바쳐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은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다”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망설였고, 또다시 미루었습니다. 저는 사제가 되고 싶었지만, 왜 성직을 받지 않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에 다시 탄광에서 일하러 갔고, 여가 시간에는 신부님이 계신 교회에 가서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수녀님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의 축복은 그렇게 무시할 수 없어요. 어쨌든 당신은 사제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광부 일도 무척 좋아했고, 최고의 근로자로 꼽히며 살아남기 힘든 복잡한 작업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에 푹 빠져 교회에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신부님의 건강은 점점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대 근무를 하러 가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 거리로 나갔습니다. 밖은 따뜻했지만 흐리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중 문득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끊어진 듯한 느낌이 즉시 밀려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족들에게 “신부님이 돌아가셨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어떻게? 어디서 알았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이웃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도 전화로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참이었습니다.

저는 탄광으로 갔다가, 일에서 잠시 빠져나와 미하일롭카로 향했습니다.

하루 뒤 우리는 신부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신부님이 돌아가셨으니 제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열망, 신학교에서의 공부,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신부님이 돌아가셨으니 모든 것이 사라졌고, 저 또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나는 가족도, 일도, 삶도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빠졌다. 나는 심지어 나 자신도 희망 없이 끝장났다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고 내세에도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을 지경에 이르렀다. 나에게 남은 건 지옥뿐, 그게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신부님의 장례식이 끝난 후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례식 후 첫날 밤, 꿈속에서 나는 정원을 보았다! 하지만 그 정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정원에는 끝도, 경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높은 나무들이 서 있고, 나무들 너머로 그보다 더 높이 거대한 황금 돔과 황금빛으로 빛나는 십자가들이 보였다. 나는 바라보며 놀랐다. ‘이 얼마나 멋진 교회들인가! 이 얼마나 위대한 대성당들인가!’ 그리고 그 정원, 그 수도원 안에는 태양이 없는데도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정원의 가장자리에 발을 디뎠다. 앞을 바라보니 신부님께서 오시는 것이 보였다. 검은 수도복에 스쿠페를 쓰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계셨다. 언제나 그랬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신부님은 빛나고 계셨고, 젊어 보이셨으며, 그분에게서 힘이 느껴졌다. 그리고 한 수도사가 신부님을 모시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 수도사가 신부님께 하늘의 수도원을 보여주고 계신다.” 나는 축복을 받으러 다가가자, 신부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셨다. “너, 예브스타피, 내게로 오

너라!” 신부님께서서는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신부님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 손은 평소처럼 따뜻했다.

그리고 이 꿈, 이 환상, 신부님의 말씀과 그분의 축복이 나를 완전한 절망에서 지켜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부님의 교회에는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었다. 직장 동료들이 2번 탄광에 있는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자고 나를 초대했고, 나는 그곳에 다니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다. 1976년, 어느 채굴 구역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6미터 길이의 터널 천장에 매달려 있던 국소 환기용 팬을 터널 굴착 작업장에서 제거하는 것이었다. 안전을 위해 팬 아래에는 통나무로 만든 선반을 깔아두었는데, 이는 팬이 떨어질 경우 이를 받쳐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송풍기의 전기 관련 부품을 모두 분리했고, 송풍기는 서스펜션에 매달린 채로 남았다. 이제 서스펜션에서 송풍기를 분리하려면, 송풍기를 서스펜션에 고정하고 있던 핀을 두드려 빼내야 했다. 그러면 송풍기가 선반 위로 떨어질 것이다. 나는 선반을 살펴보고 이렇게 계산했다. 내가 옆 작업대에 서서 핀을 두드리면, 팬이 선반 위로 떨어질 것이고, 만약 선반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면(팬의 무게는 300kg이었다), 나는 옆 작업대에 안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행에 옮겼다. 핀을 치자, 핀이 툭 하고 떨어지며 잠시 멈췄다. 다시 한 번 치자, 송풍기가 선반 위로 떨어졌고, 선반은 그 무게를 견뎌냈다. 하지만 내 발밑에서 모든 것이 부서지며 나는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내 발밑이 모두 무너졌을 때, 그 순간 나를 꿰뚫은 첫 번째 생각은 “이 모든 게 장로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이다!”였다. 그리고 나는 6미터 높이에서 등을 대고 진흙과 늪 속으로 떨어졌다. 프로젝터가 달린 안전모가 옆으로 튕겨 나가자, 프로젝터 빛이 주변을 환히 비추는 바람에 선반 가장자리가 떨어져 나가고, 송풍기가 들보 위를 미끄러들듯 타고 바로 나를 향해 굴러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자, 또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왼쪽으로 몸을 돌려!” 이 모든 일이 찰나의 순간에 일어났다. 기적처럼 나는 옆으로 몸을 돌릴 수 있었고, 송풍기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며 골반을 살짝 스칠 뿐이었다. 겁에 질린 작업자들이 내게 달려왔고, 나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구급차’가 갭도로 내려와 나를 지상으로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리고 병원에서 보낸 첫날 밤, 나는 다시 놀라운 꿈을 꿔다. 나는 병원에 있었지만, 그 병원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떠 있었다. 병원은 조용하고 밝았지만, 그 빛은 왠지 이 세상 것이 아니었다. 나는 누워 있고, 환자들도 누워 있는데, 보니까 공중을 가로질러 당시 이미 작고하신 알렉산드르 크리보노소프 신부님이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다. 열린 창문을 통해 신부님은 병실로 들어오시더니, 내게 다가와 새하얀 린넨과 하얀 프로스포라 두 개를 건네주셨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깬다. 마음이 기뻐졌고, 그 꿈을 꾸 후로 내 영혼에 생기가 돌았다.

병원에서 나는 세 달을 보냈다. 퇴원할 때쯤에는 이미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다짐하고,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미하일롭스카야 성당으로 향했다. 걸어가며 나는 생각했다. “합창단에 받아주면 노래할 거야. 안 받아주더라도, 다른 신도들처럼 여기로 계속 올 거야.”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헤루비움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

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십자 성호를 긋고 고개를 숙인 뒤, 마음속으로 신부님께 말씀드렸다. “신부님, 길을 잃은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성가대원들이 나를 보고 성가대석으로 불러주었다. 예배가 끝난 후 성가대석에서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사제 서품을 제안할 테니, 거절하지 마라. 이것이 너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제안일 것이다.” 그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수녀님,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제안을 받지 못했고, 다른 이들이 서품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외되었고, 또 한 번은 다른 사람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미 아나스타시아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저만 제외되고, 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이 꾸어졌습니다. 전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집전하고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주교의 예복—사코스, 오모포르, 미트라—을 입고 계셨고, 모든 것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는 성가대석에 서서 성체를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아이들뿐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성배를 들고 강단에 나오시자, 아이들이 신부님을 둘러싸고 성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가대석에서 내려와 아이들이 성체를 영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길을 터주며 “지나 가세요!”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나가서 신부님께 다가가자, 신부님께서 두 조각의 성체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한 후, 저는 잠에서 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정통교회의 승리를 기념하는 주간에 나는 부제 서품을 받았고, 다음 날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렇게 30년 동안 마치 하루처럼 탄광에서 일했고, 이미 18년째 세바스티안 장로가 설립하고 건축한 성모 마리아 탄생 교회에서 성직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어릴 적부터 제 마음속 소망, 즉 장로를 만나고자 하는 바람을 들어주셨고, 오늘날까지도 저를 자비롭게 여기시며 훈계하시며, 장로의 기도의 보호 아래 제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 **엘레나 알렉산드로브나 아가포노바**

저는 1960년에 알마아타에서 카라간다로 왔습니다. 당시 저는 스무 살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 미하일롭카에는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멜콤비나트로 떠나신 상태였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보르쉬를 대접해 주신 뒤, 멜콤비나트로 신부님을 만나러 데려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4층짜리 패널 주택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는데, 수녀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나, 이런 집 1층에서 사는 건 정말 좋겠네요!” 그땐 수녀님의 말씀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지금 저는 바로 그런 집의 1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멜콤비나트에 도착했을 때, 신부님은 마침 기도를 마치고 집 밖으로 나오셨다. 그 뒤를 따라 그의 운전기사인 페티아가 나왔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아주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축복해 주셨고, 아나스타시아 어머니는 페티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페티아, 레나를 안고 차로 데려가렴!”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는 저렇게나 컸잖아요!”

신부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나스타시아 어머니도 돌아가셨지만, 이구멘 페트르는 아직 살아 계시며, 그의 기도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께서는 제가 아그니아 수녀님 댁에 머물도록 축복해 주셨고, 그 후 제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으며, 신부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별도의 작은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카라간다에서 살았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땐 저에게 아무런 걱정도, 불안도 없었고, 신부님의 기도 덕분에 모든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미하일롭카에 계신 신부님 곁에는 많은 소녀들과 수녀들이 있었는데, 신부님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어 우리 모두는 마치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예를 들어, 바빅우슈카께서 고해성사를 주실 때면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바빅우슈카께서 누군가에게 훈계를 주시거나, 무언가를 말씀하시거나, 용서 기도를 읽어 주실 때면, 그 순간 마치 한 사람만 서 있고, 한 사람만 고해성사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빅우슈카의 보살핌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이 유대를 매우 소중히 여기셨고,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먹고 마시고 자고 싶은 만큼 하되, 오직 더 평화롭게 살아가거라.” 신부님께서는 사람들의 힘든 삶을 보시고, 당신의 관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삶을 덜어주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신부님을 시험하듯 다가오거나 마음속에 악의를 품고 있다면, 신부님은 그때 매우 엄격해 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제단에서 나와 성당을 지나가시던 신부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낯선 한 여성 곁에서 멈춰 서서더니 뜻밖에도 거의 소리치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알겠어?! 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몇 일인지만 알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 너무나 엄하게 들려서 우리는 넋을 잃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신부님을 시험하러 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알마아타가 그리웠다. 식탁에 앉아 있으면, 내가 알마아타에 대해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신부님께서 “레누슈카, 알마아타가 그리운가?”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리고 휴가 때 알마아타에 가도록 축복해 주셨다. 제가 짐을 챙기면 신부님께서는 돈을 많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라, 레누슈카. 이걸 작은 동전으로 바꿔서 니콜스키 대성당에서 계단 양쪽에 앉아 있는 거지들에게 나눠주렴. 알마아타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제가 알마아타에서 지인들에게 나눠주라고 빵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나스타시아도 알마아타로 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그니아 수녀는 어느 날 요시프 주교님께 드릴 편지를 전해 주셨는데, 제가 주교님께 찾아가 세바스티안 신부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 주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두 팔에 안고 다니세요.” 그리하여 곧 신부님을 위해 의자를 만들어 두 팔에 안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부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신부님의 거처에 많은 소녀들이 모였는데, 신부님께서는 영원함에 대해, 즉 영생과 성인들의 끝없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군가 성인의 유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영광스럽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투슈카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대화가 끝날 무렵 우리를 한눈에 훑어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30년 후, 내 육신은 땅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1968년 여름, 중화민국 측에서 세미팔라틴스크 주 졸라노슈콜 호수 인근에서 소련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 영토의 일부를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했다. 나는 당시 알마아타에 살고 있었다. 그 무렵 도시의 분위기에는 불안감이 감돌았고, 시민들의 얼굴은 슬픔에 잠겨 있었으며,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다. 신자들은 아침에 니콜스키 대성당으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사가 끝난 후, 니콜스키 대성당의 성직자 파벨 밀로바노프 신부[수도명 이사아키(† 1991)]가 강단에 올라 모든 기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의 여왕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도들에게 간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재앙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주시도록 합시다.” 파벨 신부님과 모든 기도자들은 무릎을 꿇었다. 신부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읽으셨고, 모두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 후 모두 십자가에 입을 맞추었고, 파벨 신부님께서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자 사람들은 조용히 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런 꿈을 꾸었다. 니콜스키 대성당에서의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조용히 헤어지고 있었다. 제가 마지막으로 대성당의 높은 현관을 내려와 뒤를 돌아 십자 성호를 긋으려던 찰나, 세바스티안 신부님께서 성당에서 현관으로 나오시더니 위쪽 계단 근처에 멈추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부님께서 흰 캔버스 제의를 입고 계셨고, 머리는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님에게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으며, 뺨을 따라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 말씀은 이러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신부님의 기도하는 목소리는 아주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깼다. 새벽 3시였다. 나는 즉시, 나를 알마아타로 보내시며 신부님께서 알마아타에서 사람들이 신부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빵과 돈을 주셨던 일이 떠올랐다.

### 알마아타 시 성 니콜라스 대성당의 원로 사제 발레리 자하로프

1970년대에 알마아타 및 카자흐스탄 대주교 요시프(체르노프)는 설교 중 한 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알마아타 시민들은 텐산 산맥 기슭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산들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는 점에서 행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들이 지진과 산사태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마아타는 결코 산사태로 휩쓸리지도, 지진으로 파괴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니콜라이 대주교[알마아타 및 카자흐스탄 대주교 니콜라이(모기레프스키), 1874-1955년]와 같은 훌륭한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수용소와 유배지에서 지낸 후, 1945년부터 1955년까지 알마아타 및 카자흐스탄 교구를 관장했다. 중앙 시립 묘지에 안장되었다.]와 스키아르히만드리트 세바스티안을 통해 훌륭한 기도자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다.” 요시프 주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를 분명히 기억한다.

### 볼로콜람스크 및 유르예프스키 대주교 피티림의 회고록 중에서

1966년, 저는 성지로 향하는 순례단 일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순례단을 이끌었던 분은 외교교회관계부 위원장이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레닌그라드 및 라도가 대주교 니코딤이셨습니다. 이번 여행은 매우 중대한 임무가 부여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영적 선교부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발 전날인 4월 초, 나는 카라간다에 계신 아르히만드리트 세바스티안 신부님께 전화를 걸어, 여정을 위한 성스러운 기도와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스승님께서 이 여행을 포기하라고 조언하셨다. “그렇게 해야 해, 나중에 알게 될 거야,”라고 그분은 당시 전화로 내게 말씀하셨다. 그분의 대답은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고, 저는 완전히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항상 스승님의 축복을 믿고 따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대주교님께 거절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내려졌다. – 출발 직전, 말 그대로 전날 저녁에 나는 극심한 고열에 시달렸고, 체온이 40도까지 치솟았다.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했다. 나는 니코딴 주교님께 전화를 걸어 일어난 일을 알렸다. 미트로폴리트는 내 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하신 것 같았다. 우리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일들을 논의했고, 주교님께서서는 내 빠른 쾌유를 기원해 주셨다.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카라간다에서 세바스티안 신부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에게 즉시 그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장로 신부님은 성지로의 것처럼 중대한 여행을 말하시더니, 갑자기 “당장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하신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세바스티안 신부님의 축복을 서둘러 따랐고, 게다가 제 기분도 이미 훨씬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 나는 카라간다에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곧바로 스승님께로 향했다. – 그분의 모습이 매우 안 좋아 보였습니다. 완전히 쇠약해져 계셨습니다. – 아마도 어떤 병을 앓으셨을 때조차 그분을 그렇게 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분은 저에게 스키마 수도자 서원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즉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 스승님께서서는 매우 쇠약해져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일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치고 쇠약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정신이 온전하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분을 위대한 천사의 형상으로 출가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로 곁을 말 그대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습니다. 스키마 수계식을 마친 그날 밤, 장로님의 상태가 매우 나빠지셨고, 고해성사를 보시고 성체를 영하셨습니다. 영과 육신이 지쳐 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4월 19일, 스탈츠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대주교 알렉시 1세께서는 제 이름으로 카라간다에 조의 전보를 보내시어, 세바스티안 신부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시고, 제가 스승님의 장례식을 집전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4월 21일, 저는 교회 성직자들과 함께 공동 집전하여 위령 예배를 드린 뒤, 시내 미하일롭스키 묘지에서 세바스티안 신부님의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종인 스키아르히만드리트 세바스티안의 영혼을 의인들이 안식하는 곳에 두시고, 의인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므로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아멘.

## 카라간다의 성모 마리아 탄생 성당 주임 사제 알렉산드르 키셀레프

1956년, 저는 열다섯 살이었을 때, 신부님의 축복을 받아 탐보프 주에서 카라간다로 왔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승천 축일에 신부님께서 저를 성소로 불러 축복해 주시고, 스티하르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축일마다 성소에서 보조 사제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군대에 갈 때가 되었다. 첫 신체검사를 위한 소집장이 배달된 그날, 신부님께서 우리도 살고 있던 멜콤비나트로 찾아오셨다. 나는 신체검사에 가기 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다갔고, 아버지는 곧바로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는 징집되지 않을 거야, 슈라.” 그리고 실제로, 내가 내과 의사에게 가서 혈압을 측정했을 때, 혈압이 높게 나왔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지시했고, 저는 한 달, 그다음에는 1년, 2년씩 입대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후 매년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혈압은 여전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병역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들은 말은 신부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를 뽑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4년 동안 우리 가족은 방 두 개짜리 작은 흙집에서 살았는데, 61년에 신부님의 축복으로 좀 더 큰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러 오셨을 때,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신부님께서 멜콤비나트에 오시면 곧바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60명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굳이 누구를 초대할 필요도 없이, 모두 각자의 일을 제쳐두고 신부님과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나누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름날이나 다른 가족 행사가 있다면, 그 축제는 모두를 위한,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부님께서 우리 집을 축복해 주시고 사람들이 이미 흠어진 뒤, 우리는 신부님과 함께 저녁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는데, 신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슈라, 창문에 셔터를 달아야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여기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 집 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에 신부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달 뒤, 저녁 무렵 할아버지가 계신 방 창문으로 불량배들이 벽돌을 던졌는데, 그 벽돌은 할아버지 머리 곁을 스쳐 지나가 구석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창문 덧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나, 삼촌과 저는 서둘러 그 축복을 이행했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에는 헛된 말이 없으셨고, 말씀하신 것은 곧 축복으로 받아들여 실천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셨고, 치매를 앓고 계셔서 가끔은 일찍 일어나서 살며시 문을 열고 도망가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자전거를 타고 멜콤비나트 일대를 돌아다니며 할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가을에 이미 눈이 내린 무렵, 할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저녁 내내 할아버지를 찾아 헤맸고, 다음 날 아침 신부님께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할아버지가 사라지셨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 “글쎄, 괜찮아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돌아오실 거예요.” –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2주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병원과 영안실,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는 등 우리가 찾아보지 않은 곳이 없었고,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부님 곁으로 가서 “신부님, 혹시 할아버지를 살해당한 건 아닐까요?”라

고 물었습니다. 신부님은 마치 동의하는 듯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혹시 다른 일을 당하신 건 아닐까요?” –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스승님의 첫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이웃이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이웃은 버스 정류장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할아버지가 2주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해 카라간다에서 감자 흉년이 들자, 신부님은 가을에 신도들에게 가족당 감자 한 자루나 두 자루씩 나눠주셨습니다. 그중 한 자루는 세 식구로 이루어진 우리 삼촌에게도 주셨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부활절을 앞두고 삼촌이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슈라, 우리 이웃집은 신부님의 축복 덕분에 감자가 줄어들지 않아. 한 자루를 받았는데 온 가족이 먹어도 감자가 줄어들지 않더라고.” – “그런데 우리 둘은,” 아내가 말했습니다. “감자도 사지 않고 겨울 내내 삶아 먹었는데, 봐, 우리 집에는 아직 감자가 남아 있잖아.” 바로 이런 기적이었습니다. 별다른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신부님의 축복으로 받은 것은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 **내가 신학교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신부가 될 생각이 없었고, 신부님께서도 나랑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다. 신부님의 축복으로 나는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가구 목수 자격을 취득한 뒤, 가구 공장에서 일하며 여가 시간에는 교회에서 도왔다.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지 두 달 후, 알렉산드르 크리보노소프 신부님께서 주임 신부가 되셨을 때, 저를 부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사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니?” 그 질문은 저에게 뜻밖이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알렉산드르 신부님께 확실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엄마와 상의해 보고 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엄마와 함께 저녁 기도를 드렸는데, 내 침대 위에는 신부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나는 신부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든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흥미로운 꿈을 꾸었다. 마치 신부님이 페트르 신부님의 집에 계셔서 어딘가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보려고 그분께 다가가려 했지만, 어떤 여성이 먼저 질문을 던졌다. 그 여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떠났지만, 나는 왠지 신부님께 다가가지 못했고, 그 사이 신부님께서는 작은 문을 열고 나가서 ‘베센니이’ 골목길을 따라 수녀님들이 사시는 집 쪽으로 가셨습니다. 수녀님들의 작은 문에 다다르자 문을 열고는 사라지셨습니다. 나는 페트르 신부님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앉아 계셨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내 질문을 던졌다. “수녀님, 알렉산드르 신부님께서 저에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수녀님은 내 눈을 유심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넌 무엇을 원하니? 여기서도 잘 지내고, 거기서도 잘 지내고 싶은 거니?”

그리고 제가 이 꿈을 꾸는 것은 새벽 4시였는데, 그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아 집안 사람들을 모두 깨워 그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미하일롭카로 가서 아나스타시아 수녀님께 모든 일을 털어놓았더니, 수녀님께서 “글쎄, 저기 있는 사람 말이야,”라고 시골 사투리로 말씀하시며, “아그니아 수녀님께 가보렴,” 하고는 나를 다른 노수녀님께 보내셨다. 그 분은 내 이야기를 다 듣고는 “아니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든 그분 뜻대로 하세요.”라고 말씀하셨다. 알다시피, 위

대한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할 때 드러나는 그 겸손함 말이다. 고인이 된 신부님도 바로 그랬다. 가끔 성당에서 그분의 거쳐까지 배웅해 드리곤 했는데, 가는 길에 누군가 “신부님, 제 딸아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니다.”라고 묻곤 했습니다. – “그건 의사에게 가보세요,”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올라 페도로브나가 있는데, 그분이 조언해 줄 겁니다.” 스스로 기도도 해 주시고 도와주시긴 하지만, 마치 자신과는 거리를 두시는 듯했습니다. 바로 이 노수녀님들도 축구공처럼 서로에게 넘겨주곤 했습니다. 다시 아나스타시아 수녀님께 찾아가서 “수녀님,” 하고 말했습니다. “아그니아 수녀님이 저를 다시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 “음, 좋아요,”라고 말씀하시며, (마침 그때 신학 아카데미 학생이던 인노켄티 신부 (프로스비르닌)이 신부님의 묘소에 참배하러 와 있었죠), “저기 있는 분, 신부님 묘소로 가서 제비를 뽑고 기도하세요. “네가 제물을 바치고, 그분이 가져가게 해.”

그래서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우리는 무덤으로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예물을 바쳤더니, 이노켄티 신부님(당시에는 아직 아나톨리 이바노비치였음)이 제비를 뽑으셨고, 신학교에 가는 것이 하느님의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 학생이 되어서야 나는 그 꿈을 해석해 냈다. 과연, 신부님 곁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마음이 편안했다. 사도들이 변모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개의 천막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행복했고, 아무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직접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마음이 편안했을 뿐인데, 마음은 남이 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신부님도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신학교 학생이 되었을 때, 라브라에서는 많은 기념식과 다양한 포럼이 열렸고, 총회도 있었습니다. 피멘 총대주교 선출 때 저는 직접 참여했는데, 총회 특별 전령으로 활동했죠. 하지만 저는 그 영적인 분위기, 그 영적인 은총이라 할까, 영혼의 평온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이였을 때 신부님 곁에 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감정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수많은 주교들이 모여 있고, 모든 것이 엄숙하고 축제 분위기였으며, 이 모든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좋았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비우슈카 곁에서 느꼈던 그 고요함, 그 영혼의 평온함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성당에는 바티슈카가 오프티나에서 물려받은 관습에 따라 이곳에 도입한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 축일에는 러시아 전역의 성직자들이 초록색 예복을 입고 예배를 집전하지만, 우리 성당에서는 흰색 예복을 입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 축일에 녹색 예복은 풍요로운 자연의 초록을 상징하고, 흰색 예복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즉, 축일의 영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 탄생 대축일에는 파란 예복 대신, 이 축일의 위엄에 걸맞게 금색 예복을 입습니다. 이 또한 신부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여, 당신의 탄생은 온 우주에 기쁨을 알리는 바니이다. 당신으로부터 진리의 태양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빛나셨나니...,” 즉 여기에서 우리 구원의 시작이 열리며, 이날은 ‘빛의 어머니’를 세상에 드러내는 날입니다. 바로 그렇게 신부님께서는 신학적으로 이 축일을 이해하셨습니다.

고(故) 요시프 대주교님께서 오셨던 적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당시 비서였던 스테판 테오도로 비치 신부님께서도 오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스테판 신부님께서서는 노란색 예복을 준비하는 것을 보시고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준비인가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성모 마리아 축일인데, 주교님께서서는 파란색 예복을 입으시는데, 여러분은 노란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주교님께 보고했지만, 주교님께서서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 “그들이 가진 대로, – 주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그대로 두도록 하라.” 주교님께서서는 파란 예복을 입고 집전하셨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금색 예복을 입으셨습니다. 제단도, 교회 전체도 금색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승천절에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성화 행렬과 공동 식사가 거행됩니다. 이는 바로 55년 승천절에 성당 개관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승천절에는 항상 뜰에 식탁을 차리고, 원하는 모든 신자, 최대 500명까지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신부님을 기리는 날에는 항상 파라스타스, 위령 미사, 그리고 신부님의 묘지에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역시 모두를 위한 식사가 마련됩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항상 모든 이를 도우셨던 것처럼 – 돈을 주시고 가진 것을 모두 나눠주셨던 것처럼 – 우리도 지금 신부님의 추모일을 맞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고기 먹는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는 모두 금색이나 노란색 예복을 입지만, 우리 교구에서는 짙은 보라색 예복을 입습니다. 부활절 때처럼 빨간색이 아니라 짙은 보라색입니다. 이것도 신부님의 축복입니다. 반면 모스크바에서는 사순절 기간 일요일에 보라색이나 금색 예복을 입지만, 우리 교구에서는 항상 초록색 예복을 입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는 예전에는 옅은 양식으로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옛 성가대원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예전 노래도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남아 있는 것은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습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전야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위대한 찬양’이 시작되기 전까지 복음이 암본 앞에 놓여 있다가, “이제: 지극히 복되시도다, 성모 마리아여...”라는 대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복음을 제단으로 가져갑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저녁에 소저녁기도를 집전하셨고, 아침에는 성찬예배 전에 아침 기도와 두 편의 아카피스트가 낭독되었습니다. 또한 축일 전후 기간에는 소저녁기도 때 삼가곡이 봉독되며, “복되도다” 부분에서는 항상 순교자들을 위한 카논의 여섯 번째 노래가 봉독됩니다. 신부님께서서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예배를 집전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구의 노력으로 새로운 세 제단이 있는 대성당의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주 제단은 성 비데니아(성모 마리아 성전 입성) 움티나 수도원과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의 성전 입성을 기념하여 봉헌되었으며, 오른쪽 성소는 카라간다의 성 세바스티안을 기리기 위해, 왼쪽 성소는 성 코스마와 다미안—성자의 고향인 오를로프 지역에서도 그들에게 봉헌된 제단이 있었던—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습니다.

우리 대성당은 고전적인 양식에 따라 지어졌으며, 그 기초 형태는 노아의 방주를 연상시킨다. 총 수용 인원은 1,200명이며, 높이는 최대 15미터, 돔의 가장 높은 지점은 30미터에 달합니다 [1994년

민스크에서 열린 구 소련 영토 내 신축 성당 설계 공모전에서 카라간다 시의 성 브베덴스키 성당 설계안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성당의 기공식은 1991년 7월 14일, 성 코스마와 다미안(무보수 의사)의 축일에 거행되었으며, 정확히 4년 후인 1995년 7월, 모스크바 및 전 러시아 총대주교 알렉시 2세가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이는 러시아 교회 역사상 러시아 총대주교가 카자흐스탄 땅을 방문한 첫 번째 사례였다), 이미 세워진 대성당-궁전 벽 옆 광장에서 성하께서는 카를라그의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 미사를 집전하셨고, 미사 후에는 모두에게 뜻밖에도 외딴 미하일롭스코예 묘지로 향하여, 광활한 카자흐스탄 대초원의 영적 심장의 중심지인 스탈츠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바투슈카의 무덤에는 사회 각계각층과 영적 계급의 모든 단계에 속한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총대주교, 주교들, 성직자들, 주 및 시 행정 수장들, 신부님의 자녀들, 그리고 카라간다의 모든 정교회 신자들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또 누군가에게는 잘 알지 못했던 스승님이 의인의 거처에서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드렸다. 신부님께서서는 마치 마음이 아픈 하늘의 중재자이자, 인류를 위한 애도자이자 기도자로서 모든 이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 영적 자녀들이 기록한 세바스티안 장로에 대한 추억과 그의 가르침

### 기도에 대하여

기도에 대해 신부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서, 앉아서, 누워서, 일하는 중에, 길을 가는 중에라도요. 다만 성전에서 대화하는 것은 죄입니다.”

예배 중에 성당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특히 수도자들에게 엄한 주의를 주곤 했다. 때로는 예복을 입은 채 제단에서 나와 주의를 주기도 했다.

버스, 비행기, 승용차 등에 탑승할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심지어 타인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십자 성호를 긋어야 한다고 여러 번 상기시켰다. 한두 명, 혹은 세 명의 신자 덕분에 다른 이들도 닥칠 뻔한 재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았다. 먼 지역에서 온 몇몇 여성들이 저녁 예배 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신부님은 그들을 축복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성화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셨고, 모두가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중에 버스가 도개교를 내려가던 중, 운전사가 도로 앞쪽에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충격으로 버스가 다리에서 땅으로 뒤집혔다가 다시 바퀴 위로 일어섰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승객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명의 젊은 여성과 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사했고, 그 두 사람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살던 자매들은 신부님이 갑자기 성소 쪽으로 다가가 말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한 번 이상 목격한 적이 있었다. 이는 어딘가 먼 곳에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전해졌다는 징조였다.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곤 했다. 예를 들어, 카라간다에서 4,000킬로미터 떨어진 탐

보프 시에서, 늦게 퇴근하던 한 젊은 여성이 한 남자에게 쫓기게 되자 “신부님, 구해 주세요!”라고 외쳤고, 선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표에 대해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표는 손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올바르게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절을 해야 비로소 그 힘이 발휘됩니다.”

## 겸손과 교만, 믿음에 대하여

신부님께서는 서로에게 가한 상처를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말 것을 자주 상기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격한 말 앞에는 깊은 구렁이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 자만심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유혹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부님의 교회에서 노래하던 알렉산드라라는 이름의 성가대원 중 한 명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강렬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선명하게 ‘터져 나왔다’. 그러자 그녀는 교만해져 거만해졌고, 자신의 목소리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들, 특히 바르바라 어머니는 섬세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슈라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부활절 밤,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그녀를 다른 이들과 함께 부속 예배당에서 부활절 새벽 미사를 노래하도록 보냈다. 교회 안에 모든 신도를 다 수용할 수 없어 마당에 있는 부속 예배당에서도 새벽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슈라는 단호히 가기를 거부했다. 모두는 그녀의 거부에 놀라며 신부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슈라는 듣지 않았다. 그러자 신부님은 매우 엄하게 말씀하셨다. “슈라, 교만해지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를 빼앗으실 테니, 더 이상 노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신부님의 말씀이 적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신부님과 주변 사람들은 모두 슈라를 무척 안타까워했지만, 그녀의 건강과 목소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신부님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 소녀는 어릴 적부터 눈에 병이 들어(눈이 부어오르고 마치 완전히 막힌 것처럼) 의사들은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자 그녀는 신부님께 도움을 청했고, 신부님은 ‘슬픔에 잠긴 성모 마리아’ 성화 앞에서 성수 축복 예식을 거행하고 성수로 눈을 씻으라고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모두의 기쁨 속에 부기가 사라지고 눈이 떠져 예전처럼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신부님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일에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은 더 빨리 맞이해 주시고, 그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믿음도 없이, 단지 호기심이나 헛소리를 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아예 받아주지 않으시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 많고, 병 들고, 문맹인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무슨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되는가?” “당신들에는 당신들만의 사제들이 있습니다.” – 근처에 있는 다른 본당 사람들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의 풍속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심지어 지목까지 하셨다. “이 사람들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만심 때문에 지적이나 훈계도 견디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겸손하니까 괜찮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결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 없는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군가 한 명을 (심지어 잘못이 없더라도 겸손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을) 꾸짖기도 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분 스스로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으며,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영적 아버지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더 강한 이들은 모두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며, 그들의 허영과 영적 교만을 없애 주었다(이러한 상태에서는 선한 행실조차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며, 사람 자신도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를 이해한 이들은 그러한 정화를 기뻐하며 즉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위한 기도를 청했다.

때로는 신부님께서 연장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이들을 겸손하게 하시며, 상처를 준 이들을 변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이들은 이를 이해하고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사람이 스스로 점차 자신의 결점, 연약함, 악한 성향을 깨닫는 것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과 그것들로부터의 해방, 용서를 구할 때를 높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이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러 올 때, 특히 시기나 질투 때문이라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시험이자 겸손을 가르치는 교훈을 주시고, 영적인 약을 처방하시는데, 그 약을 맛보면 기뻐할 수도 없고, 다음 번에는 불평하고 싶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이러한 불만을 마치 영혼의 병처럼 모든 사람에게서 뿌리 뽑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중상모략자와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때때로 매우 현명하게 대처하셨습니다. 비방당한 사람을 비방한 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하게 벌함으로써, 그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웃을 비방하는 습관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반면, 이웃에 대한 은밀한 분노를 품고 신부님께 다가와 신부님의 보호를 구하며 자신을 정당화하고 이웃을 비난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신부님은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기보다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시며, 그 교만한 생각과 행동을 꾸짖어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상처받거나 오해가 생겼을 때는 서로 용서를 구하고, 특히 성체성사 전에 원한을 품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잘 알려진 두 형제, 티테와 에바그리우스의 예를 들곤 하셨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서, 어떤 점에서 교만(모든 죄의 근원)이 드러나는지 지적하시곤 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걸음걸이에서, 어떤 이에게는 목소리에서, 또 다른 이에게는 숨겨진 영적 교만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며, 이를 반드시 자각하여 영적 아버지께 털어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적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 인간 영혼의 모든 은밀한 구석구석

을 드러내실 때, 그 안에 숨어 있던 모든 뱀들이 기어 나와 자신과 타인을 놀라게 하고 공포에 빠뜨릴 것이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유익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결점을 참아 주십시오.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불은 불로 끄지 않고 물로 끄듯이, 악은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축복 없이 두 젊은이, 혹은 두 노인이지만 부유한 이들이 함께 살게 되면, 신부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나이 드시고 부유하신 분이 더 젊은 처녀나 과부를 데려와, 그녀가 일하고 돌봐주며, 말을 잘 듣고 모든 선한 일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젊은이들이 함께 사는 것은 전혀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살게 된 이들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선한 것을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특히 자만심 많고 제멋대로인 사람에게는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삶의 위험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문턱에서 발에 문질러지는 반짝이는 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구석 어딘가에 녹슬어 놓여 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속담을 덧붙였습니다. “함께 사는 이들은 서로 부딪히며 지내면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자만과 오만, 과신에 대해 옴틴의 장로들이 전하는 비유를 예로 들었습니다. “따뜻한 여름날, 한 벌레가 날아다니며 웅웅거리며 말합니다. ‘내 발, 내 초원, 내 숲...’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자, 딱정벌레는 앞사귀 아래로 파고들어 애처롭게 뽀뽀거렸다. “날 밀어내지 마!”

한 정신 질환을 앓는 여성이 모든 사람 앞에서 신부님을 모욕하며, 신부님과 신부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녀를 돌보던 사람들까지 모욕했다. 그러자 신부님은 침착하게 그녀에게 대답했다.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니? 바로 이런 사람이야! 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보렴!”

종종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그는 옴틴의 장로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인용해 대답하곤 했다. “살아간다는 것은 슬퍼하지 말고, 누구도 비난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고,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같은 옴틴의 장로들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서로 부딪치면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인내와 수고는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리고 가족 내나 혼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만이나 오해에 대해서는 “적의 침 뱉기”라고 불렀다.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면, 그때서야 그들 스스로도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곤 했다.

## 질병에 대하여

병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나가 지나가면 다른 하나가 찾아온다!” “우리는 아파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병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다!”

노인과 병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어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축복하노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불평 없이 병을 참아라. 병은 영혼을 죄에서 정화시킨다.”

노인들에게는 때로 선지자 다윗의 말씀으로 대답하곤 했다. “일흔 해, 힘이 닿는다면 팔순까지, 그러나 그 수명은 수고와 병으로 인해 줄어든다.” 젊은이들도 병에 걸리지만, 노인은 어찌 병에 걸리지 않겠는가? 몸이 마치 옷처럼 세월이 지나 낡아졌으니 말이다.”

어떤 이들은 포도주와 고기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수명을 연장하려 한다. 신부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요, 고기 음식은 심장과 위장이 건강할 때만 유익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로울 뿐입니다. 식물성 음식은 몸이 아플 때 소화하기 쉬우므로 유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로 들곤 했습니다. 수많은 병을 앓았음에도 고기 요리는 입에 대지 않았고, 노년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이곤 했습니다. “사람은 음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님께서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혹한에는 유행과는 상관없이 더 따뜻하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건강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죄입니다.”

일부 젊은이들에게는 건강이 약하다는 이유로, 신부님께서는 10학년 이상으로 진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부는 끝내겠지만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영적 공허함까지 닥칠 것입니다. 영혼이 하느님의 마지막 불꽃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겨울철, 특히 성탄절을 앞두고는 자녀들과 집의 건강을 습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집 안을 하얗게 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소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만 방을 하얗게 칠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휴양지나 휴게소로 가는 것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집에서 치료받고, 쉬며, 하나님의 성전에 더 자주 가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리고 병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으려 하는가? 다른 길은 없다.” “두 왕국을 동시에 상속받는 사람도 없다. 여기서 육신의 쾌락만을 좇아 영혼을 잃고 사는 자는 천국을 잃게 된다.”

어떤 병에 대해 불평하며 신부님께 다가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신부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아프다. 나도 아파.” 그리고 덧붙이시곤 했습니다. “나아질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지나가고 그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에는 똑같이 말씀하시면서도 “나아질 거야”라는 말은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두통을 앓을 때면, 신부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참수” 성화상 앞에 놓인 램프의 기름을 떠서 머리에 바르라고 조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위한 기도 예식을 거행하시곤 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 이가 아파요”라고 부탁하면, 신부님은 “네 이웃과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살면 이가 아프지 않을 거야!”라고 대답하시곤 했습니다.

일부 정신적 또는 심리적 질환을 앓거나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해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 누가 회복될지, 누가 때때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될지, 또 누가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남을지.” 어떤 귀신 들린 이들을 위로하시며, 하느님의 도움으로 인내하라고 설득하시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순교자들과 같아져, 고난 없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끔 누군가 병에 걸려 집에 누워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신부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적어도 마른 빵 한 조각이라도 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당장이라도 좀 나아질 텐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찾아와 신부님께서 보내신 선물을 전해 주었고, 병든 이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장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거의 평생을 고통받고, 병들고, 슬픔과 원한 등을 견뎌야 할까요? 부모와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이 고통받는 이들은 부모와 조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 환자 돌봄과 연민에 대하여

신부님께서는 고통받는 이들과 환자들, 특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세심하고 연민을 베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처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병원에서 일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장 냉혹한 마음이라도 그런 고통받는 이들을 바라보면 부드러워져 이웃에게 공감하고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좌우합니다.”

반면,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시기하던 이들을 종종 데리고, 땅굴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가장 가난한 과부들을 찾아가 구호 활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아라! 그런데 너는 멋진 집과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시기하기만 하잖아.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자비와 선행을 배우는 학교가 있다! 시기심을 뿌리 뽑으려면 너보다 더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고 혼란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시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욕심 없음의 이점에 대해 말씀하시며, 신부님께서는 한 지인 사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사제는 세상을 떠난 후 돈도, 물건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참 좋구나! 불필요한 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 그리고 천국에서 안식처를 얻게 될 것이다.”

신부님께서는 스스로 자비로우시고 병자와 가난한 이들에게 동정심이 많으셨기에,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만약 네가 이웃을 자비롭게 대하지 않고, 더 나아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신부님은 분별 없이 자선을 베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를 주셨습니다. 특히 술주정뱅이들을 피하셨습니다. 인색함이나 불필요한 낭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황금률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병든 친척을 돌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여, 모욕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신부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신부님은 영적으로 이를 감지하고는 갑자기 그 가정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병자와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

고, 모두를 화해시키며, 주님께서 병자와 그들을 돌보는 이 모두에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인내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 성찬식과 금식에 대하여

성체성사 전에 신부님의 축복 없이 제멋대로 금식하는 이들(즉,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이들)에게는 엄한 훈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 이들은 성체성사에 참여조차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몸이 약하고 허약한 이들에게는 성체성사 전날 밤에도 기력이 쇠약해지지 않고 아침이 되어 몸이 안 좋아지지 않도록,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빵 한 조각을 먹도록 축복해 주었다.

위나 폐가 약한 이들에게는 성찬식을 마친 후 금식 기간 동안 약으로 우유나 우유가 섞인 차를 마시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지만 고해성사 때 사제에게 병과 쇠약함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고백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다.

세상 살 때 점심 식사로 규율을 어기고 고기 음식을 먹던(그 나이에 금식 음식조차 적당히 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로한 수녀들에게는 신부님께서 이 점을 엄중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일정 연령까지는 고기 섭취를 금지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는 서서히 고기를 끊도록 지도했습니다. 신부님은 모든 일에서 절제를 중시하셨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금식을 지키지 않으면, 때가 되면 병이 닥칠 것이다. 그때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금식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죄를 이유로 허락하실 것이다.”

성당에 드물게 오거나, 성찬을 드물게 또는 아예 받지 않는 사람들(특히 노인들)에 대해 신부님은 유감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성당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내내 벤치에 앉아만 있을 뿐, 교회에는 오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네! 반면, 성당에서 멀리 떨어진 곳,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시간을 내어 명절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곤 합니다.” 또한 성당에 오는 남성이 적다는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거의 여성들만 오는데, 남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때로는 누군가 “올해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늘었네요!”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노비고로데에서는 예전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 지금도 몇 명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가끔 사순절 때 누군가 “오늘 성찬을 받는 사람이 많았네요.”라고 말하면, 그는 “성찬을 받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성찬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라고 대답하곤 했다.

“제때 성찬을 받는 사람을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절망할 필요도 없다. 때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성찬을 받을 자격을 얻기도 한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시작도 중요하지 않고, 중간도 중요하지 않으며, 끝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적 여정의 시작 단계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는 등, 심지어 축복도 받지 않은 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열정이 식어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교훈적인 사례를 많이 들곤 했다. 반

면 어떤 이들은 절제하며,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 모든 이를 능가하기도 한다. 신부님은 모든 일에서 중도를 소중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성스러운 아버지들은 왕의 길을 걸으셨다.” “처음부터 점진적으로 나아가며, 첫 번째 단계에서 두세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한 단계씩 차근차근 넘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절제, 자제, 분별, 적시성, 점진성은 모든 이에게, 모든 일에서 유익하다.” 무지 때문에 고해성사를 받지 않은 채 성찬대에 다가가는 초신자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즉시 엄하게 물으셨습니다. “고해성사는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 성사를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사람에게 일깨워 주곤 했다.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예배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 그리고 건강할 때에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고해성사를 받고 성찬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엄하게 대했다. “그렇게 하면 병자만 성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건강하면서도 수많은 죄를 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준비할 시간을 내어 회개로 자신을 정화하고, 제시간에 성당에 와서 규칙과 예배를 듣고, 고해성사를 마친 뒤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체 잔에 다가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성체 영성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성찬의 잔에 다가가는 것은, 식탁에 앉아 수프 한 그릇이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환자가 이미 허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성사 집전을 요청하는 환자나 그 친척들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이 잘못이었고, 다른 경우에는 신앙이 없는 환자 본인이 “나를 장사 지내려고 하는 거냐?”라고 비난하며 거절하기도 했다. 성찬을 받은 후 죽을 것이라는 미신 때문이었다.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한 청년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신이 직접 말하길) 고해성사가 끝나면 아내와 아이들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듯 그에게 다가와 작별 인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으로, 성사 예식과 성체 성사를 받은 후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일을 하고 하느님의 성전에 다니게 되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성사(소보로바니에)는 죽어가는 사람에게만 행하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성사를 받기를 꺼리는 이들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사 후에는 땅 위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미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신부님은 불만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걸어서는 안 된다면, 날아가라.” 신부님은 젊은이들에게도 성유식을 받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영적·육체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성유식을 받는 이들은 치유와 힘을 얻고, 잊혀진 죄의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 축일과 성인을 공경하는 일에 대하여

신부님은 슬픔과 질병, 유혹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성인을 부르며 그들의 기억을 기리라고 자주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수호천사의 날, 즉 자신의 이름을 딴 날을 기리되 생일은 기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자신의 수호천사의 날이 아닌 생일을 기념하는 사람들을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일 잔치 도중 세례자 요한 성인의 목을 베라고 명령했던 헤로데를 예로 들곤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백성들이 성모 마리아의 기적의 성화 축일을, 성모 마리아 탄생 대축일(12대 축일 중 하나)보다 더 많이 숭배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 탄생 대축일에는 성당에 모인 신자들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 이 축일을 기념하는 제단이 봉헌되었고, 이에 따라 축일마다 주교가 방문하여 성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또한 사목 활동 기간 동안 신부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성 요한 신학자 사도의 중요성과 위대함을 일깨워 주셨으며, 그의 기념일에 성당에 나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화도, 서로 간의 사랑도 없지 않습니까? 그분, 곧 사랑의 사도인 성 요한 신학자 외에는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자주 간청하시며, 하느님의 벌을 피하기 위해 축일에는 장터나 상점 등에 가지 말라고 매우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축일 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세속적이고 영혼에 해로운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사람은 영혼이 새롭게 되고, 자신의 슬픔과 질병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는 12대 축일 동안 성전에서 모든 것이 엄숙하고 축제 분위기가 넘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새 옷은 아니더라도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축제 분위기에 어울리게 차려입도록 매우 신경 썼습니다. 또한 음식으로 축일을 기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반면, 금식 기간이나 평일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밝은 색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주의를 주곤 했습니다. 영적인 면이든,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면이든 모든 일에 세심하게 신경 쓰셨습니다.

또한 특히 제단에서 촛불이 순수한 밀랍으로 만들어졌는지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향기로운 밀랍 촛불의 향기 위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온다” —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부지런한 꿀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종종 게으르고 소홀한 우리를 향해 꿀벌을 본보기로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그 벌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가—하나님께는 밀랍을, 사람들에게는 약용 꿀을.” 또한 부모, 특히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벌들이 여왕벌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본보기로 들었습니다. 벌들은 여왕벌을 아끼며, 여왕벌이 아플 때는 그 주위로 모여들어 날개를 파닥거리며 여왕벌이 좀 더 편해지도록 도왔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교회에는 가장 좋은 물건을 마련하고, 자신에게는 좀 더 나쁜 것을 남겨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자신에게는 좀 더 좋은 것을, 성당에는 더 나쁜 것을 바칩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성화에 관하여

신부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신도들로부터 훼손된 성화(즉, 정해진 규범에 따르지 않고 부주의하게 그려져 인상이 일그러진 것)를 받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오래된 성화를 기

증받았지만 일부가 손상된 경우, 수리를 맡기신 뒤 그 성화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오래된 성화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의 기념으로 성화를 선물할 때면, 종종 “이건 물감으로 그린 오래된 성화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성화를 화려한 종이 꽃으로 장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면, 신부님은 집안에서 성화가 얼마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종종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성화가 한두 점 있다 해도 그마저도 그을리고 먼지가 쌓인 채,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더러운 커튼 뒤 먼 구석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자신과 자녀들의 사진은 거의 가장 성스러운 구석에나 걸어 놓을 지경이다.

## 성당 내 규율에 대하여

예배가 끝난 후 신부님께서는 실내를 환기시키기 위해 즉시 문과 환기구를 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심지어 경비원과 당직자들을 위한 일정표까지 작성되었는데, 예배 후 몇 시간 동안 문을 열어둘지, 예배 전에는 몇 시간 전에 열어야 하는지(날씨와 계절을 고려하여)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담당자들에게는 청소 중에 먼지를 일으키지 말고, 성화와 금박 장식이 먼지와 그을음에 휩싸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서비스 직원을 지켜보시며 누가 어떻게 일하는지, 누가 성실하게 일하는지, 누가 게으르고 부주의하게 일하는지 파악하셨습니다. 밤에는 자신의 방 작은 창문 너머로 경비원들을 지켜보곤 했는데, 가끔은 “이 경비원은 밤새 마당을 돌아다녔다. 내가 창문 너머로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경비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밤새 초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당직을 서는 게 아니라 잠을 잤다는 뜻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두지 말라고 지시했다. 마찬가지로 성당과 교회 마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리고 시정이 필요한 일들을 지켜보았다. ,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당을 빠르게 돌아다니며, 심지어 팔을 휘두르거나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심지어 마당이나 거리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 앞에서 주의를 주어 모두에게 교훈이 되도록 했다. 특히 성인들의 모습을 흉내 내며 뛰어다니거나, 발을 구르거나, 소란을 피우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신부님께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셨다. 신부님께서는 걸음걸이와 외적인 동작을 통해 사람의 성격과 영혼의 내적 상태를 꿰뚫어 보셨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걸어야 하며, 큰 걸음으로 걷거나 발을 구르지 말아야 한다. 특히 성당 안에서는,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말이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본보기로 삼기 때문이지.” 케루빔 찬송이 시작될 때부터 미사가 끝날 때까지 성당 내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금지되었으며(양초 판매, 기도 요청 접수 등도 포함), 신부님께서는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성당에 머물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에, 기도회가 끝난 후에야 십자가에 입맞춤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늙고, 약하고, 허약하고, 병들고, 둔해서 모든 일을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반면 젊고 강하며 건장한 사제들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어 예배도 더 빨리 끝납니다.” (기쁜 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 노래에 대하여

신부님께서서는 기도하는 듯하고 감동을 주는 성가대의 노래를 좋아하셨습니다. “소리 지르고, 게다가 발을 구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머거리가 아니시니,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십니다.”

신부님께서서는 성가대의 낭독과 노래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시며, 그들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고 노래하도록 하셨다.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덮어버리는 고함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성가대원들의 수고와 인내를 높이 평가하시고 소중히 여기셨으며, 할 수 있는 한 관심을 기울이셨다. 축일에는 차를 대접하고 선물을 나눠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특히 머리수건이나 손수건을 나눠 주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나눠 주셔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돈을 주어 나눠 줄 수건을 사 오게 하셨습니다.

## 옷에 대하여

수녀복을 과시하듯 입는 수녀들이나, 검은 옷을 입는 세속의 과부나 처녀들을 꾸짖곤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파란색이나 회색 옷을 수수하게 입는 것이다. 검은색이 구원해 주지도 않고, 빨간색이 파멸시키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젊은이들에게는 직장에서 의심을 사거나 헛된 비난을 받지 않도록 무늬가 있는 옷을 입으라고 조언하셨다.

또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자신을 지나치게 가꾸지 말아야 한다. 자주 씻지도 말고, 세련되게 차려입지도 말고, 오히려 소홀히 하며, 자신의 영혼과 양심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여 타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스스로 구원 받고 싶다면 타인을 방해하지 마라. 반면 노인들은 사람들이 그들을 혐오하거나 외면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

## 고아들에 대하여

고아들에게는 큰 동정과 연민을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먼저 먹이를 주고 위로해 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살펴보고—무엇을 입고 신었는지—모든 것을 물어본 뒤, 말과 행동, 기도로 도와주었습니다. 마치 친부모처럼 돌보아 주었습니다.

## 자녀 양육에 대하여

때때로 신부님은 혼인 관계와 배우자 간의 의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함, 신뢰,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 중 한 명이 병들었을 때의 인내에 대해 말씀하셨죠. 신부님은 배은망덕한 자녀들을 꾸짖으며, 부모의 헌신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부모의 수고와 사랑, 자녀가 아플 때 요람 곁에서 보낸 잠 못 이루는 밤들,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런 아이들에게서 행복을 빼앗으실 것입니다”라고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오래 살리라.” 신부님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 공경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을 본보기로 들었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아이들에게 제멋대로와 자만심을 심어주는 부모들에게 신부님은 거듭 경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소년이 할머니나 어머니의 손을 잡아당기며 “집에 가자, 아니면 밖으로 나가자!”라고 외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저 성당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부모들은 그 말을 듣고는 따라 나갔습니다.

신부님께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편애하고 집착하며, 마치 하나님 대신 자녀들에게 기도라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부모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들 자신은 문맹에 가까운 평범한 농민들인데, 옷과 신발은 아무거나 대충 입고, 도시 지식인들과 동등하게 자녀들을 입히고 신기고 교육시키기 위해 를 감수하며 굶주리기도 한다. 그런데 자녀들은 교육을 받고 나면 부모의 문맹과 초라한 옷차림을 경멸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부끄러워하기 까지 한다.”

요시프(체르노프) 대주교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부터 바퀴벌레, 벌레, 새, 고양이, 강아지 등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람까지 미치게 될 것이며, 심지어 부모 자신조차도 잔혹함으로부터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해치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식물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요시프 주교의 설교를 비웃는 열성적인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퀴벌레와 벌레들이 대체 뭐란 말인가?” 그들은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커녕, 그 말의 의미조차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잔인하게 자란 아들이나 손자가 그녀에게 자신의 양육 방식에 대해 일침을 가했을 때, 어떤 엄마는 비로소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 순종에 대하여

일터와 가정에서 곤란을 피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서둘러 떠나려고 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신부님은 그들을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머물게 하셨다. 말씀을 듣고 머무른 사람들은 무사히 돌아갔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반면, 말을 듣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길에서,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도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부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신부님은 누구에게도 여행의 축복을 내려주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떠난 사람들도 슬픔과 불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신부님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으셨고, 그들의 결말은 비참했다. 한 나이든 처녀가 축복 없이 결혼하려고 마음먹었다. 다른 이들이 이 사실을 신부님께 알리자, 신부님은 “남자라니? 깡패나 다름없잖아!”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그와 결혼하지 말라고 간청하고 애원했다. “결혼하면 고통만 겪게 될 거야!” 그 후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신부님께서는 종종 모두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부모님, 동등한 사람, 연장자,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말도 듣도록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자라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나중에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 장례식 기도에 대하여

신부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과 히스테리에 빠져 고인의 관 앞에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족과 재산을 뒤로하고 죽는 것은 힘든 일이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행복을 걸었던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희망을 꺾으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자 가족들은 고인을 위해 울기는 하지만 절제된 방식으로, 슬퍼하되 적당히 슬퍼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와 하느님의 도움에 대한 희망 속에 녹아듭니다. 신자는 잠드는 것처럼 평온하게 죽으며, 죽은 후 그의 얼굴에는 수호천사의 마지막 입맞춤이 새겨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을 치른 후, 때로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런 사람들을 장례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회개와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자들의 장례식은 오직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만 거행했다.) 또한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믿지 않는 고인 앞에서 시편을 낭독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곤 했다. “그들을 위해 시편을 낭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신부님께서 경건하게 삶을 살아온 노인을 장례 미사해 주실 때면, 장례 미사가 끝난 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익은 이삭이 영원한 곡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이의 영혼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직접 장례식을 치르지도, 대리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갓난아기들을 생각하면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세례식은 자주 치러주지만, 장례식은 아주 드물게 치러지네요. 그런데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리 적지 않은데 말이죠.”

가끔 성가대원 중 누군가가 신부님을 안타까워하며 고인의 부재를 전하는 장례식을 다음 날로 미루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신부님은 단호하게 대답하곤 했다. “그 아이가 저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미룰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이에 신부님도 죽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영혼은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채 남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번에 걸쳐 추모식에서 와인은 물론, 더구나 보드카는 마시지 말라고 설득하곤 했다. “사순절에는 사순절 음식으로 고인을 기리고, 평소에도 간단하고 적은 양의 음식으로 추모하십시오. 고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세 네 명 정도에게 따뜻한 음식이라도 대접해 주라고 축복해 주곤 했다.

외동아들을 잃고 슬퍼하던 한 여성이 “아들이 참 안타깝네요. 착하고 말 잘 듣고,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신앙심도 깊었거든요”라고 말하자,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다행입니다. 평생 그 아이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게 될 테니까요. 살아남았더라면, 1~2년 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망가졌을 것이고, 영혼은 영원히 망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광부들은, 욕을 하지 않고 하느님을 경외했다면, 마치 순교자처럼 땅속으로 내려가 죽음을 맞이하듯 일했을 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살아 나올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 신부님의 고해성사에 대하여

가끔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신부님께 찾아오곤 했는데,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 온갖 생각이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치곤 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저 말을 해야 하나’ 하고. 하지만 신부님을 뵙고 축복을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무거움도, 온갖 생각도. 신부님의 다정하고 따뜻한 시선 하나만으로도 영혼과 마음이 따뜻해진다. 마음이 가볍고 기쁘게 되며,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불평할 대상도 없어진다.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다. 마치 검은 구름 사이로 해가 나와 죄인이나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따뜻하게 비추고 환하게 밝혀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환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는 단 한 가지 대답만 했다.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부들의 말씀을 인용하곤 했는데, 천사를 보는 사람이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 더 높다는 것이었다.

## 말이 많은 것에 대하여

그는 누군가가 아무 일이나 유익도 없이, 더구나 하느님께서 금하신 대로 비난할 목적으로 말을 많이 할 때 참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면 즉시 그 사실을 일깨워 주고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그는 주로 침묵하며 경청하다가, 마지막에 한두 마디로 모든 것에 답하곤 했습니다.

말이 많은 것, 특히 헛소리를 할 때면 이렇게 지적하곤 했다. “네가 말을 많이 할 줄 안다는 건 안다.” – 때로는 모두에게 교훈이 되도록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나는 이가 없고 목이 아파서 말하기가 힘들다.” 말이 많고 헛소리를 한 뒤에는, 마치 누군가 영혼에 모래를 뿌려 놓은 것처럼 무거운 여운이 남는데, 심지어 영혼을 구원하는 대화를 나눈 후에도 마찬가지다.

신부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헛소리를 하며,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을 빼앗아 가신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그런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 웃음과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신부님께서는 웃음과 무례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셨는데, 특히 누군가를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그리고 농담이나 조롱 등을 특히 싫어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결코 웃지 않으시고 울기만 하셨던 구세주를 본보기로 들으셨는데, 이를 목격한 이들은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진실과 진리를 말하고, 웃지 마십시오. 웃음과 무례함에는 음행의 시작이 있습니다.”

## 하나님의 도움과 타락에 대하여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타락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분을 부르라.”

한 젊은 여성(가까운 영적 동료는 아님)의 타락에 대해 그는 다른 이들에게 엄중한 훈계를 내렸다. “방치되어 굶아 버린 상처는, 육신의 의사에게나 영적 의사에게나 숨겨져 있다면 치료하고 치유하기가 어렵다. 유혹이 막 시작되었을 때, 내가 도울 수 있었을 때, 너희는 숨기기만 하고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곤경에 깊이 빠져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울며 ‘신부님, 구해 주세요!’라고 애원하죠. 이미 때가 늦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사나운 정욕은 음행입니다. 그것은 병상이나 심지어 임종 시에도 사람을 괴롭힐 수 있으며, 특히 노년에 이르기까지 절제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이 정욕은 뼈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모든 정욕 중에서 가장 뻔뻔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는 이를 떨쳐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눈물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의지할 때만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싸움을 기억해야 한다. 조금만 방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는 순간, 이 정욕은 즉시 그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오직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죽음에 대한 기억, 심판과 지옥, 천국에 대한 기억만이 이 정욕을 물리칠 수 있다.”

때로는 누군가가 자신의 결점과 연약함을 토로하면, “책을 읽어라, 거기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어떤 이에게는 성인들의 행전을 읽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다른 이에게는 성부들의 저술을 읽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각자에게 유익한 대로였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성부들과 성순교자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정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정욕을 떨쳐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욕과의 싸움에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정욕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들, 악령, 정욕 등으로 인한 불안함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신부님은 여러 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인들과 함께 안식하소서...’라고 노래할 때 비로소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은 평안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삶(평안)을 위해 태어난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손님이다. 나그네에게는 낯선 땅과 낯선 일 속에서 평안이 없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고향, 즉 하나님의 집인 천국을 더 빨리 도달하기 위해 앞만 보고 나아간다. 만약 이곳, 지상의 슬픔이 가득한 골짜기, 쾌락의 세상에서 발걸음을 늦춘다면, 저녁(즉, 생의 황혼)이 눈치채지 못할 사이에 다가와 죽음이 선행을 쌓지 못한, 준비되지 않은 영혼을 덮칠 것이며, 선행을 행할 시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죽음은 무자비하다! 어떤 부자도 재물로, 어떤 탐욕스러운 자도 돈으로, 어떤 용사도 힘으로, 어떤 왕이나 전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사람은 알몸으로 태어나고, 알몸으로 떠난다. 오직 믿음과 선행, 자선만이 그와 함께 내세로 따라가며,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 비난에 대하여

신부님께서는 다른 사제들(자신의 동료든 타인이든)을 그들의 축복을 받지 않고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분께서도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어쩌면 그가 우리 모두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의 영혼을 어떻게 알겠는가?” “겉모습과 행동만으로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으며, 이는 큰 죄이다.”

“왜 내 사제들을 어린아이들처럼 대하는가? 너희를 절하게 만들겠다!” – 그는 사제들(젊은이든 노인이든)을 자신보다 하급이거나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때면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에게서도 좋은 점을 찾아내시고, 칭송받는 이에게서는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시어 교만을 꺾으시고 헛된 명성을 없애셨습니다.

그는 어떤 “통찰력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곤 했다. “나도 사람들의 결점을 보지만, 침묵하고 지적하지 않는다. 차라리 조용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결점을 깨닫게 하는 편이 낫다. 말 그대로 ‘가볍게’ 지적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은 종탑에서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스스로 실천하는 것은 종탑으로 돌을 나르는 것과 같다.”

## 절제에 대하여

또한 신부님께서는 특히 흉년 때 모든 이에게 검소함과 절제를 실천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집에서 구운 감자를 먹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자 수프조차 없는데, 당신은 그 감자를 맛있게 먹었군요. 그 감자도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위해 당신에게 준 것일 텐데 말이죠.”

점심 식사 때 차와 함께 달콤한 빵을 내놓고, 심지어 버터까지 곁들여 놓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신부님은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버터에는 손도 대지 않으셨다. 신부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 버터가 사치이자 절제 부족임을 짐작했다.

가끔 집주인들이 신부님 한 분만 식탁에 앉으시라고 초대하기도 했다. 신부님은 참석자 모두가 식탁에 앉으라는 초대를 받을 때까지는 앉지 않으셨고, 그때서야 그들과 함께 앉으셨다. 늦게 잠자리에 들고 늦게 일어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일찍 자고, 늦어도 6시 반까지는 일어나는 것이 낫다. 질서와 꾸준함에 익숙해져야 한다.”

신부님께서는 불필요한 것을 모으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으셨고, 분별 없이 낭비하며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내어주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마저 박탈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용의 길을 지켜야 한다. 양극단은 파멸로 이끈다. 중용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특히 하늘의 일과 영적인 일에서 더욱 중요하다. 너무 앞서 나가는 사람은 멈춰 세워야 한다. 반면, 부주의나 무력함으로

인해 너무 뒤쳐져 영적 구원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잠에서 깨어나 중간에 있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앞서 나가지도 않고 뒤쳐지지도 않도록 돕아야 한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와 정욕에 대해,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하듯, 포도주도, 여성도, 돈도, 부도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절제 부족 탓이다. 술꾼들은 포도주를 탓하고, 음란한 여인이나 남자는 남성이나 여성을 탓하며, 탐욕스러운 자들은 돈을 탓하고, 부자들은 부를 탓하는 등등이다. 그러니 만약 포도주와 여자, 돈, 부가 없었다면 죄인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느님 께서 모든 것을 지극히 지혜롭고 아름답게 마련해 두셨다. 그러나 사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남용할 때 비로소 악이 생겨난다.”

또한 여러 번 말했듯이: “악은 다른 사람이나 네가 올바르게 다루지 못한 사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 마치 아이가 불이나 칼을 다루는 것처럼, 결국 스스로를 태우고 스스로를 베는 것이다.”

## 자신에 대하여

어느 날 “왜 여기에 모이셨나요?”라는 질문에 한 여인이 순진하게 대답했다. “신부님을 뵈기 위해서요.” 신부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보려면, 너희 눈은 시력이 나쁘구나.”

그는 종종 교회 평의회에, 그리고 서면으로 주교님께도 은퇴(은둔 생활)를 하고 싶다는 뜻을 상기시키며, “남의 지봉은 덮어주느라 바쁘는데 정작 내 지봉은 찢어져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대답은 늘 하나였다. “죽을 때까지 사목하라.”

임종이 가까워졌음을 느끼시며, 종종 사제직과 지도직에는 비록 연약하고 쇠약하더라도 ‘우리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신부님 시절과 같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명절에는 성가대원들에게 간식을 대접하곤 했다. 그리고 추도식이 끝난 후에는 직접 자신의 손으로 모든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가 있는 동안만 그러니 마음껏 드세요. 나에게는 가족이 없으니까요.”

“내가 이걸 다 모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나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적어도 무언가라도 받아 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신부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선물을 받아 축복한 뒤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받아서 곧바로 다른 이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무언가를 남겨두면,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건드리지 않다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곤 했습니다.

프로스포라를 기꺼이 그리고 사랑으로 모두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특히 먼 곳에서 온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셨습니다. 부활절 일주일 동안, 예배가 끝난 후 교회나 추모 예배실에 앉으시면, 그분 곁에 부활절 달걀이 담긴 바구니를 놓아두었고, 그분은 축복을 내리시며 모든 이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절 달걀을 건네주셨습니다.

## 수도 생활과 세상에 대하여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도사와 세상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도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도사들이 좁지만 구원을 주는 길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알았다면, 아무도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수도자들의 미래의 복을 알았다면, 모두가 수도원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 수도원을 해체했는가? 수도사들이 3인용 마차를 타고 다니고, 모직 옷을 입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수도사들이 삼베로 된 수녀복과 모시 옷을 입고, 양심에 따라 일했다.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수도사들이었다. 귀족 출신의 어떤 수녀원장은, 자기 수녀들이 아닌 다른 수녀들을 대상으로 냉혹한 태도와 잔인함으로 수련생들을 순식간에 천국으로 몰아넣곤 했다. 가난한 수녀들은 양배추로 배를 채웠지만, 수녀원장은 상급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내주었고, 정작 자기 수녀들에게는 필수품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종종 이런 말을 되풀이하곤 했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은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종보다 더 심하게 매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직접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너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세상과 바꿨잖아(혹은 바꿨잖아).” “세상은 금을 약속하지만, 늪만 준다.” “미혼자는 하나님을 염려하지만, 기혼자는 아내를 염려한다.” “가족의 끈에 얽매이지 않은 자는 언제나 자유롭다. 유일한 염려는 영혼의 구원이다. 삶의 목표는 순결이며, 그 끝은 천국이다!”

신부님이 더 젊고 건강이 좋으셨을 때, 그는 교통수단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수도사이니, 타지 말고 걸어야 한다.” 그리고 페도로브카, 멜콤비나트, 젤렌트레스트, 키르자보드 등 먼 거리를 걸어서 다녔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주전자를 들고 젤렌트레스트 외곽의 샘물로 좋은 물을 길으러 가는 것을 좋아했다. 가는 길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라고 노래하곤 했다...”

두 명의 젊은 여성이 수련생들에게 자신들에 대해 신부님께 보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신부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잘 받아주면 너에게 더 집착하게 될 테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운해할 거야!” 이 말로 신부님께서서는 훗날 사제가 된 젊은이들에게, 젊은 여성들이 사제에게, 또는 사제가 젊은 여성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지만 무례함도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 칭찬할 만한 ‘중용’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유혹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집에서 차를 마시던 중, 소녀들은 한 방에, 여성들은 다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때로는 소녀들에게는 한 가지 말을, 여성들에게는 다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여성 중 한 명이 소녀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곳에는 신부님도 앉아 계셨습니다. 신부님은 그녀를 엄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소녀들만 앉아 있고, 여성들은 다른 방에 있는데, 당신도 저기 그들과 함께 앉으세요.” 그녀는 불만스러워하며 눈물과 서운함을 안고 나갔고, 이에 신부

님은 말씀하셨다. “왜 서운해하십니까? 제가 ‘당신은 여성이니 여성들과 함께 앉으세요’라고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녀는 남자다’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서운해하십니까?”

어느 날, 여성들과 소녀들이 함께 앉아 있던 식탁에서 한 여성이 신부님이 여성들보다 소녀들을 더 아껴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결혼했나요? 당신은 온갖 위로를 받았지만, 소녀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부님 뒤에서 숟가락으로 수프를 한 숟가락씩 더 먹게 되어 기뻐하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거든요.”

그는 종종 생각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라고 상기시키며, 미친 처녀들처럼 되지 말라고 당부하곤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한 행실과 마음의 순결 없이는 동정심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 “내면이 더럽고 정욕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겉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다.” “구세주께서 요한 신학자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결, 정절, 사랑, 충실함, 다정함, 그리고 순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오직 요한 신학자만이 두려움 없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미덕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없다면 몸을 온전히 태워 바친다 해도 모두 헛된 것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화와 화합, 고요함이 있다. 사랑이 없는 곳에 모순과 분쟁, 불화, 배신, 비방이 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악을 기억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짜증 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웃,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유익을 구한다.” 신부님께서는 요한 신학자를 예로 들곤 했는데, 그는 사랑으로 제자를 강도 무리에서 교회 품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신부님은 요한 신학자의 말씀을 자주 되뇌곤 했습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 신부님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그 사랑 없이는 수고도, 기도도, 금식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 스키아르히만드리트 세바스티안의 설교 중에서

### 회개한 죄인에 대한 말씀

“죄인아, 네 정욕과 죄악된 습관을 버려라. 하늘이 너를 아흔아홉 명의 의인보다 더 부르고 있다! 회개한 죄인 한 명을 위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하늘은 네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죄에서 떠나라. 너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말 못하는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귀를 찢기시고, 침을 뱉으심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자신의 피조물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셨다. 그런데 너, 사람아, 네가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네게 영원히 남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부도, 명예도, 영광도, 건강도 모두 일시적인 것들이다. 미래를 위해 부유해지자. 거지들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통해 그곳에 우리의 재물을 모아두자. 너는 하늘의 주민인데, 왜 이토록 땅에 매달리는가!? 너는 천국의 상속자로서, 독생자께서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량해 주신 불멸의 영혼을 가진 자이다.”

1960년 1월 31일

## 수호천사에 관하여

“수호천사는 흠 없는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과 함께 머무릅니다. 마음과 양심에 귀를 기울이면, 진리로 인도하는 그분의 목소리를 항상 듣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굶주림, 즉 자신의 영혼이 느끼는 영적인 감정을 깨닫는다면, 육체적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찾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으로 영혼을 채우려 할 것이다. 영적인 감정이 억눌리고 정욕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굶주림 외에는 다른 굶주림을 느끼지 못한다. 반면, 육체적 굶주림을 잊고 영적 굶주림을 채우려 애쓰는 이도 있습니다. 정욕은 점진적인 생각의 주입, 동의, 그리고 행동의 실행을 통해 영혼을 눈멀게 하여 1) 병들음, 2) 질병, 3) 영혼의 죽음으로 이끕니다. 한 가지 정욕이 작용하는 곳에는 성령과 수호천사가 물러나고, 사람의 영혼은 죽어갑니다. 오, 주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거룩한 수호천사들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날짜 미상. 대천사 미카엘 대축일.

##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말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무엇보다도 바로 당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는 영을 불어넣으셨으며, 자유의지와 이성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창조주를 사랑하지 않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삶을 사랑하지 않고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를 자신에게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즉,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 생각하고, 숙고하며, 논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이웃에 대해 품는 모든 생각과 소망, 의도를 보시기 때문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이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날짜 미상.

## 저녁에 경비실에서 세바스티안 신부님의 말씀

“성모 마리아의 아카피스트 ‘예기치 못한 기쁨’을 읽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아치만드리트 성품을 받은 지 벌써 3년, 4년이 지났지만, 겸손과 인내를 얻지 못했다. 인내심이 없고, 게으르며, 소홀하고, 말이 많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데, 두 개의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례를 통해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를 생의 끝까지 불평 없이 지고,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슬픔을 참아내야 한다. 주님께에서도 참으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 가난과 무명 속에서 자라셨고, 그 후 설교를 하러 나가 기적을 행하시며 평민들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순교자의 죽음을 맞이했고, 초기 기독교인들 모두 피를 흘렸으나, 우리는 조금도 참아내거나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가장 사랑스러운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1960년 6월 26일

### 사랑의 사도 요한 신학자의 기념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가장 순결하고, 가장 정직하며, 가장 온유한 자에게 구세주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셨다. 천둥의 아들이, 너는 복이 있도다. 독수리처럼 모든 이보다 높이 날아올라, 네 가르침으로 천둥처럼 울려 퍼졌도다.”

1960년 5월 25일

### 대순교의 시작

“회개의 문을 열어 주소서, 생명의 주님...” 자신의 죄성을 깊이 자각하고 느끼는 마음으로 세리(세관원)는 회개했다. 바리새인처럼 거만함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부서진 마음으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세리는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다. 회개하고는 더 이상 예전의 죄로 돌아가지 말고, 새롭게 된 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1960년 2월 7일

### 세바스티안 대수도원의 말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행하며,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은 교만과 음행, 부정한 것, 그리고 그 밖의 온갖 악덕과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마음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겸손과 인내, 순결, 정절, 온유, 선한 행실, 이웃에 대한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순종, 기도, 영적·육체적 감정과 생각의 절제로 그분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드릴 때, 우리 마음속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제하지 못함과, 정결하지 못한 감정과 생각, 슬픔과 질병에 대한 조급함, 불평, 배은망덕함, 악으로 악을 갚는 것으로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날짜 미상.

### 세바스티안 대수도원장 신부의 수호성인 날

세바스티안 신부님께서 직접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신부님의 약한 건강을 굳건히 해 주셨습니다. M. 마리아는 신부님의 뜻에 반하여 신부님께 펠론을 다듬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서는 그 제멋대로인 행동과 불순종에 대해 즉시 우리 형제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성의를 입고 예배 중에 펠론에 앉았는데(보통 이런 경우엔 항상 살짝 들어 올리곤 했음), 펠론을 구겨버려 원래보다 더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교훈이다. 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게 진행되었고, 기도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축일 주인공에게 축일을 축하하는 인사와 수많은 최고의 감사와 축복이 쏟아졌다. 하지만 생일 주인공은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이 그를 더 높이 치켜세울

수룩 스스로를 더 낮추고 비하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장황한 말과 헛소리에 분개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선물도, 칭찬도, 감사도).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평화와 사랑, 그리고 여러분 사이의 화합입니다...”

1959년 12월 31일

### 사마리아 여인에 대하여

“주 하나님 그분 자신이야말로 영혼의 참된 행복이자, 참된 위로, 참된 선이며, 구세주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시하신 바로 그 것입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거친 육체의 감각적 쾌락과, 부와 명성, 세상의 권력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유아기의 욕망과 취미는 소년에게는 우스꽝스럽고, 소년이 원했던 것은 청년에게는 우스꽝스럽고, 청년이 그토록 열렬히 원했던 것은 성년에게는 우스꽝스럽고, 성년이 원했던 것은 노인에게는 우스꽝스럽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충족으로 감정을 채우지만, 영혼은 비워버린다. 감정은 가득 차 있지만, 영혼은 텅 비어 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그분의 요새는 위대하며, 그분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도다.”

1959년 5월 31일

### 주님의 승천

“예전에는 땅에 합당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하늘에서 경배받을 만합니다. 예전에는 잃은 것보다 지금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슬픔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미래 세상의 생명을 상속받을 자격을 얻도록,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고 삶을 순결하게 살아갑시다.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과 생각을 어둠과 헛된 일, 암흑, 땅과 육체, 세상 및 그 덧없는 유혹들로부터 끌어올려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어 마련해 주신 영원과 장래의 복으로 인도해 주소서.”

날짜 미상.

### 성 안드레아 첫 부름받은 사도의 기념일

“그는 키예프 산에 처음으로 십자가를 세우고, 이곳과 이 나라 전체가 언젠가 정교회의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위해 준비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기쁨과 미래의 복에 대한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성스러운 사랑은 온전함의 총체이다. ‘하늘의 기적, 하늘의 거룩함’이신 하나님의 어머니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지니고 계셨다.”

“내 영혼의 신랑은 무엇보다도 질투심이 많으시니, 그분과 함께 내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파테리카에서). “구세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다: ‘목마르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셨다...”

1958년 12월 13일

## 수호천사에 대하여

“수호천사는 세례를 받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영혼과 수호천사의 유대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수호천사는 양심과 마음을 통해 그 작용을 펼칩니다.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염려하고, 양심을 지키며, 온갖 죄를 피할 때, 비로소 자신의 수호천사를 느끼게 됩니다. 수호천사는 그런 사람에게 모든 선한 일을 가르쳐 주고, 선한 생각을 보내며, 악을 경계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 날, 수호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어떠할지는 우리와 우리의 행실에 달려 있습니다. 수호천사는 우리의 무책임한 삶을 보고 기뻐할까요, 아니면 슬퍼할까요? 그는 자신도, 자신의 영혼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로부터 물러날 것이며, 양심에 반하는 모든 일을 저지른 자들, 죄를 거듭 저지르고 악에 뿌리를 내리며 양심을 억누르고 마음을 굳게 닫은 자들로부터도 물러날 것입니다. 수호천사가 물러나면 어둠의 영, 즉 마귀가 다가와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영혼은 파멸에 이릅니다. 수호천사는 물러나서 그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호천사께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선한 일에 도움을 주시고 온갖 죄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간구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주님께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행실로 그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간구합시다.”

1958년 11월 21일

“주님께서는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날에는 쉬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원수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속삭인다.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주님께서 아론을 통해 파라오에게 백성을 사흘간의 절기를 맞아 광야로 보내 제사를 드리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파라오는 그 대신 백성에게 노동과 감시를 강요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영혼의 광야로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파라오(혹은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하러 가라, 네 일을 하러 가라, 상사에게 잘 보이거나, 아이들을 위해 빵과 옷을 구하라. 너에게 무슨 명절이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훔쳐서 우리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시며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이끄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며, 그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6일 동안 겸손히 일할 뿐만 아니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대신, 방심하며 게으름과 술잔치로 시간을 보낸다.”

1959년 1월 14일

## 일요일

“마음은 돌보다 단단하고, 모루보다 단단하다. 악한 양심, 육체적·감각적 죄에 대한 죄악된 습관으로 인해 굳어진 영혼, 그리고 회개의 부재. 그는 죽은 자를 보고도 비웃으며, 타인의 지적과 질책을 귀담아듣지 않고, 병들며, 악의에 찬 양심으로 고통받는다. 망치로 모루를 부수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부수는 것이 더 어렵다.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다른 사람들의 권면, 심판과 지옥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질병, 슬픔—이 모든 것이 마음을 치는 망치이다. 그러나 마음은 굴복하지 않고, 악에 굳어져

버렸다.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모든 선하고 인간적인 것에 대항하여 이성이 미쳐버렸다. 주님, 우리에게 육신의 마음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거두어 가셔서, 내리치는 망치를 느낄 수 있게 하소서! “그들이 나를 욕하고 때렸으나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노라.” “제단아, 제단아,” — 선지자는 왕이나 백성에게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제단의 돌보다 더 단단한 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한다.

1958년 12월 8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저는 온 영혼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자기 뜻을 행하는 자는 노예 같은 두려움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1958년 9월 9일

### 세레자 요한의 참수

“세레 요한은 정의와 진리를 위해 때이르게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진리는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들이 있을 때 비로소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불의하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가 없었다면, 이 땅에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불의 속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와 의에 따라 살아야 하며, 이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진리, 순결, 사랑, 정절은 주님께 그토록 사랑받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순교자들은 진리와 의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며, 거짓과 불법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1958년 9월 11일

### 시간에 관한 말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회도 없이 헛되이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잃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우리가 가장 하찮은 물건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 애쓴다. 그러나 시간을 잃어버리면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시간은 주님께서 영혼의 구원과 미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시간은 현명한 주인이 각 동전을 용도에 맞게 분배하듯이, 그 용도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 그에게 있어 각 동전에는 저마다의 용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도 헛된 오락과 유희, 수다, 연회, 놀이 따위를 위해 쓰지 말고 유익하게 배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시간을 흠쳐서 자신의 번덕을 채우는 데 썼고, 하나님이나 영혼을 위해 쓰지 않았음을 추궁하실 것입니다.”

1958년 9월 8일

### 대천사 미카엘 대축일

“하늘에도 땅에도 평등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평등은 오직 유일하신 성삼위일체 안에만 있습니다. 대천사 미카엘은 겸손과 인내, 용기로 새벽별을 물리쳤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비밀과 기적의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모두 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 주일

“야이라의 딸이 죽었으나 주님께서 그녀를 살리셨다. 이처럼 사람은 영혼으로 죽는다. 최악된 생각, 자기 뜻대로 함, 그리고 죄를 짓는 행위. 그때 은혜가 떠나가고 영혼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병이 막 시작되어 쉽게 치유될 수 있을 때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영혼)이 이미 죽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과 육신의 사이신 주님께 나아가 말했습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을 뿐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즉 청춘과 건강, 순결, 활기찬 정신을 누릴 때 주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지, 마귀를 섬기느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바쳐서는 안 된다.

“날(생명)이 있는 동안 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밤, 즉 노년과 죽음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며,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는데, 신랑이 오셨을 때 이미 밤이 되어 기름을 살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루를 방심하고 소홀히 보냈기에 등불이 비어 있었고, 결혼 잔치의 문은 그들에게 닫혀 버렸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절름발이도, 비뚤어진 것도, 눈먼 것도, 썩은 것도 아닌, 건강하고 깨끗하며 흠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선지자가 말하듯이, 땅을 갈고 밭을 일구며 가꾸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으나, 열매를 거두러 왔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 밭에는 이삭이,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달려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원수들이 와서 모든 것을 훔쳐 가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자신의 영혼이라는 밭에서 헛되이 수고하지 말고, 세속, 마귀, 육신, 죽음이라는 원수들이 찾아와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세속이 오면 부와 사치, 명예심으로 유혹하며 자기 몫을 가져간다. 마귀가 와서 마지막 남은 것들—순결, 정절, 순수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모두 앗아간다. 노년과 죽음이 닥치면, 사람은 자신의 밭에서 무언가 거두기를 원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죄 많은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려는 의도가 간혹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사람은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내세를 위한 선행을 쌓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죽음이 닥쳤을 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시간은 이미 없다. 특히 예기치 못한 죽음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육체적, 정신적 힘이 모두 사라질 노년에 회개와 선행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등불이 텅 비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기도가 없으면 헛된 일들만 생기기 마련이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명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자비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겠느냐?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바라보리라.” 자신을 낮추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각해야 한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은 마귀의 말이다. 그가 너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너는 사랑으로 그의 증오를 이겨내라. 참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증오의 정욕을 이겨내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성에게는 교훈으로, 마음에는 영감으로 말씀하십니다.”

1958년 11월 11일

### 부활절

“하나님께 마음의 순결과 죄의 용서를 구하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신을 누구보다 더 나쁘다고 여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네게 오실 것이며, 네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행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들로부터는 도망쳐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양심의 순결을 지키고 흠 없는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일과 행실은 그리스도의 계명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원수가 우리로부터 아주 사소한 것조차 이용해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고, 양심이 우리의 삶을 책망하지 않도록 순결함과 흠 없는 양심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날짜 미상.

“성령님, 어머니께서 자녀를 품에 안으시듯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처를 마련해 주십시오. 불순한 생각과 감정, 욕망, 그리고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은총 없이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고 지켜질 수 없나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의 계명이라는 반석 위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굳건히 세워 주소서.”

날짜 미상.

## 카라간다의 원로 수녀들

### 수녀 아그니아

수녀 아그니아(알렉산드라 바실리에브나 스타로두브체바)는 1884년 4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고, 부모님은 그녀를 보로네즈로 데려가 성 미트로판의 유해 앞에 모셨습니다. 그 유해 앞에서 소녀는 치유를 받아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알렉산드라가 열네 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알렉산드라는 언니와 남동생과 함께 남게 되었다. 언니는 남동생을 돌보기 시작했고, 알렉산드라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친척들에게 간청하여 유명한 성화 학교가 있던 여성 수도원인 즈나메노-수호틴스카야 수도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 이 수도원에서 그녀는 21년을 지내며 아그니아라는 이름으로 라소포르(수녀 서원) 서원을 받고 성화 그리는 기술을 배웠다.

아그니아의 어머니는 장로 바르소노피의 영적 딸이었으며, 매년 휴가를 받아 옴티나 푸스티니에 있는 그를 찾아가곤 했다. 그녀는 바르소노피 신부와 함께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 작품은 나중에 트

레티야코프 미술관에서 그녀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바르소노피 신부는 임종 직전에 자신이 매우 소중히 여겼던 이 초상화를 그녀에게 물려주었다. 그 초상화는 항상 카라간다에 있는 어머니의 수도실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 초상화는 제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바르소노피 신부님께서 제 손을 빌려 그리신 것입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어머니께서는 옅티나 푸스티니의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잘 알고 계셨으며, 수도원이 폐쇄되기 전까지 매년 그분을 만나곤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젊었을 때 매우 잘생겼었고, 유난히 밝은 얼굴을 지녔으며,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셨고,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르소노피이 장로는 그를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요시프 장로는 그를 무척 아끼며 “그는 마음이 상냥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그니아 수녀가 장로님들을 찾아와 초가집 접견실에서 서 있습니다. 그때 수련자 스테판이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수녀는 당시 수련자의 그 행동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무례하게 느껴져 속으로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미래의 장로는 이미 그때 그녀 안에서 자신의 영적 자녀를 알아보았으며, 그녀의 손이 성스러운 성화들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큰 공헌을 할 것임을 예견했던 것이 드러났다.

1919년 11월, 자나메노-수호틴스키 수도원은 볼셰비키에 의해 해산되었고, 아그니아 수녀는 보로네즈 주 노보호페르스크 시에 정착했다. 이 시기에 아그니아 수녀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과 인내를 주소서. 이제 낯선 땅에서 홀로 남겨진 채 중대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1929년 2월 18일.”

어머니께서는 많은 슬픔과 고통, 모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1952년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그녀를 카라간다로 불러 기도원을 위한 성화를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952년 1월 4일, 32호 급행 열차가 아그니아 어머니를 카라간다로 데려왔습니다. 그녀가 카라간다에 정착하기는 어려웠고, 처음에는 노보호페르스크로 다시 돌아가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신부님의 간곡한 권유로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교회 경비실에서 살며 그곳에서 성화를 그렸습니다. 그녀가 그린 첫 번째 성화는 이코노스타스를 위한 ‘복음서를 든 구세주’ 성화로, 아폰 산의 ‘신속히 응답하시는 분’ 성화와 같은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마투슈카가 이 성화를 그릴 때,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자주 다가와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화가 거의 완성될 무렵, 어느 순간 신부님께서 “자, 됐어. 더 이상 붓질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외에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주님의 승천, 이집트로의 도피, 그리스도의 부활 등 수많은 성화를 그렸으며, 이 성화들로 교회 전체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라간다의 대천사 미카엘 교회와 슈치인스크, 보로브스크 마을, 오사카로브카 및 기타 도시와 마을의 교회들도 그녀의 성화로 장식되어 있다. 알마아타에서는 요시프 주교를 위해 그녀가 많은 성화를 그렸는데, 그중에는 성 요한 토볼스키의 성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6년, 아그니아 수녀는 알렉시우스 총대주교의 축복을 받아 수녀 서원을 했습니다.

아그니아 수녀는 재능 있는 화가일 뿐만 아니라 현명한 노녀이기도 했다. 그녀는 예지력을 지녔으나 이를 사람들에게 숨겼고,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뭐 어때요? 저는 늙은이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난로 앞에 앉아만 있을 뿐, 어디에도 다니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 라이사 니콜라예브나 아니시모바, 첼랴빈스크

1966년 9월, 우리는 첼랴빈스크에서 베르호투르로 와서 성 시메온 베르호투르스키의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베르호투르스키 교회의 알렉시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카라간다에 가보셨나요? 그곳에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계시는데, 오로지 그분의 기도로만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그분을 찾아가 보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를 미루고 여행을 연기하다가, 마침내 1967년 8월 성모 승천 대축일을 앞두고 다섯 명에서 카라간다에 도착했으나, 그곳에서 세바스티안 신부님께서 이미 1년 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하일롭스카야 성당에서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우리를 맞이하시고, 자신의 수련생인 안나 시도로브나에게 우리를 아그니아 수녀님께 데려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갔고, 마투슈카는 걷는 데 쓰던 작은 탁자에 의지한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너무나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셔서, 저는 “지금 그녀가 내 모든 죄를 다 보게 될 거야!”라고 생각했고, 모두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투슈카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오세요. 성체를 모시고 오세요.”

다음 날, 성체를 모신 뒤 우리는 수녀님 댁으로 갔다. 수녀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수녀님이 밤새 우리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녀님은 우리를 식탁에 앉히시고 대접하기 시작하셨다. 시금치 수프, 죽, 수박, 멜론, 포도, 차까지—수녀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수녀님은 우리에게 계속 음식을 주셨고, 우리는 계속 먹었습니다. 이미 배가 부를 지경이었지만 여전히 먹고 있었습니다. 수녀님은 자신의 방 문턱에 서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잡지와 책을 가져와 필요한 페이지를 펴서 우리 각자에게 읽어보라고 주셨습니다. 다 읽고 나니 수녀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스카프를, 누구에게는 드레스 원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절했다. “아뇨,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 왜 수녀님을 힘들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의 수련생인 마리아가 말했다. “수녀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 받아요.”

우리는 수녀님께 편지를 써도 좋다는 축복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썼다. “수녀님, 수녀님께서 차려주신 점심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수녀님께서 이렇게 답장하셨다. “다시 점심 먹으러 오세요.” 그래서 매년 방학이 되면 우리는 카라간다에 계신 수녀님을 찾아갔다.

수녀님에게서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분의 친절과 다정함이었습니다. 저는 젊었고, 영적인 삶에 막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을 때라 때로는 신자들 중에서도 잔인하고 무례한 사람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녀님은 그 친절함으로 우리를 단번에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친절함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신 그분의 고귀한 삶의 결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영적으로 양육해 주셨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의 표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한다... 온 땅이 마귀의 그물에 얽매어 있으니, 항상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시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에게는 기도와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었고, 도대체 주위에 어떤 마귀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카라간다에서 첼라빈스크로 가는 저녁 기차를 탔다. 그날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고, 사람들이 배웅해 주더니 우리를 객차에 태워주었다. 우리 표는 2층 침대석이였다. 우리는 이불을 챙겨 각자의 자리에 누웠다.

나는 잠들어 있었지만, 첼리노그라드 도착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올라타고, 젊은이들이 기타를 들고 와서 우리 칸의 옆자리에 앉았다. 보니 그들과 함께 수많은 베세트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작아서 선반에 발톱으로 매달려 있고, 꼬리는 뭉쳐져 있으며,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어디로 뛰어내릴지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아래 바닥에는 베세트들이 우글우글해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꿈속에서 보고 있었는데,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가 없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웅크렸다: “제발, – 생각했죠, – 우리 쪽으로 뛰어오지 말아라!” 작은 악마 한 마리가 선반에서 떨어져 나와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내 발 사이로 기어들어오려 했습니다. 나는 다리를 오므리고 그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외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십자가로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악마들이 내게 기어오를까 봐 두려운 나머지, 나는 잠에서 깨어 눈을 떴는데 여전히 그 악마들이 보였다. 그러더니 마치 내 눈앞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힌 듯 악마들은 사라졌지만, 보니 객차 안으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었고, 기타를 든 젊은이들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 있었고, 다리를 쭉 뻗는 게 두려웠다. 아침이 되어 함께 여행하던 친구들이 일어나 아침을 먹으려 하는데, 나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두려웠다. 거기에는 악마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친구들이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나는 성체 성사 후에 악마들을 봤다고 울부짖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있던 한 경건한 여성이 나를 달래주며, 이 환상은 나의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주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땅이 어떻게 그물로 얽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 내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믿음과 겸손, 인내심을 길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개는 이랬습니다. 어머니께 무언가 여쭙보면, “모르겠네.”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영적인 수녀들이자 어머니를 잘 이해하는 수녀들을 통해 모든 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이사 니콜라예브나(어머니께서는 모든 사람, 젊은이들에게도 이름과 부친명을 부르셨습니다), 가서 누워서 쉬어라, 쉬어라.” 제가 방으로 가서 누우면, 수녀님들이 대화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저는 제 모든 생각과 의문점에 대한 답을 얻곤 했습니다. 혹은 세바스티안 신부님의 묘소에 가보라고 축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묘소에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수녀님께서 마치 우연히라도 되는 듯 서서히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나는 순종에 대해서도, 장로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수녀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우유 좀 사올까.” 나는 생각했다. “오, 수녀님이 우유를 원하시네! 가서 사 드려야지, 수녀님을 위해 선행을 베풀자.” 이를 위해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몰래 선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게에 갔지만 우유가 없었다. 중앙 상점에 갔지만 거기도 없었다. 도시 반을 돌아다녔지만 우유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련자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니?” – “어머니를 위해 우유를 찾으러 갔어요.” – “어떻게 감히,”라고 말하며, “축복도 받지 않고 나갔니? 축복을 받아야지.” 나는 수녀님께 다가가 “우유 사러 가게에 다녀오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수녀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가라.”라고 하시며 돈을 주셨다. 가게에 도착하니 마침 유제품이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수녀님께서 주신 돈으로, 코페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그 금액만큼을 샀다. 수녀님께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또 이런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 9월 21일, ‘표징’ 성모 성화 축일날, 이 축일이 어머니께서 오랜 세월을 보내시고 수녀 서원을 하신 즈나메노-수호틴스키 수도원의 주보 축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나는 꽃다발을 사서 어머니께 드리고 축하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께서 수련생에게 말씀하셨다. “마리아, 이걸 받아서 꽃을 꽂아 줘.” 마리아는 꽃다발을 받아 ‘스콜로포슬니차’라는 큰 성화 상 옆의 성스러운 구석에 꽂아 두었다. 저는 수녀님 곁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자, 카라간다 사람들 중 아무도 수녀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나는 축하해 드렸구나!” 그런데 수녀님께서 소리 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냐! 그 꽃들 치워! 가져가서 난로 위에 올려놔!” – 정말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복도로 나가서 울음을 터뜨렸다! 내 자만심과 허영심을 그렇게나 자책했다! 울음을 그치고 진정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마리아, 꽃을 이리 가져와.”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나를 꾸짖으시고 겸손하게 만드셨다.

저는 어머니 곁을 10년 동안 드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뵈는 것은 1975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92세셨어요. 어머니는 매우 아프셨고, 수중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천자술을 통해 체액을 빼내곤 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른 도시, 특히 첼랴빈스크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몇 달씩 어머니 곁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방문객이 떠나면, 어머니는 수녀를 부르셨습니다. “마리아, 내 다리를 들어 올려 줘, 자러 갈게.”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스스로 다리를 들어 침대에 올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방문객이 많아서 수녀님은 우리를 수녀님의 방 바닥에 재우셨습니다. 밤에 나는 심한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수녀님의 침대를 바라보니, 수녀님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닥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물었습니다. “어머님, 잠을 안 주무셨나요?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는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악마들은 그냥 두고 가지만, 나는 그들과 계속 싸워야만 하거든.”

어느 날 아침, 어머니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밖으로 나가 봐. 마당에 여자가 서 있네. 내가 점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해라.” 그 여자는 나중에 신자가 되었고, 지금은 어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찾아뵙지 못한 것을 무척 후회하고 있다.

어머니께서는 집안에 어떤 동물도 키우지 않으셨지만,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고양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찻잔으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는데, 고

양이들은 어머니께 순종적이었고 유난히 영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께서 노년에 정신이 혼미해지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그니아 수녀님은 지혜로운 노녀로, 고양이들을 통해 인간의 죄를 많이 폭로하셨습니다. 어느 날, 세르기예프 포사드에서 온 두 명의 신학생이 방학을 맞아 카라간다에 왔습니다. 수녀님은 그들이 오기 전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이들을 방으로 데려와.” 마리아가 두 마리의 고양이를 데려오자, 고양이들은 탁자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새 수건으로 덮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수건으로 덮어주자, 고양이들은 계속 누워 있었다. 신학생들이 도착해 십자 성호를 긋고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이 탁자 쪽으로 다가와 “무슨 난장판이야, 탁자 위에 고양이들이 있다니!”라고 말하며 고양이들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이 막으며 말했다. “건드리지 마, 이 녀석들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겸손함을 시험하는 거야.” 신학생들이 수녀님 곁에 있는 동안 고양이들은 순순히 식탁 위에 누워 있었고, 그들이 떠난 후 고양이들은 일어나 방을 나갔다.

어머니의 집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우연한 일로 보일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그 일들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첼라빈스크에서 게오르기라는 청년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 무렵은 겨울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와 머리에 쓰고 있던 토끼 모자를 벗어 침대 위에 놓았다. 갑자기 수녀님의 고양이가 모자 쪽으로 다가와 침대 위를 굴리더니,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수녀님의 시녀가 모자를 주워 들고 고양이를 꾸짖었다. 게오르기 씨는 수녀님을 뵈고 나서 교회로 가서 현관 옷걸이에 코트와 모자를 걸어 두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 옷을 입으려 했더니 옷걸이에는 코트만 걸려 있고 모자는 도둑맞은 것을 발견했다.”

돌린카에서 스무 살짜리 소녀 타티아나가 수녀님을 찾아왔다. 수녀님이 타냐를 천국으로 보내 주었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 카라간다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전한다. 어떤 이들은 타냐에게 선원인 약혼자가 있었고, 그녀는 그와 만나며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다른 이들은 수녀님이 타티아나가 알고 지내던 청년들에게서 마음을 돌리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약혼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 약혼자는 배에서 선장으로 복무 중이며, 자신의 신부인 타티아나를 수녀원 원장처럼 배에 태우고 항해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목주를 선물했다. 어머니는 이 약혼자의 아름다움을 묘사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과 일치했다.

어쨌든 어머니는 1년 후인 8월 2일을 “결혼식” 날짜로 정해 주셨다. 아버지는 타티아나에게 예쁜 베일을 사 주셨지만, 신발과 웨딩드레스는 어머니께서 사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 말에 어머니께서는 타냐에게 서둘러 베일에 곁들일 밀랍 화관을 사 오라고 시켰다. “이제 때가 다 되어 가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결혼식을 위해” 양초 세 개를 주었다. 타티아나는 의아해했다. “왜 어머니께서 결혼식을 위해 양초 세 개를 주셨을까? 어디로 나를 준비시키는 걸까? 내 생각엔 결혼을 준비시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디로인지는 모르겠다.”

8월 2일,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수녀 지망생 마리아는 교회에 가려고 준비 중이었다. “마냐! 마냐!” 수녀님이 그녀에게 소리쳤다. “타냐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 빨리 교회로 달려가서, 살해당해 세상을 떠난 타티아나의 명복을 빌어달라고 전해!”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타티아나는 석탄을 싣고 있는 트레일러가 달린 덤프트럭을 추월하던 버스를 타고 있었다. 추월하는 과정에서 트레일러가 덤프트럭에서 떨어져 나와 버스를 들이받았다. 모든 승객은 살아남았지만, 타티아나 혼자만 사망했다.

그녀는 흰 베일과 밀랍 화환을 쓴 채 장사 지냈고, 관의 세 면에는 타티아나의 결혼식 촛불이 타고 있었고 있었다.

### 니콜라이(카르포프) 수도원장, 슈치인스크

아그니야 수녀님과는 1973년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으로, 교회와 거리가 멀었고, 그녀를 찾아가 다투기 위해 갔었습니다(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투슈카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제 영혼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90세에 가까운 노부인이었지만, 그 눈은 너무나 맑고 청명한 파란 눈이었습니다. 어디서도 공부한 적 없고, 14살 때부터 수도원에서 살아온 할머니가 될 알겠으며, 수도원 생활 이후의 삶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모든 질문에 그녀는 교육받은 사람조차 그녀처럼 대답할 수 없을 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이건 군대에 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차를 대접해 주신 뒤 교회로 보내시며 “교회에 가서 기도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글썄요, 어릴 때 엄마가 우리를 교회에 데려가 성찬식을 받게 해 주셨을 뿐, 그 후로는 교회에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사람이 별로 없었고, 할머니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시더군요. 마치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란 말인가요? 그래서 기둥 뒤에 서서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수녀님 곁으로 갔습니다. 수녀님은 저에게 차를 대접해 주시고, 간식을 주며, 자신의 과거 이야기—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수도원에 들어왔는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귀족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고귀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항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다고 느끼셨대요. 그분은 기둥 뒤에 서서 가만히 서 계셨죠.” 나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해 물었다. “그분의 성함이 뭐죠?” – 역사 속의 어떤 익숙한 인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수녀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수녀님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다.

수녀님은 제가 알마아타에 가서 요셉 주교님을 만나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녀가 말하길, “훌륭한 주교님이 계십니다.” 수녀님은 그분을 따뜻하게 대하셨고, 그분도 수녀님을 매우 존경하셔서 카라간다에 오실 때마다 항상 수녀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큰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다른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입대하기 전까지 저는 주교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군대에서 저는 고작 1년만 복무했고, 제대하자마자 자고르스크로 가서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여권도 아직 받지 못한 채 카라간다로 가서 어머니께 학업에 대한 축복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 댁에는 알마아타에서 온 요시프 주교님의 지인인 예브스톨리아 이바노브나 레

슈초바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분이 알마아타로 가는데, 너도 그분과 함께 주교님께 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어머니께서 저를 그곳으로 보내시니 어쩔 도리가 없어,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제 앞에 평범한 사제복과 후드티를 입은 노스승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대주교님을 다른 대주교님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전까지 대주교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교님의 세심한 시선을 마주했는데, 주교님께서서는 저에게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파악하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토록 경건하게 대하시던 이 노장로님을 저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약간 흥분해 계셨습니다(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주교님의 시종이 곧 떠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잠시 머물며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가 떠날 때, 주교님께서서는 “혹시 또 저를 찾아오시겠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첼랴빈스크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여권을 수령한 뒤, 바로 그곳에서 모스크바로 향할 생각으로 다시 카라간다로 왔습니다. 막 그곳에 도착했을 때(아침 10시쯤이었다), 발야 베레테니코바가 들어오더니 나를 참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그녀는 나보다 조금 앞서 어머니 댁에 다녀온 뒤, 무슨 일로 주교님께 전화하려고 공중전화 부스로 갔었는데, 주교님께서 “어머니 댁에 있는 그 사람은 어디 있나? – 웬지 이상하게 표현하셨죠. ‘저 사람은 어디 있나? 내게 오게 해, 내가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해.’ 그러자 발야가 말하길, ‘그 사람은 없어요. 오래전에 우랄로 떠났어요. 방금 어머니 댁에서 왔는데, 거기엔 없어요.’ – ‘아니, 거기 있을 거야, 거기. 그리고 어머니께 말해,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고 해.’ 그러자 그녀가 들어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 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주교님께서 나를 오라고 요청하신다고 전한다. “음, 신의 섭리가 무언가를 바꾸고 있군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도 알마아타로 가야 할 것 같군요.” 저는 자고르스크로 마음을 정했는데, 이젠 알마아타라니, 이러니저러니 하네요. “음, 어머니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렇게 되게 하소서,”라고 제가 말했고, 이를 뒤에는 이미 알마아타에 있는 주교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매우 상심해 계셨는데, 개인 시종이 떠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주교님께서서는 이미 늙고 쇠약해진 노인의 모습이셨습니다. 보아하니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주교님께서서는 “제 곁에서 지내세요.”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교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날까지 여덟 달 동안 그분 곁에서 지냈다.

바로 이 분들, 요셉 주교님과 아그니아 수녀님은 사람의 영혼을 자신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은총을 베푸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나, 마음이 동요되어 인생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가 이 분들을 만나게 되면, 즉시 마음이 진정되고, 찾던 것을 찾았다는 것을 바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은 아그니아 어머니와 요셉 주교님 모두에게 있었으며, 이는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는데, 아그니아 어머니를 보고 그분의 선행을 목격하니, 비록 그 당시 저는 교회와 거리가 멀었지만 그분을 본받고 어떤 면에서는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시프 주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직접 돌보아 주셨습니다.

정말 강렬한 인물이셨어요. 주교님께서 남기신 인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 물었습니다. “이반 미하일리치가 돌아가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분의 세속 이름은 이반 미하일로비치였습니다.) – “네, 사실입니다,”라고 제가 대답했죠. – “아-아-아,” – 수화기 너머로 깊은 아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교양 있는 분이라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고, 그 표현은 제게는 그리 문학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마도 교회와 거리가 먼 분이었을 텐데, 어쩌면 그저 인생에서 한 번쯤 길을 스쳐 지나갔던 사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깊은 아쉬움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요시프 주교님과 아그니아 수녀님은 서로를 매우 깊이 존경하던 두 분이셨다. 누가 누구를 더 존경했는지—주교님이 아그니아 수녀님을 더 존경하셨는지, 아니면 아그니아 수녀님이 주교님을 더 존경하셨는지—나조차도 말할 수 없다. 어느 날 나는 주교님을 통해 카라간다에 계신 수녀님께 며칠 동안 다녀오려고 했다. 그때 주교님께서 저에게 수도 생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출가시켜 주고 증명서도 줄 테지만, 이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공개될 거야.” 저는 거절했습니다. 수도 생활은 제게 맞지 않고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교님께서 아마도 제가 단순히 주교님께 출가식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내게서 받고 싶지 않다면, 아그니아 수녀님이 너를 출가시켜 주게. 가거라, 그녀가 해 줄 테니, 내가 직접 서명해 주마.” 나도 이것을 거절했다. 비록 수녀들이 남자를 출가시킬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

아그니아 수녀님은 주교님께 그분께 총대주교직이 제안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수녀님은 이를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주교님께서 즉시 “수녀님,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수녀님을 교회에서 파문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교님께서 실제로 그 후 총대주교좌 후보로 지명되셨지만,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삶과 자신의 삶 모두에서 아주 많은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아그니아 어머니를 만나기도 전부터 그녀를 찾아오곤 했는데, 아그니아 어머니는 제 불신이 사라지고 제가 심지어 성직에 입문할 것까지 예견하시며 저를 위해 구세주 성화를 전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통찰력은 때때로 마치 우연히 드러나곤 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어느 날 아주 가난하고 병이 심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콜라이 미할리치(저는 당시 22살로 아직 어렸지만, 어머니께서는 제 이름과 부친명을 부르셨습니다), 니콜라이 미할리치, 저기 달걀이 있잖아, 그 여자에게 달걀을 줘.” – “몇 개요, 수녀님?” – “그거 몇 개 있는지 직접 세 보세요, 세 보세요.” 제가 세어 보니 열다섯 개였습니다. “자, 그럼 그분께 드려요.” – “그럼 저희는요?”라고 제가 묻자, – “저희 건 가져다줄 테니 걱정 마세요.” 두 시간 정도 지나자 다른 여자가 와서 달걀을 가져왔다. “어머니, 달걀 받아요.” “니콜라이 미할리치, –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 받아, 몇 개 있는지 세어 봐, 세

어 봐.” 내가 세어 보니 열다섯 개였다. 바로 그런 일이었지. 겉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깨닫기 시작하면... 아니면 또 다른 때: 제가 첼랴빈스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말했어요. “어머니, 집에 전화해서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야겠어요.” “글쎄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기차역에서 전화하세요. 예배하러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역에서 전화하세요.”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죠. “역에서 언제 전화를 하라는 거지? 나한테는 표도 없는데. 가서 지금 전화해야겠다.” 공중전화 부스로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다른 공중전화 부스로 갔는데,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가 안 잡혔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뭐 소용없겠지’ 싶어서 어머니 댁으로 가기로 했다. 도착했을 땐 너무 추워서 어머니께 아무 말도 못 하고, 차 한 잔 마신 뒤 떠날 준비를 했다. 기차역에 도착한 건 기차가 출발하기 15분 전, 꽤 늦은 시간이었다. 역 안을 걷다가 보니, 통화소가 문은 열려 있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그곳으로 뛰어들어 전화를 걸고, 두세 마디 말을 나눈 뒤 기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데 말 그대로 두세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그니아 어머니와 요시프 주교님은 제 삶을 바꿔 놓으신 두 분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은총과 겸손, 인내, 그리고 기도로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성 세라핌이 말씀하셨듯이, “평온한 마음을 얻으라. 그러면 네 주위에 있는 수천 명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들 주위에는 정말로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그니아 수녀님은 1976년 3월 17일, 스키마를 받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직전의 병에 걸리셨을 때, 40일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셨고,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시며 두 개의 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3월 17일, 성찬식을 마친 후 아그니아 수녀는 평온하게 주님께 영혼을 바쳤다. 수녀들이 와서 그녀의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혔다. 그들과 함께 온 사람은,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카라간다에서 수감중이던 시절 그를 찾아왔던 네 명의 수녀 중 마지막 생존자인 페브로니아 수녀(수녀명은 테클라)였다. 아그니아 수녀를 입히던 중, 페브로니아 수녀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아그니아 수녀가 그녀를 슬픔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상의 궁전으로 데려간 것이라—수녀들은 그렇게 해석했다. 두 분은 미하일롭스키 묘지에 나란히 안장되었다.

## 스키모나히냐 아나스타시아

(수녀 유리아가 수녀 아나스타시아의 말을 기록함.)

아나스타시아 이바노브나 세벨렌코는 1888년 비테브스크 주에서 구두장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매우 힘들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욕을 하다가 주먹다짐 끝에 살해당하며 생을 마감했다. 아나스타시아 수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위해 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에게 “이제 아빠는 욕하지 않으실 거예요”라고 말하며 울지 말라고 달랬다고 회상했다. 어머니에게는 여덟 명의 자녀가 남았는데, 모두 어린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해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차분하셨고 매우 독실하셨다. 어머니는 아나스타시아를 학교에 보냈지만, 그녀는 공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읽기를 하라고 불렀을 때,” 어머니는 회상했습니다. “내가 외우고 있던 시 ‘마당에서는 서리가 바스락거렸지...’가 나왔어요. 책을 보며 아주 잘 읽었더니

바로 2학년으로 승급시켰어요. 하지만 다음에 다시 불려갔을 때, 낯선 시가 나왔어요. 저는 그 시를 읽지 못했고, 다시 1학년으로 내려가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셨다. “예전에는 어느 가정마다 ‘어르신’이 계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곧 법이었죠. — 엄마, 저기 빛이 비치는 곳은 뭐예요? — 특별한 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 저, 그분들을 볼 수 있을까요? — 아니, 그분들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갑자기 페티아가 달려오더라. — “엄마, 바보 페티아가 달려와요.” —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야.” — “친구들이 그를 그렇게 부르며 돌을 던져요.” — “그 아이들이야말로 바보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페티아는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 바보 행세를 하는 거야.”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바보처럼 살아왔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성의 일부를 거두어가시니.)”

아나스타시아가 열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여동생인 이모가 그녀를 데려가 장사일을 돕게 했고, 열네 살이 되자 오빠가 그녀를 와인 공장에 취직시켜 설거지를 하게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3년 동안 일했다. 그 후 아나스타시아는 집을 나갔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내어 집으로 데려왔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물을 길으러 갔다가, 우물가에 양동이를 두고는 영원히 방랑의 길을 떠났다. 열여덟 살의 젊은 처녀는 머리를 누일 곳도 없이 방황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어머니는 회상했다. “잠잘 곳을 찾아야 했고, 아침이 되면 다시 길을 떠나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죠. 특히 어느 날은, 기억나는데, 날씨가 춥고 더러웠으며 비가 쏟아져서 온몸이 뽀뽀 얼어붙을 지경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다 거절당했죠. 마음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들판에서 작은 오두막을 발견해서, 머리는 오두막 안에 넣고 몸통은 길거리에 남긴 채로 그날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교회에 갔어요. 교회 현관에 발을 들이자마자 신부님이 “오, 지극히 달콤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라고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주님, 주님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곧바로 집사가 다가와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그 후로 모두 나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시험하시며, 슬픔을 통해 “방백이나 사람의 아들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그 후 이바노프스크 주 슈야 시에 있는 이모 댁으로 떠났다. 이모는 나를 한 공장주의 하녀로 보내주었다. 일은 쉬웠지만, 그곳에서 두 주를 지낸 뒤 주인의 괴롭힘 때문에 그만두었다. 그 후 이모는 암브로시이 장로의 영적 아들이었던 한 지주 댁에 나를 소개해 주었다.

그곳에서 나는 6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다. 할 일은 정말 많았지만, 나는 잘 해냈다. 정말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 주인 부인은 정오까지 잠을 잤다. “어떻게, — 생각했죠, — 그분은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걸까?” 저는 울면서 교회로 달려가, 현관에서 거지들에게 돈을 조금씩 나눠주어 모두에게 닿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몫을 다했습니다. — 저를 대신해 기도해 줄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엄청난 슬픔이 밀려오고, 깊은 낙담이 저를 사로잡아 살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설마,” 하고 생각했죠, “평생을 이렇게 보내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슬퍼하는 이들에게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루피나라는 수녀 한 분이 옴티나 푸

스티니의 장로님들을 찾아가 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원수가 돌아가고 싶은 생각으로 저를 방해했지만, 간신히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즈드라 강에 다다라 한 발을 나룻배에 딛자마자, 곧바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나톨리 신부님께서 제가 예전 곳에 머물도록 축복해 주시고, 집주인에게 저를 사랑으로 받아주도록 편지를 써 주셨습니다. 집주인은 저를 받아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2년을 더 지냈습니다. 그 후 폴로츠크 수도원으로 가서 수녀 서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한 수녀와 다투게 되었다. 그 수녀가 어느 날 끓는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가던 참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주전자를 빼앗아 옆으로 내팽개쳤다. 모두들 그런 행동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수녀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나를 데게 하려 했다고 고백했다.

수도원에서 2년을 지낸 뒤 방랑을 떠났다. 오펜나 푸스티니에서 아나톨리 장로님이 유로드(성스러운 광인)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분은 나에게 두 명의 동행자를 주시고 티호노바 푸스티니로 가라고 명하셨다. 조금 걷다 보니 끔찍한 이질에 걸리고 말았다. 걸을 수 없게 되어 숲속에 누워 있는데, 모자도 쓰지 않은 아버지가 걸어오시며 “여기 머물지 말고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오두막에 간신히 도착하자마자, 나는 문턱에 앉았고, 눈이 감기더니 의식을 잃었다. 그러자 갑자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스쳤고, 손 대신 강력한 날개가 생겨 양쪽으로 뻗어 나갔다. 영적인 눈이 열리자, 수많은 악마들이 나를 찢어발기려 하며 내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성찬식에 참여한 신자였기에 몸통에 십자표를 그리고 날개를 가로로 펼쳤고, 악마들은 나를 건드릴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가장 으름가는 악마가 카드 한 뭉치를 꺼내 내 얼굴을 때리려 했으나, 겨우 스치기만 했다. 그때 나는 카드 게임을 했으면서도 그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아침이 되자 나의 동행자들은 티호노바 수도원으로 떠났지만, 나는 일어날 수 없었다. 잠시 후 일어나서 가려고 했으나, 다시 헛간에서 얼굴을 소똥에 파묻은 채 넘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아마도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탓인지, 내 몸에 묻은 것들이 모두 반쯤 말라 붙어 있었다. 그때 환상이 보였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성모 마리아—그리고 구유 아래에는 수도사이자 이에로디아콘 파벨이 있었다(내가 그를 본 건, 그가 이 세상에 없었을 때였다). 그 후 사람들은 나를 씻겨 주고 음식을 먹여 주었고, 나는 게오르기 체크랴코프스키 신부님이 사시던 마을로 향했다. 어두워졌다. ‘어디서 하룻밤을 지내지?’ 하고 생각했다. 교회로 가서 문을 밀어보니 잠겨 있지 않았다. 나는 기뻐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가 잠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겹옷을 벗고 긴 소매가 달린 하얀 속옷만 입은 채로 남았다.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침에 경비원이 와서 온통 흰 옷을 입은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유령이 아닐까 싶었던 것이다. 그는 도망쳤다가 게오르기 체크랴코프스키 신부의 형제와 그의 젊은 아내를 데리고 돌아왔다. 그들은 나를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갔다. 가는 길에 에서 여권을 요구했다. 나는 그들에게 여권은 없지만 종이 한 장은 있다고 말했다. (제가 폴로츠크 수도원을 떠날 때, 한 복녀께서 수도원에서 서류를 받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그 서류를 읽어보더니, 젊은 아내가 “오, 복녀야!”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눈물을 흘리셨죠.) 저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서 고기가 들어간 보르시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정성을 보고, 나는 보르쉬를 전부 먹어 치웠다. 그 후 그들은 나를 게오르기 체크랴코프스키 신부님께 데

려갔고, 나는 그분께 방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털어놓았다. 신부님은 “그건 머리 위에 지붕이 없기 때문이야.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있어도 좋아.”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럴 리가! 금세 마음이 가벼워져서, 나는 벌떡 일어나 다시 방랑을 떠났다. 걸고 또 걸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날씨가 추웠고, 이미 눈이 쌓여 있었는데 옷차림이 얇아서 몸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누워 있고 싶어서 거의 누울 뻔했다. 두 남자를 보고는 그들로부터 도망치다가 길로 나왔다. 가장 먼저 보이는 오두막으로 뛰어 들어갔더니, 그곳의 구두장이가 몸을 녹여 주고 음식을 대접해 주었다.”

오텐나에서 살았을 때,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늙은 수도사 네크타리우스의 수련자였을 무렵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찢어진 빨간 치마를 입고 다녔다. 때로는 주님께서 누군가의 이러저러한 악행을 드러내시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질타했고, 그 때문에 매를 맞기도 했다. [특히 카라간다 주민들이 전하는 수녀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알려져 있다. 어느 날 밤샘 기도 중에 그녀는 파레미아를 읽고 있던 수도사에게 달려가 가슴을 드러내고, 그의 팔을 잡은 채 강단으로 함께 걸어갔다. 또한 주님의 변모 축일 성화 행렬 중에 나무에 올라가 성직자들에게 사과를 던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수도원이 곧 폐쇄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수녀님을 결코 때린 적이 없었고, 수녀님이 장로의 거처에 들어갈 때만 그녀의 발을 밟곤 했다.

“나스티야, 기억나니?” 어느 날 신부님이 회상하길, “네가 장로님 침대 밑에 숨었을 때, 내가 오텐나에서 널 한 번 밀쳐버렸던 거? 계단을 굴러 떨어졌지. 그런데 넥타리 신부님이 내게 말하더군. ‘자, 스테판, 그 말 안 듣는 애를 밀쳐버려. 봐, 숨어버렸잖아! “그녀를 단호하게 다스려라! 어차피 너는 성자 행세를 하게 될 테니, 다른 길은 없다.” 그러고는 신부님이 잠시 침묵했다가 이렇게 말했지. “그때 네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 하지만... 순종이어야 했지.” 그런데 어머니는 성자 행세를 하고 싶지 않아 울음을 터뜨렸어. (그녀는 미인이었지: 뺨은 붉고, 뺨은 머리는 길었어.) 그런데 네크타리 신부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서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느 날 숲에 가서 열매를 따고, 앉아서 조금 먹은 뒤 목이 무척 마르더라. 갑자기 땅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는데, 물은 맛있고 맑았다. 나는 그 물을 통에 담아 마셨다. 그리고는 숲속을 거닐며 온 힘을 다해 노래를 불렀다.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다시 목이 마르자 그 장소로 갔는데, 샘물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어느 날 오텐나에서 나는 신발을 벗고 얼음 위를 뛰어다녔다. 친구가 다가와 신발을 신으라고 말렸지만, 나는 계속 뛰어다녔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가서 각 성화상 앞에 세 번씩 절을 하러 갔다. 그러자 내 다리가 마치 나무처럼 굳어 버려 굽혀지지 않게 되었다. 이를 한 노승이 눈치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물었다. “왜 네 다리가 굽혀지지 않는 거니?” 나는 절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고 말했더니, 그분은 “아니야, 네가 다리를 감기에 걸렸으니 아플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무척 슬퍼했고, 다리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순식간에 미녀에서 흉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슬픔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때 나는 스물여섯 살이었다. 가을에 오텐나 근처 숲에서 길을 잃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나는 맨발이었다. 오랫동안 출구를 찾다가 밤이 되어 작은 수도원에 도착해 주철 난로 위에 앉았다.

수도사들이 나를 보고 오두막으로 초대했다. 나는 수도사들에게 가지 않고 수도원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니 “누구세요?”라고 묻더라. 나는 정체를 밝히지 않고 제재소로 갔다. 그곳에 경비원용 오두막이 비어 있었지만 난방은 되어 있지 않았다. 난로 위에 올라갔지만 몸을 덮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아침까지 지내다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나무처럼 굳어버린 내 다리, 특히 종아리 부분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아프지는 않았다. 아팠던 건 1964년 카라간다에서뿐이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을 때, 칼루가에서 한 수녀님 댁에 머물렀다. 몸이 매우 아파서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았다. 어느 날 아침, 주인장이 교회에 가신 사이, 나는 마치 성모 마리아 성화 앞에서 기도문을 읽는 것처럼 느껴졌고, 성소 안에 계신 성모 마리아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았다. 그 후 보니, 성모님께서 흰 사도복을 입고 식탁 곁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성상함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성모님께 말했습니다. “성모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때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수를 프로스포라와 함께 마셔라.” 그리고 다시 성상함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 아나스타시아는 항상 세례절에 물을 아주 많이 비축해 두셨습니다. 카라간다에서는 물을 동그랗게 얼려서 일 년 내내 모두에게 세례절 물과 프로스포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박해의 시절에 어머니는 수용소에 계셨습니다.

석방된 후, 그녀는 코크체타브로 이송되어 정착하게 되었다. “집집마다 돌아다녔다. 한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우리한테는 빵이 없어’라고 했다. 하지만 감자와 크바스로 배를 채워주었다. 다른 집으로 갔더니, 거기서 나를 바로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가려 했다. 그 집의 속옷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웃들이 나서서 말려주어 나는 풀려났다. 계속 걸어가다 보니 세 번째 집에서 또 붙잡혔어요. 밀 자루 하나가 사라졌는데, 또다시 저를 의심했죠. 큰일 날 뻔했지만, 한 아저씨가 나서서 말려주셔서 풀려났어요. 사실 저는 감옥에서 나온 후 정말로 불량배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밝은 밤이었는데, 어디서 자야 할까요? 어떤 수녀님 댁으로 갔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그분들 마당에 누워 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저를 두툼하게 덮었지만, 저는 따뜻했습니다.”

카라간다에서는 경비실에서 살았는데, 모두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걸 좋아했지만 정작 본인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누가 무엇을 주든 마치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모든 것을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잡동사니를 보관하던 욕실에서 잤다. 나중에는 추운 구석에 여러 가지 뭉치를 쌓아 올려, 그 위에 오래 누워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저녁부터 잠을 자고, 밤에는 일했다. 침대 밑을 치우고, 크바스를 끓였다. 그녀가 끓인 크바스는 아주 맛있어서 모두에게 나눠주곤 했다. 때로는 화를 내며 어떤 이유로든 몇몇 자매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기도 했다. 옷차림은 한쪽 발에는 갈로시, 다른 쪽 발에는 발렌크를 신었다. 겨울에는 갈로시와 부츠를, 여름에는 발렌크를 신는 일이 자주 있었다. 드레스는 항상 더러웠는데, 깨끗한 것을 입어도 금방 더러워져 버렸다. 머리에는 스카프나 헝겊을 두르고 있었는데, 거의 항상 흐트러져 있었다. 그녀를 단정하게 정리해 주려고 하면 “저리 가!”라고 쫓아냈다. 오직 성찬식을 앞두었을 때만 깨끗한 옷을 입고 좀 더 단정하게 행동했다.

어머니께서는 예지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무언가 무거운 짐이 내게 얹혀져, 온 머릿속이 생각들로 가득 차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세게 치며 “드디어 찾았구나? 난 밤새도록 널 찾고 있었단다!”라고 아나스타시아 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기도를 담은 손길로 그녀는 악마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 번 제 마음속 생각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께서 다가오셔서 말없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다. 내가 말했다.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무거워요.” – “신부님이 방에 혼자 계시니, 빨리 그분께 달려가라.” 신부님께 가니, 신부님께서 미소 지으며 물으셨다. “무슨 일이니?” – “마음이 무거워요,” –라고 대답했다. 신부님은 손으로 내 가슴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사탄이, 내 아이야, 너를 괴롭히고 있구나. 곧 지나갈 거야.”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지나갔다.

### 1970년. 종려주일

성찬예배 도중 한 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아지셨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밖으로 나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신부님의 부인은 왼쪽 성가대석에 앉아 계셨고, 우리에게 그 할머니를 성가대석으로 모셔다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를 자기 곁에 앉히시고, 할머니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셨습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할머니는 일어나 신부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증상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께서 병에 걸리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종종 이웃들의 병을 대신 짊어지곤 하셨습니다. 신부님께는 힘든 일이었고, 심지어 한 번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더니, 이제 내가 이 고통을 겪게 되었구나.”

1970년 8월, 신부님께서 생전에 허락하지 않으셨던 교회 경비실을 허물기로 계획했다. 내일 작업자들이 와서 철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우리 모두는 신부님의 축복이 어겨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은 전날 심하게 아프셔서 문을 닫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렇게 밤새도록 누워 있다가 낮 3시가 되자 벌떡 일어나 방에서 뛰쳐나오며 말했습니다. “자, 다 괜찮아졌어요. 좀 나아졌어요.” 바로 그때 마을 이장과 담당관이 들어왔고, 담당관은 경비실을 허물거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물론, 마투슈카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 우연일까, 기적일까

7월, 성 세르기우스 라도네즈키의 유해 이송 축일을 앞두고,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성자께서 계시는 돌린카 마을의 은둔처로 가자. 그곳은 신부님께서 유배 생활을 하셨던 곳이다.” 우리는 이 축복을 그리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교회 페인트칠이라는 힘든 일을 하고 있어서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라며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녀님은 “바로 그곳에서 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집보다 머리를 더 맑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세르기우스의 축일 아침, 날은 흐리고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기도회가 시작되자 비가 양동이로 퍼붓는 듯 쏟아졌다. 우리 모두는 기뻐하며 “이제 가지 않아도 되겠네, 쉴 수 있겠네.” 라고 말했다. 기도회가 끝난 후, 이제 수녀님께서 우리에게 여행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희망을 품

고 수녀님께 찾아갔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수녀님은 곧바로 “자, 어떻게 할 건가요? 가실 건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망설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은 뒤 “축복해 주시면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 “지금 당장, 한 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떠나세요.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마지못해 우리는 짐을 챙겨 출발했습니다. 다만 먼저 세바스티안 신부님의 무덤에 들러 축복을 받았습니다.

돌린카에 도착한 우리는 목적지인, 신부님이 수감 생활의 마지막 몇 년을 보내셨던 분소로 향했다. 숲까지 꽤 오랫동안 걸었고, 그 후로는 숲속을 걸었는데,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렸다. 우리는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했고, 수감자들이 심었던 나무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가지런하게 가로수길을 이루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중에는 우리 신부님도 계셨다. 그 후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맛있게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길을 이어갔다. 우리는 쉴 새 없이 내리던 비를 잊고 말았다. 기분이 아주 좋았고, 마음속에는 따뜻함과 기쁨이 넘쳐났다. 우리는 걸으며 신부님을 떠올렸다. 발 밑에는 웅덩이와 진흙이 있었지만 걷기는 쉬웠고, 마치 걷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 같았다. 저녁 5시가 되어 신부님이 계신 병동에 도착했다. 비가 금세 그치고 해가 빠져나왔는데, 수감자들이 심어 놓은 숲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정말 멋져 보였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비를 맞으며 지냈음에도 우리는 완전히 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만족했고, 기뻐하며, 마음이 가볍고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늦은 저녁에 집에 도착해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직접 너희와 함께 걸으시며 비를 피하게 해 주셨다.” 우리는 모두 그런 휴식을 허락해 주신 어머니께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어느 여름날, 니즈니야 거리에 신부님과 함께 살던 수녀들이 밭에 가서 감자를 캐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어머니도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큰 자루를 가져와 그 안에 갈로시, 스카프, 스웨터, 양말 등을 넣었습니다. 자루를 꽉 채웠습니다. 수녀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루를 메고 가기 힘들 텐데요.” – “내가 메고 갈 테니, 가자!” 밭에 도착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금세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입혀 주시고, 있는 대로 덮어 주시며 자루 속 물건을 모두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께 감사드렸습니다.

## 타이시아 그리고리에브나 포미나

아나스타시아 수녀님과 저는 매우 가까웠는데, 그녀는 저에게 신부님보다 더 가깝고 친근한 존재였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은 진정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호통을 치기도 했지만, 저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아껴 주셨습니다. 그녀는 성자처럼 사는 길을 걸었기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보십시오, 그녀의 친오빠(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았음)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무척 사랑했지만, 그녀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자 모두 그녀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친가족들을 안타까워하셨고, 그녀의 여동생 마리나는 신부님이 계실 때 이곳에 세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녀의 오빠를 찾아가 그를 만났고(그는 그녀를 닮았는데, 그녀는 젊었을 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빠에게 성찬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제정신으로 사고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은밀히 처리하며, 자신의 지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때로는 그 때문에 구타를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심지어 엄격하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어머니께서 우리 자매 중 한 명이 허락 없이 무언가를 가져간 것을 꾸짖으시던 때입니다. “너는 이러니저러니, 네 손이 마르기를 바란다!” 그때 제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 번은 허락 없이 어머니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내 구석이고, 이건 내 소유물이니, 원하는 건 뭐든지 가져가도 돼. 나한테는 말하지 마.” 어머니께서는 그 자매를 어떻게든 겸손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자매에게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 가져다주든 그녀는 다 필요로 하고 다 가져가지만, 5분만 지나면 이미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나눠주곤 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이나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보다 더 아낌없이 챙겨주었다. 누군가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챙겨주는데, 저 사람에게는 어떤 슬픔이 닥쳐서 아무리 기뻐해도 기뻐할 수 없을 지경이야”라고 투덜대곤 했다.

혹은, 자, 식탁에 앉았을 때. 어머니께서는 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접시를 밀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며, 마치 직접 앉아 드시는 것처럼 보이셨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께서는 굶주린 채로 계셨다. 심지어 한 번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다. “타샤야, 난 한 번도 배불리 빵을 먹어본 적이 없단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여성 특유의 병을 앓고 계셨는데,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거절하셨습니다. 비록 그 병이 어머니께 심한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말입니다. 어머니가 아직 젊으셨을 때, 이 문제로 오퍼나 푸스티니의 장로님께 상담을 구하셨더니, 그분은 “그건 네게 주어진 쇠사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 “사슬”을 생의 마지막까지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다리가 아팠는데, 심하게 부어오르고 정맥이 팽팽하게 튀어나와 있었으며, 끔찍한 경련도 겪었습니다. 그녀는 참아냈고, 어떤 약도 결코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수고이며, 평생에 걸친 위업이었습니다. 어쩌면 발렌카와 갈로시를 신은 것은 다른 신발이 그녀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께서는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목소리가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께서 모두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교회에서 쉬지 않고 일하셨고, 모든 것을 닦고 치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주 맛있는 크바스와 귀리 키젤을 만드셨습니다. 신부님을 따라 어디를 가시든 키젤을 챙겨 가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멜콤비나트로 가시면, 어머니도 뒤를 따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걸어서라도 가실 수 있었고, 신부님께서 들르시는 모든 집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신부님이 멜콤비나트에 있는 알렉산드라 소프로노브나 댁으로 가셨다. 그녀의 남편은 식도암을 앓고 있었는데, 신부님은 그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고 기도회를 집전하러 가신 것이었다. 그들이 집 안에서 기도하는 동안, 어머니는 텃밭으로 나가 일을 하셨다. 그런데 소프로노브나가 밖으로 나와 텃밭을 바라보더니 속이 메스꺼워졌다. 신부님의 아내는 이미 꽃이 피어야 할 오이들을 모두 뽑아내어, 윗부분을 땅에 꽂고 뿌리는 쪽을 위로 향하게 해 놓은 것이었다. “어머!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차라리 막대기를 들고 때려버릴 걸

!” 그런데 다음 날, 끔찍한 서리가 내려 텃밭의 모든 것이 얼어 죽고 말았다. 어머니는 미리 소프론노브나의 텃밭에서 작물을 수확해 두셨지만, 그녀에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녀가 와서 남을 위해 일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준 다음, 칭찬받지 않으려고 남의 발렌카를 신고 가곤 했다. “어머니, 왜 남의 발렌카를 신으셨어요?” – “아, 네가 발렌카가 아까워?” 팍! 한쪽 발렌카는 한쪽으로, 다른 쪽은 다른 쪽으로 던져버리고는 맨발로 걸어갔다. 그녀에게 고마워해야 할지, 꾸짖어야 할지? 모두 어리둥절해했다. 정말 난감한 일이었다.

또 다른 일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머니께서 교회에 가시면서 사람들을 밀쳐내시더라고요. 타마라 어머니 곁에 다가가 의자에서 밀어내시며 “자, 일어나, 아픈 사람을 앉혀야지!”라고 하셨죠. 늙은 타마라 어머니를 쫓아내고, 그녀보다 훨씬 젊은 리자 이모를 앉히셨어요. 자매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자 이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렸습니다.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거기서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녀님은 수술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그 사람이 죽을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젊고 건강하던 리자 이모는 반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타마라 어머니는 그 후로도 15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이한 일로 보이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나름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야말로 사랑 그 자체였고, 이제 더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 안토니나 이바노바

모스크바에서 신부님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차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미하일롭카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길은 상태가 나빴고, 울퉁불퉁하며 진흙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 바퀴가 헛돌며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이 오시는데 구덩이에 빠지셔서 빠져나오지 못하십니다.” – “자, 가서 끌어내자.” –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입으시고 삽을 어깨에 메셨습니다. 차에 다가가 살펴본 뒤, 삽으로 차체 뒤쪽을 툭툭 두드리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아저씨, 타서 가, 왜 거기서 뭘 파고 있는 거야?” 운전기사는 그녀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차를 시동 걸 생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차 시동 걸어!” – 이번에는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명령조로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운전기사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차는 구덩이에서 튕겨 나왔다. 운전기사는 멍해 있었다. 그는 손님들을 교회까지 데려다주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그는 수녀님께 감사를 전하러 찾아와 선물을 가져왔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차를 끌어내실 수 있었나요? 여기서 불도저가 필요했을 텐데요.” 수녀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저기 보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셨어요!”

## 안나 세브추크

제가 카라간다에 도착했을 때, 세바스티안 신부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고, 아나스타시아와 아그니아 수녀님도 이미 고인이 되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원격 교육 과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왔고, 시험 기간 동안 미하일롭스카에 있는 신부님의 영적 자녀들 댁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저는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가끔 미하일롭스카야 교회에 들르곤 했습니다.

카라간다에 처음 도착했을 때(12월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내일이 신부님의 수호성인의 날이며 오늘 저녁에 파라스타스 예배가 있을 것이라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 예절을 잘 몰랐고, ‘파라스타스’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신부가 내 손을 잡고 교회 마당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나는 그 모습을 마치 안개 속처럼 흐릿하게만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이 “세바스티안 신부님, 세바스티안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만 들렸다. 신부님은 마치 손을 저으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듯했고, 저를 뜰 안으로 데려가며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성병, 저곳은 식당입니다.” 그리고 거리로 통하는 우리 대문 쪽에는 잔디밭 같은 곳이 있었고,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두 명의 수녀님이 앉아 음료를 따라주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름으로 불렀다. 아그니아 수녀님과 아나스타시아 수녀님. 신부님이 걸음을 멈추자, 수녀님들이 개울물 한 모금을 내게 마시게 해 주셨고, 나는 성당 안에 서 있었다. 성당 한가운데에는 우리 신부님들—페트르 신부님, 알렉산드르 신부님, 파벨 신부님, 블라디미르 신부님—이 서서 기도를 드리며 세바스티안 신부님을 추모하고 계셨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깼다.

제가 살던 집 벽에는 신부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이 초상화는 누구의 건가요?”라고 물었더니, 집주인 분들이 “세바스티안 신부님이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 방금 꿈에서 그분을 봤어요.” “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넌 ‘우리 편’이구나.”

그리고 몇 년 후,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카라간다에 남게 되었는데, 지금도 미하일롭스카야 교회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다.

교회에서 일한 첫 해, 나는 습관적으로 여전히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활절 주간에 가게에 들렀더니, 거기서 프랑스산 퍼 마스크라가 팔리고 있었다. 사고 싶었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다. “뭐,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다음에 다시 와서 사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꿈속에서 다시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서로 ‘크리스토스’라고 인사하며 “아나스타시아 수녀님,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수녀님도 모두와 ‘크리스토스’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나만 빼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녀님은 나를 모르시겠지.” 그런데 갑자기 수녀님이 제게 다가오시더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부활절 달걀로 제 달걀을 톡 치시더니 깨뜨리셨습니다. 수녀님은 무척 기뻐하시며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르 키셀레프 신부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화장품 가방을 손에 들고는 “수녀님,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으시겠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니 그 안에 그 마호라 마스크라가 들어 있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수녀님, – 제가 말했어요, – 전 그걸 사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수녀님이 저를 껴안으며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화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요. 그리고 계속 저에게 무언가를 먹이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전 그저 지나가다 가게에 잠깐 들렀을 뿐인데, 어머니는 모든 걸 아시고 걱정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아나스타시아는 나를 교회 성가대에 세워 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러 갈 때면, 서서 조용히 따라 불렀죠. 그런데 꿈속에서는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사제들이 성당 한가운데에 마치 대성가처럼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성가대석에는 마투슈카가 평소처럼 소박한 세속 옷을 입고 서서 저를 부르고 계셨죠. 그런데 나는 무서워졌다. ‘어떻게 가나, 여기 신부님들이 서 계시는데!’ 그때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내 손을 잡고 성가대석으로 데려가 구세주 성화상 앞에 세우시더니 “주님의 기도를 바치렴”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내가 읽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외우기 시작했다. 그 꿈 이후로 성가대원들이 나를 성가대석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노래해, 그게 다야.’ 그리고 알렉산드르 신부님께서는 “그 소녀는 왜 거기 서 있나요?”라고 물었다. 나를 성가대석에 세우자, 나는 그렇게 성가대석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 마리아 페도로브나 오를로바

저는 피부 질환으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조교수님들과 교수님들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고, 조금 나아지는 듯하다가도 다시 팔에 커다란 상처가 생기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가지 못하다가 다시 갔을 때,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왔니?” “수녀님,” 제가 말했죠, “정말 괴로웠어요. 제 손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일하러 갈 수도 없고, 다들 저를 피하잖아요.” 수녀님이 말씀하셨어요. “쯔! 그게 뭐 대수라고! 그건 별거 아니야! “자,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상처 부위에 십자 모양으로 발라 봐.” 그래서 수녀님 앞에서 바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끊임없이 침을 뱉어 상처에 발랐죠. 그러자 상처가 순식간에 나았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붉고 염증이 심했던 상처들이 처음에는 어두워졌다가, 그다음에는 파랗게 변했고, 상처가 점점 줄어들더니, 하느님 덕분에 모두 나았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는, 저를 마치 희귀한 표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의자에 앉혀 놓고, 모든 의대생들이 얼마나 드물고 심한 삼출성 홍반인지 볼 수 있게 했었죠.

### 올가 세르게예브나 마르티노바

제 조카 이리나는 창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고로 수입 침대보 30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리나와 직원들이 사기를 치려 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그건 오직 신만이 아시겠지만—매장 직원들이 창고에 와서 침대보를 수령할 때, 수령 확인만 하고 서명만 했습니다. 서류는 매장으로 가져왔지만 침대보들은 창고에 남아 있었다. 송장은 있는데 침대보는 없다. 그런데 누군가 이 사실을 누설했고, 매장은 급히 문을 닫고 봉인되었으며, 감사위원회가 매장에 상주하게 되었다. 조카딸은 그날 밤 잠을 못 잤고, 이른 아침에 내게 달려와 말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그녀에게 아무 조언도 해줄 수 없었다. “가자,”라고 말하며, “아나스타시아 수녀님께 가보자, 수녀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우리는 찾아갔다.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은 성가대석에 계셨고, 우리는 수녀님께 다가가 서류가 가게에 있고 이불은 창고에 있으며, 이 일이 드러나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 수녀님이 말씀하시며 이리나에

게 말하십니다. ‘너 지금 당장 가서, 화장실 오수를 퍼내는 데 쓰는 차를 찾아. 침대보를 챙겨서 그 가게로 가. 마당에 차를 세우고 기다려. 가게에서 양동이를 두 개 든 청소부가 나오면, 그 청소부에게는 다가가지 마. 잠시 후 또 다른 청소부가 역시 양동이를 두 개 들고 나올 거야. 바로 그 청소부에게 재빨리 다가가서 침대보를 건네주고 이렇게 말해: ‘그냥 아무 데나 던져 댕, 단지 실내에만 있으면 돼.’”

이리나는 그대로 했다. 필요한 차를 찾아 가게에 도착했고, 의심받지 않을 만한 차라 뒷마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화장실을 청소하러 온 차로 보였으니까. 이리나는 첫 번째 청소부를 지나치고 두 번째 청소부에게 달려가, 그 사람이 침대보를 받아 가게 안에 던져 놓자 모든 일이 끝났다.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녹음 파일도 침대보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내 아들 스테판 스테파니치가 대학에 지원할 시기가 되었다. 나는 어머니께 찾아가 말했다. “어머니, 스테판이 대학에 지원하는데, 그를 도와주셔야 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오! 그건 아주 간단해. 아들이 시험을 치르는 날을 알아보고, 그 날들에 교회에 와서 10코페이카짜리 빵 40개를 여기로 가져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아들이 4점을 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대로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을 치르자마자 빵 40개를 가져갔죠. 거기서 순식간에 다 가져가고 나눠주더라고요. 아들이 시험을 보고 돌아와 4점을 보여줬다. 다음 시험 때도 똑같이 했다. 총 네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매번 40개의 빵을 가져다주었고, 아들은 모든 시험에서 4점을 받았다.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스테판 스테파니치는 대학에 합격했다.

## 니나-호흐루슈카

어느 금요일, 제가 일하던 병원 직원들이 저를 설득해 소시지를 먹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교회에 가서 전례에 참석했습니다. 전례가 끝난 후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모두에게 성수를 나눠 주시더니 저에게 “이리 와 보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수녀님은 나를 때리기 시작하며 교회 전체를 향해 소리치셨다. “아, 돼지야! 아, 돼지야!” 나는 깜짝 놀랐다. 도대체 무슨 ‘돼지’라는 건가? “수녀님, – 내가 소리쳤다. – 성수 좀 주세요!” 하지만 수녀님은 주지 않으시고 계속 나를 때리셨다. 사람들이 몰려들며 “우크라이나 소녀를 때리고 있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이건 돼지야!”라고 소리쳤습니다. 소시지가 아마 돼지고기로 만든 것이었나 봅니다.

그녀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나니, 나는 진정하고 세바스티안 신부님께 축복을 받으러 갔어요. 신부님께 다가가니,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길: “니나! 오늘 네 이름날이구나! — 채찍으로 맞았다는 뜻이겠지 — 자, 여기 프로스포라를 받아라!” 그렇게 두 분은 영적으로 소통하셨던 거죠.

## 수도사 세바스티안(흐미로프)

어느 날, 오른쪽 성가대가 서 있는 현관에서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내려오시더니, 성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소리치셨다. “누구에게 손수건을 줄까? 누구에게 검은 손수건을 줄까?” 다른 현관 쪽으로 다가가니, 거기서 모티아 미나예바가 말하길: “어머님, 저에게 검은 손수건을 주세요. 전 검은 손수건이 없거든요.” 그러자 그녀가: “아니, 없으니 필요도 없어.” 하고는 계속 걸어갔다. 그런데 문 쪽, 출구 근처에 우리 유모가 서서 떨며 말하길: “아이고, 저분이 나한테 검은 손수건을 주실 거야. 분명 꿈

찍한 일이 일어날 징조일 거야.”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그녀에게 다가가 물으셨다. “손수건이 필요해?” “아니요,” 우리 유모가 말했다. “저한테 검은 손수건이 세 개나 있는데, 필요 없어요.”

“글쎄, 네게 세 개나 있으니 이걸 받아.” 하고는 검은 스카프를 건넸다. 그녀는 우리 유모가 수녀가 될 것을 예견했던 것이다.

### 수녀 예브니키야(흐미로바)

아나스타시아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성스러운 광인의 길을 걷도록 축복을 받았을 때, 첫 번째 과제는 주머니를 들고 구걸하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어떤 일이라도 시키셔도 좋으니, 제발 구걸하러 다니게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죠. ‘아니, 아니,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서 구걸하러 다니라는 거야.’ 저는 주머니를 들고 나갔어요. 마침 어떤 명절이었는지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저는 낡은 옷을 걸치고 주머니를 들고 가고 있었죠. 아이들이 ‘저 아가씨 참 예쁘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어찌지? 나에 대해 말하는 거잖아’라고 생각했죠. 그러자 그들이 말하길: ‘저 애를 좀 차려입히면, 그야말로 누가 될까!’ 나는 그때 어떤 창고 같은 곳에 기어 올라가서, 콧물을 닦은 뒤 내 몸에 뿌렸다. 그러자 그들이: ‘오—라고 말하더라—저 애는 못생겼어! 못생겼어!’ 그제야 마음이 한결 편해져서 나는 걸어갔다. ‘아! – 생각했지, – 난 이미 못생겼구나! 이제 나는 바보처럼 행동해야겠구나.’ 그렇게 평생 지냈지.”

오펜나 푸스티니에서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장로의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는 그를 따라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장로님은 나스티아가 방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미리 아셨는지,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셨죠. 나스티아는 문을 열고 문턱에 앉아서 문을 막아놓고 앉아 있었어요. 밖은 날씨가 끔찍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장작을 더 넣으러 왔더니, 방 안은 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스티아는 문가에 옷을 거의 벗은 채, 드레스와 스카프만 걸친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문을 막고 앉아 있어 문을 닫을 수 없었다. 신부님이 달래며 말했다. “자, 나스티야, 문을 닫게 해 줘!” 그런데 그녀는 침묵했다. 그러자 신부님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문을 닫은 뒤 난로를 지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곳에서 쫓아내고 때리기도 했지만, 신부님은 때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방을 따뜻하게 데우자, 교회에서 한 노승이 찾아왔다.

카라간다에 와서는 어머니가 가끔 꾸짖곤 했다. 멜콤비나트에 우리 가족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 젖소가 한 마리 있었고, 그들은 젖소에서 나온 것—사워크림도, 우유도—모두 장터에서 팔았다. 좀 욕심이 많았다. 어느 날 팔려고 사워크림을 준비해 놓고는, 정작 자신들은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오셔서 그 사워크림으로 반죽을 만들어, 팔빵을 산더미처럼 구워 내시더니 “드세요!”라고 하셨죠. 사워크림을 전부 써버렸죠. 집주인들은 당연히 그녀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런데 그녀가 또 다른 날, 그들이 장에 나간 틈을 타 텃밭에서 오이를 몇 개 따서 한데 모아 뒀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몹시 화를 냈죠 (속상해하며. – 편집자 주): “이게 대체 뭐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니고, 얼마나 정성껏 가꿨는데!” 그건 저녁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이유도 없

이 서리가 내려 텃밭의 작물을 모두 검게 얼려버렸습니다. 주인들은 불평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나는 주님께서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때로는 신부님께서 그녀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꾸짖기도 하셨다. 어느 날, 아직 교회가 지어지지 않아 신부님께서 멜콤비나트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저녁 식사 후 신부님께서 모두에게 잠자리를 배정하기 시작하셨다. 아나스타시아 어머니께 말씀하셨다. “너는 스테파니다 댁에서 자거라.” 그녀는 스테파니다 댁으로 갔다. 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묵게 해 주세요!”라고 했다. “우리네는 자리가 없어요.”라고 대답하며 들여보내 주지 않았다.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텝아니다 댁에서 하룻밤을 묵으라는 축복을 받았으니, 아무리 추워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문턱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물론 신부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녀가 얼어 죽을 리는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집 주인들이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수녀가 문턱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눈이 내렸고, 눈더미에 파묻혀 있던 그녀는 벌떡 일어나 몸을 털며 말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방해했네요.” 그러나 신부님은 이 사람들의 무정한 마음을 찌르기 위해 일부러 그녀를 보낸 것이었다. 그러자 그들은 어머니에게 달려가며 외쳤다. “아나스타시아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녀는 몸이 아픈 데다 옷도 거의 벗은 상태였고, 겨울밤은 춥기 그지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찢렸다. “우리가 그렇게 대했구나, 우리에게겐 잘 곳도 있었는데.” 그 후 그들은 신부님께 회개를 하러 갔고, 결국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또 다른 날, 신부님이 교회에서 추도 미사를 집전했을 때, 아나스타시아 수녀가 벌떡 일어나 추도 제단 위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지팡이로 그녀를 때리며 말씀하셨다. “너, –라고 하시며, – 가져간 것을 제단에 놓았느냐?” – “아니요, 신부님, 놓지 않았어요.” “그럼 왜 가져가는 거냐? 위령예배는 신성한 것이다. 위령예배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 네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 아나스타시아 수녀는 물론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도넛은 그녀에게 필요하지도 않았다. 신부님과 아나스타시아 어머니는 장례식 제단에서 손을 뻗어 물건을 훔치는 자들을 꾸짖었다. 그들에게 이는 교훈이 되었다. 장례식은 신성한 자리라는 것을 새기게 되었고, 신부님이 아나스타시아 어머니를 지팡이로 때리던 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했다.

우리가 어머니를 장사 지낼 때, 장례식이 끝난 후 저와 장례식에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종 나 데즈다 자매의 오른쪽 다리에 시베르카처럼 보이는 파란 반점이 생겼습니다. 긁어도 소용없고, 메스꺼우며, 머리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9일째까지 우리는 고통받았는데, 다리가 부어오르고 그녀도 저도 몸이 안 좋았습니다. 9일째 되는 날,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추모식에 오셨습니다. “수녀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 장례식 후에 다리에 이상한 게 생겼어요.” 수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장화가 있어. 내 장화를 신어 봐.” 그런데 한 켤레는 천으로 된 거대한 장화였고, 다른 한 켤레는 왼쪽 발용 가죽 장화였는데, 그건 좀 더 작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그 형겔 부츠를 주시며 “자, 신어. 이제 저녁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신고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 부츠는 세 네 개의 발이 들어갈 만큼 큼니다. 나디의 부츠는 왼쪽 발용이라 조금 더 작았죠. 우리는 어머니께 제 아버지의 지퍼 달린 부츠를 신겨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이리나 수녀님[스키히구메니아 이리나(코로레바), 1916년 – † 1993년 10월 17일. 미하일롭스키 묘지에 안장됨.]께 말씀하셨다. “아이들에게 지팡이를 하

나씩 줘.” 그래서 어머니는 마당에서 굵고 투박한 지팡이 몇 개를 가져오셨다. 내 지팡이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편이었는데, 나디의 지팡이는 정말 구불구불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팡이를 짚고, 그 장화를 신고 교회로 향했다. 나는 검은색 판바르하트 드레스를 입고, 새하얀 바티스트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 이리나는 찢어진 더러운 반모자 같은 걸 머리에 두르고 계셨다. 내가 말했다. “왜 그런 누더기 같은 걸 머리에 두르셨어요? 제가 어머니 다리에 묶어 드렸잖아요. 머리에 덮을 게 없으신 거예요?” “아니, –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 괜찮아, 괜찮아.” 뭐, 어머니께서 괜찮으시다면, 나도 뭐 할 말이 없지. 교회에 도착했다. 의료진인 모티아가 우리를 보고는 “와! – 소리치며, – 미친 척하고 있네! 미친 척하고 있어!”라고 했다. 그녀는 어머니 아나스타시아가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고, 우리 다리가 끔찍하게 아파서 찢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 후 내가 촛불을 켜다가, 내 바티스트 스카프에 불이 붙어버렸다. 이리나 수녀님이 달려오시더니: “오, 오, 오!” 하며 내 머플러를 벗기시더니, “자, 여기 내 거야,” 하고는 찢어진 반모자로 나를 덮어주셨다. 이제 나는 성유 예식에 가야 했는데,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물론 좀 부끄러웠어요. 다들 “왜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왔어?”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찌겠어요? 다리가 아프잖아요. 뭐, 됐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말씀하시길: “내일은 가지 마세요. 집에 누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날은 세례자 요한의 목 베임 축일이었어요). “그러면 다리도 낫고, 머리도 아프지 않을 거야.” 나데와 나는 교회에서 돌아와 다리를 살펴봤더니—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모든 상처가 아물었고, 통증도 가라앉았죠.

### 마리아 니키티치나 오브라즈초바

아나스타시아 어머니는 장난꾸러기였어요. 신부님이 어딘가로 가려고 할 때면, 차 한 대를 소녀들로 가득 채우고 신부님 아내들을 태우지만, 아나스타시아 어머니는 데려가지 않으셨죠. 그러면 그녀는 “우!” 하며 차를 툭 치고는 소리쳤어요. “나한테 헐렁한 옷이라도 좀 줘!” 즉, 입을 만한 옷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그녀에게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거의 옷을 다 벗은 채 신부님보다 앞서 달려갔습니다. 신부님이 도착하면 그녀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죠. 평생 단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부님을 진심으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도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 리디아 블라디미로브나 주코바

유리아의 어머니께서 임종을 맞이하실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다, 아나스타시아 어머니께서도 건강이 안 좋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부님을 옹티나 푸스티냐로 모셔갈 때, 나를 잊지 마세요.’ 아나스타시아 어머니께서는 유리아에게 그렇게 꾸짖으셨고, 유리아는 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1975년, 미하일롭스카야 교회를 미트로폴리트 요시프(체르노프)가 다시 한번 방문했다. 주교님께서는 종종 수녀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과의 이번 만남에서 어머니께서는 작별 인사를 하셨다. “축복해 주십시오, 주교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교님께서는 이 예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셨다. 여름, 알마아타에서 모스크바 신학교 학생들이 그를 방문했을 때, 주교님께서는 식

탁에 앉아 그 중 한 명인 페트르 베레텐니코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페티야, 첼리노그라드로 가자. 그리고 첼리노그라드에서 카라간다로 들러 아나스타시아 어머니를 질타해 주자.”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정이 그렇게 흘러가서 주교님께서는 첼리노그라드에서 곧바로 알마아타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셨고, 1975년 9월 4일 요시프 대주교는 수술 도중 병원에서 별세하셨다.

아나스타시아 수녀는 1977년 4월 13일에 세상을 떠났다. 임종 전에 스키마 수녀 서원을 받았다. 미하일롭스키 묘지에 안장되었다.

### 프로토이레르 미하일 네이구姆

나는 어머니 아나스타시아가 성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눈에 띄지 않는 성스러움을 지닌 성자였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자신의 영성을 항상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녀의 영성은, 예를 들어 어떤 예언이나 예지가 실현될 때만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녀는, 제 생각에는 심지어 의도적으로 약간 거친 면모를 보였고, 걸을 때 몸을 흔들며 걷고, 항상 발을 질질 끌며, 온갖 잡다한 말들을 모두에게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모나 행동만 보고 판단한다면, 영적으로 높은 삶을 살고 있다는 어떤 암시도 전혀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좀 더 정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으며, 그녀를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 그런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그 성인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사이가 틀어지자, 아나스타시아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녀는 모두를 달래고, 모든 이를 화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녀로부터 직접 그녀의 사랑과 친절함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세바스티안 신부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후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군대에 입대했다가 돌아왔을 때, 제게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고, 한동안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저에게서 마치 한 발 물러선 듯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에게 기계 기름을 바른 감자를 먹게 하거나,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날계란을 마시게 하거나, 마치 제가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여성용 술을 두르고 버스를 타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나는 그때 이미 어른이었지만, 여자용 술을 두르고 도시 전역을 가로질러 갔다. 어머니가 “가서 산책로에서 한쪽 다리로 뛰어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성당 주변 산책로에서 한쪽 다리로 걸으며 뛰곤 했다. 그런데 왜 달렸을까요? 어머니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내면의 친근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건 분명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머니께서 그 모든 소박함과 다소 투박한 면모에도 불구하고, 상상하기조차 힘든 정도로 매우 섬세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다. 비록 어쩌면 내가 아나스타시아 어머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친절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나는 그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저는 오로지 갈로시를 신은 그녀의 커다란 발렌카만 보았고, 모두가 그녀를 매우 존경한다는 것과, 그녀가 저를 가까이 불러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잘 대해준다는 사실에 자만심을 느꼈

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브도키야 어머니 댁으로 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성인들의 행적을 읽곤 했는데, 나는 그곳에서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나는 그저 무의식적으로 성스러운 사람들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다. 수녀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다. 그곳의 모든 분위기는 아주 조용하고 평온했다. 나는 어디로도 가고 싶지 않았고, 집에도 가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녀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게 전부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후 나는 신학교에 입학했다. 어느 날 방학을 마치고 세르기예프 포샤드로 돌아가야 했는데, 나는 모스크바행 비행기 표를 샀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나를 보내주지 않으셨다. 마치 나를 놀리는 듯이 억지로 막으셨다. 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나는 겉으로는 암전한 척하고 있었지 – 한쪽 다리로 뛰기도 하고, 날계란을 마시기도 했으니까. 나는 아주 순종적인 척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나와 이야기하실 때, 나는 한 번 비행기 표가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무시하셨다. 그때 나는 모스크바에 정말 가고 싶었고, 그곳으로 몹시 달려가고 싶었다. 그래서 수녀님이 나를 붙잡아 두어 지각하게 될 때면, 당연히 속이 상했다. 나는 화가 났고, 이를 갈았다. 그 순간 나는 심지어 어머니의 성스러움과 통찰력까지 의심했다. 마음속으로조차 어머니를 모욕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저 내 비행기 표를 빼앗아 가시고는 가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때... 그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나는 그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도 나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틀 뒤 같은 편으로 떠났다.

가끔 아그니아 수녀님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조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분이 매우 병약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손가락은 모두 구부러져 있었는데, 다발성 관절염과 수종, 그리고 다른 병들도 앓고 계셔서, 어떤 높은 탁자를 의지해 간신히 움직이셨지만, 결코 아프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나중에 떠올려 보니)도 제 마음을 무척 깊이 울렸습니다. 보통 여성들은 아그니아 수녀님과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에 대해 “저 수녀님들, 와! 정말 대단해!”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그니아 수녀님은 내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아그니아 수녀님은 마치 작은 아기 같았고, 연약한 아기 같았으며, 아주 아주 연로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어린 아기 같았고, 저와 대화할 때도 어린 아기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수녀님들에 대해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어요. 다만 그분들의 특별한 점은, 정말로 예지력이 뛰어나셨고 진정으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들이셨다는 것뿐이에요. 겉으로는 겸손하고 온화한 할머니처럼 행동하셨죠. 사실, 아나스타시아 수녀님은 가끔 화를 내시기도 했는데, 말투가 아주 거칠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저에게는 항상 사랑스러운 할머니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그니아 수녀님도 어떤 사람에게 조금 거칠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도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저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제가 겁을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낯선 종교에서 온 소년이었으니, 겁을 주지 않으려고요.

지금 내 평생의 삶을 되돌아보니, 내 삶에는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수녀님들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수녀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 세상에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내 삶에 그런 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저는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그분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교감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으며, 매일 그분들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